수정마개

Le Bouchon de cristal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12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06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e Bouchon de cristal » (1912)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e Bouchon de cristal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6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두 개의 배가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정원에서 뻗어 나온 작은 부두에 묶여 있던 배들이었다. 짙은 안개 너머로 호숫가 곳곳에 불이 켜진 창문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정면에는 앙당 카지노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록 9월의 마지막 날들이었지만 말이다. 구름 사이로 몇몇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수면을 살짝 일으켰다.

아르센 뤼팽이 시가 한 대를 피우던 키오스크에서 나와, 부두 끝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로냐르? 발루?… 거기 있나?"

두 배에서 각각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나자, 한 명이 대답했다.

"네, 보스."

“준비해라. 기르베르와 보쉐레가 타고 온 자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정원을 가로질러, 비로소 골조가 드러나기 시작한 공사장 집 한 채를 빙 돌아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살짝 열어, 외곽 순환도로로 이어지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커브 너머로 밝은 빛이 번뜩였다. 그리고 대형 오픈카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두 남자는 턱을 감싸는 높은 칼라가 달린 패딩 코트를 입고, 모자를 눌러썼다.

길베르와 오슈레였다.

길베르는 스물, 스물두 살쯤 된 청년이었다. 얼굴은 상냥했고, 몸놀림은 유연하면서도 힘이 넘쳤다. 반면 오슈레는 키가 작고, 머리는 이미 새까맣게 물들지 않은 회색빛이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병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그래, 의원을 봤나?”

뤼팽이 물었다.

“네, 보스.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7시 40분 파리행 열차를 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길베르가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해도 되는 건가?"

"물론이다. 마리테레즈 빌라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기브르는 건드리지 않은 채, 뤼팽이 그를 향해 말했다.

"여기에 주차하지 마라. 눈길을 끌 수 있다. 정각 아홉 시 삼십 분에 다시 와라. 짐을 싣고 떠날 준비를 하려면 그 시간에 맞춰야 해. 만약 작전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왜 작전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브르가 물었다.

자동차는 사라졌고, 뤼팽은 새로운 동행자들과 함께 호숫가 도로를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했다.

"왜? 내가 직접 준비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관여하지 않은 일에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다."

"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스. 저는 이미 삼 년 동안이나与您 함께 일했습니다. 당신의 수법을 이제 다 알고 있답니다!"

"그래, 아들아. 네가 먼저 시작해. 바로 그 점이 내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야."

뤼팽이 말했다.

"자, 타라. 그리고 너, 오슈르네, 저 배를 타."

"좋아. 이제 수영을 시작해, 아이들. 소음은 최소화하는 게 좋겠어."

그로냐르와 르 발루, 두 명의 노 젓는이가 Casino 건물 왼쪽稍向으로 향해 곧장 강을 가로질렀다.

먼저 한 척의 배를 만났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꼭 안고 허둥지둥 떠내려가는 배였다. 이어 또 다른 배가 보였다.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뤼팽이 옆에 있던 동료를 가까이 하며 낮게 물었다.

"얘기야, 길베르. 이 작전을 생각해 낸 건 너냐, 아니면 오슈르네냐?"

"글쎄, 나도 잘 모르겠군. 우리 둘이 수주 동안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해 왔으니까."

"바쉐레가 마음에 걸려. 성격이 영 찌질하거든. 속마음도 더럽고. 왜 안 쫓아냈는지 나 스스로도 의아할 정도야."

"오! 사장님!"

"진짜야. 저 녀석은 위험한 놈이야. 게다가 마음속에 좀 심각한 죄악을 안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도의원 도브레크를 확실히 봤다는 거야?"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사장님."

"파리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것도 알고 있나?"

"극장에 간다고 했죠."

"좋아. 하지만 그의 하인들은 앙기앵에 있는 별장에 남아 있잖아."

"요리는 해고됐고요. 도의원 도브레크의 신임을 받는 하인 레오나르만 파리에 남아 있죠.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는 새벽 한 시까지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

"다브레크의 변덕스러운 성미를 노려야 해. 기분이 급변할 수도 있고, 뜻밖의 귀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 한 시간 안에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게 좋겠지."

"그런 정보를 네가 다 알고 있었단 말인가?"

"오늘 아침부터 알고 있었어. 바로 그 순간이 적기라고 생각해, 보셰레와 나는 서둘렀지. 출발점은 우리가 막 나와서 이제 떠난 그 공사 중 주택의 정원으로 정했어. 밤에는 경비가 없거든. 보트를 몰아줄 동료 두 명에게도 미리 알렸고, 너에게는 전화로 연락했어. 그게 다야."

"열쇠는 가지고 있나?"

"현관 계단의 열쇠는 있네."

"저기 멀리, 공원 한가운데 있는 빌라가 바로 다브레크의 집인가?"

"네, 마리테레즈 빌라죠. 다른 두 채와 마찬가지로 정원이 둘러싸고 있는 곳인데, 일주일째 아무도 살지 않아요. 마음대로 짐을 옮길 수 있죠. 그리고 사장님, 이 일만큼은 보람이 있어요."

뤼팽이 중얼거렸다.

"너무나도 쉬운 일이야. 재미가 없군."

그들은 작은 만(灣)에 닿았다. 썩어빠진 지붕 아래로 몇 단계의 돌계단이 올라갔다. 뤼팽은 가구를 옮기는 일이 수월할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빌라에 사람이 있군. 봐라… 불빛이 하나 보인다."

"가스등이에요, 사장님. 불빛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로냐르는 배 옆에 남아 경계 임무를 맡았다. 다른 노 젓는이 르발루는 외곽도로의 철문가로 향했고, 뤼팽과 두 동료가 그림자 속을 기어 내려와 계단 아래까지 도달했다.

길베르가 먼저 올라섰다. 더듬거리며 찾은 끝에, 그는 먼저 자물쇠 열쇠를, 이어 안전 문고리 열쇠를 꼽았다. 두 열쇠 모두 쉽게 돌아갔다. 문이 살짝 열리며 세 남자가 들어갈 틈이 생겼다.

현관에는 가스등이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보십시오, 사장님……" 길베르가 말했다.

"응, 응……" 뤼팽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여기서 온 게 아닌 것 같군."

"그럼 어디서?"

"글쎄, 나도 모르겠네…… 거실은 여기인가?"

"아니요." 길베르는 조금 큰 소리를 내도 괜찮다는 듯 대답했다. "조심 차원에서 모든 걸 1층으로 옮겼어요. 자기 방과 옆방에 다 모아뒀죠."

"계단은요?"

"커튼 뒤, 오른쪽이에요."

뤼팽이 커튼 쪽으로 걸었다. 이미 천을 젖히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 네 발짝쯤 앞에서 문이 열렸다. 창백한 얼굴에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가진 한 남자의 머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도와줘! 살인자야!…"

그가 비명을 지르자마자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레오나르야! 하인이지!" 길베르가 외쳤다.

"말썽을 피우면 쏴 버리겠다." 보쉐레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보쉐레, 이제 좀 조용히 해라." 뤼팽이 다그쳤다. 그는 이미 하인을 쫓아내고 있었다.

그는 먼저 식탁이 놓인 방을 지나쳤다. 램프 곁에는 아직 접시와 병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부엌 구석에서 레오나르를 다시 만났다. 레오나르는 창문을 열려다 실패한 채 그곳에 서 있었다.

"제발 가만히 있어, 예술가야! 장난치지 마!… 아, 이 멍청이!"

레오나르가 팔을 들어 올리자, 뤼팽은 순식간에 바닥에 엎어졌다. 어둠이 깔린 부엌에서 세 번의 총성이 울렸다. 곧이어 하인이 넘어졌고, 뤼팽은 그의 다리를 붙잡아 총을 빼앗은 뒤 목을 조르며 그를 누르고 있었다.

"참으로 멍청한 놈이군. 조금만 더했어도 내가 망가졌을 텐데."

그가 중얼거렸다.

"보카레, 이 신사를 묶어주게."

그는 손전등으로 하인의 얼굴을 비추며 비웃듯 말했다.

"저 남자, 좀 그렇군. 정신이 맑지 못한 게 분명해, 레오나르. 게다가 다브렉 공화국 하원의원 밑에서 시중드는 신세라니……."

"다 끝났어요, 보슈레."

"정말?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절대로요."

"어쨌든, 서둘러야 해. 보슈레, 램프를 들고 올라가자."

그는 길베르의 팔을 잡아끌며 1층으로 향했다.

"바보야! 그게 어떻게 조사하는 방식이야? 내가 의심한 게 맞았지."

"저기요, 사장님. 그가 마음을 바꿔서 저녁 식사하러 돌아올 줄 누가 알았어요."

"도둑질을 하려면 모든 걸 알아야 해. 천만의 말씀, 보슈레, 너도 같이 잡혔네. 너희 둘은 정말 재주가 있군."

1층에 놓인 가구들을 보니 뤼팽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금 몇 점의 미술품을 손에 넣은 수집가처럼 목록 작성에 착수했다.

"헛, 물건은 많지 않지만 제격이군. 이 의회 의원도 눈이 있구만."

"오부송산 안락의자 네 개. 서명까지 있는 서랍장, 내 추측엔 페르시에-퐁텐 작품이겠지. 구티에르스산 벽걸이 등 두 개. 진짜 프라고나르도 있고, 가짜 나티에도 한 점. 이걸 미국 억만장자가 눈 깜짝할 새에 사갈 정도야."

"결국 재산이나 다름없어. 그런데 진품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시끄럽게 떠드는 구두쇠들이 있더군. 크레블뤼! 그들이 내처럼 해보게. 직접 찾아보라고."

뤼팽의 지시에 따라 길베르와 보슈레는 즉시 가장 무거운 가구를 체계적으로 치우기 시작했다. 반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첫 보트가 가득 찼고, 그로나르와 르 발루가 앞서 나가 자동차 적재를 시작하기로 했다.

뤼팽은 그들의 출발을 지켜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을 지나칠 때 그는 부엌 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레오나르는 혼자였다. 배를 바닥에 붙인 채 엎드려 있었고,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다.

"투덜대는 게 바로 너였군, 충직한 하인 양반? 겁먹지 마. 거의 다 끝났으니까. 다만 너무 크게 소리를 지르면 우리도 더 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배 좋아하나? 원한다면 '재갈 배'를 하나 물려 주지 — 입을 꽉 막아 주는 걸로 말이야…"

다시 올라가려던 순간, 그는 또다시 같은 말소리를 들었다. 귀를 기울이자, 부엌 쪽에서 굵고 신음하는 듯한 목소리가 분명히 들려왔다.

"도와줘! 살인자야! 도와줘! 나 죽는다! 경찰서장한테 알려!"

"이 영감, 완전히 미쳤군." 뤼팽이 중얼거렸다. "세상에, 밤 아홉 시에 경찰을 귀찮게 하다니, 참으로 예의 없는 짓이로군."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 찬장에서 그냥 지나치기엔 아까운 값진 골동품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슈레와 길베르가 어찌나 꼼꼼하게 뒤지는지 그는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결국 그는 참다못해 짜증을 냈다.

"그만해!" 그가 명령했다. "남은 잡동사니 몇 개 때문에 일을 망치고 자동차를 마냥 세워 둘 순 없어. 난 탄다."

그들은 이미 물가에 서 있었고, 뤼팽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길베르가 그를 붙잡았다.

"보스, 한 번만 더 다녀와야 합니다. 오 분, 딱 오 분이면 됩니다."

"대체 왜!"

"실은… 오래된 성유물함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굉장한 물건이라고요."

"그래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엌이 떠올랐는데… 거기 큰 자물쇠가 달린 벽장이 있잖아요. 보스도 아시다시피 저희끼리는 도저히 못 열겠더라고요."

그는 이미 현관 쪽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보슈레도 뒤따라 나섰다.

"십 분! 그 이상은 안 돼." 뤼팽이 외쳤다. "십 분 뒤엔 나도 빠진다."

하지만 십 분이 다 지나도록 그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시계를 확인했다.

"아홉 시 십오 분…… 이건 미친 짓이야."

게다가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삿짐을 옮기는 내내 길베르와 보슈레가 꽤 이상하게 굴었다는 것을. 서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를 감시하는 듯한 태도였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뤼팽은 자신도 모르게, 까닭 모를 불안에 이끌려 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동시에 그는 멀리 앙갱 쪽에서 낮고 둔하게 울리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마도 산책객들이겠지.

뤼팽은 재빨리 호각을 불었다. 그러고는 큰길 주변을 한번 살펴보려고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였다.

그가 문짝을 당기는 순간, 총성이 한 발 울렸고 뒤이어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다. 뤼팽은 달려 돌아와 집을 빙 돌아서 현관 계단을 뛰어올라 식당으로 돌진했다.

"젠장, 너희 둘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길베르와 보슈레가 격렬하게 뒤엉켜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며 마룻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옷은 피로 흥건했다.

뤼팽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미 길베르는 상대를 제압하고 그의 손에서 무언가를 빼앗고 있었다. 뤼팽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 미처 알아볼 새도 없었다.

한편 어깨에 입은 상처로 피를 흘리던 보슈레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누가 다치게 했어? 너야, 길베르?" 뤼팽이 성이 나서 물었다.

"아니요… 레오나르가요."

"레오나르? 그는 묶여 있었잖아…"

"줄을 풀고 권총을 다시 손에 넣었죠."

"이 악당! 지금 어디 있어?"

뤼팽은 램프를 집어 들고 부엌으로 들어섰다. 하인은 등을 대고 누워 있었다. 두 팔을 십자 모양으로 벌린 채 목에는 단검이 꽂혀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입에서는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 뤼팽이 시신을 살펴본 뒤 더듬거리며 말했다. "죽었어!"

"정말… 정말 그런가요?" 길베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죽었다니까."

길베르가 더듬더듬 말했다.

"보슈레가… 찔렀어요…"

분노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뤼팽이 그를 움켜쥐었다.

"바로 보슈레야. 그리고 너도다, 이 비열한 놈. 거기 있으면서 그냥 내버려뒀잖아… 피라니! 피를 보다니! 내가 그런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희도 잘 알잖아.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아, 너희들은 안됐지만 어쩔 수 없어… 사고를 쳤으면 그 값을 치러야지. 그 대가는 비싸… 단두대를 조심하라고!"

시신을 본 뤼팽은 격분했고, 길베르를 거칠게 흔들며 물었다.

"왜?… 왜 보슈레가 그를 죽인 거야?"

"그를 뒤져서 벽장 열쇠를 빼앗으려고요. 그런데 그에게 몸을 숙였을 때, 레오나르가 두 팔을 풀어낸 걸 봤죠. 그는 겁이 났고… 그래서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 총소리는?"

"레오나르 짓이에요. 손에 총을 쥐고 있었거든요. 죽기 직전에 간신히 힘을 짜내 겨눴던 거죠."

"벽장 열쇠는?"

"보슈레가 가져갔어요."

"열었나?"

"그래서, 찾았어?"

"너는 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했지. 무슨 물건이었나? 성유물함? 아니, 더 작았군. 그럼 대체 뭐였다고? 얼른 대답해."

길베르의 침묵과 단호한 표정을 보고, 그는 대답을 얻어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위협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말했다.

"너, 입을 열 거야, 친구야. 뤼팽의 신념으로, 네게 자백을 받아낼 테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도망치는 게 급선무다. 자, 도와다오. 보슈레를 싣자고."

그들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있었다. 길베르가 부상당한 사람 쪽으로 몸을 굽히려던 순간, 뤼팽이 그를 막았다.

"들어 봐!"

두 사람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부엌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었다. 아주 낮고 기이하며,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확인했다. 방 안에는 죽은 자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라곤 그 어두운 실루엣뿐이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날카로웠다가, 숨죽였다가, 떨리다가, 고르지 않게 새되었다가 하며 공포를 자아냈다. 그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와 끊어진 음절들을 내뱉고 있었다.

뤼팽은 자신의 이마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일관성 없고 신비로운, 마치 저승에서 들려오는 듯한 이 목소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하인 위로 몸을 굽혔다. 목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더 밝게 비춰 봐, 길베르."

그는 조금 떨고 있었다. 도무지 억누를 수 없는 신경질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길베르가 전등갓을 치우자, 그 목소리가 시신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동도 없는 몸뚱이가 꿈틀거린 것도 아니고, 피투성이 입술이 떨린 것도 아니었다.

"보스, 무서워요." 길베르가 더듬거렸다.

또 같은 소리가 났다. 똑같은, 콧소리 섞인 속삭임이었다.

뤼팽이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고는 재빨리 시신을 붙잡아 옆으로 옮겼다.

"완벽해!" 빛나는 금속 물체를 발견하며 그가 말했다. "완벽하군! 바로 이거였어… 참, 정말 오래도 걸렸다!"

그것은 바로 그가 방금 드러나게 한 자리에 놓여 있던 전화기의 수화기였다. 전선은 벽에 보통 높이로 고정된 전화기 본체까지 이어져 있었다.

뤼팽은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댔다.

거의 즉시 다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 소리가 뒤섞인 것이었다. 갖가지 부르는 소리, 외침, 엇갈리는 고함 — 여러 사람이 서로를 불러대며 떠드는 소음이었다.

"여보세요?… 더는 대답이 없어… 끔찍하군… 살해당한 모양이야…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힘내세요… 구조대가 가고 있습니다… 경찰도… 군인도…"

"제기랄!" 뤼팽이 수화기를 떨어뜨리며 내뱉었다.

끔찍한 환영 속에서 진상이 그의 눈앞에 드러났다.

맨 처음, 이삿짐을 옮기는 동안, 결박이 그리 단단하지 않았던 레오나르가 용케 몸을 일으켜 — 아마도 이빨로 — 수화기를 떼어 떨어뜨리고는 앙갱 전화국에 구조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뤼팽이 이미 한 번 들었던 그 말들이었다. 첫 번째 보트가 떠난 직후 들려온 "도와줘… 살인자야! 나를 죽이려 한다…"라는 외침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전화국의 응답이 되어 돌아왔다. 경찰이 달려오고 있었다. 뤼팽은 불과 사오 분 전, 정원에서 들었던 그 웅성거리는 소리를 떠올렸다.

"경찰이라니… 다들 알아서 도망쳐." 뤼팽이 식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가며 내뱉었다.

길베르가 따졌다.

"보슈레는요?"

"그 친군 어쩔 수 없지."

하지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보슈레가 지나가는 그를 붙잡고 애원했다.

"보스, 저를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뤼팽은 위험을 무릅쓰고 멈춰 섰다. 길베르의 도움을 받아 부상자를 들어 올리려던 찰나, 밖에서 소동이 일었다.

"너무 늦었어." 그가 말했다.

그때 뒤쪽 정면으로 난 현관문을 누군가 쾅쾅 두드려 흔들었다. 뤼팽은 현관 계단 쪽 문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집을 빙 돌아 들이닥치고 있었다.

어쩌면 그는 먼저 빠져나가 길베르처럼 물가까지 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의 총탄 아래서 어떻게 배를 타고 달아난단 말인가?

그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우린 포위됐어… 끝장이야…" 길베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조용히 해." 뤼팽이 말했다.

"하지만 저들이 우릴 봤어요, 보스. 보세요,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조용히 하라니까." 뤼팽이 다시 말했다. "한 마디도 하지 마… 꼼짝도 하지 말고."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얼굴은 말 그대로 차분했고, 태도는 신중했다. 위태로운 상황을 모든 각도에서 살피기에 충분한 여유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인생의 최고 순간'이라 부르던 때에 서 있었다. 바로 그 순간들만이 삶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위험이 닥쳐왔을 때, 그는 언제나 같은 습관을 들였다. 먼저 스스로를 다잡았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세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심장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박동이 안정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생각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압도적인 힘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다.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모든 단서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예견했고,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논리와 확신에 가득 찬 채, 결단을 내렸다.

서른 초에서 마흔 초쯤 지났을까. 문 두드리는 소리와 자물쇠 따는 소리가 요란할 때였다. 그는 일행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와."

그는 거실로 들어가, 옆으로 난 창문의 여닫이와 덧문을 살며시 밀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느라 도망치기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때였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헐떡이는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제가 잡았습니다!… 여기!"

그리고는 권총을 겨누어 나뭇가지에 두 발을 쏘았다.

그러고는 다시 보슈레에게 돌아가, 그 위로 몸을 굽혔다. 그리고 상처에서 흐르는 피로 자신의 손과 얼굴을 더럽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갑작스럽게 기베르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어깨를 움켜잡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스?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당신은 그냥 내 말만 들어." 뤼팽이 위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나는 모든 것에 책임지겠소. 당신 두 사람 모두를요. 그냥 내 말만 들어요. 내가 당신들을 감옥에서 꺼내주겠소.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오."

창문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소동을 피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여기요!" 뤼팽이 소리쳤다. "내가 이들을 붙잡았소! 도와주시오!"

그리고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잘 생각해보게. 나에게 할 말이 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말일세."

기베르는 분노에 차 몸부림쳤다. 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뤼팽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반면 보슈레는 더 눈치가 빨랐고, 부상 때문에 도망칠 희망마저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보슈레는 비웃듯 말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 바보야. 보스만 빠져나가면 되잖아. 그게 핵심 아니냐?"

그때 문득 뤼팽은, 기베르가 보슈레에게서 도로 빼앗아 주머니에 넣어 둔 그 물건을 떠올렸다.

이번에는 그가 그것을 손에 넣으려 했다.

"아니, 그건 절대 안 돼!" 기베르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는 간신히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다.

뤼팽은 다시 그를 제압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너머로 두 남자가 나타나자, 기베르는 순순히 항복했다. 그는 물건을 뤼팽에게 건넸고, 뤼팽은 보지도 않은 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기베르가 중얼거렸다.

"받으세요, 보스.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두 명의 경찰이 나타나고, 그 뒤를 더 많은 이들이 따랐다. 병사들까지 모든 출구로 몰려와 뤼팽을 구하러 온 것이다.

기베르는 즉시 제압되어 단단히 묶였다. 뤼팽은 몸을 일으켰다.

"잘됐군." 그가 말했다. "이 자식, 날 어지간히 애먹였거든. 다른 한 놈은 내가 쐈지만, 이 녀석은……"

경찰서장이 급하게 물었다.

"그 하인을 봤소? 저자들이 하인을 죽였소?"

"모르겠소." 그가 대답했다.

"모른다고?"

"글쎄요. 살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엔기앵에서 왔거든요. 다만, 여러분이 집 왼쪽을 도는 동안 저는 오른쪽을 돌았죠. 열린 창문이 하나 있더군요. 바로 그 두 괴한이 내려오려던 순간, 저는 그리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놈을 쐈고"

그는 보슈레를 가리켰다.

"그리고 동료를 붙잡았죠."

누가 그를 의심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였다. 바로 그가 하인 살해범들을 넘겨주고 있었으니. 열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가 벌인 영웅적인 격투의 결말을 지켜본 터였다.

소동이 너무 커져서, 누군가 차분하게 이유를 따지거나 의심을 품을 여유조차 없었다.

초반의 혼란 속에서 현지 주민들이 빌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들 당황해했다. 사람들은 위층과 아래층, 심지어 지하실까지 오가며 발버둥 쳤다. 서로를 부르짖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뤼팽의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확인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부엌에서 시체가 발견되자, 경찰서장은 자신의 책임을 다시 깨달았다. 그는 지시를 내려 집안 사람들을 퇴거시키고, 정문에 경찰을 배치해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현장을 점검하기 시작해, 조사를 시작했다.

보슈레는 자신의 이름을 댔다. 기베르는 변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만 말하겠다며 자기 이름 대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범행을 추궁당하자, 그는 오히려 보슈레를 고발했다. 보슈레는 도리어 그를 몰아붙이며 자신을 변호했고, 두 사람은 동시에 떠들어대며 경찰서장의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속내를 뚜렷이 드러냈다.

경찰서장이 증언을 들으려 뤼팽 쪽으로 돌아섰을 때, 그는 그 낯선 남자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별다른 의심 없이 경찰서장은 한 경찰관에게 말했다.

"저분께 내가 몇 가지 묻고 싶다고 전해 주게."

사람들이 그 남자를 찾았다. 누군가 그가 현관 계단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러자 그가 군인 무리에게 담배를 권하고는, 필요하면 부르라는 말을 남기고 호수 쪽으로 멀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병사가 달려왔다. 그 신사는 방금 배에 올라타서 노를 세게 저어가고 있었다.

경찰서장은 기베르를 바라보며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 자를 잡으라! 쏘아라!" 그가 외쳤다. "저 자는 공범이야!"

그는 자신도 두 명의 경찰관과 함께 뛰어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포로 곁에 남아 있었다. 강가에서 그는 약 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신사가 어둠 속에서 모자를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찰관 한 명이 권총을 난사했지만 헛수고였다.

바람이 말소리를 실어왔다. 신사는 노를 저으면서도 노래하고 있었다.

"가자 작은 선원, 바람이 너를 밀어주네…"

그러나 경찰서장은 이웃 저택의 부두에 묶여 있는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했다. 그들은 두 정원을 가르고 있던 울타리를 넘는 데 성공했고, 경찰서장은 군인들에게 호숫가를 감시하다가 도주자가 뭍에 오르려 하면 즉시 체포하라고 지시한 뒤, 두 부하와 함께 그를 쫓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간헐적으로 비추는 달빛 아래에서 도주자의 움직임을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호수를 가로질러 건너려 했지만, 오른쪽, 즉 생그라티엔 마을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고 있었다.

게다가 경찰서장은 곧, 부하들의 도움과 아마도 가벼운 배 덕분에 자기들이 점점 속도를 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10분 만에 그는 둘 사이 거리의 절반을 따라잡았다.

"됐어." 그가 말했다. "저자가 상륙하는 걸 막는 데 보병들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겠어. 저자가 대체 어떤 놈인지 꼭 알고 싶군. 제법 배짱이 있는 놈이야."

더욱 기이한 것은 거리가 비정상적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도망자가 싸움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포기한 듯했다. 경찰들은 더욱 힘껏 노를 저었다. 작은 배는 물 위를 미끄러지듯 빠르게 나아갔다. 이제 기껏해야 백 미터 남짓, 곧 그 남자에게 닿을 참이었다.

"멈춰!" 경찰서장이 명령했다.

상대방의 웅크린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노는 힘없이 물길을 따라 떠내려갔다. 그 미동 없는 모습에는 어딘가 불안한 구석이 있었다.

이런 부류의 무법자라면 공격자들을 기다렸다가 목숨을 비싸게 팔며, 미처 덤비기도 전에 총격으로 적들을 쓰러뜨릴 수도 있었다.

"항복하라!"

경찰서장이 외쳤다.

이때 밤은 캄캄했다. 세 남자는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누군가 위협하는 몸짓을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배는 관성에 실려 상대편 배로 다가가고 있었다. 경찰서장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총 맞고만 있을 순 없지. 쏴 버리자. 준비됐나?"

그는 다시 소리쳤다.

"항복해… 안 그러면…"

대답은 없었다. 상대는 움직이지 않았다.

"항복해라. 무기를 버려. 안 하겠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센다… 하나… 둘…"

경찰관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곧장 총을 쏘았고, 즉시 노 위로 몸을 굽혀 배를 힘차게 밀어붙였다. 몇 번의 노질 끝에 배는 목표에 다다랐다.

총을 손에 쥔 채, 경찰서장은 미세한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가 팔을 뻗었다.

"움직이면, 네 머리를 박살 낸다."

하지만 적은 아무런 몸짓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노를 내려놓고 무시무시한 돌격을 준비하며 배가 맞닿는 순간, 경찰서장은 그 수동적인 태도의 까닭을 깨달았다.

보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적은 헤엄쳐 달아났던 것이다. 그는 승자의 손에 훔친 물건 몇 가지를 남겨 두었다. 그 물품 더미 위에 재킷과 중산모가 얹혀 있어, 희미한 어둠 속에서는 어렴풋이 사람의 흐릿한 실루엣처럼 보일 만했다.

성냥불빛 아래에서 적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살펴봤다. 모자 안쪽에는 어떤 이니셜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재킷 안에는 서류도 지갑도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발견이 있었다. 이 발견은 사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길베르와 보슈레의 운명을 치명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었다. 도망자가 주머니에 깜빡 잊고 두고 간 명함, 바로 아르센 뤼팽의 명함이었다.

거의 같은 시각, 경찰은 나포한 배를 끌고 가며 막연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었다. 강가에는 군인들이 늘어선 채 가만히 서서, 해전의 광경을 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때, 바로 그 아르센 뤼팽은 두 시간 전 떠나왔던 바로 그곳에 차분히 도착하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두 동료 그르나르와 르발루를 만났다. 그는 급히 그들에게 몇 마디 설명을 건넸다. 그리고는 바로 자동차에 올라탔다.

자동차 안에는 도브레크 의원의 안락의자와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뤼팽은 모피로 몸을 감싸고, 한적한 도로를 따라 뇌이까지 차를 몰게 했다. 뇌이에 있는 그의 가구 창고에 다다르자, 그는 운전기사를 내보냈다.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파리로 돌아왔다. 택시는 생필립뒤룰 근처에서 멈췄다.

그는 근처 마티뇽 거리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그 방에는 독립된 출입구가 있었다. 그 사실을 그의 동료들 중에서는 길베르만 알고 있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몸을 문질러 따뜻하게 하며 흐뭇해했다. 체격이 건장한 편이었지만, 이미 몸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주머니 속을 모두 털어 벽난로 위에 올려놓았다. 그제서야 그는 지갑과 열쇠 옆에 무언가 놓인 것을 발견했다. 바로 직전에 길베르가 그의 손에 쥐여준 그 물건이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병마개였다. 작은 수정 마개였는데, 리큐르 병에 꽂는 그런 마개와 똑같았다.

그리고 그 수정 마개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다. 뤼팽은 다면체로 된 마개의 머리 부분이 가운데 홈까지 금도금되어 있다는 점만 눈여겨 보았을 뿐이다. 하지만 사실, 그 어떤 세부 사항도 그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게 바로 길베르와 보슈레가 그렇게도 집착했던 유리 조각이군! 그래서 그들은 하인을 죽였지. 그래서 그들은 싸웠고, 그래서 시간을 허비했으며, 그래서 감옥살이는 물론 중죄 재판, 심지어 단두대까지 무릅썼단 말이야!… 거참, 정말 우스꽝스럽군!"

그는 이 사건을 더 자세히 파고들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아무리 흥미진진해 보였더라도 말이다. 그는 마개를 벽난로 위에 도로 내려놓고 침대로 향했다.

그는 악몽을 꾸었다. 감옥의 돌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길베르와 보슈레가 절박하게 두 손을 그에게 내밀며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들이 외쳤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끔찍한 환영에 사로잡힌 그는 장례 준비, 사형수들의 마지막 단장, 그리고 음산한 비극이 벌어지는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제기랄!" 그는 연이은 악몽에서 깨어나며 말했다. "이건 참으로 불길한 징조군. 다행히 우리가 정신이 약한 건 아니니까.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나……."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게다가 우리 곁에는 훌륭한 부적이 하나 있지. 길베르와 보슈레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면, 그 부적은 뤼팽의 도움과 더불어 나쁜 운수를 물리치고 정의가 승리하도록 해 주기에 충분할 거야. 수정마개를 한번 살펴볼까!"

그는 일어나 그 물건을 집어 더 자세히 살펴보려 했다.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수정 마개가 사라져 있었다.

제2장

뤼팽과 나는 사이가 좋았고, 그는 나에게 자랑스러울 만큼의 신뢰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가지를 결코 완전히 파헤치지 못했다. 바로 그의 조직에 관한 것이었다.

그가 무리를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사건들은 수없이 많은 헌신, 막강한 에너지, 강력한 공모가 맞물려야만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힘은 오직 한 명의 위대한 의지에 복종한다.

그런데 그 의지는 어떻게 발동될까? 어떤 중간 매개자를 통해, 어떤 하위 지휘부를 거쳐? 나는 알 수 없다. 뤼팽은 자신의 비밀을 철저히 감춘다. 그리고 뤼팽이 감추고자 하는 비밀은 말하자면, 절대 뚫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추측은 이렇다. 이 조직은 내 생각에 규모가 매우 작지만, 그만큼 더 무서운 존재다. 여기에 각계각층의 독립 세력이나 임시 가맹 세력이 합류하면서 조직이 완성된다. 이들은 전 세

계 어디에서나 뽑힌 실행 요원들이다. 종종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조차 모르는, 그 어떤 권위의 하수인들이다.

뤼팽의 직접 지휘 아래 주연 역할을 맡는 이들, 즉 동료이자 정통 회원이며 신념을 가진 자들은 마스터와 오가며 왕복한다.

길베르와 보슈레도 분명 그런 자들 중 하나였다. 그래서 법정이 그들에게 그토록 가혹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뤼팽의 공범을 붙잡은 것이다.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 없는 공범이었다. 그리고 그 공범이 살인을 저질렀다.

그 살인이 미리 계획된 것이라면, 그리고 강력한 증거로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단 하나, 단두대였다.

그리고 분명한 증거가 적어도 하나는 있었다.

레오나르가 죽기 몇 분 전에 걸려온 전화 말이다.

"사람 살려요! 살인이에요!…… 저들이 절 죽이려 해요!"

절박한 외침이었다. 이 전화를 들은 사람은 두 명이었다. 당직 직원과 그의 동료였다. 두 사람은 단호하게 이 사실을 증언했다.

그 전화 직후, 즉시 통보받은 경찰서장은 부하들과 휴가 나온 병사 한 무리를 거느린 채 마리테레즈 빌라로 향했다.

아르센 뤼팽은 첫날부터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가 사회와 벌여 온 치열한 싸움은 이제 새롭고도 끔찍한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운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살인 사건이었다. 뤼팽 자신조차 분노를 금치 못할 그런 범죄였다. 더 이상 재미있는 절도 사건이 아니었다. 어딘가의 벼락부자나 부패한 금융가를 한바탕 등쳐먹은 뒤 사람들의 웃음과 지지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던, 그런 유쾌한 절도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동료를 구하기 위해 방어해야 했다. 그들의 목숨을 구해야 했다. 그런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가 평소 자신의 고민을 적고 곤란한 상황을 정리하던 노트, 그 한 페이지에 적힌 짧은 기록이 그의 이어지는 생각을 보여준다.

일단 확실한 게 있다. 길베르와 보슈레가 나를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이다.

앙기앵으로 떠난 그 작전은 표면적으로는 마리테레즈 저택을 털기 위한 것이었지만, 속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다. 작업 내내 그들은 그 목적에 사로잡혀 있었다. 가구를 들추고 찬장 깊숙이 손을 넣는 모든 순간, 그들이 찾던 것은 오직 하나, 수정마개뿐이었다.

그러니 이 어둠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싶다면, 무엇보다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부터 알아야 한다. 분명 그들은 어떤 비밀스러운 이유로 그 신비로운 유리 조각을 엄청난 가치로 여기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지난밤 누군가가 대담하고도 교묘하게 내 아파트에 침입해 바로 그 물건을 훔쳐 갔으니 말이다.

이 도난 사건은 유난히 뤼팽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두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먼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방문자는 누구였을까? 마티뇽 거리 은신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길베르뿐이었다. 길베르는 뤼팽이 가장 신뢰하는, 개인 비서 노릇을 하던 자였다. 그런데 그 길베르는 이미 감옥에 있었다.

뤼팽은 길베르가 자신을 배신하고 경찰을 따라붙게 했다고 생각해야 할까?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경찰은 뤼팽 본인을 체포하지 않고 수정마개만 가져갔단 말인가?

하지만 훨씬 더 기이한 점이 있었다.

만약 누군가 그의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고 치자. 물론 그건 입증된 바가 없으니, 뤼팽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가정이긴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 안으로 침입했단 말인가?

매일 밤, 그는 절대 바꾸지 않는 습관대로 열쇠를 돌리고 빗장을 걸었다. 그런데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수정 마개가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자물쇠나 빗장에는 손댄 흔적조차 없었다.

게다가 뤼팽은 귀가 예리하다고 자부했다. 잠자는 동안에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그날 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는 별다른 고민 없이 결론을 내렸다. 이런 수수께끼는 사건이 진행되면서 저절로 풀리는 법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황한 그는 큰 불안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바로 마티뇽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닫아걸었다.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면서.

그러고는 곧바로 길베르, 보슈레와 편지를 주고받는 일에 매달렸다.

그쪽에서도 새로운 실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법부는 뤼팽의 공모를 확실한 근거로 입증할 수는 없었지만, 사건을 세느에우아즈가 아닌 파리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뤼팽을 상대로 이미 진행 중이던 일반 수사에 병합했다.

그리하여 길베르와 보슈레는 상테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상테 형무소든 사법궁이든 마찬가지였다. 뤼팽과 수감자들 사이의 모든 접촉을 막아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 경찰청장은 철저한 보안 절차를 지시했고, 말단 직원들까지 하나하나 그 지시를 꼼꼼히 따랐다.

낮이나 밤이나 길베르와 보슈레는 늘 같은 베테랑 요원들의 감시를 받았다. 요원들은 두 사람을 한순간도 눈에서 놓치지 않았다.

당시 뤼팽은 아직 사법경찰청장이라는, 그의 경력상 최고의 영예라 할 자리에 오르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그는 사법궁에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다.

보름간의 헛된 시도 끝에, 뤼팽은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속이 타들어가는 분노와 점점 커지는 불안감 속에서 그렇게 했다.

"일에서 가장 어려운 건 종종 끝맺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그런데 이번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느 길을 따라야 할까?

그는 도브레크 의원을 돌아보았다. 수정마개의 첫 소유자이자,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인물이었다. 한편, 길베르는 어떻게 도브레크 의원의 행적을 꿰고 있었을까? 어떤 감시 수단을 썼던 걸까? 도브레크가 그날 밤을 보내는 장소를 누구로부터 들었을까? 풀어야 할 흥미로운 질문들이 한가득이었다.

빌라 마리테레즈 도난 사건 직후, 도브레크 의원은 겨울을 나려고 파리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빅토르 위고 대로 끝에서 펼쳐지는 작은 라마르틴 광장 왼편에 자리한 자신의 저택에 머물렀다.

뤼팽은 미리 변장을 해 두었다. 지팡이를 짚고 한가로이 거니는 늙은 금리생활자 행색으로, 그는 그 일대 공원과 대로의 벤치에 자리를 잡았다.

첫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두 명의 남자가 있었다. 그들은 노동자처럼 옷을 입었지만, 그 태도만 봐도 정체가 드러났다. 그들은 의원의 저택을 감시하고 있었다. 도브레크가 밖으로 나가면, 그들은 그를 뒤쫓았다가 그의 뒤를 따라 돌아왔다. 밤이 되어 불이 꺼지자, 그들은 곧장 사라졌다.

이번엔 뤼팽이 그들을 미행했다. 그들은 치안국(사법경찰) 요원들이었다.

'어이, 어이.' 그가 생각했다. '예상치 못한 일이군. 도브레크가 의심을 받고 있는 건가?'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해 질 무렵 여섯 명의 인물이 두 사람과 합류했다. 그들은 라마르틴 광장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중에서 뤼팽은 한 사람을 알아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키와 태도로 보아, 바로 저 유명한 프라스빌이었던 것이다. 전직 변호사이자 전직 스포츠맨, 전직 탐험가였던 그는 현재 엘리제 궁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묘한 이유로 경시청 사무총장에 임명된 자였다.

그때 뤼팽은 문득 떠올렸다. 2년 전, 팔레부르봉 광장에서 프라스빌과 도브레크 의원 사이에 격렬한 주먹다짐이 벌어졌던 일을 말이다. 그

사연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날 바로 프라스빌은 결투 입회인을 보냈지만, 도브레크는 결투를 거부했다.

얼마 후, 프라스빌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뤼팽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프라스빌의 거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일곱 시가 되자 프라스빌 일행은 앙리마르탱 대로 쪽으로 조금 멀어졌다. 저택 오른쪽에 붙은 작은 정원의 문이 열리며 도브레크가 나왔다. 두 요원이 그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고, 그 역시 따이부 거리의 전차에 올랐다.

그러자 프라스빌은 곧장 광장을 가로질러 초인종을 눌렀다. 철문이 저택과 관리인 별채를 이어주고 있었다. 관리인 여자가 나와 문을 열었다. 그들은 잠시 속삭이듯 수군거렸고, 그런 뒤 프라스빌과 동료들은 안으로 안내되었다.

"불법적이고 은밀한 주거 수색이군." 뤼팽이 말했다. "엄격히 예의를 따지자면 나를 불렀어야 마땅하지. 내가 있어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 없으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는 저택으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지 않았다. 주변을 살피던 관리인 여자 앞을 지나며,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던 사람인 양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그분들 와 계신가?"

"네, 서재에 계십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누군가와 마주치면 납품업자라고 둘러댈 참이었다. 하지만 그럴 구실은 필요 없었다. 그는 텅 빈 현관을 지나 아무도 없는 식당으로 들어설 수 있었고, 식당과 서재를 가르는 통유리창 너머로 프라스빌과 그의 동료 다섯 명을 알아볼 수 있었다.

프라스빌은 가짜 열쇠로 서랍을 모조리 따고는 서류를 일일이 뒤졌다. 그사이 네 동료는 서가에서 책을 한 권씩 꺼내 페이지를 흔들고 제본 안쪽을 살폈다.

'결국 찾는 건 종이로군. 어쩌면 지폐일지도.' 뤼팽은 혼자 생각했다.

"이런, 멍청하군! 아무것도 못 찾겠어……" 프라스빌이 외쳤다.

하지만 그는 단념하지 않은 듯했다. 갑자기 오래된 리큐어 보관함에서 병 네 개를 집어 들더니, 마개 네 개를 모두 뽑아 살펴보았다.

'이런, 저 사람도 병마개에 손을 대는군.' 뤼팽은 생각했다. '그럼 종이가 아니란 말인가? 정말,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군.'

프라스빌은 이어 여러 물건을 들어 올려 살피더니 이렇게 물었다.

"여기에 몇 번이나 왔소?"

"지난겨울에 여섯 번 왔습니다."

"구석구석 샅샅이 살펴봤소?"

"방마다 며칠씩 머물며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때 그가 선거 유세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지금은 하인이 없소?"

"없습니다. 구하는 중입니다. 식사는 식당에서 하고, 관리인 여자가 그럭저럭 집안일을 챙기고 있죠. 이 여자는 저희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고요."

프라스빌은 한 시간 반 가까이 끈질기게 수색을 이어갔다. 장식품을 하나하나 들어 올려 만져 보면서도, 저마다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되돌려 놓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러나 밤 아홉 시가 되자, 도브레크를 미행하던 두 요원이 들이닥쳤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걸어서?"

"걸어서요."

"시간은 충분한가?"

"오! 그럼요."

프라스빌과 경시청 사람들은 방 안을 마지막으로 한 번 훑어보고, 방문 흔적이 남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서두르지 않고 물러났다.

상황은 뤼팽에게 위급해졌다. 나가면 도브레크와 마주칠 위험이 있었고, 머물면 더는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식당 창문이 곧장 광장으로 통하는 출구가 됨을 확인한 뤼팽은 머물기로 결심했다. 게다가 도브레크를 가까이서 볼 기회는 놓치기엔 너무 좋았고, 도브레크가 방금 저녁을 먹은 참이라 이 식당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다. 필요하면 통유리창에 쳐지는 벨벳 커튼 뒤로 언제든 숨을 수 있도록 준비한 채로.

문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서재로 들어와 다시 전등을 켰다. 도브레크였다.

그는 뚱뚱하고 다부진 사내였다. 목이 짧고 회색 구레나룻을 길렀으며, 머리는 거의 벗겨져 있었다. 그리고 눈이 몹시 피로한 탓에, 늘 안경 위에 검은 알의 코안경을 덧쓰고 있었다.

뤼팽은 그 얼굴의 강인함을, 네모반듯한 턱을, 불거진 뼈대를 눈여겨보았다. 주먹은 털이 무성하고 묵직했으며, 다리는 휘어 있었다. 그는 등을 굽힌 채, 한쪽 엉덩이에 무게를 실었다가 다른 쪽으로 번갈아 옮기며 걸었는데, 그래서 어딘가 사수류(원숭이) 같은 풍모가 다소 풍겼다. 하지만 그 얼굴 위로는 거대하고 일그러진 이마가 솟아 있었다. 골짜기처럼 패고 혹처럼 불거진 그 이마가 얼굴 전체를 압도했다.

전체적인 인상은 어딘가 짐승 같고, 혐오스럽고, 야만적인 데가 있었다. 뤼팽은 의회에서 사람들이 도브레크를 '숲의 사나이'라 불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렇게 부른 것은 그가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외따로 지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외모와 몸가짐, 걸음걸이, 그리고 강력한 근육질 체격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주머니에서 해포석 파이프를 꺼냈다. 꽃병에서 마르고 있던 여러 담배 봉지 중 메릴랜드 담배 한 봉지를 골라 띠지를 뜯고, 파이프에 담배를 꾹꾹 채워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채 가만히 있었다. 시선은 책상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갑자기 작은 우표함을 집어 들어 살펴보았다. 이어서 프라스빌이 만졌다가 제자리에 돌려놓은 물건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는 그것들을 눈으로 살피고 손으로 만져 보며 몸을 숙여 들여다보았다. 마치 오직 자신만 아는 어떤 표시가 무언가를 알려주기라도 할 것처럼.

마침내 그는 전기 벨의 손잡이를 쥐고 버튼을 눌렀다.

1분 후, 관리인 여자가 나타났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그들이 왔지, 그렇지?"

여자가 망설이자, 그가 다그쳤다.

"이봐, 클레망스, 이 작은 우표함을 연 게 자네인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 난 뚜껑을 좁다란 풀칠 종이로 봉해 뒀거든. 그 띠가 끊어져 있더군."

"하지만 저는 분명히……" 여자가 말을 꺼냈다.

"왜 거짓말을 하나?" 그가 말했다. "내가 직접 자네더러 그 모든 수색에 순순히 응하라고 일러두지 않았나."

"그건……"

"그건 자네가 양쪽에서 다 받아먹는 걸 좋아해서겠지…… 좋아."

그는 오십 프랑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며 다시 물었다.

"그들이 왔나?"

"봄에 왔던 그자들 말인가?"

"네, 다섯 명 모두…… 그들을 지휘하는 다른 한 명과 함께요."

"키가 큰가?…… 갈색 머리인가?……"

뤼팽은 도브레크의 턱이 굳는 것을 보았다. 도브레크가 말을 이었다.

"그게 전부야?"

"그들 뒤에 또 다른 한 명이 와서 합류했어요. 그러다 방금 전, 평소 호텔 앞에 경비를 서던 두 명이 더 왔죠."

"그들이 이 방에 남아 있었나요?"

"네, 선생님."

"그리고 제가 도착할 무렵에 떠났나요? 어쩌면 몇 분 전쯤?"

"네, 선생님."

"좋아."

여자는 나갔다. 도브레크는 다시 서신 작성에 몰두했다. 그러다 팔을 뻗어 책상 끝에 놓인 하얀 노트에 무언가 기호를 적었다. 그러고는 그 노트를 마치 눈에서 떼지 않으려는 듯 세워 두었다.

그것은 숫자들이었다. 뤼팽은 그 뺄셈식을 읽어낼 수 있었다.

9 — 8 = 1

그리고 도브레크는 주의 깊은 표정으로 그 음절들을 이 사이로 또박또박 읊조렸다.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또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아주 짧은 편지였다. 그리고 봉투에 어떤 주소를 적었는데, 편지가 노트 옆에 놓이자 뤼팽이 그 주소를 알아볼 수 있었다.

« 경찰청 사무총장 프라스빌 귀하. »

그리고 그는 다시 종을 울렸다.

"클레망스." 그는 관리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릴 적에 학교에 다녔나요?"

"네, 물론이죠, 선생님."

"계산법도 배웠고요?"

"음, 선생님……."

"계산 실력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런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9에서 8을 빼면 1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보시다시피 이건 더없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기본 진리를 모른다면 살아갈 수조차 없거든요."

말을 하는 동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등 뒤로 한 채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고는 한 바퀴 더 돌았다.

그리고 식당 앞에 멈춰 서서 문을 열었다.

"게다가 이 문제는 다른 식으로도 말할 수 있죠." 그가 말했다. "아홉에서 여덟을 빼면 하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하나가 바로 여기 있죠, 안 그래요? 계산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분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명백한 증거를 제공해 주시는군요."

그는 벨벳 커튼을 툭툭 두드렸다. 뤼팽은 그 커튼 주름 속에 재빨리 몸을 숨긴 참이었다.

"정말이지, 선생, 거기 밑에서 숨이 막히시겠어요! 게다가 제가 단검으로 이 커튼을 푹푹 찔러 재미 삼을 수도 있었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햄릿의 광기와 폴로니우스의 죽음을 떠올려 보시죠…… '쥐다, 내 말하건대, 커다란 쥐야……' 자, 폴로니우스 씨, 구멍에서 나오시죠."

뤼팽이 익숙하지 않고 또 몹시 싫어하는 처지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남을 함정에 빠뜨려 놀려먹는 것은 그도 인정했지만, 자신이 조롱당하고 자기를 두고 누가 폭소를 터뜨리는 것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반격할 수 있었겠는가?

"조금 창백하시네요, 폴로니우스 씨…… 어라, 그런데 며칠째 광장에서 하릴없이 서성거리던 그 점잖은 양반이시군! 당신도 경찰이십니까, 폴로니우스 씨? 자, 진정하십시오. 해칠 생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보십시오, 클레망스, 내 계산이 얼마나 정확한지. 당신 말로는 여기 아홉 명의 끄나풀이 들어왔다죠. 그런데 내가 돌아오면서 멀리 큰길

에서 세어 보니 여덟 명 한 무리였어요. 아홉에서 여덟을 빼면 하나가 남죠. 그 하나는 분명히 여기 남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래서요?" 뤼팽이 물었다. 그는 저 인물에게 달려들어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미칠 듯한 충동을 느끼고 있었다.

"그 뒤요? 천만에요, 별일 없습니다, 친구. 더 무엇을 바라시나요? 연극은 끝났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쓴 이 짧은 편지를 당신 주인인 프라스빌 씨에게 전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클레망스, 폴로니우스 씨를 배웅해 드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가 또 찾아오거든 문을 활짝 열어 드리고요. 여기는 당신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폴로니우스 씨. 그럼 이만……"

뤼팽은 잠시 주저했다. 그는 당당하게 굴며 작별의 한마디, 마지막 대사를 던지고 싶었다. 마치 무대 안쪽에서 객석을 향해 던지는 대사처럼, 멋지게 퇴장하며 최소한 전장의 명예만이라도 안고 사라지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패배가 너무도 처참했던 탓에, 그는 주먹으로 모자를 머리에 푹 눌러쓰고 발을 쾅쾅 구르며 관리인을 뒤따라가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보잘것없는 복수였다.

"이 못된 악당 같으니!" 밖으로 나온 그는 도브레크의 창문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비열한 놈! 쓰레기! 하원의원 나리! 이번 일은 반드시 갚아 주마…… 아, 이 양반이 감히 이런 짓을…… 아, 이 양반이 이런 배짱을…… 그래, 신께 맹세하건대, 언젠가 반드시……"

그는 분노로 입에 거품을 물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새로운 적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에서 그가 보여 준 능수능란함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도브레크의 냉정함, 경찰청 관리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자신감, 자기 집을 수색하러 온 자들을 대하는 경멸, 그리고 무엇보다 감탄스러운 침착함과 태연함, 자신을 감시하던 아홉 번째 인물 앞에서 보인 거리낌 없고 뻔뻔한 태도—이 모든 것이 그가 강단 있고, 강력하며, 균형 잡혀 있고, 명민하고, 대담하며,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손에 쥔 패에 확신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 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카드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는 무슨 게임을 하고 있었을까? 승부는 누가 걸고 있었나? 그리고 양측은 과연 어디까지 몰아붙인 상태였을까?

뤼팽은 알 수 없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숙인 채 그는 격렬하게 맞서 있는 두 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상대의 위치도, 무기도, 자원도, 숨겨둔 계획도 알지 못한 채로 말이다.

결국 그는,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얻어내려는 것이 수정 마개 한 개에 불과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를 기쁘게 한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도브레크가 자신의 정체를 간파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도브레크는 그를 경찰의 끄나풀쯤으로 여겼다. 따라서 도브레크도, 경찰도 이 사건에 제삼의 도둑이 끼어들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의심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으뜸 패였다. 그 패는 그가 극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의 자유를 그에게 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도브레크가 경찰청 사무총장에게 전하라고 건넨 편지를 뜯었다. 편지에는 다음 몇 줄이 적혀 있었다.

"바로 네 손이 닿는 곳에 있었지, 친애하는 프라스빌! 넌 그걸 만지기까지 했어!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텐데…… 하지만 넌 너무 멍청해. 나를 쓰러뜨리는 데 너보다 나은 자를 못 찾았다니, 원. 가엾은 프랑스여! 잘 있게, 프라스빌! 하지만 내가 너를 현행범으로 붙잡는다면, 그땐 네가 안됐지만 쏴 버릴 테다!"

"손이 닿는 곳에……"

뤼팽은 편지를 읽고 나서 되뇌었다.

"이 괴짜 녀석, 어쩌면 사실을 적어 놓았는지도 몰라. 가장 단순한 은닉처가 가장 안전한 법이지. 어쨌든, 어쨌든 그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리고 도브레크가 왜 그렇게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고, 그자에 대해서도 좀 조사해 둬야겠어."

뤼팽이 특별 흥신소에 의뢰해 얻어낸 정보의 요점은 다음과 같았다.

알렉시 도브레크는 부슈뒤론주 출신의 하원의원으로, 두 해째 의석을 지키며 무소속 의원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정치적 견해는 꽤 모호하지만, 후보 활동에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 덕분에 선거 기반은 매우 탄탄하다.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파리에 저택, 앙기앵과 니스에 별장을 두고 있으며, 도박으로 큰돈을 잃으면서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영향력이 막강하여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어내는데, 정작 부처에는 드나들지도 않고 정계에 이렇다 할 친분이나 인맥도 없어 보인다……

"상업용 카드군." 뤼팽이 메모를 다시 읽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필요한 건 사적인 카드, 경찰의 기록부야. 그 남자의 사생활에 대해 알려주고, 이 어둠 속에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자료. 그리고 내가 도브레크 사건에 얽매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주는 자료."

"참,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

당시 뤼팽이 자주 드나들던 집 중 하나는 샤토브리앙 거리, 개선문 근처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미셸 보몽이라고 불렀다. 집안은 꽤 안락했고, 하인 아실도 있었다. 아실은 뤼팽에게 매우 충성스러웠고, 그의 임무는 뤼팽의 부하들이 보내는 전화 연락을 모두 받아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뤼팽은 한 여공이 적어도 한 시간 전부터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뭐라고? 그런데 여기엔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잖아. 젊은 여자야?"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다니!"

"모자 대신 머리에 만틸라를 두르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일하는 여자 같아요…… 상점 점원 같은, 세련되지 않은……"

"누구를 찾던가?"

"미셸 보몽 씨를 찾았습니다." 하인이 대답했다.

"이상하군. 무슨 용건으로?"

"그저 앙기앵 사건과 관련된 일이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앙기앵 사건이라고! 그럼 내가 그 사건에 얽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 게다가 여기로 찾아오면 된다는 것까지……"

"그 여자한테서 더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들이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잘했어. 그 여자는 어디 있지?"

"거실에요. 불도 켜 두었습니다."

뤼팽은 잰걸음으로 대기실을 가로질러 거실 문을 열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가 하인에게 말했다.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다고요?" 아실이 달려들 듯 다가왔다.

과연 거실은 비어 있었다.

"아니, 세상에, 이거 정말 어처구니없네!" 하인이 소리쳤다. "조심하느라 다시 들여다본 게 채 이십 분도 안 됐어요. 그때 분명히 있었다고요. 제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니까요."

"이봐, 이봐." 뤼팽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 여자가 기다리는 동안 너는 어디 있었어?"

"현관에요, 두목! 단 한순간도 현관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나갔다면 제가 분명히 봤을 거라고요, 젠장!"

"그런데 더는 거기 없잖아……"

"분명히… 분명히…" 하인이 어리둥절해하며 신음했다. "인내심을 잃고 나가신 거죠. 하지만 도대체 어디로 나갔단 말인가, 빌어먹을!"

"어디로?" 뤼팽이 물었다. "점쟁이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요?"

"창문으로 나간 거야. 보라, 아직 살짝 열려 있잖아. 우리는 1층이고, 밤이면 거리에는 거의 사람이 없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것도 없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게다가 이 방에는 그 여자의 방문과 갑작스러운 실종을 설명할 만한 값비싼 소품이나 중요한 문서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영문 모를 도주를 한 걸까?

"오늘 전화는 없었나?" 그가 물었다.

"오늘 밤 편지는?"

"있어요. 마지막 우편으로 온 편지입니다."

"다오."

"늘 하던 대로, 선생님 방 벽난로 위에 올려뒀습니다."

뤼팽의 방은 거실과 붙어 있었지만, 두 공간을 잇는 문은 이미 뤼팽이 직접 막아둔 상태였다. 그래서 다시 현관을 거쳐 돌아와야 했다.

뤼팽이 전등을 켜고 잠시 뒤 말했다.

"없군."

"있어요. 컵 옆에 놔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선생님이 잘 안 찾고 계신가 봅니다."

아실이 컵을 옮기고 시계를 들어 올리고 몸을 숙여 살펴보았지만, 편지는 거기 없었다.

"아, 젠장… 젠장…" 그가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그 여자가 훔쳐 갔어… 그리고 편지를 손에 넣자마자 줄행랑을 쳤지… 아, 못된 년…"

뤼팽이 반박했다.

"너 미쳤나? 두 방 사이에는 통로가 없어."

"도대체 누가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주인님?"

두 사람은 모두 입을 다물었다. 뤼팽은 분노를 억누르며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그가 물었다.

"편지 잘 살펴봤나?"

"특이한 점은 없었나?"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봉투에 연필로 주소만 적혀 있었죠."

"아… 연필로?"

"네, 급하게 갈겨쓴 듯한 글씨였어요."

"주소를 적은 방식… 기억나나?" 뤼팽이 불안한 어조로 물었다.

"이상해 보여서 기억했어요…"

"말해! 어서 말해!"

"'드 보몽 미셸 씨'라고 적혀 있었죠."

뤼팽은 급히 하인을 흔들었다.

"'드(de)'가 있었나? 보몽 앞에? 그리고 '미셸'이 보몽 뒤에?"

"확실합니다."

"아…" 뤼팽이 목멘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건 길베르의 편지였어!"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고, 근육이 긴장되어 굳어 있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건 길베르의 편지였다.

수년 동안 그의 지시에 따라 길베르가 늘 그에게 연락할 때 쓰던 문구였다. 마침내 감옥 깊은 곳에서—그것도 얼마나 오래 기다린 끝에, 얼마나 많은 꾀를 부린 끝에!—편지를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을 찾아낸 길베르가 급하게 쓴 편지였다.

그런데 그 편지가 가로채인 것이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 불쌍한 죄수는 어떤 지시를 내렸을까? 어떤 도움을 호소했을까? 어떤 계략을 제안했을까?

뤼팽은 방을 살폈다. 거실과 달리 이 방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자물쇠는 어느 것도 부서지지 않았다. 그 여자에게는

길베르의 편지를 가져가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물었다.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 여자도 함께 있었나?"

"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관리인이 초인종을 누를 때였죠."

"그 여자가 봉투를 봤을 수도 있겠군."

결론은 저절로 나왔다. 남은 문제는 그녀가 어떻게 이 절도를 저질렀느냐는 점이었다. 바깥에서 이 창문에서 저 창문으로 기어 옮겨갔을까? 불가능했다. 뤼팽은 자신의 방 창문이 닫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두 방을 잇는 문으로 들어왔을까? 그것도 불가능했다. 뤼팽은 그 문이 닫혀 있고, 바깥쪽 빗장 두 개로 단단히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벽을 뚫고 지나갈 수는 없는 법이었다. 어딘가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려면 반드시 출입구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졌으니, 그 출입구는 이미 벽에 뚫려 있어야 했다. 물론 그 사실을 그 여자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추측은 수사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초점이 문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벽은 맨몸이었고, 찬장도 벽난로도 커튼도 없었다. 숨겨진 통로가 있을 리 없었다.

뤼팽은 거실로 돌아와 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그는 몸을 움찔 떨었다.

한눈에 봐도, 문짝의 가로대들 사이에 끼워진 작은 판 여섯 개 중 왼쪽 아래에 있는 하나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빛이 정면으로 비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가 몸을 숙이자, 마치 액자 뒤에 나무판을 받쳐 놓은 것처럼 그 판을 지탱하고 있는 가느다란 철못 두 개가 보였다. 뤼팽은 그것들을 벌리기만 하면 됐다.

순간, 작은 판이 떨어져 나왔다.

아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뤼팽은 반박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우리가 더 나아진 게 뭐가 있지? 길이 열다섯에서 열여덟 센티미터, 높이 사십 센티미터쯤 되는 빈 직사각형이 있을 뿐이야. 설마 이 여자가, 아무리 마른 열 살짜리 아이라도 빠져나가기엔 이미 너무 좁은 이 구멍으로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요. 하지만 팔은 넣어서 빗장을 당길 수 있었을 겁니다."

"아래쪽 빗장은 그렇지. 하지만 위쪽 빗장은 아니야. 거리가 너무 멀거든. 직접 해봐, 알게 될 테니."

아실은 정말로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요?" 그가 말했다.

뤼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명령했다.

"모자… 외투…"

그는 강한 생각에 떠밀리듯 서둘렀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택시에 몸을 던졌다.

"마티뇽 거리로, 빨리…"

방금 수정마개를 빼앗긴 집 현관 앞에 내려선 그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자신의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 거실로 달려가 불을 켠 뒤, 자신의 침실과 통하는 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맞았다. 작은 판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이었다.

샤또브리앙 거리 다른 집에서도 그랬듯, 팔과 어깨가 들어갈 만큼의 구멍은 위쪽 빗장을 당길 수 있을 만큼 넓지 않았다.

"젠장! 이럴 수가!"

두 시간 동안 끓어오르던 분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소리쳤다.

"개새끼 이름으로 맹세코, 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인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불운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막연한 추측으로 헤매일 뿐이었다. 그의 끈질긴 노력이나 상황 자체가 손아귀에 쥐여준 성공의 단초들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길베르가 수정마개를 그에게 맡겼다. 길베르가 편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지금까지 그는 우연히 겹친 여러 사건들이 서로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 상대는 놀라운 손재주와 상상할 수 없는 대담함으로 명확한 목표를 향해 그를 쫓아왔다. 뤼팽 자신은 가장 안전한 은신처까지도 공격당했다.

상대의 공격은 너무도 가혹하고도 예상치 못해, 정작 뤼팽 자신도 누구와 싸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모험사 중 그토록 큰 장애물에 부딪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미래에 대한 괴로운 공포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한 날짜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정의에게 내린, 복수의 일을 완수할 날이었다.

4월의 어느 아침, 두 명의 남자가 교수대에 오르는 날. 그들은 그의 곁을 걸어왔고, 함께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할 동지들이었다.

제3장

경찰이 자기 집을 수색한 그 이튿날,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도브레크 의원은 문에 들어서던 참에 관리인 클레망스에게 붙잡혔다. 클레망스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요리사를 한 명 구해 둔 것이었다.

몇 분 뒤에 나타난 그 요리사는 최고의 추천장들을 내보였는데, 서명한 사람들은 쉽게 연락해 확인할 수 있는 이들이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매우 부지런한 그녀는 하인 없이 혼자서 살림을 맡겠다고 했는데, 이는 감시당할 가능성을 줄이려던 도브레크가 내건 조건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근무지가 국회의원인 소를바 백작 댁이었으므로, 도브레크는 즉시 그 동료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를바 백작의 집사는 그녀에 대해 아주 좋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채용되었다.

짐을 들여놓자마자 그녀는 일을 시작해, 종일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했다.

도브레크는 저녁을 먹고 집을 나섰다.

열한 시쯤, 관리인이 잠든 틈을 타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원 철문을 살짝 열었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너야?" 그녀가 말했다.

"응, 나야. 뤼팽이지."

그녀는 그를 3층, 정원 쪽에 있는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 그러고는 곧바로 한탄했다.

"또 속임수, 늘 속임수뿐이군! 넌 왜 나를 온갖 일에 부려먹기만 하고 가만 내버려두질 못하는 거야?"

"뭐랄까, 비크투아르. 내가 겉보기는 단단하고 도덕성까지 갖춘 인물이 필요할 때, 생각나는 건 너뿐이야. 기특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또다시 늑대의 입속으로 던져놓고, 당신은 웃고만 있어요."

"당신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뭐가 있어?"

"위험이라니요… 제 모든 증명서가 위조품이에요."

"증명서는 원래 다 위조품이잖아."

"다보레크 씨가 눈치채면 어떡해요? 조사를 받으면 어떡하죠?"

"그는 이미 조사했지."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소살 백작의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어. 네가 supposedly(거짓말로) 봉직한 곳이지."

"나는 망했어요."

"백작의 집사는 너를 극찬했어."

"그가 저를 알 리가요."

"나도 알고 있어. 그걸 살레바 백작 댁에 넣은 건 바로 나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빅투아르는 조금 진정된 듯했다.

"좋아. 하느님의 뜻이든, 아니면 네 뜻이든 상관없어. 그런데 내 역할은 뭐야?"

"일단 여기 누워 있어. 예전에 네 젖을 먹으며 자랐잖아. 방의 절반쯤은 내게 양보해 줘도 되겠지. 나는 이 소파에서 자겠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필요한 식량을 준비해 줘."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지시에 따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일련의 조사를 시작해야 해.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요?"

"내가 말해 준 그 소중한 물건을 찾는 거야."

"뭐라고?"

"수정마개."

"수정마개라니! 예수님, 마리아님! 무슨 일이에요! 만약에 그 마개를 못 찾으면 어떡해요?"

뤼팽이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더니,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찾지 못하면, 길베르, 네가 잘 알고 아끼는 그 어린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야. 보슈레도 마찬가지고."

"보슈레는 상관없어. 저런 개쌍놈이 뭐."

"하지만 길베르 말이지."

"오늘 저녁 신문은 읽어봤나? 사건은 갈수록 꼬이고 있어. 보슈레는 당연히 길베르가 하인을 때렸다고 몰아붙이고 있어. 우연히도 보슈레가 사용한 칼이 길베르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아침에 입증됐지. 길베르는 똑똑하지만, 겁이 많은 아이라 얼버무리고 거짓말을 늘어놓았

어. 그 거짓말들이 아이를 완전히 몰락시킬 거야. 지금 상황이 이렇지. 너는 나를 도와줄 생각인가?"

자정, 의원이 귀가했다.

그때부터 며칠 동안 뤼팽은 도브레크의 일상에 완벽히 동화되었다. 도브레크가 호텔을 떠나자마자, 뤼팽은 수색에 나섰다.

그는 철저한 방법으로 진행했다. 각 방을 구역으로 나누고, 가장 구석진 곳까지 꼼꼼히 뒤졌다.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 때까지, 그는 어느 한 곳도 놓치지 않았다.

빅투아르도 함께 수색했다. 하지만 그들보다 더 철저한 곳이 없었다. 테이블 다리, 의자 지팡이, 마루판 틈새, 장식용 molding, 거울과 그림 액자, 시계, 작은 조각상 받침대, 커튼 밑단, 전화기, 전기 장치까지.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어디든 숨길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일일이 점검했다.

그들은 의원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무의식적인 제스처 하나, 눈빛, 읽는 책, 쓰는 편지까지.

그는 대낮에 사는 듯했다. 문은 결코 잠기지 않았다. 방문객도 없었다. 그의 일상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규칙적으로 돌아갔다. 오후에는 의회로 가고, 저녁에는 사교 클럽에 들르는 것.

"하지만 뤼팽이 말했다. '이 모든 것 속에 뭔가 비뚤어진 구석이 있을 거야.'"

"없어요. 제가 말한다고요." 빅투아르가 한숨을 쉬었다. "시간만 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둘 다 걸릴 거예요."

안전국 요원들이 창문 아래를 오가며 서성이는 모습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자신을 포위해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것以外的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래서 시장으로 갈 때마다, 어느 요원이 갑자기 어깨를 잡아끌지 않을까 봐 늘 긴장했다.

어느 날,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 채 돌아왔다. 팔에 든 식량 바구니가 덜덜 떨렸다.

"어떻게 된 일이지, 비크투아르? 네 얼굴이 창백하다."

뤼팽이 물었다.

"창백하다니요… 그렇죠… 그럴 만도 한데…"

그녀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간신히 힘을 모아 입만 열었다.

"한 사내가… 제게 다가왔어요… 과일 가게에서…"

"뭐? 그가 너를 납치하려 했나?"

"아니요… 그는 편지 한 장을 건네줬어요…"

"뭐 불평이야? 사랑 고백이겠지!"

"아니요. 그는 '보스분을 위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보스분'이라고 말했고요. '당신의 방에 사는 그분'을 위한 거라고요."

"뭐?"

이번에는 뤼팽이 몸을 떨었다.

"다오."

그가 말하며 봉투를 빼앗았다.

봉투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봉투가 들어 있었다. 뤼팽은 그 위에 적힌 글을 읽었다.

"이거 좀 세다."

그가 중얼거리며 두 번째 봉투를 찢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함께 이렇게 적힌 글이 들어 있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헛수고이며 위험합니다. 중단하십시오.

비크토르가 신음하며 기절했다.

뤼팽은 귀밑까지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가장 무례하게 모욕이라도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가장 은밀한 의도가 적의 비웃는 목소리로 공개되는 duel(결투) 참가자처럼,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비크토르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끝없이 같은 말을 되뇌었다.

"왜 하필 생각이지? 생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어. 이 사건에 나 혼자만 관여한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 도브르크와 경찰 사이에, 나라는 '셋째 도둑' 말고도 '넷째 도둑'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녀석은 내 사정을 잘 알고, 내 수법을 눈치채고 있어. 그런데 그 넷째 도둑이 대체 누구지?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 귀찮아. 자자, 자자."

하지만 그는 잠들 수 없었다. 밤의 절반이 그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새벽 네 시쯤, 그는 집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도브르크가 먼저 1층으로 내려온 뒤, 정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1분 뒤, 의원이 대문을 열어젖히고는 한 사내를 데리고 들어왔다. 사내는 거대한 모피 칼라 속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의원은 그를 자신의 서재로 안내했다.

이런 사태를 미리 예상한 뤼팽은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 서재와 침실 창문 모두 집 뒤쪽에 있어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발코니에 밧줄 사다리를 걸어 부드럽게 내려뜨렸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따라 서재 창문 높이까지 내려갔다.

창문은 닫힌 창문판으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창문이 둥근 형태라, 반원형의 작은 창문(임포스트)은 열려 있었다. 뤼팽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작은 창문을 통해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지켜볼 수 있었다.

그가 눈치챈 순간, 그가 남자로 착각했던 사람은 여자가 되었다. 아직 젊어 보였지만,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회색 머리가 섞인 여성. 매우 단아한 차림새에 키도 컸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고통을 오래 견뎌온 사람만이 지닌, 지치고 우울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도대체 어디서 본 얼굴이지?'

뤼팽이 혼자 중얼거렸다. 분명히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 특징들, 그 눈빛, 그 전체적인 인상.

그녀는 테이블에 기대어 서서 무표정하게 도브레크의 말을 듣고 있었다. 도브레크 역시 서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뤼팽이 몸을 숙여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에는 의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 의원이 방문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도 기이했기 때문이다. 거칠고 야만적인 갈망이 담긴 눈초리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도 그 상황을 불편하게 여긴 듯했다. 그녀는 자리에 앉더니 눈꺼풀을 내렸다. 다브렉은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는 거대한 주먹을 쥔 긴 팔로 그녀를 감싸 안으려 했다.

그때 뤼팽이 깨달았다. 그 슬픈 얼굴에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다브렉이 그 눈물을 보고 정신을 잃었을까? 그는 급작스럽게 움직이며 그 여자를 꽉 안았다.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증오 어린 힘으로 그를 밀어냈다.

짧지만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 사이 뤼팽은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끔찍하게 일그러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고 서서, 죽을 원수처럼 서로를 향해 소리쳤다.

그들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도브렉이 자리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사나웠고, 단호했으며, 아이러니까지 감돌았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 툭, 가볍게 두드리며 말이다. 마치 조건을 제시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우아하게 꼿꼿이 선 그녀의 상체는 그를 압도하는 듯했고,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뤼팽은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고통스러운 기운에 사로잡혀, 시선을 한 순간도 떼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어떤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기 위해 애썼다.

그때였다. 그녀가 고개를 아주 살짝 돌리는 것을 뤼팽은 알아챘다. 그리고 그녀의 팔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발견했다.

팔이 몸통에서 살짝 벌어졌다. 뤼팽은 테이블 끝부분에 금색 마개가 달린 유리병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손이 병을 향해 뻗었다. 더듬거리다 부드럽게 들어 올려 금색 마개를 잡았다. 고개를 빠르게 움직이는 듯하더니 한 번 눈짓을 했다. 그리고 마개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건 분명히 그 여자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었다.

'크뢰블류.' 뤼팽이 생각했다. '그녀도 수정마개를 찾고 있군. 정말로 일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군.'

하지만 다시 그 여자를 지켜본 뤼팽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 갑자기, 그리고 뜻밖의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끔찍하고, 냉혹하며, 사나운 표정이었다.

그는 그 손이 여전히 책상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끊김 없이 미끄러지듯, 교묘한 기지로 그녀는 책을 밀어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흩어진 종이들 사이로 빛나는 칼날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는 손잡이를 신경질적으로 꽉 쥐었다.

도브레크는 여전히 수군거렸다. 그의 등 위로는 흔들림 없이 그 손이 조금씩 올라갔다. 뤼팽은 여자의 눈이 광기어리고 격분한 채로, 칼을 꽂으려 정한 목덜미의 한 점만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름다운 부인,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미 도망치고 비크투아르를 데려갈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비크투아르는 팔을 뻗은 채 망설였다. 하지만 그犹豫는 잠시뿐이었다. 그녀는 이를 갈았다. 증오로 굳어 있던 그녀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그리고 그녀는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다.

그 순간, 도브레크는 바닥에 엎드렸다가 의자에서 튀어 올랐다. 그는 몸을 돌려 여자의 가느다란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그녀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치 그녀가 저지른 행위가 그에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고 평범한 행동인 양 여긴 듯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런 위험을 자주 겪어 온 사람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는 침묵한 채 방 안을 오갔다.

그녀는 무기를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온몸을 떨며 통곡했다.

그가 다시 그녀 곁으로 다가와, 탁자를 두드리며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계속 재촉하자, 그녀도 격렬하게 발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너무 커서 뤼팽까지 들을 정도였다.

“절대요! 절대 안 돼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져온 모피 코트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녀는 레이스 천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를 배웅해 주었다.

두 분 뒤, 정원의 철문이 다시 닫혔다.

"아쉽군. 그 기묘한 인물을 쫓아가지 못해서. 다브렉 공작에 대해 좀 수다를 떨고 싶었는데. 우리 둘이 합치면 제법 좋은 일을 해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히 밝혀야 했다. 겉보기에 매우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던 다브렉 공작이, 경찰의 감시가 풀린 밤시간에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말이다.

뤼팽은 빅투아르에게 자신의 부하 두 명을 불러내게 지시했다. 며칠 동안 감시를 서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다음 밤, 그는 스스로 깨어 있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새벽 네 시, 소리가 들렸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공작이 누군가를 들여보내고 있었다.

뤼팽은 사다리를 재빠르게 내려갔다. 그리고 바로 아래 층에 도착하자마자, 임포스트 창문 너머로 한 장면을 목격했다. 다브레크의 발치에 엎드려 절규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미친 듯이 다브레크의 무릎을 매만지며,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눈물을 터뜨리고 있었다.

다브레크는 몇 번이나 그를 웃으며 밀어냈지만, 남자는 끝까지 매달렸다. 그는 정신이 나간 듯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미친 듯이 몸을 일으키더니, 다브레크의 목을 움켜잡고 그를 안락의자에 쓰러뜨렸다.

다브레크는 처음에는 당황해 몸부림쳤고, 목에 핏대가 올랐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힘으로 곧 반격을 가해 우위를 점했다. 그리고는 상대를 꼼짝 못 하게 제압했다.

그는 한 손으로 남자를 붙잡아 둔 채, 다른 손으로 두 번이나 힘껏 그에게 구타를 가했다.

그 남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떨려 균형을 잡기 힘들어 보였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는 듯 기다렸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다브르끄를 향해 조준했다.

다브르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발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어린아이가 쏜 총알을 향해 서 있는 듯한 태도로,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약 15초에서 20초 동안, 그 남자는 팔을 뻗은 채 적과 마주 섰다. 그러자 그는 다시금 느린 동작으로 무기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 느림은 극도의 흥분 상태가 끝난 후였기에, 오히려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다른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다브르끄가 앞으로 다가섰다.

지갑이 펼쳐졌다. 한 뭉치의 지폐가 드러났다.

도브렉은 그것을 재빨리 집어 들고 지폐를 세기 시작했다.

천 프랑짜리 지폐들이었다.

총 서른 장.

남자는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저항의 제스처 하나, 항변의 말 한 마디 없었다. 분명히 그는 말의 무용함을 깨달은 듯했다. 도브렉은 굽히지 않는 인물이었다. 왜 굳이 시간을 낭비하며 그를 애원하거나, 헛된 모욕과 협박으로 복수를 시도해야 하겠는가? 그는 이 접근 불가한 적에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브렉이 죽는다 한들, 그에게서 도브렉을 벗어날 수 있으랴.

그는 모자를 들어 올리고는 자취를 감췄다.

오전 열한 시, 시장으로부터 돌아온 빅투아르가 뤼팽에게 편지를 건넸다. 동조자들이 보내온 내용이었다.

뤼팽이 편지를 펼쳐 들었다.

"어젯밤 도브레크를 찾은 남자는 독립좌파 의장 랑그루 의원이야. 재산은 많지 않지만 가족이 많지."

"그래, 생각해보니 도브레크는 바로 '빌미'꾼이군. 하지만 그놈이 쓰는 수법이 제법 효과적이군!"

뤼팽의 추측은 사흘 뒤, 새로운 사실로 확증되었다. 또 다른 방문자가 찾아와 도브레크에게 큰돈을 건넸고, 그다음 날에는 진주 목걸이를 남기고 갔다.

첫 번째 방문자는 전 장관 출신 상원의원 드쇼몽이었다. 두 번째는 나폴레옹 공자의 정치국장이었던 보나파르트파 의장 알부페즈 후작이었다.

두 사람의 상황은 대의원 랑루와와의 회견과 거의 비슷했다. 격렬하고 비극적인 그 장면은 도브레크의 승리로 끝이 났다.

뤼팽은 이 정보를 입수하고서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군. 나는 네 차례의 방문을 지켜봤어. 열, 스물, 서른 차례가 더 있다 한들 내가 아는 바는 거기서 멈출 거야. 내 측근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방문객들의 이름은 알 수 있어. 내가 직접 만나볼까? 하지만 왜 만나야 하지? 그들이 나를 믿고 속내를 털어놓을 리가 없잖아.'

'게다가 나는 여기서 진전이 없는 수색에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 비크투아르 혼자서도 충분히 계속할 수 있는 일인데.'

그는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기베르와 보셰레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졌고, 그는 잠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설령 자신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까 봐,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이 추구하던 목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일까 봐, 그는 극심한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정말로, 도브레크의 음모가 밝혀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기베르와 보셰레를 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될까?

그날, 한 가지 사건이 그의 망설임을 끝내게 했다. 점심을 마친 뒤, 빅투아르는 도브레크의 전화 대화 일부를 엿들을 수 있었다.

뤼팽은 빅투아르의 증언을 종합해 판단했다. 의원이 밤 8시 30분에 어떤 부인과 만나, 그녀를 극장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도 여섯 주 전처럼 박스석을 이용하겠소."

도브렉이 그렇게 말한 데 이어,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그 사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진 않겠지."

뤼팽에게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도브렉은 여섯 주 전과 같은 일정을 따를 것이었고, 그 틈을 타 엔기엔의 저택을 털려야 했다. 그가 만날 인물이 누군지, 그리고 길베르와 보셰레가 도브렉이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오후 내내 뤼팽은 비크투아르의 도움을 받으며 지냈다. 비크투아르에게서 들은 바로는, 도브레크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을 예정이었다. 뤼팽은 호텔을 나섰다.

그는 샤토브리앙 거리 자택에 들렀다. 전화로 친구 세 명을 불렀고, 프록 코트를 입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길 '러시아 공자의 얼굴'이라고 했던, 금발에 수염을 깎아 치켜 올린 단정한 모습으로 변장했다.

공범들은 자동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때 집사 아실리가 뤼팽에게 한 통의 전보를 건넸다. 발신인은 미셸 보몽, 주소는 샤토브리앙 거리 자택이었다. 전보 내용은 이랬다.

'오늘 밤 연극장에 오지 마시오. 당신의 개입이 모든 것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가 있던 벽난로 옆에는 꽃병이 놓여 있었다. 뤼팽은 꽃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쳤다. 꽃병은 산산조각 났다.

"알겠어, 알았다고." 그가 이를 갈며 말했다. "내가 늘 남들을 가지고 놀던 그대로, 누군가 나를 가지고 노는군. 똑같은 수법, 똑같은 술수.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차이가 뭐냐고? 그 자신도 잘 알지 못했다. 사실 그 역시 당황해 있었다.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린 채, 그저 고집으로, 말하자면 의무감으로 행동을 이어 갈 뿐이었다. 평소의 유쾌함도 활기도 일에 실리지 않았다.

"가자." 그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명령에 따라 운전사는 라마르틴 광장 근처에서 차를 세웠지만, 엔진은 끄지 않았다. 뤼팽은 다브렉이 저택을 지키는 보안국 요원들을 피하려고 어느 택시에 뛰어오를 것이라 예상했고, 뒤처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다브렉의 수완을 그는 미처 계산에 넣지 못했다.

일곱 시 반, 정원의 철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밝은 빛이 확 쏟아지더니, 모터사이클 한 대가 잽싸게 보도를 넘어 광장을 끼고 돌더니, 자동차 앞에서 방향을 틀어 불로뉴 숲 쪽으로 내달렸다. 쫓아가 봤자 부질없을 만큼 빠른 속도였다.

"잘 가시오, 뒤몰레 씨."

뤼팽이 농담조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화가 가시지 않았다.

그는 동료들을 둘러보며, 그중 한 명이라도 비웃는 미소를 지어 주기를 바랐다. 그랬다면 그자에게 실컷 화풀이를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았을까!

잠시 후 그가 말했다.

"돌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저녁을 대접했다. 그러고는 시가를 한 대 피웠고, 그들은 다시 자동차를 타고 극장 순례를 시작했다. 우선 오페레타와 보드빌 극장부터 돌았다. 다브렉과 그의 부인이 그런 곳을 더 좋아할 것이라고 그는 짐작했다. 그는 일반석에 앉아 박스석들을 살핀 뒤 곧장 자리를 떴다.

그는 이어서 더 격조 있는 극장들, 즉 르네상스 극장과 지므나즈 극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드디어 밤 열 시, 그는 보드빌 극장에서 두 개의 가림막으로 거의 완전히 가려진 박스석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돈을 좀 쥐여준 끝에, 안내원에게서 그곳에 나이 지긋한 뚱뚱하고 키 작은 신사와 두꺼운 레이스 베일로 얼굴을 가린 부인이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옆 박스석이 비어 있어 그는 그곳을 차지하고는, 다시 친구들 쪽으로 돌아가 필요한 지시를 내린 뒤, 그 부부 옆에 자리 잡았다.

막간에 조명이 더 밝아진 사이, 그는 다브렉의 옆모습을 또렷이 알아볼 수 있었다. 부인은 안쪽에 물러나 있어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막이 다시 올라 공연이 재개된 뒤에도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뤼팽은 단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십 분쯤 지났을까. 그들의 박스석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극장 감독관이었다.

"다브렉 의원님 맞으십니까?" 그가 물었다.

"그렇소." 다브렉이 놀란 목소리로 답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오?"

"전화로 의원님을 찾으시는 분이 22번 박스석으로 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란 말이오?"

"알뷔펙스 후작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뭘?"

"무어라 답할까요?"

"내가 가겠소… 내가 가겠소…"

다브렉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감독관을 따라갔다.

그가 사라지기 무섭게 뤼팽이 자기 박스석에서 튀어나왔다. 그는 옆 박스석 문을 따고 들어가 여자 옆에 앉았다.

여자가 비명을 삼켰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가 명령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 그녀가 이를 악물고 내뱉었다. "아르센 뤼팽."

그는 어안이 벙벙했다. 한순간 그는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혀 멍하니 있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알고 있다니! 게다가 변장을 했는데도 그를 알아보다니! 더없이 기이하고 별난 일에는 이골이 난 그였지만, 이번만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항변할 생각조차 못 하고 더듬거렸다.

"그럼 당신은 알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어요?"

그는 그녀가 막을 틈도 주지 않고 느닷없이 여인의 베일을 걷어 올렸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가 점점 더 큰 놀라움에 휩싸여 중얼거렸다.

그 여인은 며칠 전 다브렉의 집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다브렉을 향해 단검을 치켜들고, 온 증오를 실어 그를 내리찍으려 했던 그 여자였다.

이번에는 그녀가 당황한 기색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이미 보셨다고요?"

"네, 지난밤 그의 저택에서요. 당신이 하려던 행동을 봤습니다."

그녀가 달아나려 몸을 움직였다. 그는 그녀를 붙잡으며 다급히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꼭 알아야겠습니다. 그걸 알려고 다브렉에게 전화를 걸게 한 겁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그럼 알뷔펙스 후작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는 제 공범 중 한 명입니다."

"그럼 다브렉이 곧 돌아오겠군요?"

"네, 하지만 시간은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는 당신의 적입니다… 제가 당신을 그에게서 구해 드리겠습니다."

"왜요? 무슨 목적으로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분명 우리의 이해관계는 같습니다… 어디서 다시 뵐까요? 내일이면 되겠죠? 몇 시에요? 어디서요? — 어떻습니까?"

그녀는 눈에 띄게 망설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막 입을 열려다가도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그녀를 재촉했다.

"오! 제발 부탁입니다… 답해 주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지금 당장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들키면 큰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이름은… 알 것 없습니다… 우선 만나서, 그때 설명해 주세요… 네, 만나요. 자, 내일 오후 3시, 대로 모퉁이에서…"

바로 그 순간, 박스석 문이 이를테면 주먹질하듯 벌컥 열리며 다브렉이 나타났다.

"젠장맞을!" 뤼팽이 으르렁거렸다. 원하는 것을 얻기도 전에 덜미를 잡힌 것이 분해서였다.

다브렉이 비웃듯 이죽거렸다.

"역시 그랬군… 뭔가 수상하다 싶었지… 아! 전화 수법이라니, 좀 구식이군요, 선생. 절반도 못 가서 말머리를 돌렸지요."

그는 뤼팽을 박스석 앞쪽으로 밀쳐내고, 여자 옆에 앉으며 말했다.

"자, 왕자님, 우리는 누구실까? 아마 경시청 끄나풀쯤 되겠지? 딱 그 일에 어울리는 상판이군."

다브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뤼팽을 빤히 뜯어보았다.

그는 이 낯선 얼굴에 이름을 붙여 보려 애썼지만, 그가 전에 '폴로니우스'라 불렀던 자임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뤼팽 역시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궁리했다. 그는 여기까지 끌고 온 승부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토록 좋은 기회가 온 마당에 다브렉의 불구대천 원수인 그 여자와 손잡기를 단념하고 싶지 않았다.

그 여자는 한구석에 꼼짝 않고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뤼팽이 입을 열었다.

"나갑시다, 선생. 밖에서라면 얘기하기가 더 수월할 겁니다."

"여기서 하지, 왕자님." 의원이 받아쳤다. "곧 막간이 오면 바로 여기서 하면 돼. 그러면 누구한테도 폐가 안 될 테고."

"그럴 필요 없네, 친구. 자넨 꼼짝도 못 할 테니까."

그는 뤼팽의 멱살을 와락 거머쥐었다. 막간이 될 때까지 결코 놓지 않겠다는 속셈이 분명했다.

경솔한 짓이었다… 뤼팽이 어떻게 그런 꼴로, 그것도 여자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그가 동맹을 제안한 여자, 게다가—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그 사실을 의식했는데—아름다운 여자, 그 그윽한 아름다움이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말이다. 사내로서의 자존심이 온통 곤두섰다.

그래도 그는 잠자코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묵직한 손의 무게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패배한 듯, 무력한 듯, 거의 겁먹은 듯 몸을 반으로 꺾기까지 했다.

"하, 이 친구. 이젠 허세도 안 부리는군." 의원이 비아냥거렸다.

무대 위에서는 수많은 배우가 다투며 시끌벅적 떠들고 있었다.

다브렉이 옥죄던 손아귀를 조금 늦추자, 뤼팽은 지금이 기회다 싶었다.

뤼팽은 마치 도끼로 내리치듯, 손날로 다브렉의 팔 안쪽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 고통에 다브렉은 순간 당황했다. 뤼팽은 마저 몸을 빼내고는 그의 목을 조르려 덤벼들었다. 하지만 다브렉은 즉각 방어 태세로 뒤로 물러섰고, 네 손이 맞붙들었다.

네 손은 초인적인 힘으로 서로를 그러쥐었다. 두 적수의 온 힘이 거기에 집중되었다. 다브렉의 손은 괴물 같았고, 그 무쇠 같은 집게에 붙들린 뤼팽은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고릴라 같은 무시무시한 짐승과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은 문에 붙어, 서로 떠보며 맞붙잡으려는 씨름꾼들처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뼈가 으드득거렸다. 먼저 힘이 빠지는 쪽이 목을 잡혀 졸리게 될 터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갑작스러운 정적 속에서 벌어졌다. 무대 위 배우들은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칸막이에 짓눌리듯 붙어 선 여자는 공포에 질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손짓 하나로 어느 한쪽을 편들기만 하면, 승리는 곧장 그쪽으로 결정될 판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누구를 편들 것인가? 뤼팽은 그녀에게 어떤 존재일까? 친구인가, 적인가?

그녀는 재빨리 박스석 앞쪽으로 가, 가림막을 밀어내고 상체를 숙이며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문 쪽으로 슬그머니 다가가려 했다.

뤼팽은 마치 그녀를 도우려는 듯 말했다.

"의자부터 치워."

그가 말한 의자는 넘어져 있던 무거운 것이었다. 그 의자가 그와 도브르크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으며, 두 사람은 그 위를 넘나들며 싸우고 있었다.

여자가 몸을 굽혀 의자를 끌어냈다. 뤼팽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장애물이 치워지자, 그는 발끝으로 도브르크의 다리를 쾅 하고 차올렸다. 팔을 때렸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극심한 통증에 도브르크가 잠시 당황해 정신이 흐트러진 사이, 뤼팽은 재빨리 그에게로 달려들어 도브르크가 내민 손을 뿌리쳤고, 두 손으로 그의 목과 뒷목 주변을 꽉 쥐었다.

도브르크가 저항했다. 그는 뤼팽의 질식시키는 손을 뿌리치려 애썼지만, 이미 숨이 막혀오기 시작했고 힘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 늙은 원숭이!" 뤼팽이 그를 쓰러뜨리며 으르렁거렸다. "왜 도움을 청하지 않나? 스캔들이 그렇게 무서운가 봐!"

쓰러지는 소리에, 칸막이 너머 옆방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렸다.

"마음껏 두드리시오." 뤼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극은 무대에서 하는 거고, 여기 일은 내 몫이지. 이 고릴라 같은 놈을 잠재울 때까지는……"

그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의원은 숨이 막혀 있었다. 뤼팽이 턱을 한 대 치자 그는 정신을 잃었다. 이제 뤼팽에게 남은 일은 경보가 울리기 전에 여자를 데리고 함께 달아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돌아서자 여자는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뤼팽은 칸막이 관람석(loge) 밖으로 뛰쳐나와, 좌석 안내원도 검표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렸다.

그는 1층 원형 홀에 다다르자, 열린 문 너머로 앙탱 대로 인도를 가로질러 가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가 따라잡았을 때 그녀는 막 자동차에 오르고 있었다.

차 문이 그녀 뒤로 닫혔다.

그가 손잡이를 움켜쥐고 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차 안에서 한 사내가 튀어나와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뤼팽이 다브렉의 얼굴에 날린 주먹보다 솜씨는 서툴렀지만, 위력은 그에 못지않았다.

충격으로 정신이 아찔했지만, 그래도 그는 놀란 눈길로 그 사내를 알아볼 겨를이 있었다. 그리고 운전수로 변장한 채 자동차를 몰던 사내까지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로그나르와 르 발루였다. 앙당 밤, 보트를 맡았던 두 남자. 길베르와 보셰레의 친구이자, 다시 말해 뤼팽 자신의 공범 두 명이었다.

샤토브리앙 거리 그의 집으로 돌아온 뤼팽은 피범벅인 얼굴을 씻은 뒤, 한 시간 이상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다. 마치 충격을 받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처음 겪는 일이었다. 배신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픈 줄은 몰랐다. 처음이었다. 함께 싸우던 동지들이 지휘자를 등지고 돌변하는 것을.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의를 돌리기 위해 저녁 우편물을 손에 들었다. 신문 한 장을 찢어 들이대며 최신 뉴스를 훑었다. 그러자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마리테레즈 빌라 사건. 하인 레오나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중 한 명인 보셰레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그는 최악의 악당이자 재범자이며, 다른 이름으로 두 차례나 살인죄로 궐석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공범인 길베르의 진짜 이름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어쨌든 조사 판사는 이 사건을 가능한 한 빨리 기소 심리부로 이송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법 절차의 지체로 불평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신문들과 전단지 사이에 한 통의 편지가 끼어 있었다.

뤼팽이 그것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편지 주소는 미셸 드 보몽 씨였다.

「아!」그가 더듬거렸다. 「길베르의 편지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주인님, 제발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그날 밤, 뤼팽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악몽에 시달리며 밤을 새웠다.

그의 머릿속을 끔찍하고도 소름 끼치는 환상들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제4장

"가엾은 아이." 다음 날 길베르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뤼팽이 중얼거렸다. "저 아이는 얼마나 아파할까?"

그가 길베르를 처음 만난 날부터, 뤼팽은 이 키 크고 느긋하며 삶에 대한 즐거움을 아는 젊은이를 좋아하게 되었다. 길베르는 주인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목숨을 바칠 만큼 충성스러웠다. 뤼팽은 그의 솔직함과 밝은 기운, 순진함, 그리고 행복한 표정까지도 사랑했다.

"길베르, 너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야." 뤼팽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네 자리라면, 나는 이 일을 접고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 되겠어."

"당신 다음이죠, 상사." 길베르가 웃으며 대답했다.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상사. 착한 사람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피곤한 일도 해야 하고요. 어린애 때쯤엔 그런 게 취미였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걸 끊어놓았죠."

"누가?"

길베르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과거,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늘 침묵을 지켰다. 뤼팽이 알 수 있는 바는, 그가 어릴 적 고아가 되어 이름도 수시로 바꾸며 기구한 직업을 전전하며 살아왔다는 사실뿐이었다.

누구도 파헤칠 수 없었던 이 수수께끼는, 결국 법의 손길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수수께끼가 법의 발걸음을 늦출 이유는 없었다. 길베르라는 이름이든, 다른 이름이든 상관없었다. 법은 보세레의 공범을 중범죄재판소에 보내고, 흔들림 없는 엄격함으로 그를 단죄할 것이었다.

"불쌍한 아이." 뤼팽이 중얼거렸다. "이렇게 쫓는 건 다 내 탓이군. 도주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재판을 서둘러.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다음엔…… 사형 집행까지."

스무 살짜리 소년이다. 살인도 하지 않았고, 살인 공범도 아닌 아이를 말이다.

하지만 뤼팽은 잘 알고 있었다. 그걸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그의 시선은 다른 곳으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수정마개의 흔적을 포기해야 할까?

그는 결심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앙당으로 향했다. 그로냐르와 르 발루가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리테레즈 빌라 살인 사건 이후 그들이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 외의 일은 모두 잊었다. 오직 도브뢰크에 대한 일만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수수께끼에 대해 조금도 고민하려 하지 않았다. 그로냐르와 르 발루의 배신, 회색 머리의 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감시까지.

"잠잠해, 뤼팽."

그가 열변을 토하며 말했다.

"열에 받으면 생각도 틀리게 되거든. 그러니 입을 다물어. 특히 추론은 하지 마! 확실한 출발점을 찾기 전에 사실을 서로 맞춰 보려는 짓은 가장 바보 같은 일이지. 그런 식으로 함정에 빠지는 거야. 네 직감을 믿어라. 직관에 따라 움직여라."

그는 계속했다.

"논리든 상식든 모두 배제하고서도, 네가 이 사건이 그 끔찍한 마개와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한다면, 당당히 나아가라. 다브렉과 그의 수정을 찾아내라!"

뤼팽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에게 그 결론을 되뇌는 순간, 그는 작은 연금 생활자 차

림으로 목도리를 두르고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발드빌 극장 사건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빅토르 위고 대로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라마르틴 광장과는 꽤 떨어진 곳이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빅투아르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이 벤치 앞을 지나가야 했다.

"그래, 수정마개.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어…… 내가 그것을 손에 넣으면……"

빅투아르가 다가왔다. 팔 아래에는 식료품 바구니를 끼고 있었다. 그는 즉시 그녀의 놀랄 만큼 긴장한 모습과 창백한 얼굴을 눈여겨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뤼팽이 늙은 유모 곁을 걸으며 물었다.

그녀는 사람이 많았던 대형 식료품점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보세요. 당신이 찾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소리는 감정의 여파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바구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뤼팽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수정마개가 놓여 있었다.

"말도 안 돼. 정말로?"

그는 중얼거렸다. 이렇게 쉽게 해결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은 명확했다. 눈으로 보아도, 손으로 만져도 확실한 진실이었다.

그의 눈앞에 놓인 수정마개는 이미 본 적이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모양과 크기, 각 단면의 바랜 금빛까지 모두 같았다.

특히 줄기 부분에 있는 작은 흠집까지도 기억이 났다. 그는 그 흠집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 물체는 다른 어떤 특징도 보이지 않았다. 똑같은 특징만 있을 뿐, 새롭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수정 마개일 뿐이었다. 다른 마개와 구별되는 특별한 표식도 없었다. 각인된 문양도, 숫자도 없었다. 한 덩어리의 수정으로 깎아 만든 것이라, 내부에 이물질이 섞여 있지도 않았다.

"그럼 대체 뭐란 말인가?"

그때 뤼팽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순간이 왔다. 그 수정 마개의 가치를 모른 채, 단지 그것을 손에 넣었다는 것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유리 조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부여된 의미 때문에만 가치가 있었다. 그것을 가져가기 전에, 먼저 그 의미를 알아내야 했다.

게다가, 그것을 가져감으로써, 다브렉에게서 훔쳐냄으로써, 그는 오히려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보장해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만, 그에게는 유독 집요하게 밀려드는 문제였다.

'실수하지 말자.' 그는 물건을 주머니에 넣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 골치 아픈 사건에서 실수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는 비크투아르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점원 한 명이 동행한 채, 그녀는 손님들로 북적이는 매장을 누비며 계산대 사이를 오갔다. 잠시 후 그녀는 계산대 앞에 한참을 머물렀고, 그러다 뤼팽 곁을 지나쳤다.

그가 낮게 명령했다.

'장송 고등학교 뒤에서 만나.'

그녀는 사람이 드문 골목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혹시 누가 뒤를 밟으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야.' 그가 단언했다. '내가 잘 살펴봤어. 들어봐. 그 마개는 어디서 찾았지?'

'그 사람 침대 옆 탁자 서랍에서요.'

'하지만 거긴 이미 우리가 뒤졌잖아.'

'네, 그렇죠. 게다가 저는 어제 아침에도 다시 봤는걸요. 아마 그가 간밤에 거기 넣어둔 게 분명해요.'

'그가 다시 가져갈지도 모르지.' 뤼팽이 말했다.

'그럴지도요.'

'그런데 만약 이미 그곳에 없다면?'

비크투아르가 놀란 기색을 드러냈다.

'내 말에 답해 봐.' 뤼팽이 재촉했다. '만약 이미 없다면, 그는 네가 훔쳤다고 몰아붙이지 않겠어?'

'당연하죠…'

'그럼 지금 바로 가서 다시 넣어 두거라. 서둘러.'

'세상에, 세상에!' 그녀가 신음했다. '그가 아직 눈치채지 못했으면 좋으련만. 빨리 그 물건을 주세요.'

'여기 있네.' 뤼팽이 말했다.

그는 코트 주머니를 더듬었다.

'어때요?' 비크투아르가 손을 내밀며 물었다.

'그게…'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없어졌어.'

'뭐라고요?'

'정말이야, 없어… 누가 도로 가져갔어.'

그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엔 그 웃음에 쓴맛이 조금도 섞이지 않았다.

비크투아르는 분노했다.

'정말이지 여유도 많으시네요! 이런 상황에!'

'어쩌겠어? 정말 우습지 않아? 인정하라고. 우리가 지금 벌이는 건 비극이 아니야. 동화 같은 마법극이지, 『악마의 알약』이나 『양의 발』 같은 마법극 말이야. 몇 주만 쉴 수 있게 되면 이걸 꼭 글로 쓸 거야. 『마법의 마개』라든가 『불쌍한 아르센의 수난기』 같은 제목으로.'

'그래서, 대체 누가 도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저절로 날아갔어… 내 주머니에서 사라져 버렸지… 자, 요술처럼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늙은 하녀를 부드럽게 밀어내며, 한층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돌아가, 비크투아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마개를 건네는 걸 누군가 봤고, 가게 안 혼잡을 틈타 내 주머니 깊숙이에서 그걸 빼간 게 분명해. 이 모든 게 우리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바짝, 그것도 일급 적수들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안심해라. 정직한 사람이 늘 마지막에 이기는 법이니까. 나한테 더 할 말은 없었어?'

'있어요. 어젯밤 도브레크 씨가 외출하신 사이에 누가 다녀갔어요. 정원 나무에 불빛이 어른거리는 걸 봤거든요.'

'관리인이?'

'관리인은 자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 경찰청 사람들이군. 계속 뒤지고 있는 거야. 이따 보자, 비크투아르… 날 좀 들여보내 줘야 한다…'

'네? 들어오시려고요…'

'내가 무슨 위험을 감수한다고? 네 방은 3층이야. 도브레크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그자들이 날 해칠 속셈이 있었다면 벌써 시도했겠지. 난 그저 걸리적거리는 존재일 뿐이야. 그들은 날 두려워하지 않아. 이따 보자, 비크투아르, 다섯 시쯤.'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뤼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늙은 하녀가 그를 찾아와, 호기심에 침대 옆 탁자 서랍을 열어 보았더니 수정마개가 다시 그 안에 들어 있더라고 알렸다.

뤼팽은 이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에 더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군. 누군가 그걸 다시 가져다 둔 거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저택에 드나드는 그 사람은, 나처럼 수정마개가 사라져선 안 된다고 판단한 거지. 그런데 도브레크는 어떤가? 자기 방 깊숙한 곳까지 쫓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그 수정마개를 서랍에 넣어 두었어. 마치 아무 가치도 없다는 듯이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알 수가 없군!'

뤼팽은 확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추론과 연상은 떨칠 수 없었다. 터널을 빠져나올 무렵 느끼는 것처럼, 희미하게나마 빛이 보일 듯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 사건에서는 머지않아 나와 「다른 자들」이 마주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상황은 내 손안에 들어오지.'

다섯 날이 지나도 뤼팽은 아무것도 캐내지 못했다.

여섯째 날 아침, 도브레크는 의원 라야바크의 방문을 받았다. 라야바크는 동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표정으로 도브레크의 발아래 엎드려, 결국 이만 프랑을 건넸다.

이틀이 더 지나고, 밤 두 시쯤 되어서였다. 뤼팽은 2층 복도에 숨어 서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현관과 정원을 잇는 문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기척을,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존재를 감지했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 1층에서 멈춰 섰다. 도브레크의 방 앞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도브레크는 매일 밤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잤다. 도무지 방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노린 걸까?

물론이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둔탁한 마찰음으로, 뤼팽은 누군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때 희미한 속삭임이 그의 귀에 들어왔다.

'잘 되고 있나?'

'네, 완벽합니다. 그래도 일단 내일로 미루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장의 끝부분은 들리지 않았다. 이미 그자들이 더듬거리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이 아주 부드럽게 닫혔고, 이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정말 묘한 일이군.' 뤼팽이 생각했다.

'도브레크가 자기 추악한 짓을 그토록 철저히 숨기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감시를 경계하는 집인데도, 누구나 제집 드나들듯 마음대로 들어오는군. 비크투아르가 날 들여보내 주고, 관리인이 경찰청 밀정들을 들이고… 그건 그렇다 쳐. 하지만 저자들의 경우엔 대체 누가 그들 편이 되어 내통하는 거지? 저들이 단독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하나? 그렇다면 얼마나 대담한가! 이 집 구조를 또 얼마나 훤히 꿰고 있는가!'

오후에 도브레크가 집을 비운 사이, 뤼팽은 1층 침실 문을 자세히 살폈다.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아래쪽 판자 하나가 정교하게 잘려, 보이지 않는 못 몇 개에만 간신히 붙어 있었다.

이 작업을 해낸 자들은 마티뇽 거리와 샤토브리앙 거리에서 그의 집에 침입했던 바로 그 무리였다.

그는 이 작업이 더 오래전에 이루어진 것이며, 자기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멍이 유리한 상황이나 급박한 필요에 대비해 미리 뚫려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뤼팽에게 그날 하루는 짧았다. 곧 알게 될 터였다. 적들이 겉보기엔 쓸모없어 보이는—그 구멍으로는 위쪽 빗장에 손이 닿지 않으니—그 작은 구멍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토록 교묘하고 기민한, 그리고 불가피하게 다시 마주하게 된 그 적들이 누구인지도 알게 될 터였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하나 생겼다.

저녁 식사 때부터 이미 피곤하다고 투덜대던 도브레크가 저녁 열 시에 돌아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관 안쪽, 정원으로 통하는 문에 빗장을 질러 잠갔다.

이제 「다른 자들」은 어떻게 계획을 실행할 수 있단 말인가? 도브레크의 방까지 어떻게 접근한단 말인가?

불을 끈 도브레크가 잠자리에 든 뒤, 뤼팽은 한 시간을 더 기다렸다. 그러고는 혹시 몰라 밧줄 사다리를 설치한 다음, 2층 층계참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어제보다 한 시간 일찍, 현관문이 열릴 시도를 했다. 시도는 실패했고, 몇 분 동안의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뤼팽은 이미 포기한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몸을 떨었다.

조그만 삐걱거림 하나 없이, 누군가 지나갔다. 계단 위의 카펫이 발소리를 완전히 흡수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난간이 떨리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갈수록 뤼팽은 묘한 불안을 느꼈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간 때문에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진동으로 몇 단을 올랐는지도 셀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 보이지 않는 동작을 구분할 때, 들리지 않는 소리를 감지할 때 느껴지는 그 희미한 '누군가 있다'는 감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림자 속에는 더 짙은 그림자가 생겼어야 했다. 적어도 침묵의 질감이 달라졌어야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뤼팽은 자신의 이성에 반해, 그 사실을 믿기 시작했다. 난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환각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오래 이어졌다. 뤼팽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추측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벽시계가 두 시를 알렸다. 그 소리를 듣고 그는 바로 도브뢰크의 시계임을 알아챘다. 그런데 그 소리는 문이라는 장애물 하나 없이 바로 옆에서 들리는 시계 소리였다.

뤼팽은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 문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왼쪽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었다. 작은 판넬이 뜯겨 나간 자리였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도브뢰크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숨소리는 약간 거칠었다. 그리고 뤼팽은 또렷이 옷감을 주무르는 소리를 들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누군가 방 안에 있었고, 도브뢰크가 침대 곁에다 벗어둔 옷을 뒤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번엔 사정이 조금은 명확해지겠군.'

그런데 도대체 저 자는 어떻게 들어온 걸까? 자물쇠를 풀고 문틈을 살짝 벌린 걸까.

그렇다면 왜 다시 문을 닫았을까. 무모한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다.

뤼팽은 단 한 순간도 그 단순한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우물쭈물함은 뤼팽 같은 인물에게 드문 일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그에게 주는 불쾌감이 그를 사로잡았을 뿐이다.

그는 계단을 계속 내려가, 맨 아래 계단 중 하나에 쪼그려 앉았다.

그곳은 다브레크의 방 문과 현관 문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다브레크의 적이라면 동맹들과 합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이었다.

그가 어둠을 향해 얼마나 간절하게 물어보았는지!

다브렉의 적이자, 동시에 자신의 상대이기도 한 그 존재. 뤼팽은 곧 그를 벗겨낼 참이었다.

그는 다브렉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었다. 다브렉이 훔친 보물을 뤼팽이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이다. 다브렉은 잠들었고, 복역자들은 현관문 뒤나 정원 철문 뒤에 숨어 죽을 때까지 상사의 귀환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 귀환은 실제로 일어났다.

뤼팽은 난간이 흔들리는 진동으로 다시금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시금 긴장한 신경과 예민해진 감각을 총동원하여,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그 수수께끼의 존재를 알아내려 애썼다.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를 발견했다.

더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던 뤼팽 자신은 결코 발견당하지 않을 터였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흐릿했지만——그 존재가 난간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고, 끝내도 끝없는 신중함을 기울이며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도대체 나는 누구와 마주한 것인가?'

마음이 설레는 가운데 뤼팽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결말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그가 무심코 내민 손이 누군가에게 포착되었고, 상대는 즉시 멈춰 섰다. 뤼팽은 후퇴하거나 도망칠까 봐 두려웠다. 그는 상대에게 덤벼들었지만, 정작 잡힌 것은 공허함뿐이었다. 그는 검은 형체를 붙잡지 못한 채 난간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재빠르게 움직였다. 복도 절반을 가로질러 달려가, 상대가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따라잡았다.

소름 끼치는 비명이 터졌고, 문 너머에서도 다른 비명들이 겹쳐 울려 퍼졌다.

"아, 크레블루! 이게 대체 뭐야?"

뤼팽이 중얼거렸다. 그의 강력한 팔이 작은 몸뚱아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작은 존재는 떨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 순간 깨달은 그는 놀라움에 젖어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다. 손에 쥔 그 '사냥감'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였다.

하지만 문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썩거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브르크가 깨어날까 봐 두려워진 그는, 그 작은 것을 재킷 안, 가슴 쪽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구겨 넣은 손수건으로 그들의 입에 대고 소리를 막아냈다. 그는 서둘러 세 층의 계단을 올라갔다.

"자, 봐라."

그가 깨어 놀란 비크토아에게 말했다.

"우리 적들의 무법자, 그 밴드의 헤라클레스를 데려왔네. 젖병은 있나?"

그는 팔걸의자에 여섯, 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뜨개질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두려움에 찬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이걸 어디서 주워온 거야?"

비크토아는 깜짝 놀라 물었다.

"계단 아래요. 도브레크 부인의 방에서 나왔죠."

뤼팽이 대답했다. 그는 아이의 손에 뤼팽이 가져온 전리품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젖은 재킷을 더듬어 봐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비크투아르는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불쌍한 천사야. 봐, 울음을 참는 걸. 예수님, 마리아님! 손이 얼음장 같아. 괜찮아, 아가씨. 우리 선비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맞아." 뤼팽이 말했다. "선비는 나쁘지 않아. 하지만 다른 선비가 있어. 아주 나쁜 선비가. 네가 현관문 앞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 깨어날 거야. 비크투아르, 들리지?"

"누구죠?"

"우리 어린 헤라클레스의 위성들이야. 절대 굴복하지 않는 두목의 무리 말이지."

"그럼요?" 비크투아르는 이미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먼저 자리를 뜨기로 했지. 너도 올래, 허큘레스?"

그는 아이를 양모 담요에 감쌌다. 머리가 살짝 드러날 정도였다. 가능한 한 꼼꼼하게 입도 막아 주었다. 그리고 빅투아르에게 아이를 자신의 어깨에 메게 했다.

"봐, 허큘레스. 웃자고 한 일이야. 새벽 세 시에 진지한 척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겠어. 자, 가자. 날아보자. 어지럼증은 안 오지?"

그는 창틀을 넘어 안뜰 사다리의 난간 중 하나에 발을 디뎠다. 1분도 채 안 되어 그는 정원에 도착했다.

그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다. 그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다. 그런데도 도브레크가 그토록 시끄러운 소음에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저자들이 모든 것을 망쳐놓을 거야.'

뤼팽이 혼자 중얼거렸다.

호텔 모퉁이에 멈춰 서서,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그는 자신과 철제 문 사이의 거리를 재어 보았다. 문은 열려 있었다. 오른쪽에는 계단이 있었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왼쪽에는 하녀 숙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여성은 숙소에서 나와 계단 옆에 서서 사람들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 곧 올 거야."

'아, 완벽하군.' 뤼팽이 생각했다. '이 착한 아가씨도 그들과 통하는구나. 참으로 겸손한 직업군이다.'

그녀를 향해 돌진한 뤼팽은 그녀의 목을 잡으며 쏘아붙였다.

"가서 그들에게 알리거라.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걸. 내 집으로 와서 아이를 찾으라고. 샤토브리앙 거리로."

조금 더 앞거리, 대로변에는 택시가 한 대 멈춰 서 있었다. 뤼팽은 그 차가 무리가 미리 잡아둔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당당하게, 마치 자신도 동조자라도 된 양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을 지시했다.

"어때, 아이야. 좀 덜 흔들렸지? 그 아저씨 이불에서 좀 쉬는 게 어떻겠니?"

가사 도우미 아킬이 잠든 사이, 뤼팽은 본인이 아이를 돌봤다. 아이를 편히 눕혀 주며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아이의 모습은 얼어붙은 듯했다. 가엾은 얼굴은 경직된 표정으로 굳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공포와 공포를 억누르려는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애처롭게도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울어라, 내 사랑. 울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아이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도 부드럽고 자비로워 아이는 긴장을 풀었다. 눈빛이 가라앉고, 입꼬리의 경련도 누그러졌다. 뤼팽은 아이를 깊이 응시하며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닮은꼴이었다.

이것도 그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머릿속에서 서로 이어지는 사실들, 그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것들이었다.

정확히 말해, 그가 착각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급변하고 있었다. 그는 사건을 주도할 뻔했다. 이제부터…

벨이 한 번 울리고, 이어 두 번. 날카롭고도 급했다.

"어라," 뤼팽은 아이에게 말했다. "네 엄마가 너를 찾으러 온 모양이야. 움직이지 마."

그는 문 쪽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한 여자가 들어섰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내 아들! 아들이 어디 있소?"

"제 방에 있습니다."

뤼팽의 대답을 더 묻지 않고, 이미 그 길을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그녀는 방으로 뛰어갔다.

"회색 머리의 젊은 여자, 도브레크의 친구이자 적, 바로 내가 생각한 사람이군."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들어 올렸다. 맞은편 인도 위를 두 남자가 거니고 있었다. 그로냐르와 르발루였다.

"아예 숨지도 않네. 좋은 신호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모양이지. 문제는 회색 머리의 아름다운 여인이야. 좀 더 어려울 거야. 엄마, 너와 내가 함께할 차례다."

그가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친 데 없어? 정말 괜찮아? 오, 자네 정말 무서웠겠구나, 내 작은 자카!"

"단단한 녀석이군." 뤼팽이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의 점프옷을 두드려 보았다. 뤼팽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그가 밤의 임무에 성공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그리고는 아이를 속삭이듯 물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아니에요." 아이가 말했다.

그녀는 아이를 부드럽게 입맞추며 품에 안았다. 아이는 피로와 감정에 지쳐 곧 잠이 들어버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 위에 몸을 굽혀 있었다. 그녀 자신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휴식이 필요해 보였다.

뤼팽은 명상에 잠긴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그는 초조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눈꺼풀에 더 넓게 진 다크서클과 더 또렷하게 패인 주름을 꼼꼼히 살폈다.

그런데 그는 그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꼈다. 고통을 견디는 습관이 만들어내는, 다른 이들보다 더 인간적이고 민감한 얼굴에 깃든 감동적인 아름다움이었다.

그녀의 표정이 너무도 비통했다. 본능적인 동정심이 치밀어 오르자,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 두 사람, 알고 있어요. 별볼일 없는 자들이에요. 제게 힘을 빌려주세요. 어젯밤 극장, 박스석에서 기억나시나요? 그때 바로 말씀을 하시려던 참이었죠. 지금도 망설이지 마세요."

그녀가 시선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힘에 끌리듯, 그녀는 입을 열었다.

"정확히 무엇을 아시오? 저에 대해 무엇을 아시오?"

"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당신의 이름조차 모르죠. 하지만 알고 있어요…"

그녀가 손짓으로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단호한 태도로, 이번에는 거꾸로 자신에게 말하라고 강요하던 그를 제압하듯 말했다.

"쓸데없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사소하고, 아무런 중요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은 무슨 계획이 있나요? 당신은 내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죠? 당신이 이 일에 온 힘을 쏟고, 내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마다 늘 내 앞길에 나타난 건, 당신도 어떤 목적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이라니요? 글쎄요, 제 행동을 보면…"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확실함이 있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정직함이 필요하죠. 제가 먼저 본을 보이겠습니다."

"도브렉 씨가 놀랄 만큼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건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 때문에 그렇죠. 그 물건은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당신의 손에 들어왔고, 두 번이나 제가 그걸 다시 빼앗았죠."

"자, 당신이 그걸 손에 넣으려 한 건, 그 물건에 부여된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당신의 이익을 위해 쓰려 했겠죠."

"어떻게요?"

"네,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당신의 습관에 따라."

"도둑질과 사기의 습관 말인가요?" 뤼팽이 마무리했다.

그녀는 항의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 깊숙이 숨겨진 생각을 읽으려 애썼다.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녀가 자신을 의심한다면, 자신도 이 여자를 의심해야 하지 않을까? 두 번이나 수정마개를 빼앗아 도브렉에게 돌려준 여자를 말이다. 그녀가 도브렉을 죽을 만큼 적대시한다 해도, 그 남자의 의지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 마음을 열면, 결국 도브렉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결과가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이렇게 진지한 눈매와 이렇게 진실된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는 말했다.

"제 목적은 간단합니다. 질베르와 보슈레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요?" 그녀가 전율하며 외쳤다.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만약 저를 아신다면…"

"당신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죠. 몇 달째 당신의 삶에 개입해 왔지만, 당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당신은 나를 모릅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두 동료가… 아니 적어도 질베르가, 보슈레는 비열한 악당이니까, 질베르가 그를 기다리는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내게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로 달려가 어깨를 꽉 잡으며 진심으로 당황한 듯 물었다.

"뭐요? 무슨 말씀이세요? 끔찍한 운명이라니요?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은…"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뤼팽은 그 위협이 그녀를 얼마나 뒤흔들었는지 느꼈다. "정말, 만약 제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질베르는 끝장입니다."

"말하지 마요. 제발, 말하지 마요!"

그녀가 그를 거칠게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그런 말은 하지 못하게 해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질베르도 그래요."

"뭐? 질베르? 어떻게 알아요?"

"그 자신에게서요."

"그 사람한테?"

"네. 그 자신에게서요. 그는 이제 나만 믿고 있어요.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나만이 그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며칠 전, 감옥 깊은 곳에서 그는 절박하게 나를 불렀습니다. 여기 그의 편지가 있어요."

그녀는 탐하듯 그 편지를 움켜쥐고, 더듬거리며 읽었다.

"도와주세요, 두목님. 저는 망했어요.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녀는 종이를 놓쳤다. 두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넋이 나간 그녀의 눈은, 이미 여러 번 뤼팽을 두렵게 했던 그 불길한 환영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공포에 찬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려 했지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제5장

아이는 침대 위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뤼팽이 눕혀 둔 안락의자에서 어머니는 꼼짝하지 않았지만, 한결 차분해진 숨소리와 얼굴에 다시 도는 핏기로 보아 곧 깨어날 기색이었다.

그는 그녀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가슴에 매달린 메달이 보이자, 그는 몸을 굽혀 그것을 뒤집어 보았다. 아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십 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한 아이가, 아니 차라리 중학생 교복을 입은 청소년에 가까운 아이가 담긴 사진이었다. 뤼팽은 곱슬머리로 둘러싸인 그 앳된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맞아, 바로 이거군."

그가 중얼거렸다.

"아, 불쌍한 여자야!"

그가 두 손으로 감싸 쥔 그녀의 손이 조금씩 따뜻해져 갔다. 그녀의 눈이 열렸다가 다시 감겼다. 그녀가 나직이 속삭였다.

"자크야……"

"걱정 마세요. 자크는 잘 자고 있어요. 다 괜찮아요."

그제야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뤼팽은 그녀가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려고 차근차근 질문을 던졌다. 그는 초상화가 든 메달을 가리키며 물었다.

"중학생은 질베르죠? 맞나요?"

"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질베르는 당신의 아들이군요?"

그녀는 전율하며 속삭였다.

"네, 질베르가 제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죠."

이제야 그녀는 질베르의 어머니임이 분명해졌다. 상테 형무소에 수감되어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사법부가 그토록 치열하게 쫓고 있던 바로 그 질베르의 어머니였다.

뤼팽이 다시 물었다.

"다른 초상화는 누구죠?"

"제 남편이에요."

"당신의 남편?"

"네. 그는 3년 전에 죽었어요."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그제야 생명력이 그녀를 다시금 휘감았다. 동시에 살아갈 두려움, 그리고 그녀를 노리는 모든 공포스러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였다.

뤼팽이 다시 물었다.

"당신의 남편 이름이 뭐였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메르지."

그가 외쳤다.

"빅토리앵 메르지, 그 의원이요?"

긴 침묵이 흘렀다. 뤼팽은 그 사건과 그 죽음이 일으킨 소동을 잊지 않고 있었다. 3년 전, 의회 복도에서 메르지 의원이 아무런 해명도 남기지 않은 채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아 자살했고, 이후로도 그 자살의 이유는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그 이유를…" 뤼팽이 속생각을 소리 내어 마무리했다. "당신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혹시 질베르 때문입니까?"

"아니요. 질베르는 이미 수년 전, 남편에게 쫓겨나고 저주받은 채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슬픔은 깊었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뤼팽이 물었다.

하지만 뤼팽이 질문할 필요는 없었다. 메르지 부인은 더 이상 입을 다물 수 없게 된 것이다. 천천히, 그러나 과거의 모든 것을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스물다섯 해 전, 나는 클라리스 다르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 부모님도 아직 살아 계셨다. 니스의 사교계에서 나는 세 명의 젊은 남자를 만났다. 그들의 이름을 들으면, 지금 벌어진 이 비극의 실마리가 바로 잡힐 것이다. 알렉시스 도브렉, 빅토리앵 메르지, 그리고 루이 프라스빌.

세 사람은 예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다. 같은 해에 학교를 다녔고, 같은 연대에서 복무한 친구였다. 당시 프라스빌은 니스 오페라극장에서 노래하던 여배우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머지 두 사람, 메르지와 도브렉은 나를 사랑했다.

이 모든 일, 그리고 이 이야기 전반에 대해 나는 짧게 말하겠다. 사실들이 충분히 말해 주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나는 빅토리앵 메르지를 사랑했다. 아마도 그 마음을 곧바로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늘 수줍고, 망설이며, 두려움을 품는 법이라, 나는 확신이 서고 마음이 온전히 자유로워졌을 때에야 비로소 내 선택을 밝혔다.

불행히도, 비밀리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그토록 달콤했던 이 기다림의 시간이, 도브렉에게는 헛된 희망을 품게 했다. 그의 분노는 끔찍했다.

클라리스 메르지는 몇 초 동안 말을 멈췄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 세 사람이 거실에 있었어요. 그가 내뱉은 말, 증오와 끔찍한 위협으로 가득 찬 그의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비크리엔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추악한 얼굴, 짐승 같은 표정. 네, 맹수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았습니다. 발을 구르며 발을 구르며 눈은 피로 충만했고, 안경은 끼지 않았지만, 눈은 눈窩里에서 굴러다녔습니다. 그는 반복했습니다. '나는 복수할 것이다. 나는 복수할 것이다. 아,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른다. 10년, 20년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번개처럼 올 것이다. 아, 너희는 모른다. 복수하다. 악을 위해 악을 행하다. 어떤 기쁨인가! 나는 악을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너희는 모두 무릎 꿇고 빌 것이다. 무릎 꿇고!'" 아버지와 하인이 그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6주 후, 저는 비크리엔과 결혼했습니다.

"다브레크는 시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뤼팽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아니요. 하지만 제 결혼식 날,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다브레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서준 루이 프라스빌이 사랑하는 여인, 오

페라 가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목이 졸린 채로요."

"무엇?"

뤼팽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다브레크가…?"

"다브레크가 며칠 전부터 그 여자를 쫓아다녔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프라스빌이 집을 비운 사이 누가 들어왔고, 누가 나갔는지 입증할 길이 없었습니다. 흔적도, 단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라스빌은…"

프라스빌과 우리 모두에게 진위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도브르크는 그 젊은 여자를 납치하려 했다. 어쩌면 그녀를 놀라게 하거나 억지로 따르게 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격렬한 몸싸움 중 그는 공포에 질려 정신을 잃었고, 목을 조르다 그녀를 죽이고 말았다. 거의 본의 아니게 말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증거가 없었다. 도브르크는 심지어 의심조차 받지 않았다.

그 후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후로 수년간 우리는 그와 관련되어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단지 그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했고,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만 알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그의 분노와 협박은 잊혀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며, 복수 계획도 잊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게다가 나는 너무 행복했다. 사랑도, 행복도, 남편의 정치적 상황도, 아들 안토니의 건강도 내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했다.

"안토니?"

"네, 그게 진짜 이름이에요. 기베르가 불행한 그 사람은 최소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데는 성공했죠."

뤼팽이 물었다.

"언쯤… 기베르가… 시작했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베르트라고 부르죠. 그의 진짜 이름은 이제 입에 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기베르는 어릴 적부터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사랑스럽고, 모두에게 잘 통하고, 매력적이었지만, 게으르고 규율 따르는 법을 모르는 아이였죠.

그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파리와 가까운 기숙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다지 우리 곁에 두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듬해, 학교는 그를 퇴학시켰습니다."

"왜요?"

"행실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도망쳐 나간 것이 발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주 동안은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도 실제로는 행방불명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무엇을 했다는 거죠?"

"즐거움을 찾았죠. 경마를 하고, 카페를 배회하며, 공공 무도회장에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었겠네요?"

"누가 돈을 주었을까요?"

"그의 나쁜 영혼, 즉 부모 몰래 그를 학교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그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고,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로부터 떼어내며, 거짓말과 방탕, 도둑질을 가르친 남자."

"도브르크?"

"도브르크."

클라리스 메르기는 두 손을 모은 얼굴에 숨기듯 뺨의 붉은기를 감추었다. 그리고 지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도브르크가 복수한 거예요. 남편이 불쌍한 아들을 집에서 쫓아낸 바로 그 날 다음 날, 도브르크는 가장 도발적인 편지를 보내 아들이 저

지른 추악한 역할과, 그로써 아들을 타락시키는 데 성공한 음모들을 모두 폭로했어요. 그는 이렇게 썼죠. '언젠가 교정법원… 그 다음에는 항소법원… 그리고 희망사항은 교수형.'"

뤼팽이 외쳤다.

"뭐라고? 도브뢰크가 이번 사건의 주모자라니?"

"아니, 아니요.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그 끔찍한 예언은 그가 단지 바랐던 소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를 얼마나 공포에 떨게 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저는 병석에 누워 있었거든요. 막 태어난 작은 아들 자크를 둔 터라, 매일처럼 기베르트의 추악한 짓거리를 알게 되었어요. 위조 서명도 하고, 사기도 치고……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해외로 떠나라고 권했고, 나중에는 그가 죽었다고까지 알렸죠.

그때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더 비참해진 건, 남편이 빠져들게 될 정치적 폭풍이 몰아쳤을 때였어요."

"어떤 일인가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남편의 이름이 '이십칠 명' 명단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 순간, 뤼팽의 눈앞에서 가려진 베일이 찢어졌다. 번개 빛에 비친 듯, 지금까지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일련의 사실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클라리스 메르기가 더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 그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죠. 하지만 그것은 실수였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불운의 희생자였다고나 할까요. 빅토리앙 메르강은 실제로 '두 바다 간 프랑스 운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의 계획에 찬성하는 쪽에 투표했죠. 심지어 돈을 받기도 했어요. 네, 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금액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는 만 오천 프랑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던 정치 동료를 위해, 그리고 그 남성이 무심코, 무의식적으로 사용했던 도구였을 뿐이죠. 그는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의 회장이 자살하고, 금고 담당자가 사라진 날, 운하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온갖 비리와 추잡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났죠. 그제야 남편은 동료들 중 몇 명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다른 의원들의 이름이, 심지어 영향력 있는 의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갑자기 화제가 된 그 비밀스러운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 끔찍한 날들이여! 명단이 세상에 공개될까 봐? 자신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릴까 봐! 그건 지옥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상원의 공황 상태를 기억하시나요? 공포와 고발이 가득했던 그 분위기를요. 명단을 가진 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명단의 존재만은 알 뿐이었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그 폭풍에 휩

쓸려 사라졌을 뿐, 고발의 출처와 그 증거를 손에 쥔 자가 누구인지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다브렉이군요." 뤼팽이 입을 뗐다.

"아니, 그건 아니야!" 메르지 경이 소리쳤다. "그때만 해도 다브렉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직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았지. 아니…… 기억나? 진실은 순식간에 드러났어. 바로 그 진실을 숨기고 있던 자, 즉 전 법무장관이자 수로 회사 의장의 사촌인 제르미노가 직접 알려준 거야.

그는 폐결핵으로 누워 죽어가는 자리에서 경찰청장에게 편지를 썼다. 자신이 죽은 뒤 방 구석의 철제 금고 안에 그 명단이 들어 있을 거라고 유언처럼 남긴 거지. 경찰들이 그 집을 에워쌌고, 경찰청장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제르미노가 숨을 거두었다.

금고를 열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다브렉이군요." 뤼팽이 단호하게 말했다.

"네, 다브렉입니다." 메르기 씨가 말했다. 그의 초조함은 매분마다 커져만 갔다. "알렉시스 다브렉. 지난 여섯 달간 정체를 감추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장한 채, 제르미노의 비서를 지내던 사람요."

그가 어떻게 제르미노가 그 유명한 종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가 제르미노가 죽기 바로 전날 밤, 금고에 잠입해 부쉈다는 사실이다. 수사가 그 점을 입증했고, 다브렉의 신원도 명확히 드러났다.

"하지만 그를 체포하지는 않았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가 그 명단을 안전한 곳에 숨겨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잡는다는 것은 소동을 부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시금 그 흉측한 사건이 불거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지친 그 더러운 사건을,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묻어버리고 싶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협상을 벌였습니다."

뤼팽이 웃음을 터뜨렸다.

"다브렉과 협상이라니, 재미있군요!"

"네, 정말 재미있죠." 메르지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그동안 그는 행동했다. 거리낌 없이, 정면으로 돌파했다.

강도 사건을 저지른 지 사흘 만에, 그는 의회 의원들에게로 향했다. 내 남편을 찾아내서, 단호하게 요구했다. 이십사 시간 이내에 삼만 프랑을 내놓으라고.

안 그러면, 세상에 소문이 퍼지고 명성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남편은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용서할 줄 모르는, 원한과 잔혹함으로 가득 찬 자라는 것을 잘 알았다.

남편은 정신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말도 안 돼!" 뤼팽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도브뢰크는 스물일곱 명의 이름을 적어 둔 명단을 갖고 있다. 그중 한 명을 고발하려면, 자신의 주장을 믿게 하려면 반드시 그 명단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즉, 문서 자체, 적어도 그 문서의 사진을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면 스캔들이 일기는커녕, 그는 더 이상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도, 협박할 수도 없게 된다.

"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어떻게 알아요?"

"다브레크가 왔어요. 그 야비한 놈이 제게 찾아와서는, 남편과 만났던 일과 오간 말들을 냉소적으로 늘어놓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목록 하나뿐이 아니에요. 출납계원이 이름과 받은 금액을 적어 둔 그 유명한 종이조각 말고도요. 기억나시죠? 그 종이에는 회사 회장이 죽기 직전 피로 서명을 남겨 두었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알지 못하는, 조금 더 모호한 증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 회장과 출납계원 사이의 서신, 회장과 자문 변호사들이 주고받은 편지 같은 것들이요.

물론 결정적인 것은 그 종이조각에 휘갈겨 쓴 목록이에요. 그것이 유일하고 거스를 수 없는 증거죠.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봐야 소용없어요. 듣자 하니 그 진위는 아주 엄격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단서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의원 두 명을 무너뜨렸으니까요.

다브레크는 그 점을 아주 잘 이용하죠. 표적이 된 사람을 겁먹게 만들고 안절부절못하게 해요. 피할 수 없는 스캔들을 들이대면, 사람들은 요구받은 돈을 내거나, 제 남편처럼 자살을 선택하곤 하죠.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네," 뤼팽이 말했다.

그는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다브레크의 일생을 머릿속에 다시 그려보았다. 그는 다브레크가 이 명단을 손에 쥐고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떠올렸다. 서서히 어둠에서 벗어난 그는 피해자들에게서 짜낸 돈을 마구 뿌리고, 도의원과 의원 자리에 올라 위협과 공포로 군림했다. 그는 처벌받지 않았고, 다가갈 수도 공격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정부는 그에게 선전포고를 하느니 차라리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편을 택했고, 공권력조차 그를 떠받들었다. 그의 권세가 어찌나 막강했던지, 다브레크를 개인적으로 증오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존의 모든 권리를 무시한 채 프라스빌이 경찰청 사무총장으로 임명될 정도였다.

"그래서 그를 다시 만나셨습니까?" 뤼팽이 물었다.

"다시 만났어요. 그래야만 했거든요. 남편은 죽었지만, 그의 명성은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이름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브레크와 첫 회동을 받아들였죠."

"첫 회동이라고요? 그 이후에도 다른 만남이 있었단 말인가요?"

"네, 정말 많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극장에서도, 엔기엔의 어느 저녁에도, 그리고 파리의 밤거리에서도요. 그 남자를 보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니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아 주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을 초월한 더 큰 의무가 저를 재촉했죠. 바로 남편의 원수를 갚는 일."

그녀는 뤼팽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말했다.

"네, 복수였습니다. 그게 제 행동을 이끈 이유이자 제 평생의 숙원이었죠. 남편의 원수를 갚고, 잃어버린 아들의 원수를 갚고, 그가 제게 안긴 그 모든 고통을 제 손으로 되갚는 것…… 제겐 그 외에 다른 꿈도, 다른 목표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무너지기를, 그가 비참해지고 눈물 흘리기를—마치 그가 아직도 울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흐느끼고 절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죽음 말이군요."

뤼팽이 말을 가로막았다. 다브레크의 서재에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졌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의 죽음은 아니었어요. 그것도 자주 생각하긴 했죠. 심지어 그를 향해 손을 치켜든 적도 있어요. 하지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는 분명 대비를 해 두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서류는 남아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죽인다고 복수가 되는 건 아니죠. 제 증오는 그보다 더 멀리 나아갔어요. 저는 그의 몰락과 추락을 원했고, 그러려면 방법은 단 하나, 그의 발톱을 뽑아내는 것뿐이었어요. 그를 그토록 강하게 만들어 주는 그 문서를 빼앗기면, 다브레크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즉각적인 파산이자 몰락이죠. 그것도 더없이 비참한 꼴로요! 바로 그게 제가 노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브레크가 당신의 의도를 못 알아챘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알아챘죠.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만남은 참으로 기묘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를 감시하며 그의 몸짓과 말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려 애썼고…… 그는…… 그는……"

"그리고 그 남자는," 뤼팽이 클라리스 메르기의 생각을 마저 이어 갔다. "그가 탐내는 먹잇감을, 한 번도 사랑하기를 멈춘 적 없는 여자를, 지금도 사랑하고 온 힘과 온 분노를 다해 손에 넣으려는 그 여자를 노리고 있었던 거군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짤막하게 대답했다.

과연 기묘한 결투였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 갈라선 두 사람이 서로 맞선 결투. 다브레크의 열정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

었으면,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자기가 삶을 짓밟아 놓은 그 여자를 제 곁, 그토록 은밀한 자리에까지 끌어들였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얼마나 안전하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당신의 조사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뤼팽이 물었다.

"제 조사는 오랫동안 헛수고였습니다. 당신이 쓰신 조사 방법도, 경찰이 따로 쓴 방법들도, 저는 그보다 수년 앞서 다 동원해 봤지만 모두 헛일이었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절망에 빠지려던 무렵, 어느 날 다브레크의 엔기엔 별장에 갔다가 그의 책상 밑에서 뜻밖의 단서를 주웠습니다. 휴지통에 담긴 잡다한 종이 더미 속에 구겨져 버려진 편지의 첫머리였죠."

그 몇 줄은 다브레크의 친필이었습니다. 영어였지만 문법은 엉망이더군요. 그래도 겨우 읽어 낼 수 있었습니다.

'수정 내부에 구멍을 뚫어라. 단, 그 구멍이 절대 드러나지 않도록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아마 나는 이 문장이 지닌 중요성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마침 정원에 있던 다브레크가 부리나케 달려 들어와 휴지통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 서두르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가 나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거기…… 편지가 한 통 있었는데……"

나는 못 알아듣는 척했다.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고 같은 방향으로 조사를 이어 갔다.

그렇게 한 달 뒤, 거실 벽난로의 잿더미 속에서 영국 영수증 반쪽을 찾아냈다.

스투어브리지의 유리 장인 존 하워드가 의원 다브레크에게 견본과 똑같은 수정 병을 납품했다는 내용이었다. '수정'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스투어브리지로 떠났다. 유리 공장 감독을 매수한 끝에, 주문서의 지시대로 그 병의 마개 안쪽이 도려내어져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빈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뤼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보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금박 아래라 해도 거기 들어 있을 것 같지가 않더군요. 게다가 숨길 자리도 너무 비좁을 테고요."

"비좁긴 해도 충분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프라스빌에게서 들었어요."

"그럼 그를 만나고 계신 겁니까?"

"그때부터 만나고 있어요. 그전에는 남편과 제가 좀 미심쩍은 일들 때문에 그와 모든 관계를 끊었었죠. 프라스빌은 도덕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거리낌 없는 야심가이고, '두 바다 운하' 사건에서도 분명 추잡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돈을 받아 챙겼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어쨌든 저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마침 그가 경찰청 사무총장으로 막 임명된 참이었고요. 그래서 그를 택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 길베르가 한 짓을 그가 알고 있었나요?" 뤼팽이 물었다.

"아니요. 오히려 그가 차지한 위치 때문에, 저는 그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그랬듯 길베르의 출국과 죽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진실을 말했죠. 즉, 남편이 자살을 선택한 동기들과 제가 추구하던 복수의 목적을요."

저의 발견 사항을 모두 알려주자, 그는 기쁨에 뛰었습니다. 그의 다브레크에 대한 증오가 사그라들지 않았음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에게 이 목록이 매우 얇은 필름지 조각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종이를 작은 공처럼 말아 넣으면, 극히 좁은 공간에도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나 저에게나 주저할 틈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숨겨진 장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되,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를 라마르틴 광장 관리

인 클레망스에게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클레망스는 프라스빌에게는 그만큼 충실하지 않았죠," 뤼팽이 말했다. "그녀가 프라스빌을 배신했다는 증거가 제게 있으니까요."

"지금이야 그렇겠죠. 처음엔 아니었어요. 게다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수차례나 있었죠. 열 달 전, 바로 그 무렵에 길베르가 제 삶에 다시 나타났어요. 어머니는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짓을 저지르든 사랑을 멈추지 않는 법이죠. 게다가 길베르는 정말 매력이 넘쳤어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는 울었고, 어린 자크, 즉 제 동생을 꼭 끌어안았죠… 저는 용서했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땅바닥을 응시하며 말했다.

"차라리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아, 그 순간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땐 그를 내쫓을 끔찍한 용기를 분명히 낼 텐데. 내 불쌍한 아이… 그 애를 망친 건 바로 나야…"

그녀는 사색에 잠긴 듯 말을 이었다.

"그가 제 상상이나 오랫동안 제가 보아온 모습, 즉 방탕과 악덕에 찌들어 거칠고 추락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모든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외모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지만, 도덕적 측면에서는 확실히 나아졌어요. 당신이 그를 지지하고 일으켜 세웠죠. 비록 그의 존재가 저에게 혐오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는 어느 정도 체면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진실함의 밑바탕이 다시 표면에 떠오르는 것 같았죠. 그는 밝고, 무심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당신을 이야기할 때 그토록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답니다."

그녀는 말을 찾느라 어색해졌다. 뤼팽 앞에서 길베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을 너무 강하게 비난하기는 망설여졌지만, 그렇다고 칭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뤼팽이 물었다.

그 뒤로 나는 그를 자주 만났다. 그는 몰래 나를 찾아오기도 했고, 내가 그를 만나러 가기도 했다. 우리는 시골길을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나는 저절로 그에게 우리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곧장 열정을 불태웠다. 그 역시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었고, 수정마개를 훔쳐 다브렉이 자신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한 보복도 하고 싶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그리고 그 생각에 관해 말하자면 그는 끝까지 변함없었다, 바로 너와 손을 잡는 것이었다.

"글쎄, 그렇다면……" 뤼팽이 외쳤다.

"네, 알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가니마르 형사, 아시다시피 그 친구는 약한 편이잖아요. 동창 한 명의 영향력을 쉽게 받곤 했으니까요."

"보카레, 맞지?"

“네, 보샤르레는 음흉한 영혼을 가진 자였어요. 원한과 질투로 가득 차 있고, 교활한 야심가였죠. 술수와 어둠의 전문가요. 내 아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길베르이 그에게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조언을 구한 게 실수였죠. 모든 악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보샤르레는 우리를 설득했어요.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게 낫다고, 저를 포함해서요. 그는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휘권을 잡았죠. 결국 앙디엔 원정까지 조직했고, 당신의 지휘 아래 마리테레즈 빌라 도난까지 계획했습니다. 프라스빌과 그의 요원들은 하인 레오나르드의 엄격한 감시 때문에 그 빌라를 철저히 수색하지 못했거든요.

그건 미친 짓이었어요. 당신의 경험을 믿거나, 아니면 오해와 위험한 주저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당신을 계획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샤르레가 우리를 압도했으니까요.

저는 다브렉과 극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사이 사건이 벌어졌죠.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끔찍한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레오나르드의 살해, 그리고 아들 체포 말입니다. 그 순간 미래의 비극을 직감했어요. 다브렉의 끔찍한 예언이 현실이 된 거죠. 재판이고, 유죄 판결이었어요. 모두 제 탓이었어요. 아들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어머니의 잘못이었습니다.”

클라리스는 손을 비비며 온몸으로 열병의 전율을 느꼈다. 자식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어머니가 겪는 고통과 비교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동정심에 젖은 뤼팽이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를 구해 낼 겁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날 저녁, 앙디앵에서 벌어진 일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녀는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었다. 얼굴은 고통과 열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녀는 대답했다.

"당신의 동무 두 명을 통해서입니다.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해, 보슈레의 동무 두 명을 통해서요. 그들은 보슈레가 두 개의 배를 몰고 갈人选으로 완전히 신뢰하고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그들, 그로그나르와 르발루를 말하는 겁니까?"

"네. 빌라에 돌아오신 뒤, 경찰서장이 호수에서 당신을 쫓아왔을 때, 당신은 배에 올라타면서 그들에게 몇 마디 해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자동차로 향하셨죠. 그들은 당황해서 내 집으로 달려왔어요. 이미 그곳에 여러 번 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베르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밤이었어요. 뤼팽을 찾아야 한다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당신의 도움을 간청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디서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그로나르와 르 발루는 상황의 압박을 받아, 그들의 친구 보셰레의 역할, 그의 야

망,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계획을 저에게 설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를 제거하려는 거죠, 그렇죠?" 뤼팽이 비웃었다.

"네, 길베르가 당신의 모든 신뢰를 받고 있었죠. 그는 길베르 자신을 감시했고, 그 덕분에 당신의 모든 거처를 다 알고 있었어요. 며칠만 더 지나 수정마개를 손에 쥐고, 스물일곱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도브레크의 막강한 권력을 물려받게 되면, 그는 당신을 경찰에 넘겼을 거예요. 이제 그의 것이 된 당신의 무리는 단 한 명도 걸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바보 같은 놈!" 뤼팽이 중얼거렸다. "그런 하급 자일 뿐이잖아!"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문판에 새겨진 표시들이……"

그는 당신과 도브레크를 상대로 벌이게 될 싸움에 대비해, 그들을 감시할 장비를 준비했다. 그에게 특유의 마력가 같은 조수가 하나 있었다. 극도로 마른 체격의 난쟁이였는데, 그 작은 몸집 덕분에 좁은 구멍으로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덕분에 그는 당신의 모든 편지와 비밀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이 두 친구가 내게 털어놓은 진실이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내 큰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 형제인 작은 자크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자크는 그 난쟁이처럼 몸집이 작았을 뿐만 아니라, 똑똑하고 용감했다. 당신이 보셨듯이 말이다.

그날 밤, 우리는 떠났다. 동료들의 지시에 따라, 기베르의 개인 주택에서 마티농 거리 당신의 아파트 열쇠 사본을 찾아냈다. 당신도 그곳에서 밤을 보내게 될 것 같았다.

길에서 그로냐르와 르 발루가 내 결심을 굳혀 주었다.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분명 당신에게 있을 수정마개를 되찾는 데 더 많은 생각을 했다. 만약 그 마개가 앙디앙에서 발견되었다면, 당신 손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맞았다. 몇 분 뒤, 당신의 방에 숨어들었던 작은 자크가 그 마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희망으로 떨며 그 자리에 섰다.

이제 나는 그 부적의 주인이 되었다. Prasville에게 알리지 않고 오롯이 내 것으로 간직함으로써, 나는 도브레크를 완전히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했고, 그의 의지는 나의 노예가 되었다. 그는 기베르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고, 결국 그가 탈출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사형은 면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었다.

"그래, 어때?"

클라리스가 온몸으로 일어서며 몸을 앞으로 굽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뤼팽에게 말했다.

"그 수정 조각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이해하시죠? 종이 한 장, 숨겨진 공간 하나 없었죠. 앙기앵 일대는 헛수고였어요! 헛

수고였죠, 레오나르드 살해는! 헛수고였죠, 제 아들 체포는! 헛수고였죠, 제 모든 노력이!"

"하지만 어째서? 어째서?"

"어째서요? 당신 다브렉에게서 훔쳐간 건, 그의 지시로 만든 마개가 아니었어요. 스토브리지의 유리 장인 존 하워드가 본보기로 삼았던 마개였죠."

만약 뤼팽이 앞에 있는 깊은 슬픔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운명의 장난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농담을 참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바보 같은 짓 아니었나요? 더더욱 바보 같은 짓이었죠. 다브렉에게 경보를 울려 놓았으니까요."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그날 바로 앙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브렉은 이 일의 본질을 아직까지도, 그리고 오늘까지도 단순한 절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집품을 노린 도둑놈의 짓이라고요. 당신의 개입이 그를 오해하게 만든 거죠."

"그렇다면 사라진 수정마개는 어떻게 된 거죠?"

"일단 그 물건은 다브렉에게 있어 이차적인 중요성밖에 갖지 못합니다. 원본이 아니라 모형이니까요."

"어떻게 알았나요?"

"대나무 기둥 밑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국에서 조사를 해봤죠."

"좋아요. 하지만 도둑맞은 찬장이 있던 방의 열쇠는 왜 하필 하인이 항상 가지고 있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열쇠는 왜 파리의 다브렉 집 테이블 서랍에서 발견되었나요?"

"다브르크는 그걸 각별히 소중히 여깁니다. 가치 있는 사물의 모형을 손에서 놓지 않듯이요. 그래서 그가 실종 사실을 깨닫기 전에, 저는 그 마개를 다시 찬장 속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작은 자크가 당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마개를 꺼내도록 하고, 관리인이 다시 그곳에 돌려놓게 했죠."

"그렇다면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목록을 찾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프라스빌과 제가 그 목록이 숨겨진 물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뤼팽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클라리스 메르기 곁에 멈춰 섰다.

"요약하자면, 앙당 사건 이후로 당신은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셈이군요?"

"한 번도 아니었어요. 그날그날 살았죠. 그 두 남자를 이끌기도 하고, 제가 이끄는 척하기도 했어요. 딱히 세운 계획은 없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다브뢰크로부터 스물일곱 명 명단을 빼앗는 것 외엔 다른 목적이 없었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요? 게다가 당신의 행동이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다브뢰크의 새로운 하녀가 바로 당신의 옛 하녀 비크투아르라는 걸 금방 알아챘죠. 관리인의 말에 따라 비크투아르가 당신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고요. 그래서 당신의 계획이 무서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서 물러나라고 편지를 보낸 거죠?"

"당신도 발드빌 극장 공연 날 밤에는 극장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관리인이 비크투아르가 도브레크와 나 사이의 전화 대화를 엿듣는 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집을 감시하고 있던 르발루가 당신이 밖으로 나오는 걸 봤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도브레크를 뒤쫓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후 늦게 여기서 일하던 여공은 누구였나요?"

"그건 나였어요. 낙담한 나머지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요."

"그리고 길베르의 편지를 가로챈 것도 당신인가요?"

"네. 봉투에 적힌 글씨를 알아봤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작은 아들 자크는 함께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는 밖에 있었어요. 르발루와 함께 자동차를 탔죠. 제가 거실 창문을 통해 그를 올려보냈고, 그는 패널의 구멍을 통해 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불행히도 길베르의 비난 때문이었어요. 그가 저를 외면한다며, 이 일을 혼자서 짊어지려 한다며 저를責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제 불신을 확고히 했죠. 저는 도망쳤습니다."

뤼팽은 짜증 섞인 듯 어깨를 으쓱였다.

"시간을 얼마나 허비한 거야! 대체 왜 우리는 더 일찍 뜻을 모을 수 없었던 걸까? 우리는 서로 숨바꼭질하고 있었지. 터무니없는 함정을 파고, 서로를 속이며.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되돌릴 수 없는 날들이 흘러갔는데."

"보시죠, 보신다고요." 그녀가 전율하며 말했다. "당신도 미래가 두렵군요."

"아니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뤼팽이 외쳤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쳤다면 이미 이룬 유용한 성과들을 생각하니 아깝습니다. 우리가 합심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모든 실수와 무모함을요.

오늘 밤 당신이 도브레크가 입고 있는 옷을 뒤지는 시도는 다른 시도들과 마찬가지로 헛수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이의

쓸데없는 싸움과 그의 저택에서 일어난 소란 덕분에, 도브레크는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경계할 것입니다."

클라리스 메르기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음 때문에 그가 깨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시도를 하루 미룬 것은, 관리인이 그의 포도주에 매우 강력한 마약성 진정제를 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덧붙였다.

"게다가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도브르크가 더 경계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위험에 대한 예방책의 연속이죠.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아요. 더구나 그는 모든 승산을 손아귀에 쥐고 있지 않나요?"

뤼팽이 다가가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쪽으로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네,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나, 오직 하나뿐이지만요."

그녀가 다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기 전에, 그는 그녀의 창백한 기색을 눈치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병에 걸린 듯한 전율이 그녀의 온몸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공포가 무엇 때문인지 짐작한 그는, 그녀의 슬픔에 마음이 움직여 몸을 숙였다.

"제발, 솔직하게 답해 주시오. 길베르 때문이죠, 맞나요? … 만약 법이 다행히도 그의 과거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면, 만약 바쉐레의 동료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아무도 모른다면, 적어도 누군가는 알고 있겠죠? 맞나요? 도브레크가 마스크를 쓴 길베르가 바로 당신의 아들 안투안이라고 인정했나요?"

"네, 네…"

"그가 당신을 구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맞나요? 자유를 주겠노라, 탈출을 도모하겠노라,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가 어느 날 밤, 그의 사무실에서 당신에게 제안한 것이… 당신이 그를 때리려던 그 밤에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조건은 단 하나뿐이었죠? 맞나요? 그 비루한 자만이 생각해 낼 수 있을 만큼 끔찍한 조건이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클라리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처럼 세력을 넓혀 가는 적과, 자신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상대와 길게 이어진 싸움 끝에 완전히 지친 듯 보였다.

뤼팽은 그녀가 이미 승자의 뜻대로 내던져진, 미리 정복당한 사냥감임을 보았다.

다브르크가 실제로 살해한 메르기의 애정 어린 아내, 다브르크가 타락시킨 길베르의 놀란 어머니, 클라리스 메르기. 아들을 처형대에서 구하기 위해, 그녀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이 얼마나 치욕적이라 해도 다브르크의 요구에 굴복해야 했다.

그녀는 다브르크의情妇가 되고, 아내가 되고, 순종하는 노예가 되어야 했다.

야수 같은 체격과 행동을 가진 그 괴물, 뤼팽이 생각만 해도 격분과 혐오감이 치밀어 오르는 그 말도 못 할 인물에게 말이다.

그는 그녀 곁에 앉았다. 자비로운 손길로 부드럽게 다독이며, 그녀는 고개를 들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속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잘 들어요. 당신의 아들을 구해주겠다고 맹세합니다. 네, 맹세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듣는 대로요. 제가 살아 있는 한, 그 누구도 당신의 아들에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믿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신뢰를 둡니다."

"믿으세요. 저는 패배를 모르는 남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다만,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요."

"무엇을요?"

"당신은 더 이상 도브르크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와 맺은 어떤 합의나 거래에 대한 생각, 혹은 두려움—even 가장 미미한 것이라도—모두 떨쳐버리십시오."

"맹세합니다."

그녀는 온전한 안도와 깊은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을 받으며 그는 자신을 바치는 기쁨을 느꼈고, 이 여인에게 행복을, 적어도 상처를 아물게 할 평온과 잊음을 되돌려주고 싶은 간절한 욕망을 품었다.

"자, 일어나자고." 그는 일어서며 밝은 어조로 말했다. "다 잘될 거야. 앞으로 두 달, 아니 세 달이 더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해. 물론 내 행동이 자유로울 때 말이지. 그러려면 당신도 이 싸움에서 물러나야 해."

"어떻게요?"

"그래, 잠시 사라져서 시골로 내려가는 거야. 게다가 네 어린 자식 재크가 안쓰럽지 않아? 이대로라면 이 가엾은 아이의 신경이 다 망가질 텐데."

"진짜, 그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자격이 있어. 그렇지, 허큘레스?"

다음 날, 크라리스 메르기는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녀 역시 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 잠시 쉴 필요가 있었다. 그래

서 그녀는 아들 데니스와 함께 친구인 한 여사의 집에 기거했다. 그 집은 생제르맹 숲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크라리스는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다. 머릿속은 악몽으로 가득 찼고, 신경성 장애에 시달렸다. 사소한 감정 변화만으로도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육체적인 무기력과 정신적 혼란 속에서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신문 읽기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뤼팽은 전술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데브뢰크 의원을 납치하고 감금할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그뢰냐르와 르발루는 성공하면 용서해주겠다고 약속받은 자들로, 적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모든 신문은 Arsène 뤼팽의 공범들이 곧 기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있었다.

오후 네 시쯤, 샤토브리앙 거리 아파트에서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였다.

뤼팽이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여성의 숨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셸 보몽 씨?"

"네, 마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빨리 오세요. 서둘러 오세요. 메르기 씨가 방금 중독됐습니다."

뤼팽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집 밖으로 뛰어나가 자신의 자동차에 올라타 생제르맹으로 향했다.

클라리스의 친구가 방 문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죽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아니요. 약의 양이 부족했습니다. 의사가 방금 나갔습니다. 그녀는 살아납니다."

"그럼 왜 자살을 시도한 거죠?"

"아들 자크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납치당한 걸까요?"

"네. 아이가 숲 입구에서 놀고 있었는데, 자동차 한 대가 멈추더니 두 노부인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비명이 들렸죠. 클라리스가 달려가려 했지만, 기운이 빠져 쓰러지며 신음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저 남자예요… 다 끝났어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약병을 입에 대고 마셨죠."

"그 다음?"

"그 후,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안방으로 옮겼어요. 그녀는 너무도 고통스러워했죠."

"당신의 주소와 이름을 어떻게 알았소?"

"의사가 그녀를 치료하는 사이, 그녀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전화를 걸었죠."

"다른 누구도 모르는 거요?"

"아무도 몰라요. 클라리스가 끔찍한 곤경에 처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키길 원하죠."

"저 그녀를 볼 수 있나요?"

"지금 자고 있어요. 게다가 의사가 모든 자극을 금지했답니다."

"의사는 그녀를 걱정하지 않는 건가요?"

"열이 나거나 신경이 과민해지거나, 환자가 자살 시도를 다시 할 만한 위기가 오면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특히…"

"어떻게 해야 위기를 피할 수 있죠?"

"작은 자크 Jacques가 있는 한, 절대 불가능한 절대적인 안정을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뤼팽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 아이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 그럼요. 그러면 더는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겠지요!"

"확실합니까?… 정말 확실합니까?… 그래요, 그렇겠죠, 분명히… 그럼, 메르기 부인이 깨어나면 제 말을 전해 주십시오. 오늘 밤 자정 전에 그분의 아들을 데려다주겠다고요. 오늘 밤 자정 전에, 이건 제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 말을 마친 뤼팽은 재빨리 집을 나와 자동차에 다시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외쳤다.

"파리로. 라마르틴 광장, 도브레크 의원 집으로."

제6장

뤼팽의 자동차는 단순한 탈것이 아니었다. 책과 종이, 잉크, 깃펜이 갖춰진 서재일 뿐 아니라, 화장 도구 일습이 든 상자와 온갖 옷가지가 가득 찬 트렁크, 그리고 우산·지팡이·스카프·코안경 등 소품이 잔뜩 든 또 다른 상자까지 갖춘, 그야말로 배우의 분장실이나 다름없었다. 이 모든 장비 덕분에 그는 이동하는 도중에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장할 수 있었다.

저녁 여섯 시쯤, 약간 통통한 체격에 검은 프록코트를 입고 실크해트를 쓴 한 신사가 도브레크 의원 집의 철문 초인종을 울렸다. 얼굴 양옆으로는 구레나룻을 길렀고, 코에는 안경을 걸치고 있었다.

관리인이 그를 현관 계단으로 안내했고, 초인종 소리에 불려 나온 비크투아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물었다.

"도브레크 씨가 베르네 박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주인님께서는 방에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내 명함을 전해 줘."

그는 명함 여백에 '메르기 부인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적고는, 다그치듯 말했다.

"자, 그분이 분명 나를 만나 주실 거야."

"하지만…" 비크투아르가 머뭇거렸다.

"이런! 그래, 결정 좀 하지그래, 할멈? 별 호들갑을 다 떠는군!"

그녀는 깜짝 놀라 더듬거렸다.

"너!… 너로구나!"

"아니, 루이 14세야."

그러고는 그녀를 현관 구석으로 밀어붙이며 말했다.

"들어 봐… 내가 그자와 단둘이 있게 되면, 곧장 네 방으로 올라가서 후딱 짐을 싸 들고 튀어."

"뭐라고!"

"시키는 대로 해. 큰길 저쪽에 내 차가 있을 거야. 자, 어서, 나를 안내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하지만 안이 안 보이는데요."

"불을 켜."

그녀는 전기 스위치를 돌리고 뤼팽을 혼자 남겨두었다.

'여기다.' 자리에 앉으며 그는 생각했다. '수정마개가 여기 숨어 있는 거야. 도브레크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말이지… 아니, 좋은 은신처가 있으면 쓰는 법이지. 게다가 이곳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해. 지금까지 아무도 못 찾았으니까…'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해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리고 도브레크가 프라스빌에게 써 보낸 편지를 떠올렸다. '바로 자네 손 닿는 곳에 있다네, 친애하는 친구. 자네는 그걸 만지기까지 했지… 조금만 더… 그랬으면 손에 넣었을 텐데…'

그날 이후로 아무것도 움직인 기색이 없었다. 책상 위에는 예전과 똑같은 물건들이 널려 있었다. 책, 장부, 잉크병, 우표함, 담배, 파이프들. 모두 수없이 뒤지고 살펴본 것들이었다.

'아, 이 작자.' 뤼팽이 생각했다. '일을 아주 빈틈없이 꾸며 놨군. 잘 만든 연극처럼 짜임새가 탄탄해.'

사실 뤼팽은 자신이 무엇을 하러 왔고 어떻게 행동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만한 강적을 상대로 한 이번 방문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었다. 도브레크가 끝까지 전장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었고, 대화가 뤼팽이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

그런 가능성은 뤼팽의 마음에 적잖은 짜증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몸을 곧추세웠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브레크가 들어왔다.

그는 한 마디도 없이 들어와, 일어서 있던 뤼팽에게 다시 앉으라고 손짓하고는, 자기도 책상 앞에 앉아 받아 두었던 명함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베르네 박사라…?"

"네, 의원님. 생제르맹의 베르네 박사입니다."

"보아하니 메르기 부인이 보내서 오셨군요… 박사님의 환자겠지요?"

"어쩌다 한 번 보게 된 환자입니다. 조금 전, 몹시 비극적인 상황에서 불려 가기 전까지는 그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편찮으십니까?"

"메르기 부인이 음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도브레크가 흠칫 놀라더니, 동요를 감추지 못한 채 다시 말했다.

"뭐라고요? 방금 뭐라셨습니까? 음독이라니! 혹시 죽기라도 했나요?"

"아닙니다. 양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합병증만 없다면 메르기 부인은 살 거라고 봅니다."

도브레크는 입을 다문 채, 뤼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꼼짝 않고 있었다.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눈을 감고 있나?' 뤼팽은 속으로 자문했다.

적의 눈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몹시 괴롭혔다. 안경과 검은 코안경이라는 이중의 장막에 가려진 눈, 메르기 부인의 말로는 충혈되어 핏발이 서고 병든 그 눈을 말이다. 얼굴 표정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의 은밀한 생각의 흐름을 좇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칼날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도브레크가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메르기 부인이 살아났다… 그런데 그분이 박사님을 내게 보냈다…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나는 그 부인을 거의 알지도 못하는데."

'바로 이게 고비다.' 뤼팽은 생각했다. '자, 가 보자.'

그러고는 소심한 사람 특유의 곤혹스러움이 내비치는 사람 좋은 말투로 그가 입을 열었다.

"이런, 의원님, 의사의 의무가 몹시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모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습니다. 제가 그분을 돌보고 있던 사이에 메르기 부인이 두 번째로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네, 불행히도 약병이 그분 손 닿는 곳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빼앗았고, 우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면서, 그분이 띄엄띄엄 끊기는 말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도브레크… 의원…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에게 그렇게 전해 주세요… 안 그러면, 죽어 버리겠어요… 네, 당장… 오늘 밤에… 죽고 싶어요!'"

"자, 이렇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의원님께 알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인이 지금처럼 극도로 격앙된 상태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물론 저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저 즉흥적인 충동에 이끌려 곧장 이리로 온 겁니다…"

도브레크는 꽤 오래 생각하더니 말했다.

"요컨대 박사님은, 제가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는지 물으러 오신 거군요… 제 짐작엔 사라진 아이일 텐데, 그렇죠?"

"그리고 만약 제가 그 아이가 있는 곳을 안다면, 박사님이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다주시겠다는 거고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뤼팽은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는 걸까? 죽음의 위협만으로 충분할까? 아니,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런데도… 그런데도… 망설이는 기색이군.'

"실례하겠습니다." 도브레크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전화기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말했다. "급히 통화할 데가 있어서요."

"그렇게 하시지요, 의원님."

도브레크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교환원, 822-19번 좀 연결해 주시겠소?"

그는 번호를 한 번 더 일러 주고는,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뤼팽이 미소 지었다.

"경시청이지요? 사무총장실…"

"맞습니다, 박사님… 아니, 어떻게 아셨습니까?"

"법의관으로 일하다 보면 가끔 전화할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서 뤼팽은 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영문이지? 사무총장이라면 프라스빌인데… 그럼 어쩌자는 거야?’

도브레크는 수화기 두 개를 양쪽 귀에 대고 또렷하게 말했다.

“822-19번이오?… 사무총장 프라스빌 씨를 부탁합니다… 안 계시다고요?… 아니, 분명 계실 거요, 이 시간이면 늘 집무실에 계시니까… 도브레크 씨가 전화했다고 전해 주시오… 도브레크 의원이라고… 대단히 중요한 용건이라고 말이오.”

“제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요?” 뤼팽이 말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박사님.” 도브레크가 잘라 말했다. “게다가 이 통화는 박사님이 오신 용건과 아주 무관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러고는 말을 멈추었다.

“여보세요, 프라스빌 씨? … 아, 너였구나, 내 옛 친구. 어쨌든, 넌 당황한 모양이군. … 그래, 맞아. 우리 정말 오랜만에 통화하는군. … 하지만 마음속으로 우리는 늘 함께였지. … 내가 없을 때는 너와 너의 예술가 친구들이 자주 찾아오기도 했어. … 하지만, 그렇지? … 여보세요? … 뭐? 급해? … 아, 미안해. 나도 급하니까. … 그러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 네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은 거야. … 잠깐만, 야! … 후회하지 않을 거야. … 네 명성도 걸린 일이라구. … 여보세요? … 내 말 듣고 있나? … 그래, 형사국 소속으로 여섯 명 정도 데려와. … 상설 사무실에 있는 놈들이 좋을 거야. … 차를 타고 여기로 급히 와. … 네게

최고의 사냥감을 주마, 내 친구. … 상류 사회의 귀족. … 나폴레옹 자신이야. … 요컨대, 아르센 뤼팽.”

뤼팽이 벌떡 일어섰다. 그는 무슨 일이든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런 결말만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놀라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그의 천성 전체에서 솟구치는 충동이 그를 사로잡아,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 브라보! 브라보!”

도브레크가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다.

“알로… 프라스빌? 뭐라고? 잠깐, 친구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여기, 내 사무실 내 맞은편에 뤼팽이 있어. 다른 놈들처럼 나를 성가시게 구는 그 뤼팽 말이야. 아, 한 놈 더 늘든 줄든 난 상관없어. 그래도 이번 놈은 좀 지나치게 주제넘게 굴어. 그래서 네 우정에 기대 보려고. 제발 이 자를 좀 치워 줘. 네 부하 여섯 명 정도하고, 우리 집 앞에서 보초 서고 있는 두 명이면 충분할 거야. 아, 온 김에 삼층으로 올라가서 내 요리사도 잡아 가. 바로 그 유명한 빅토리야. 알지? 뤼팽 그 양반의 늙은 유모 말이야. 그리고 하나 더 알려 주지. 내가 너를 어지간히 아끼나 봐? 샤토브리앙 거리, 발자크 거리 모퉁이로 한 부대 보내. 바로 거기 우리의 국민적 영웅 뤼팽이 미셸 보몽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 알아들었지, 친구? 자, 이제 일에 착수해. 어서 움직여.”

다브렉이 고개를 돌렸을 때, 뤼팽은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다. 다브렉이 빅토리와 샤토브리앙 거리의 집에 대해 털어놓은 폭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들 앞에서 처음 품었던 감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모욕감이 너무 컸다. 그는 더 이상 작은 마을 의사를 연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황소가 장애물을 향해 돌진하듯 다브렉에게 달려들게 만드는 그 엄청난 분노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는 것.

다브렉은 그 특유의, 웃음을 흉내 내는 듯한 일종의 꼬꼬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뒤뚱거리며 다가와, 한 마디 한 마디 또박또박 내뱉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게 다 잘된 거 아냐? 땅이 말끔히 치워지고, 상황이 깔끔해졌어… 적어도 훤히 보이게 됐지. 뤼팽 대 다브렉, 그게 다야. 게다가 얼마나 시간을 아꼈는지 몰라! 법의관 베른 의사였다면 그 얽힌 실타래를 푸는 데 두 시간은 걸렸을 텐데, 이렇게 하니 뤼팽 그 양반은 자기 용건을 단 삼십 분 안에 털어놓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멱살을 잡히고 공범들까지 붙잡히게 될 테니까."

"개구리 연못에 돌을 던진 격이지! 삼십 분, 단 일 분도 더는 안 돼. 이제 삼십 분 안에 이 자리를 비우고, 토끼처럼 줄행랑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쳐야 해. 하하! 정말 우습군."

"이봐 폴로니우스, 정말이지 넌 이 비비 다브렉과는 운이 없구나! 저 커튼 뒤에 숨어 있던 게 바로 너였지, 가엾은 폴로니우스?"

뤼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를 진정시켜 줄 유일한 해법, 즉 상대의 목을 졸라 버리는 것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일이어서, 차라리 채찍질처럼 그를 후려치는 조롱을 맞받아치지 않고 견디는 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방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이 지긋지긋한 다브렉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가장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잠자코 있어야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였다.

그래서 그는 깊이 확신하고 있었다. 만약 입을 연다면, 승자의 얼굴에 분노의 말과 욕설을 뱉어내기 위해서일 뿐이라고.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요한 건 냉정하게 행동하고, 새로운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던가?

"어떻게 된 거지, 뤼팽 씨?" 의원이 다시 물었다. "당신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네요. 자, 현실을 직시해야죠.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당신은 제가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해서 눈이 멀었다고 생각했나요?"

"아니, 내가 처음부터 폴로니우스 뒤에 뤼팽이 있고, 그 폴로니우스 뒤에 보드빌 극장의 칸막이 관람석에서 나를 귀찮게 하러 온 그 남자가

있었다고 단번에 알아챈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걸렸죠.

경찰과 메르지 부인 사이에 슬쩍 끼어들려는 제3의 도둑이 있다는 건 분명히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관리인 입에서 새어나온 말들로, 요리사가 드나드는 모습을 관찰하고, 믿을 만한 곳에서 그녀에 대한 정보를 캐내면서 차츰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밤, 모든 것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잠들어 있긴 했지만 저택 안의 소란을 들었거든요. 저는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었고, 메르지 부인의 자취를 우선 샤토브리앙 거리까지, 이어서 생제르맹까지 좇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는 여러 사실을 한데 꿰맞췄습니다.

앙기앵의 절도 사건, 질베르의 체포, 비탄에 빠진 어머니와 도둑단 두목 사이의 피할 수 없는 동맹, 요리사로 들어앉은 늙은 유모… 이 모든 자들이 문이나 창문으로 제 집을 드나들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확신이 섰습니다. 뤼팽 선생이 숨겨진 비밀의 냄새를 맡고 킁킁대고 있다는 걸요.

그 스물일곱 명의 냄새가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건 그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때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뤼팽 선생.”

다브렉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가장 까다로운 애호가들에게서도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다운, 뚜렷한 만족감을 드러내며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던 것이다.

뤼팽이 잠자코 있자, 그는 시계를 꺼내 들었다.

“에이, 에이! 이제 스물세 분밖에 안 남았군. 시간 참 빨리 가네. 이대로라면 서로 이야기 나눌 짬도 없겠어.”

그러고는 뤼팽에게 다시 다가갔다.

“그래도 영 섭섭하군. 난 뤼팽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조금 진지한 상대를 처음 만나자마자 그 거인이 무너지는 건가? 가엾은 젊은이여… 정신 차리게 물 한 잔 할까?”

뤼팽은 짜증 섞인 말 한마디, 몸짓 하나 없었다. 그는 완벽한 침착함으로,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계획된 행동의 선명함을 보여준 듯 정확한 동작으로, 다브렉을 부드럽게 물러나게 했다. 그는 식탁 쪽으로 다가가, 차례로 전화 수화기를 들었다.

그가 물었다.

“실례합니다, 미스. 565-34번으로 연결해 주시겠어요?”

번호를 연결받은 그는, 느린 목소리로 각 음절을 또렷이 잘라 말하며 말했다.

"여보세요… 샤또브리앙 거리입니다… 아실, 너 맞지?… 응, 나야, 사장님… 잘 들어, 아실… 지금 당장 아파트를 비워야 해. 여보세요… 응, 지금 바로… 경찰이 곧 올 거야… 아니, 아니, 너무 놀라지 마… 시간이 있어. 다만 내 말대로만 해. 짐은 이미 준비됐지?… 좋아.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캐리어 중 하나는 비워둔 거지? 좋아. 그럼 내 방으로 가서 벽난로 정면을 바라봐. 왼손으로 벽난로 앞쪽 대리석 판 중앙에 새겨진 작은 장미 문양을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벽난로 윗부분을 눌러. 그러면 서랍처럼 생긴 공간이 나올 거야. 그 안에 작은 상자 두 개가 있어. 조심해. 하나는 우리 서류들이고, 다른 하나는 지폐와 보석들이 들어 있어. 두 상자를 모두 캐리어의 빈 공간에 넣어. 캐리어를 들고 발걸음을 재촉해, 빅토르 위고 대로와 몽테스팡 대로 모퉁이까지 걸어와. 차는 빅토리와 함께 기다리고 있어… 내가 곧 합류할게… 뭐? 내 옷이나 소품은? 그냥 다 두고 서둘러. 나중에 만나자."

뤼팽은 태연하게 전화기를 밀어 놓았다. 그러고는 다브렉의 팔을 잡아 자기 옆 의자에 앉히고 말했다.

"자, 이제 내 말 들어."

"오호, 오호." 의원이 비웃었다. "이제 반말이군."

"그래, 내가 허락하는 거야." 뤼팽이 말했다.

그는 여전히 다브렉의 팔을 놓지 않고 있었다. 다브렉이 경계하는 기색으로 몸을 빼려 하자, 그가 말했다.

"아니, 겁먹지 마. 우린 싸우지 않을 거야. 서로 망가뜨려 봐야 어느 쪽도 득 볼 게 없잖아. 칼부림? 뭐 하러? 아니야. 말로, 오직 말로만 할 거야. 하지만 제대로 먹히는 말로. 내 말은 이래. 분명하게 말하지. 너도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대답해. 그게 나아. 그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어."

"돌려줘."

"메르지 부인이 자살할 거야."

"내 장담하는데, 그래."

"나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해."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한 번 시도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지?"

뤼팽은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이미 그걸 예상하고 있었어. 여기에 오면서부터, 네가 베른 의사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란 것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기로 마음먹었어."

"뤼팽식 방법 말이지."

"맞아. 내가 정체를 드러낼 거란 걸."

"네가 먼저 그걸 했잖아. 잘했어. 하지만 내 계획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말해 봐."

뤼팽은 노트에서 두 장의 관공서 용지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다브렉에게 건네며 말했다.

"자네의 빌라 마리테레즈에서 내 친구들이랑 내가 가져간 물건들의 정확하고 상세한 목록이야. 앙기앵 호숫가에 있는 그 집이지. 순서 번호까지 다 적었어. 보다시피 총 113개야.

이 113개 중 68개, 즉 빨간 십자가 표시가 된 물건들은 이미 미국으로 팔려나갔어. 그러니 나머지 45개는 추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내 손에 남아 있어. 게다가 그쪽이 훨씬 아름다운 것들이지.

이걸 자네에게 주지. 대신 아이를 당장 돌려줘."

다브렉은 놀람을 억누르지 못했다.

"오, 오! 자네가 그토록 집착하다니!"

"당연하지." 뤼팽이 말했다. "아들의 부재가 길어지면 메르지 부인에게는 곧 죽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야."

"그게 너를 그렇게 당황하게 만들었나, 도나 후안?"

"뭐?"

뤼팽이 그 앞에 서서 되물었다.

"뭐라고? 대체 무슨 뜻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생각이 좀 났을 뿐이야. 클라리스 메르기는 아직 젊고 예쁘잖아."

뤼팽은 어깨를 으쓱했다.

"바보 같은 녀석아! 넌 네 자신처럼 남들도 모두 마음도 자비도 없다고 생각하나 보군. 내 같은 도둑이 돈키호테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게 너에겐 참을 수 없이 답답한 모양이지? 대체 무슨 나쁜 동기가 나를 움직이는지 궁금한가? 알 바 아니야, 친구. 넌 그건 알 수 없어. 대신 말해 봐.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나?"

"정말 진지한 건가?" 도브레크가 물었다. 뤼팽의 경멸 어린 시선은 그에게 별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듯했다.

"물론이지. 사십오 개의 물건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주소는 나중에 알려주마. 오늘 밤 아홉 시, 아이를 데리고 네가 직접 나타나면 물건을 건네주마."

도브르끄의 대답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작은 자크 납치는 그에게 클라리스 메르지를 조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어쩌면 그가 벌인 전쟁을 멈추라는 경고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살 위협은 도브르끄에

게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왜 뤼팽이 제안한 그 유리한 조건을 거절했을까?

"수락하지." 그가 말했다.

"창고 주소는 뤼팽이 알려주었다. 뉘이 시 카를라피트 거리 95번지. 그냥 초인종을 누르면 돼."

"제가 대신 총무과장 프라스빌을 보내면 어때?"

"프라스빌을 보내면 돼. 그 집 구조상 내가 그가 오는 걸 보고, 탈출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콘솔과 시계, 그리고 고딕 양식의 동상들을 감싸고 있는 건초더미에 불을 지르면서 말이야."

"하지만 너의 창고는 불타 버릴 텐데…"

"상관없어. 경찰이 이미 그 곳을 감시하고 있거든. 어쨌든 나는 그 곳을 떠날 거야."

"그게 함정이 아니라고 누가 보증해 주나?"

"일단 물건을 받아들이고, 아이는 나중에 돌려줘. 나는 믿고 있어."

"좋아, 뤼팽." 도브레크가 말했다. "너는 모든 걸 계산해 뒀군. 그래, 네가 아이를 데려가면, 아름다운 클라리스는 살아남고 우리 모두 행복해질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해 줄 수 있는 조언은, 얼른 도망치라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뭐라고?"

"내가 말했지.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넌 미쳤어. 프라스빌은 이미 길을 떠났단 말야."

"그가 기다리면 되지. 내가 아직 끝내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대체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클라리스의 아이는 구해 주겠지. 그게还不够해?"

"왜?"

"아들 하나 더 남아있거든."

"길베르?"

"그래."

"길베르를 구해 줘!"

"뭐라고? 내가 길베르를?"

"네가 할 수 있어. 몇 가지 절차만 밟으면 돼……"

지금까지 차분함을 유지해 오던 도브렉이 갑자기 격분했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게 기대하지 마…… 아,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는 극도로 초조한 걸음으로 거닐기 시작했다. 특이한 그의 걸음걸이는 매 걸음마다 몸을 좌우로 흔들었다. 마치 무능하고 둔중한 발걸음을 옮기는 야수, 혹은 곰처럼 보였다.

그는 쉰 목소리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외쳤다.

"그녀가 여기로 오게 해라! 아들의 은혜를 빌러 오라고! 하지만 이번에도 무기는 들지 말고, 악의도 품지 말고 오게 하라! 그녀는 간청하는 여인, 길들여지고 복종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인 여인으로 와야 해. 그러면 상황이 보일 거야… 길베르? 길베르의 사형 선고? 교수형? 하지만 내 모든 힘은 거기에 달려 있어! 무얼, 내가 내 시대를 스무 해나 기다렸는데, 이제 그 시간이 왔고, 운명이 이 뜻밖의 기회를 가져다주었고, 드디어 완벽한 복수의 기쁨을 알게 되려는 순간… 그리고 그 복수라니!… 지금 내가 이를 포기하고, 스무 해 동안 쫓아온 것을 놓치겠다는 말인가? 내가 길베르를 구하겠다고? 아무 대가도 없이! 명예를 위해서! 나, 도브렉이!"

"아니, 그렇지 않아. 넌 나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는 끔찍하고 사납게 웃었다. 눈앞에, 손이 닿는 거리에, 그가 오랫동안 쫓아온 먹이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뤼팽도 클라리스를 떠올렸다. 며칠 전 그가 본 그대로, 기절할 듯하고 이미 패배한 듯, 필연적으로 정복당한 클라리스. 모든 적대 세력이 그녀를 향해 결집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자신을 억누르며 말했다.

"내 말 들어."

다브렉은 성이 나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뤼팽은 그의 양어깨를 잡았다. 바둑빌의 목욕탕에서 다브렉이 몸소 경험한 적 있는, 초인적인 힘으로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그는 말했다.

"마지막 말만 하겠네."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걸," 의원이 투덜거렸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마. 들어라, 도브르크. 메르지 백작은 잊어라. 자존심과 열정이 부추기는 모든 어리석음과 무모함을 버리고, 그런 건 모두 치워라. 오직 네 이익만 생각해야 해."

"내 이익?" 도브르크가 농담조로 말했다. "내 이익은 언제나 내 자존심과, 당신이 말하는 내 열정과 일치하죠."

"아마도 그때까지만 그랬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이 일에 개입했으니까요. 당신은 간과하고 있는 새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실수입니다. 길베르는 제 공범이자 친구입니다. 길베르가 교수대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걸 해주세요. 당신의 영향력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맹세합니다. 당신도 듣시오, 저는 맹세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내버려두겠다고요. 길베르를 구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메르기 경이나 저와 더 이상 싸울 필요도, 함정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죠. 길베르를 구하는 거예요, 도브렉.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전쟁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전쟁, 다시 말해 당신에게는 확실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건 제가 스물일곱 명 명단을 다시 찾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군요."

"저는 맹세합니다."

"프라스빌과 그 무리, 클라리스 메르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네가 해낼 수 있다고?"

"내가 해내겠소."

"왜? 어떤 성인의 명복을 빌며, 모두 실패한 곳에서 네가 성공한다는 거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지?"

"무슨 이유요?"

"내 이름은 아르센 뤼팽이오."

그는 도브레크의 팔을 놓았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시선과 자신의 의지력으로 그를 조종하고 있었다. 결국 도브레크는 몸을 일으켜, 뤼팽의 어깨를 짧고 단호하게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같은 차분함, 그리고 격분한 집요함으로 말했다.

"제 이름은 도브렉입니다. 제 인생은 치열한 투쟁의 연속이며, 연이은 재앙과 패배의 나날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으니, 이제 승리가 찾아왔죠. 완전하고, 결정적이며, 오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승리를."

"저는 경찰 전체와 정부, 프랑스 전체, 나아가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아르센 뤼팽까지 적으로 두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말하자면, 적들이 많고 교활할수록 저는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죠, 훌륭한 선생님. 제가 당신을 체포할 수도 있었지만…… 네, 아주 쉽게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고, 자비롭게 일러줍니다. 3분 안에 이 자리를 비켜야 한다는 사실을."

"그럼, 거절하는 거야?"

"그래."

"길베르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

"아니. 감옥에 들어간 이후로 내가 해오던 일을 계속할 거야. 간접적으로 법무장관을 압박해서, 내 뜻대로 재판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만드는 거지."

"뭐라고?!" 뤼팽이 격분하며 외쳤다. "네 탓이야, 너 때문이라고!"

"다브렉, 내 문제야. 음, 신이여, 맞아요. 저는王牌을 하나 쥐고 있어요. 바로 그 아들의 목이죠. 그걸 저울질할 거예요.

일단 길베르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내고, 시간이 흐른 뒤, 제 손을 거쳐 그 젊은이의 사면이 거절당하면, 뤼팽 씨, 당신은 확신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알렉시스 다브렉'이라는 이름을 달아달라고, 그리고 저에게 즉각적이고 의심의 여지 없는 증거를 건네달라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행복한 결말은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운명이에요. 이미 승부는 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제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에요. 결혼식 날 증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점심 식사에 초대하는 것. 괜찮아요?

아니요? 그럼 당신은 여전히 어두운 계획을 고수하는군요?

좋아요. 행운을 빕니다. 함정을 놓고, 그물을 던지고, 무기를 갈고, 복사본 도둑의 매뉴얼을 정독하세요. 그게 필요할 거예요.

이만 인사는 줄게요. 스코틀랜드의 예의가 저에게 당신을 문밖으로 내보내라고 명하고 있거든요. 가시죠."

뤼팽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는 다브렉을 똑바로凝視하며, 상대의 위상을 재고, 힘을 가늠했다. 그리고는 정밀하게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계산했다.

다브렉은 주먹을 쥐었다. 그는 속으로 이 공격에 맞설 방어 태세를 갖췄다.

반 분 정도가 흘렀다. 뤼팽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다브렉도 즉시 따라 했다. 그는 권총 손잡이를 잡았다.

몇 초가 더 지났다. 뤼팽은 차분하게 금색 사탕함을 꺼내 열었다. 그리고는 다브렉에게 건넸다.

"사탕 한 개?"

"이게 뭐죠?" 다브렉이 놀라며 물었다.

"제라델 사탕입니다."

"왜요?"

"당신이 곧 걸릴 감기를 위해요."

그는 다브렉이 농담에 잠시 당황한 틈을 타 재빨리 모자를 챙겨 도망쳤다.

‘역시 졌군.’ 복도를 지나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영업사원의 작은 농담은 뭔가 새롭다. 자두를 기대했는데 제라들 알약이 나왔으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늙은 침팬지는 깜짝 놀랐지.’

그가 철문을 닫으려던 순간, 한 대의 자동차가 멈췄다. 한 남자가 재빨리 내려섰고, 그 뒤로 여러 사람이 따라나섰다. 뤼팽은 프라스빌을 알아봤다.

“총무님, 안녕하세.”

“언젠가 운명이 우리를 마주치게 할 거야. 그날이 오면 너는 큰일 날 거야. 나는 너를 별로 신뢰하지도 않아.”

“오늘은 급해서 그렇지, 네가 떠난 뒤 다브렉을 따라가 그가 아이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확인하려 했어. 하지만 전화로 처리할 수도 있으니, 헛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비크토르와 아실, 그리고 우리 보물상자를 찾으러 가자.”

두 시간 뒤, 뤼팽은 뉘이 자신의 창고에 숨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다브렉이 근처 골목에서 나타나,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뤼팽은 직접 큰 문을 열었다.

“의원님, 소지품이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옆에 자동차 대여점이 있으니 트럭과 일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도브레크는 먼저 물건을 살핀 뒤, 뤼팽을 데리고 뉘이 거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베일을 쓴 두 노부부가 어린 자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뤼팽은 다시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자동차로 갔다. 비크투아르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불필요한 말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마치 배우들이 대본을 외우고, 오고 가는 동선과 입퇴장 시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연극 무대처럼 완벽하게 조율된 듯했다.

저녁 열 시, 뤼팽은 약속대로 작은 자크를 어머니 품에 돌려주었다. 하지만 아이는 연이은 사건들로 인해 너무도 흥분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래서 급히 의사를 불러야 했다.

자크가 완전히 회복되어, 뤼팽이 필수라고 판단한 이 여행을 감당할 만큼 체력을 되찾기까지는 이틀이 넘게 걸렸다. 게다가 어머니 메르기 부인 역시 그날 밤, 모든 각오를 다한 채 뤼팽의 지휘 아래 떠날 준비를 할 즈음에야 비로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뤼팽은 모자와 아들을 브르타뉴의 한 작은 해변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을 비크투아르의 보호와 세심한 돌봄에 맡겼다.

드디어 그들을 집안으로 들여보냈다. 이제 다브렉과 나 사이에는 아무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

메르지 경과 그 소년에게는 더 이상 당할 것이 없다. 그녀가 개입해서 싸움의 방향을 틀릴 일도 이제 없다.

후,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모른다. 다브렉 앞에 서는 정체가 드러나야 했고, 앙드앵의 가구류에서 내 몫도 내줘야 했다.

물론 언젠가는 그걸 다시 찾아오리라.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아무 진척도 없다. 8일도 안 되어 길베르와 보셰레가 중범죄 재판소에 넘겨진다.

뤼팽이 이 모험 속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부분은 다브르크가 자신의 샤토브리앙가 집안 소동을 고발한 일이었다. 경찰이 그 집을 뒤집어놓았다. 뤼팽과 미셸 보몽의 신분이 드러났고, 몇 가지 서류가 발견되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 했다. 이미 시작해 둔 여러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경찰의 조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빡빡해졌으니, 그 추적을 피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는 안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토대 위에서 자신의 조직을 재편성해야 했다.

다브레크에 대한 그의 분노는 그 의원이 일으키는 골치 아픈 일들만큼이나 커져만 갔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욕망만 남아 있었다. 다브레크를 붙잡아두는 것, 말하자면 주머니에 쑤셔 넣고 자신

의 뜻대로 조종하는 것. 그리고 그의 비밀을 강제로든, 자발적으로든 뽑아내는 것.

그는 가장 침묵을 지키는 남자라도 입을 열게 할 만한 고문들을 꿈꿨다. 발목 조임틀, 고문대, 불에 달군 집게, 못이 박힌 널빤지들…….

그는 적군이 모든 형벌에 걸맞은 놈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달해야 할 목표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믿었다.

'아, 좋은 화형대만 있다면 좋겠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고문관 몇 명만 있으면.'

그는 중얼거렸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을 텐데.'

오후마다 그르냐르와 르발루는 도브레크가 라마르틴 광장, 하원의 사당, 그리고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사교클럽을 오가던 길을 면밀히 살폈다. 그들은 가장 한적한 거리와 가장 적절한 시간을 골라, 어느 날 밤 그를 차에 태워 납치하기로 계획했다.

반면 뤼팽은 파리 근처의 넓은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저택을 고쳐, 보안과 은신에 완벽한 조건을 갖췄다. 그는 그곳을 '원숭이의 우리'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브레크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거의 매일매일 그는 이동 경로를 바꾸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전차를 탔기 때문이다. 덕분에 뤼팽의 '우리'는 항상 비어 있었다.

뤼팽은 또 다른 계략을 세웠다.

그는 마르세유에서 정예 부하인 브랑드부아 신부를 불러들였다. 은퇴한 정직한 식료품 상인인 그는 바로 도브레크 선거구에 거주하며 정치 활동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브랑드부아 신부는 마르세유에서 도브레크에게 방문 소식을 알렸다. 도브레크는 이 중요한 유권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유권자는 좌안(左岸)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을 추천했다. 그곳에서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도브레크는 흔쾌히 승낙했다.

바로 이것이 뤼팽의 의도였다. 그 레스토랑의 주인은 뤼팽의 친구 중 한 명이었다. 따라서 다음 목요일에 벌어질 사건은 실패할 리가 없었다.

그런데 같은 주 월요일, 길베르와 오셰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 일은 아직 생생하다. 재판 과정이 너무 최근의 일이라, 내가 자세히 기억해 낼 필요조차 없다. 판사가 기베르를 심문하는 방식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편파적이었다.

이 사실이 주목받았고, 사람들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비판했다. 뤼팽은 여기서 다브렉의 악명 높은 영향력을 감지했다.

두 피고인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보샤레는 침울하고 말이 없었으며, 표정에는 날카로운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과거에 저지른 범죄들을 단호하고도 냉소적인 어조로, 거의 도발하듯 자백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레오나드 하인 시해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 대신 기베르를 맹렬히 비난하며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씌웠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자신과 기베르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 뤼팽이 두 공범에게 동일한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려는 것이었다.

게르베르의 얼굴은 정직해 보였고, 그의 눈에는 동경과 슬픔이 담겨 있어 모든 이의 동정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함정에 빠졌고, 보셰레의 거짓말을 반박하지도 못했다. 그는 울기만 하거나, 너무 많이 말하거나, 필요할 때 말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의 변호사는 법조계의 거장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병이 났다. 이때도 뤼팽은 도브레크의 손길이 닿았다고 확신했다. 변호사는 비서로 대체되었고, 이 비서는 사건을 잘못 처리하며 배심원들의 호감을 잃었다. 그는 검찰의 기소장과 보셰레 측 변호사의 변론이 남긴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뤼팽은 마지막 심문 날인 목요일에 놀랄 만큼 대담하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결과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유죄 판결은 확실해 보였다.

그녀는 확신했다. 사법부의 모든 노력이 보셰레의 전술과 맞물려 두 피고인을 단단히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더욱 확신했다. 이 사건이 뤼팽의 두 공범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가 시작된 날부터 판결이 내려지는 날까지, 사법부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했고, 또 노력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뤼팽을 이 사건에 직접 연루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판은 뤼팽을 겨누고 진행되었다.

그들이 목표로 삼아 타격하려 했던 상대는 바로 그였다. 친구들을 통해 처벌해야 할 두목, 대중의 시선에서 그의 명성을 무너뜨려야 할 유명한 도둑이었다.

길베르와 보셰레가 처형되면, 뤼팽의 후광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전설은 여기서 끝이 될 것이다.

사흘 동안, 아니 사흘 밤낮으로 들린 이름은 오직 하나였다.

뤼팽. 아르센 뤼팽.

검찰총장도, 재판장도, 배심원도, 변호사들도, 증인들도 입에 올리는 말이 그것뿐이었다. 그들은 뤼팽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다. 모든 죄악의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씌웠다.

길베르와 보셰레가 등장한 것은 고작 배경에 불과했다. 진짜 심판대 위에 선 것은 오직 그 남자, 즉 뤼팽이었다.

도둑 뤼팽, 조직의 두목, 위조범, 방화범, 재범자, 전감옥수.

살인자 뤼팽.

피의 피해자를 더럽힌 뤼팽.

친구들을 교수대 발치로 내몰아놓고 정작 자신은 비겁하게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뤼팽.

"아,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알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내 빚을 가엾은 내 큰 아이 길베르가 갚는 거야. 진짜 죄인은 바로 나다."

그리고 비극은 끔찍한 양상으로 펼쳐졌다.

저녁 일곱 시, 긴 심의 끝에 배심원단이 법정으로 돌아왔고, 배심장이 법원이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낭독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였다. 유죄였고, 감경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피고인을 다시 법정으로 들였다.

그들은 선 채로, 비틀거리며 창백한 얼굴로 사형 선고를 들었다.

대중의 불안이 연민과 뒤섞인 장엄한 정적 속에서, 중죄법원 재판장이 물었다.

"더 할 말이 없소, 보슈레?"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 동료가 저와 같이 유죄 판결을 받으니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 둘은 같은 처지니까요. 그러니 상관이 없죠. 상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

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

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

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

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

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

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관이요. 다만 상

"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은 게 사실입니다…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만은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끔찍합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경비병들이 부축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도움을 청하는 아이처럼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보스님… 저를 구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군중 속에서, 모두가 격하게 동요하는 가운데, 그 소란을 압도하는 한 목소리가 솟아올랐다.

"겁내지 마라, 얘야. 보스가 여기 있다."

소동이 일었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부딪쳤다. 시 경비대와 경관들이 법정으로 몰려들었고, 그 외침을 던진 장본인으로 참석자들이 지목한, 얼굴이 불그레한 뚱뚱한 남자 하나를 붙잡았다. 남자는 주먹질과 발길질로 발버둥 쳤다.

즉석에서 심문을 받자 그는 자기 이름을 필립 바넬이라 밝혔다. 장의사 직원이었다. 그러면서 한 이웃이 자신에게 100프랑짜리 지폐를 주며, 정해진 순간에 그 이웃이 수첩 한 페이지에 적어 준 문장을 외쳐 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증거로 그는 100프랑짜리 지폐와 수첩 페이지를 꺼내 보였다.

필립 바넬은 풀려났다.

그러는 동안, 뤼팽은 재판소를 나서고 있었다. 물론 그는 그 인물의 체포에 크게 기여했고, 그자를 경비대 손에 넘긴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죄어들고 있었다.

강변로에 이르러 그는 자신의 자동차를 발견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차 안으로 몸을 던졌다. 너무도 큰 슬픔이 그를 덮쳐, 눈물을 참으려면 안간힘을 써야 했다.

길베르의 부름, 절망으로 일그러진 그 목소리, 무너져 내린 얼굴, 비틀거리던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런 기억을 단 한 순간도 다시는 잊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는 여러 곳에 마련해 둔 거처 가운데 새로 고른 집으로 돌아왔다. 클리시 광장 한쪽 모퉁이에 자리한 집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그날 밤 함께 도브레크를 납치하기로 한 그로냐르와 르 발루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파트 문을 채 열기도 전에 그의 입에서 외마디 소리가 터져 나왔다. 클라리스가 그 앞에 서 있었다. 평결이 내려진 바로 그 시각에 브르타뉴에서 돌아온 클라리스였다.

그녀의 태도와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그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곧바로 그녀를 마주한 채 용기를 되찾았고, 그녀가 말을 꺼낼 새도 주지 않고 외쳤다.

"그래, 맞아, 맞아…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로선 막을 수 없었어. 중요한 건 이 화를 미리 막는 거야. 그리고 오늘 밤, 잘 들어, 오늘 밤이면 그 일은 끝나 있을 거야."

그녀는 고통에 질린 채 꼼짝도 못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오늘 밤이요?"

"그래. 다 준비해 뒀어. 두 시간 뒤면 도브렉은 내 손아귀에 들어와. 오늘 밤, 내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는 입을 열게 될 거야."

"정말요?" 그녀는 가냘프게 말했다. 마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치는 듯했다.

"그는 반드시 말할 거야. 내가 그의 비밀을 손에 쥐게 될 테니까. 그에게서 '스물일곱 명'의 명단을 빼낼 거야. 그리고 그 명단이 바로 네 아들을 구원할 열쇠가 될 거라고."

"이미 늦었어요." 클라리스가 중얼거렸다.

"늦었다니! 왜? 그런 중요한 문서와 맞바꿔서 내가 길베르의 가짜 탈옥을 성사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사흘 뒤면 길베르는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사흘 뒤면…"

그때, 초인종 소리가 그 말을 끊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는군. 안심해. 나는 약속을 지켜. 네 어린 자크를 돌려줬잖아. 이제 길베르도 돌려주마."

그는 그로냐르와 르발루를 맞으러 가서 말했다.

"준비는 다 됐나? 브랭드부아 영감은 식당에 있고? 자, 어서 서두르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목." 르발루가 대꾸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새로운 소식? 말해 봐."

"도브렉이 사라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브렉이 사라졌다고?"

"네, 대낮에 자택에서 납치당했어요."

"제기랄! 누가?"

"모르겠습니다… 네 명의 괴한이… 총격도 있었고요. 경찰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프라스빌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요."

뤼팽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안락의자에 쓰러져 있는 클라리스 메르지를 바라보았다.

뤼팽 자신도 무언가에 몸을 기대야 했다. 도브렉이 납치당했으니,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제7장

경찰청장과 보안국장, 그리고 예심 판사들이 도브렉의 자택에서 첫 수사를 마치고 떠난 직후 — 게다가 그 수사 결과는 완전히 헛것이었다 — 프라스빌은 다시 혼자서 조사를 이어 갔다.

그가 서재와 그곳에서 벌어진 격투의 흔적을 살피고 있을 때, 관리인 여자가 명함 한 장을 가져왔다. 연필로 몇 마디가 휘갈겨져 있었다.

"그 부인을 들여보내시오." 그가 말했다.

"그 부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리인 여자가 말했다.

"아, 그래요? 그럼 함께 온 사람도 들여보내시오."

클라리스 메르지가 안내를 받아 들어와, 곧바로 동행한 남자를 소개했다. 너무 꽉 끼는 검은 프록코트를 입은, 다소 꾀죄죄하고 주뼛거리는 사내였는데, 낡은 중산모와 무명 우산, 짝짝이 장갑 한 짝, 한마디로 제 온몸을 몹시 거북해하는 기색이었다.

"니콜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사실 교사이자 제 아들 자크의 복습 교사예요. 니콜 선생은 지난 일 년 동안 여러 조언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수정마개에 얽힌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구성해 낸 것도 바로 이분이고요. 폐가 되지 않으신다면, 이 납치 사건의 경위를 저뿐 아니라 이분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저를 불안하게 하고 제 계획을 흐트러뜨리는 일이니까요… 당신 계획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나요?"

프라스빌은 클라리스 메르지를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그녀가 도브렉에게 얼마나 끈질긴 증오를 품고 있는지 잘 알았고, 이번 사건에서 그녀의 협조가 얼마나 값진지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몇 가지 단서와, 무엇보다 관리인 여자의 진술 덕분에 알아낸 사실을 주저 없이 털어놓았다.

게다가 사정은 아주 단순했다.

길베르와 보슈레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소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던 도브렉은, 저녁 여섯 시쯤 집으로 돌아왔다.

관리인 여자는 도브렉이 혼자 들어왔고, 그 시각 자택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몇 분 뒤, 그녀는 비명을, 이어 몸싸움 소리와 두 발의 총성을 들었다. 그리고 관리실에서 내다보니 가면을 쓴 남자 네 명이 도브렉 의원을 떠메고 현관 계단을 굴러 내려가 대문 쪽으로 서둘러 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대문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 자동차 한 대가 자택 앞에 도착했다. 네 남자는 차 안으로 뛰어들었고, 사실상 멈추지도 않은 자동차는 쏜살같이 달아났다.

"보초 두 명은 늘 서 있지 않았나요?" 클라리스가 물었다.

"있었지요." 프라스빌이 단언했다. "하지만 백오십 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고, 납치가 어찌나 순식간이었는지 아무리 서둘러도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봤나요? 아무것도 못 찾았고요?"

"아무것도, 거의 아무것도요… 그저 이것뿐입니다."

"이게 뭔가요?"

"바닥에서 주운 작은 상아 조각입니다. 자동차 안에는 다섯 번째 인물이 타고 있었는데, 관리인 여자가 관리실 창문으로, 도브렉을 차에 싣는 동안 그자가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다시 타려다 무언가를 떨어뜨렸고 곧바로 주웠지요. 하지만 그것이 보도 위에 떨어지며 깨졌던 모양입니다. 주워 모은 게 바로 이 상아 조각이니까요."

"그런데 그 네 사람은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죠?" 클라리스가 물었다.

"물론 가짜 열쇠를 썼겠지요. 게다가 오후에 관리인 여자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고, 도브렉에게 다른 하인이 없었으니 몸을 숨기기도 쉬

웠습니다. 아무래도 그들은 옆방인 식당에 숨어 있다가, 서재에 있던 도브렉을 덮친 것 같습니다. 가구와 물건이 엉망으로 뒤집힌 걸 보면 격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알 수 있지요. 카펫 위에서는 도브렉의 것인 이 대구경 권총을 발견했습니다. 총알 한 발은 벽난로 거울까지 깨뜨렸고요."

클라리스는 의견을 듣고자 동행한 남자 쪽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니콜 씨는 고집스레 눈을 내리깐 채 의자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모자를 내려놓을 마땅한 자리를 아직 못 찾은 듯 모자 챙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프라스빌이 빙긋 웃었다. 보아하니 클라리스의 조언자는 그리 대단한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사건이 좀 모호하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

"네… 네… 무척 모호합니다." 니콜 씨가 수긍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 따로 생각해 두신 건 없으신가요?"

"글쎄요, 사무총장님. 저는 도브렉에게 적이 많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적들 가운데 그가 사라지면 이득을 볼 자들이 그를 노리고 결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군요, 정말 완벽해요." 프라스빌이 비꼬는 듯한 너그러움으로 맞장구쳤다. "완벽합니다. 모든 게 환해졌어요. 이제 우리 수사 방향을 잡을 만한 작은 단서 하나만 주시면 되겠군요."

"사무총장님, 바닥에서 주운 그 상아 조각이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니콜 씨. 그 파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물건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고, 그 주인은 서둘러 그걸 감추려 하겠지요. 적어도 주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려면 그 물건의 정체부터 밝혀야 합니다."

니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무총장님, 나폴레옹 1세가 권좌에서 물러났을 때……"

"이런, 이런, 니콜 씨, 프랑스 역사 강의를 하시려고요!"

"한 문장이면 됩니다, 사무총장님. 마저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한 문장입니다. 나폴레옹 1세가 권좌에서 물러나자, 왕정복고 정부는 적잖은 장교들을 반봉(半俸) 상태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경찰의 감시를 받고 당국에 의심을 사면서도 황제에 대한 추억에 충실했던 그들은, 코담배갑·반지·넥타이핀·칼 따위 온갖 일상용품에 자기들이 떠받드는 우상의 모습을 새겨 넣으려 애썼지요."

"그래서요?"

“이 파편은 지팡이, 더 정확히는 등나무로 만든 일종의 호신용 곤봉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 손잡이가 조각된 상아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요. 이 덩어리를 어떤 각도에서 보면 바깥 윤곽선이 나폴레옹의 옆모습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건 어느 반봉 장교의 단장을 장식하던 상아 손잡이의 한 조각입니다.”

“과연…” 프라스빌이 증거물을 불빛에 비춰 보며 말했다. “과연 옆모습이 보이긴 하는군요… 하지만 결론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도브렉의 피해자들 중, 곧 그 유명한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이들 중에는 나폴레옹을 섬기며 그에게서 부와 작위를 얻었다가 훗날 왕정복고 시기에 몰락한 코르시카 가문의 후손이 있습니다. 몇 해 전 보나파르트파의 수장이었던 그 후손이 바로 자동차 안에 숨어 있던 다섯 번째 인물일 확률이 열에 아홉입니다. 그 이름을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알부페 후작 말이오?” 프라스빌이 낮게 중얼거렸다.

“알부페 후작입니다.” 니콜 씨가 단언했다.

그리고 곧바로, 모자와 장갑과 우산 때문에 거북해하던 기색이 온데간데없어진 니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프라스빌에게 말했다.

"비서국장님, 이 사실을 저 혼자 간직하고서 완전히 승리한 뒤, 즉 스물일곱 명의 명단을 가지고 찾아간 뒤에야 말씀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합니다. 도브레크가 사라진 일은 납치자들의 예상을 깨고, 비서국장님이 막으려던 위기를 오히려 앞당길 수도 있습

니다. 그러니 서둘러야 합니다. 비서국장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청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기묘한 인물에게 강한 인상을 받은 프라스빌이 물었다.

"내일 당장 알부페즈 후작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모으는 데 며칠은 걸릴 정보 말입니다."

프라스빌은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며 메르기 부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클라리스가 그에게 말했다.

"제발 니콜 씨의 도움을 받아 주십시오. 더없이 유능하고 헌신적인 조력자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보증하듯 그를 보증합니다."

"무슨 정보를 원하십니까, 선생?" 프라스빌이 물었다.

"알부페즈 후작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가족 관계, 하는 일, 친척 관계, 그리고 파리와 지방에 가진 재산까지요."

프라스빌이 반박했다.

"결국 알부페즈 후작이든 다른 사람이든, 도브레크를 납치한 자는 우리 편입니다. 명단을 되찾아 도브레크를 무력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비서국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자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 있으니까요."

"그가 그걸 지워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자보다 더 악랄하고 더 강력한, 게다가 정치적 적수로서는 도브레크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이어 갈 두 번째 협박꾼과 마주하게 된다면요?"

이 논리는 비서국장의 마음을 건드렸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입을 열었다.

"내일 오후 네 시에 경찰청 내 사무실로 오시오. 필요한 정보는 다 알려 주겠소. 혹시 필요할 때를 위해 주소가 어떻게 되시오?"

"클리시 광장 25번지, 니콜입니다. 자리를 비운 친구가 빌려준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면담은 그것으로 끝났다. 니콜 씨는 감사 인사를 하고 비서국장에게 깊이 허리를 숙인 뒤, 메르기 부인과 함께 방을 나섰다.

"정말 좋은 기회로군." 밖으로 나온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나는 경찰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

메르기 부인은 그만큼 쉽게 희망을 품지 못하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리가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저를 가장 괴롭히는 건 이 명단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누가요? 도브레크가요?"

"아니요, 후작이 그걸 되찾고 나서요."

"하지만 후작은 아직 되찾지 못했어요! 도브레크가 버틸 테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그에게 닿을 만큼은 오래 버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프라스빌이 제 손안에 있잖아요."

"그가 당신의 정체를 간파하면요? 아주 작은 조사만으로도 니콜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날 텐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니콜이라는 자가 곧 아르센 뤼팽이라는 게 드러나진 않아요. 게다가 안심하세요. 사실 경찰로서는 형편없기 짝이 없는 프라스빌은 오직 한 가지 목표밖에 없어요. 오랜 원수인 도브레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걸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좋다고 여기니, 자기에게 도브레크의 목을 가져다주겠다고 약속한 니콜 씨의 신원을 확인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나를 데려온 사람이 바로 당신이고, 따지고 보면 내 자잘한 재주가 그를 적잖이 눈부시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그것도 대담하게 나아갑시다."

클라리스는 자신도 모르게 뤼팽 곁에 있으면 늘 다시 자신감을 되찾곤 했다.

앞날이 더는 그토록 끔찍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길베르를 구할 가능성이 이 끔찍한 사형 선고로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고, 또 그렇게 인정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뤼팽은 클라리스를 브르타뉴로 돌려보내는 데에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곳에 남아 모든 희망과 모든 불안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다음 날, 파리 경찰청의 정보는 뤼팽과 프라스빌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알부페즈 후작은 운하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 정도가 심해서 나폴레옹 공마저 프랑스 내 자신의 정치국 운영을 그에게서 거두어들여야 했을 정도였다. 후작은 갖은 임시변통과 빚으로 겨우 집안의 호화로운 살림을 떠받치고 있었다.

또한 도브레크 납치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평소와 달리 후작은 그날 저녁 여섯 시부터 일곱 시 사이에 사교 클럽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집에서 저녁 식사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후작은 자정 무렵에야, 그것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니콜 씨의 고발은 이렇게 해서 증거의 실마리를 얻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 뤼팽이 자기 나름의 수단을 동원해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도브레크의 저택에 침입한 자동차와 운전사, 그리고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는 단서 하나조차 모을 수 없었다.

그들은 후작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연루된 그의 패거리였을까? 아니면 그가 돈으로 부리는 자들이었을까? 알 길이 없었다.

그러니 모든 수사는 후작과, 그가 파리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소유한 성과 저택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의 평균 속도와 필요한 정차 시간을 고려하면 그 거리는 대략 백오십 킬로미터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알부페즈는 모든 것을 팔아 치운 뒤여서, 지방에 성도 저택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후작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로 눈을 돌렸다. 그쪽 어딘가에 도브레크를 가둘 안전한 은신처가 있지는 않을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클라리스 메르기에게 그것은 어떤 날들이었던가! 하루가 지날 때마다 길베르는 그 무서운 기일에 가까워졌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녀가 무심결에 마음속에 정해 둔 날짜까지 남은 시간이 또 스물네 시간씩 줄어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같은 불안에 사로잡힌 뤼팽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제 쉰닷새… 이제 쉰 날… 그 짧은 날들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 제발… 부탁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뤼팽은 후작을 감시하는 일을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아, 사실상 잠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후작은 규칙적인 생활로 돌아갔고, 아마도 경계심 때문인지 외출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단 한 번, 낮에 그는 몽모르 공작의 집을 찾아갔다. 공작의 사냥대는 뒤를렌 숲에서 멧돼지를 사냥했고, 후작은 그와 사냥으로만 어울리는 사이였다.

"설마." 프라스빌이 말했다. "오로지 자기 땅과 사냥에만 몰두하고 정치는 하지 않는 그 대부호 몽모르 공작이, 자기 성에 도브레크 의원을 감금하는 일에 손을 빌려줄 리는 없겠지."

뤼팽도 그 의견에 동의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운에 맡기고 싶지 않았다.

그다음 주 어느 날 아침, 알부페즈가 승마복 차림으로 나서는 것을 본 그는 뒤를 쫓았다. 북역까지 따라간 그는 기차에 올라 그를 계속 미행했다.

알부페즈는 오말 역에서 내렸고, 거기서 그를 몽모르 성으로 데려갈 마차 한 대를 잡았다.

뤼팽은 느긋하게 점심을 먹고 자전거를 한 대 빌렸다. 그리고 손님들이 자동차나 말을 타고 정원을 빠져나올 무렵 성이 보이는 곳에 다다랐다. 알부페즈 후작도 기마 손님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날 하루 동안 뤼팽은 그가 말을 달리는 모습을 세 번 다시 보았고, 저녁에는 알부페즈가 몰이꾼 한 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역으로 가는 것을 다시 보았다.

그러니 이 시험은 결정적이었고, 그쪽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뤼팽은 왜 겉모습만 믿고 넘어가지 않기로 했을까? 또 왜 이튿날 르 발루를 보내 몽모르 인근을 조사하게 했을까? 어떤 논리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일 처리 방식과는 잘 들어맞는 지나친 신중함이었다.

그다음 날, 르 발루는 별 쓸모 없는 정보들과 함께 몽모르의 모든 손님과 하인, 경비병 명단을 보내왔다.

몰이꾼들의 이름 가운데 한 이름이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곧바로 전보를 쳤다.

"몰이꾼 세바스티아니에 대해 알아볼 것."

르 발루의 답장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세바스티아니(코르시카 사람)는 알부페즈 후작의 추천으로 몽모르 공작에게 천거되었다. 그는 성에서 4킬로미터쯤 떨어진 곳, 몽모르 가문의 발상지였던 중세 요새의 잔해 위에 세워진 사냥용 별장에 살고 있다."

뤼팽이 르 발루의 편지를 클라리스 메르기에게 보여 주며 말했다.

"됐어. 이 세바스티아니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알부페즈가 코르시카 출신이라는 게 떠올랐지. 둘 사이에 어떤 연결 고리가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도브레크가 그 폐허 속에 갇혀 있다면, 그와 연락을 취할 생각이야."

"그는 당신을 경계할 거예요."

"아니요. 최근 경찰의 지시를 받아, 생제르맹에서 당신의 아들 자크를 납치한 두 노부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얼굴을 가린 채 그를 누이리로 데려갔죠. 그 두 분은 도브레쿠의 사촌들인 미망인 두 자매로, 그에게서 매달 소액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루셀로 자매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어요. 이름과 주소(바크 거리 134번지 2호)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그분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사촌이자 은인인 도브레쿠를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맏이인 뵈프라지 루셀로 자매가 한 통의 편지를 건네주더군요. 그 편지에는 도브레쿠에게 시에르 니콜레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따르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밤 출발합니다."

"저도 갑니다." 클라리스가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정만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는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저는 남은 날을 세지 않아요. 고작 서른여덟, 많아야 마흔 날이 남았을 뿐이죠. 중요한 건 날이 아니라 시간, 시초입니다."

뤼팽은 그녀 안에 자신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을 만큼 거센 결의를 느꼈다.

새벽 다섯 시,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출발했다. 그로나르도 동행했다.

의심을 살까 봐 뤼팽은 거대 도시를 본거지로 정했다. 클라리스를 안미에 머물게 한 뒤, 그곳은 몽모르와 불과 서른 킬로미터 거리였다.

여덟 시쯤, 그는 레 발루를 옛 요새 근처에서 만났다. 이 요새는 지역에서는 '모르페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의 안내로 뤼팽은 현장을 샅샅이 살폈다.

숲 가장자리에서 리기에르 강은 이 지점에서 깊은 계곡을 파고들어 한 바퀴 굽이친다. 그 위에는 거대한 모르페르 절벽이 우뚝 서 있다.

"이쪽은 무리야." 뤼팽이 말했다. "절벽이 가파르고 높이가 60미터에서 70미터나 돼. 강물이 절벽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거든."

그들은 조금 더 가서 다리를 건넜다. 다리는 끝이 나자마자 오솔길과 이어졌다. 소나무와 참나무 사이를 굽이굽이 오르는 길은 작은 광장으로 이어졌다. 그곳에는 철로 두른 무거운 문이 서 있었고, 문에는 못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문 양쪽으로는 두 개의 큰 탑이 버티고 섰다.

"정말 여기야?" 뤼팽이 물었다. "사바스티안이라는 사냥꾼이 사는 곳이 맞나?"

"네, 발루 씨와 그의 부인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폐허 한가운데 있는 별장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큰 아들이 셋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셋 다 여행 중이라고 했지만, 정작 다브뢰크를 납치한 바로 그날 떠났다고 합니다."

"오호." 뤼팽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우연은 간과할 수 없군. 분명히 그 녀석들과 그 아버지가 함께 저지른 짓일 거야."

오후가 저물 무렵, 뤼팽은 성벽의 틈을 이용해 오른쪽 탑 근처의 외벽을 기어 올랐다. 그곳에서 그는 파수꾼의 별장과 오래된 요새의 몇몇 잔해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 여기에는 벽난로 모양이 희미하게 보이는 벽 일부가 있었고, 저기에는 우물이 있었다. 한쪽에는 예배당의 아치형 입구가, 다른 한쪽에는 무너진 돌무더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전면에는 절벽을 따라 순찰로가 이어져 있었다. 그 길 끝중 한쪽에는 거의 지상과 같아질 정도로 무너진, 거대한 망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뤼팽은 클라리스 메르기 곁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그는 아미앵과 모르페르 사이를 오갔다. 그로나르와 르 발루는 상시 감시 태세에 들어갔다.

사흘이 지나고, 여섯째 날까지도 상황은 변함없어 보였다. 세바스티아니의 일상은 오직 직책이 요구하는 바대로만 흘러갔다. 그는 몽모르성으로 가서 숲을 거닐고, 짐승들의 발자국을 확인하며, 밤마다 순찰을 돌았다.

하지만 일곱째 날, 그가 사냥이 있다는 것과 아침에 오말 역으로 차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뤼팽은 문 앞에 있는 작은 광장을 둘러싼 상록수와 황양나무 무리 속에 숨어 자리 잡았다.

두 시가 되자,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섞여 들리다가 다시 멀어졌다. 오후 중반쯤 다시 들렸지만, 소리는 더 희미했고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고요한 가운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몇 분 후, 그는 강가 길을 오르는 두 명의 기수를 보았다.

그는 알부페후 후작과 세바스티아니를 알아봤다. 두 사람은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말에서 내려, 아마도 사냥꾼의 아내일 한 여인이 문을 열었다. 세바스티아니는 말의 고삐를 뤼팽으로부터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돌기둥에 묶고, 뛰어가 후작에게로 갔다. 문이 그들의 뒤에서 닫혔다.

뤼팽은 망설이지 않았다. 아직 해가 밝은 시간이었지만, 이 곳이 한적할 것을 믿고 그는 균열 난 틈새로 몸을 올렸다.

머리를 내밀어 보니, 세바스티아니의 부인과 두 남자가 성루의 폐허 쪽으로 서두르는 모습이 보였다.

경비원은 덩굴장식으로 가려진 커튼을 들어 올리고 계단 입구를 드러냈다. 그는 알부페후 후작과 함께 그 계단을 내려갔고, 그의 부인은 테라스에 남아 감시역을 서게 했다.

그들을 따라 숨어들 방법은 없었다. 뤼팽은 다시 숨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그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곧 문이 다시 열렸다.

알부페후 후작은 몹시 격분한 듯 보였다. 그는 채찍으로 부츠의 줄기를 두드리며, 거리가 가까워지자 뤼팽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분노의 말을 중얼거렸다.

"아, 저 개자식. 내가 꼭 짓눌러 버리겠어… 오늘 밤, 알겠냐, 세바스티아니… 오늘 밤 열 시에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거야… 아, 그 짐승 같으니라니!"

세바스티아니는 말들을 풀고 있었다. 뒤알뷔펙 후작은 여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드님들,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시오… 만약 누군가 그를 구출하려고 나선다면, 그건 자초자종한 일이지… 함정이 이미 준비되어 있소…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지?"

"물론입니다, 후작님. 우리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후작님을 믿습니다. 후작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저희를 위해 하려는 일을 아오니까요. 저희는 어떤 일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타자고." 뒤알뷔펙 후작이 말했다. "사냥터로 다시 가자."

그렇구나. 뤼팽이 예상한 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었다. 사냥을 핑계로 한 이 일련의 행차 동안, 알부페는 혼자서 몰려 Mortepierre까지 급히 달려갔다. 누구도 그의 속셈을 눈치채지 못했다.

오래전부터의 사연으로,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이유로, 그는 온몸과 영혼을 바쳐 뤼팽에게 충성을 다하는 세바스티아니가 동행했다. 두 사람은 함께 감금된 자를 만나보았다. 사냥꾼의 세 아들과 그의 부인이 그자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시죠?"

뤼팽은 근처 여관에서 클라리스 메르기를 다시 만나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열 시, 후작이 도브레크를 심문합니다. 조금 거칠지만 필수적인 심문이죠. 본래 제가 해야 할 일을 후작이 대신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도브레크는 비밀을 털어놓겠죠?"

클라리스는 이미 심란한 기색으로 중얼거렸다.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셈이오?"

뤼팽은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두 가지 방안 중 고민 중입니다. 하나는 이 만남을 무산시키는 거죠."

"어떻게요?"

"알부페를 먼저 제압하는 겁니다. 아홉 시가 되면 그로냐르, 르 발루, 그리고 제가 성벽을 넘습니다. 요새를 점령하고, 동굴을 습격하고, 주둔군을 무장 해제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브레크는 우리의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만약 세바스티안의 자손들이 그 마르퀴가 언급한 함정 구멍으로 그를 떨어뜨려 놓았다면요?"

"그래서 저는 이 무모한 공격은 마지막 수단으로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이 실패할 때만 쓰기로 했죠."

"다른 방안이라니요?"

"면담에 참석하는 거야. 도브레크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를 더 유리한 조건으로 납치할 시간을 벌 수 있어. 만약 그가 말한다면, 스물일곱 명 명단이 어디 있는지 강제로라도 밝히게 될 테고. 그럼 나도 알부페크스와 똑같이 진실을 알게 되지. 하지만 내가 그 정보를 먼저 손에 넣을 거라고, 신에게 맹세해."

"네… 네." 클라리스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참석하실 건데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뤼팽이 솔직하게 말했다. "르 발루가 가져다줄 정보와, 내가 직접 모을 정보에 달려 있거든."

그는 여관을 나서서, 해가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다시 돌아왔다. 르발루가 그를 따라왔다.

"책은 가져왔나?" 그가 동조자에게 물었다.

"네, 사장님. 오말의 신문 파는 가게에서 본 거 맞아요. 10수(소)에 샀죠."

발류가 낡고 더러운 구두잡지 한 권을 건넸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르테피에르 방문기, 1824년, 삽화와 평면도 포함』

뤼팽은 곧장 성루의 평면도를 찾아냈다.

"맞아요." 그가 말했다. "지상에는 세 층이 있었는데, 모두 철거됐죠. 그리고 암반을 파서 만든 지하층이 두 개 있습니다. 한쪽은 폐허에 파묻혔고, 다른 한쪽은…"

그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바로 여기가 우리 친구 도브르크의 안식처군요. 이름이 뜻깊네요. '고문실'이라니. 불쌍한 친구!"

"계단과 고문실 사이에 문이 두 개 있죠. 그 문 사이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세 형제가 총을 들고 숨어 있을 곳이에요."

"그곳에 들키지 않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군."

"네, 불가능해요. 다만 위층, 무너진 층을 통해 올라가 천장을 뚫고 들어가는 길만 있다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요."

그는 계속 책을 넘겼다. 클라리스가 물었다.

"그 방에 창문이 없나요?"

"있죠." 그가 말했다. "아래쪽, 강가에서요. 지금 막 그곳에서 왔거든요. 작은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 이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네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곳까지 수직으로 오르는 높이가 무려 오십 미터나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위가 물 위로 돌출되어 있어서 더 어렵죠. 그래서 그 길도 불가능합니다."

그는 책의 몇몇 구절을 훑어보았다. 그러다 한 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목은 '두 연인의 탑'이었다. 그는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옛날에는 이 망루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두 연인의 탑'이라 불렀다. 중세에 이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모르테피에 백작은 아내의 불륜을 입증하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는 아내를 고문방에 가두어 버렸다. 그녀는 그곳에서 무려 스무 해를 보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연인인 탕카르빌 영주는 미친 듯이 대담한 모험을 감행했다. 그는 강물에 사다리를 세우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 방 창

문까지 도달했다. 철창을 잘라낸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구해 내었고, 밧줄을 이용해 함께 아래로 내려갔다.

그들이 친구들이 지키고 있는 사다리 꼭대기에 다다르려던 찰나, 성벽 위 순찰로에서 총성이 터졌다. 총알은 남자의 어깨에 맞았다.

두 연인은 허공으로 내던져졌다……

그 말을 끝으로 방 안이 고요해졌다. 긴 침묵이 흘렀다. 모두들 그 비극적인 탈출의 순간을 머릿속으로 되짚고 있었다.

그렇다면 삼사백 년 전, 한 남자가 생명을 걸고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는 그 일을 성사시켰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 소리에 이끌려 온 감시병의 경계가 없었다면 말이다.

한 남자가 그런 일을 감행했다! 한 남자가 그 일을 해냈다!

뤼팽이 클라리스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도 그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얼마나 절박하고 간구하는 듯했는가. 어머니의 눈빛이었다. 불가능을 요구하면서도, 아들의 구원을 위해라면 무엇이든 바칠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르발루, 단단하고 가늘며 아주 긴 밧줄을 구해라. 내 허리춤에 감을 거니까. 길이는 오십에서 육십 미터쯤 돼야 해. 그리고 그로냐르, 너는 사다리 세 개에서 네 개를 찾아와. 이것들을 이어 붙일 거야."

"뭐라고요, 보스?" 두 동료가 외쳤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뜻이죠? 미친 짓이군요."

"미친 짓이라고? 왜 그래? 다른 사람이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법이지."

"하지만 백 대 일의 확률로 머리가 깨질 거예요."

"그렇지, 르발루. 그래도 깨지지 않을 확률이 하나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제발, 보스…"

"더 이상 말하지 말자, 친구들. 한 시간 후에 강가에서 만나자."

준비는 오래 걸렸다. 절벽의 첫 번째 턱까지 닿을 수 있는 15미터 사다리를 만들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없었다. 게다가 사다리의 각 부분을 서로 단단히 연결하는 작업은 많은 힘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드디어 밤 9시 조금 지나서야 사다리가 강 한복판에 세워졌다. 배 한 척이 사다리를 지탱해 주었는데, 배의 앞부분은 사다리 난간 두 개 사이에 끼워 넣었고, 뒷부분은 강둑에 파묻어 고정했다.

계곡을 따라 난 길은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공사를 방해하는 이도 없었다. 밤은 캄캄했고, 하늘은 움직일 줄 모르는 구름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뤼팽은 르발루와 그로냐르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린 뒤, 웃으며 말했다.

"다브레크의 얼굴을 보게 될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즐겁군. 머리 가죽을 벗기고 살가죽을 띠처럼 잘라내는 그 순간 말야. 정말, 그걸 보려고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해."

클라리스도 배에 자리를 잡았다.

뤼팽이 말했다.

"곧 봐. 그리고 절대 움직이지 마. 무슨 일이 생기든, 손도 대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마."

"뭔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지. 탕카르빌 영주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그는 바로 목적지에 도착해,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안은 그 순간, 우연에 의해 배신당했거든. 하지만 걱정 마. 잘 될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가 사다리에 발을 디뎌, 사다리가 너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했다. 그리고는 올라갔다.

그는 아주 빠르게 마지막 가로대에 도달했다.

그제야 위험한 오름길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경사가 너무 가파라 오르는 것이 고역이었다. 중간쯤 올라가자, 그제야 비로소 절벽을 기어오르는 진정한 등반이 되었다.

다행히 곳곳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작은 홈이 있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돌출된 바위도 있었다. 하지만 두 번이나 그 바위가 떨어졌다. 그는 미끄러졌고, 그때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깊은 홈을 발견한 그는 잠시 그곳에서 쉬었다. 그는 이미 지쳐 있었으며, 도전을 포기할 준비까지 되어 있었다. 정말로 이런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체 뭐야, 이봐.' 뤼팽이 속으로 생각했다. '너 겁먹는구나, 이 친구 뤼팽. 포기하자는 거야? 그럼 다브레크가 비밀을 속삭이게 될 거야. 후작이 명단을 손에 쥐게 되고, 뤼팽은 빈손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길베르도……'

그는 허리 둘레에 감고 있던 긴 밧줄을 풀었다. 밧줄은 불필요한 방해와 피로만 줄 뿐이었다. 대신 그는 밧줄의 한쪽 끝을 바지 버클에 고정했다. 이렇게 하면 밧줄이 올라가는 내내 풀려나갈 것이고, 돌아올 때는 난간처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절벽의 울퉁불퉁한 곳을 손에 쥐고 등반을 이어갔다. 손가락은 피투성이였고, 손톱은 다쳤다.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괴롭혔다.

가장 그를 낙담하게 한 것은 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그 소리는 또렷하게 들렸다. 동료들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그때 탕카르빌 영주가 떠올랐다. 그도 어둠 속에서 혼자 떨고 있었을 것이다. 떨어지는 돌멩이 소리에 몸을 떨며.

깊은 침묵 속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울려 퍼졌다. 다브레크의 경비병이 두 연인의 탑 위에서 그림자를 엿본다면, 총성이 울리고 그는 죽었을 것이다.

그는 계속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그렇게 오랫동안 올라오다 보니, 그는 어느새 목표 지점을 이미 지나쳤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그는 무의식 중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것이다. 이제 곧 순찰로에 닿게 될 터였다.

말도 안 되는 결말이었다. 하지만 어찌 되었겠는가. 일어난 일들이 너무 빠르게 이어져, 그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틈조차 없었던 시도였는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는 분노에 겨워 더 힘을 냈다. 몇 미터 더 올라갔지만, 발이 미끄러졌다. 잃었던 자리를 다시 되찾고 뿌리 한 무더기를 움켜쥐었지만, 그것이 손안에 뽑혀 버리는 바람에 또다시 미끄러졌다.

절망이 밀려왔다. 그는 더 이상 오를 용기를 잃고, 포기하려 했다.

그때였다. 온몸의 근육과 의지를 총동원해 그는 우뚝 굳어졌다. 그가 꼭 쥐고 있던 바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오른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머리를 뒤로 젖히자, 그는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빛의 한 줄기를 보았다.

어떤 에너지의 폭발로, 어떤 미세한 움직임으로 그가 그곳까지 이동할 수 있었는지, 그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절벽 벽면을 파고든, 마치 복도처럼 생긴 넓은 구멍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 구멍은 최소한 세 미터는 깊었다. 다른 쪽 끝은 훨씬 좁았으며, 세 개의 철창으로 막혀 있었다.

뤼팽은 기어갔다. 그의 머리가 철창에 닿았다. 그는 보았다……

제8장

그 아래로 고문방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네 개의 굵은 기둥이 천장을 받치고 있어 공간은 불규칙하게 나뉘어 있었다. 벽과 축축한 바닥에서는 스며든 물기 때문에 나는 곰팡이 냄새와 습한 냄새가 진동했다. 언제 보아도 음산한 분위기였지만, 이 시간의 그 공간은 또 달랐다. 세바스티아니와 그의 아들들의 높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기둥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드는 빛이 요동쳤다. 쇠사슬에 묶인 포로가 초라한 침상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이 더해지자, 그곳은 신비롭고 야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브레크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뤼팽이 몸을 웅크리고 있던 다락창보다 대여섯 미터 아래였다.

다브레크는 침대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묶여 있었다. 옛날식 쇠사슬이 그를 침대에 매어 두었고, 그 침대는 다시 벽에 박힌 철제 고리에 사슬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발목과 손목에는 가죽 끈이 감겨 있었다. 더

구나 기발한 장치가 달린 탓에, 그가 사소한 동작을 하나라도 하면 옆 기둥에 매달린 종이 울려 퍼졌다.

걸상 위에 올려놓은 램프가 그의 얼굴을 그대로 비췄다.

그 옆에 알뷔펙스 후작이 서 있었다. 뤼팽은 그의 창백한 얼굴과 희끗한 수염, 그리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을 훤히 볼 수 있었다. 알뷔펙스 후작은 자신의 포로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과 채워진 증오를 드러내고 있었다.

몇 분 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후작이 명령했다.

"세바스찬, 저 세 개의 촛불을 켜라. 더 잘 보기 위해."

세 촛불이 켜지자, 그는 다브레크를 오래도록 응시했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래도 이 방에서 나는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다브레크, 너는 나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진짜 눈물이었어. 절망의 통곡이었지."

"너는 내 돈을 얼마나 많이 훔쳤니? 재산을 다 빼앗아 갔잖아.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네가 나를 고발하는 거였어. 내 이름이 입에서 나온 순간, 내 파멸은 확정되고 명성도 망가지게 되었을 테니까. 음, 너 같은 악당!"

도브렉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쌍안경은 사라졌지만, 안경은 여전히 쓰고 있었다. 등불빛이 안경알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볼이 오그라든 얼굴 위로 광대뼈가 도드라져 나왔다.

"자, 이제 끝내자." 달부페가 말했다. "이 근처에 도둑들이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거든. 네게 화가 돌까 봐 걱정이다. 설마 그들이 너를 구출하려 들지는 않겠지. 네가 알다시피, 그런 일이 생기면 너는 끝장이다. 세바스티아니, 함정 작동은 잘 되고 있나?"

세바스티아니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뤼팽이 눈치채지 못했던, 침대 발치에 있는 고리를 들어 올리고 돌렸다. 바닥 돌 중 하나가 기울더니, 검은 구멍이 드러났다.

"보시오, 모든 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죠. 지하 감옥도 있고요. 전설에 따르면 그 감옥은 끝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구원도 희망도 없습니다. 말씀하실 생각입니까?"

다브렉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브렉, 이번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가 가진 문서를 건네받고, 네가 부리는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직접 찾아온 것도 네 번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말씀하실 생각입니까?"

고요함만 흘렀다. 달부페는 세바스티아니에게 눈짓을 했다. 경호원이 다가왔고, 그의 아들 두 명도 뒤를 따랐다. 그중 한 명이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잠시 기다리던 달부페가 명령했다.

"해라."

세바스티앙은 도브르크의 손목을 조이고 있던 끈을 느슨하게 풀었다. 그리고 막대를 끈 사이에 끼워 고정했다.

"마르키스님, 돌릴까요?"

또 한 차례 침묵이 흘렀다. 마르키스는 기다렸다. 도브르크가 꿈쩍도 하지 않자,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말해 봐라. 고생만 시킬 뿐인데."

대답은 없었다.

"돌려, 세바스티앙."

세바스티앙은 막대를 한 바퀴 완전히 돌렸다. 매듭이 팽팽해졌다. 도브르크가 신음 소리를 질렀다.

"말하지 않겠다면? 그래도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란 걸 알잖아. 물러설 수 없어. 내가 너를 잡았으니까. 필요하면 너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

까지 괴롭힐 거야. 말하지 않겠다면? 아니라고? 세바스티앙, 한 번 더 돌려."

경호원이 명령에 따랐다. 도브르크가 고통에 몸을 떨더니, 헛기침을 하며 침대에 다시 쓰러졌다.

"미친놈!" 마르퀴는 전율하며 소리쳤다. "말해! 뭐야? 그 목록이 아직 부족해? 다른 차례가 돌아왔다는 거야. 어서 말해… 어디에 있냐? 단 한 마디만… 그러면 당신을 내버려둘 테야… 내일 목록을 받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져. 자유라고! 들었지? 자비여, 말해!"

"아, 이 괘씸한 놈!"

세바스티안이 다시 힘을 주었다. 뼈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브뢰크는 쉰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제 몸을 빼려다 실패했다.

그리고는 나직하게, 더듬거리며 중얼거렸다.

"자비… 자비…"

끔찍한 광경이었다. 세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경련을 일으켰다. 뤼팽은 오싹하고 역겨움에 떨었다. 그는 자신이 결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없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뤼팽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을 기다리며 그들의 말을 엿들었다. 곧 알게 될 터였다. 도브레크의 비밀이 고통에 찢겨 나온 음절과 말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뤼팽은 이미 퇴각

을 생각했다. 자신을 기다리는 자동차, 파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는 그 질주, 그리고 코앞에 다가온 승리를 말이다.

"말해." 달뷔펙스가 속삭였다. "말하면 끝이야."

"응… 응…" 도브레크가 더듬거렸다.

"그래."

"나중에… 내일."

"뭐? 너 미쳤나? 내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세바스티아니, 또 한 판 해."

"아니, 아니!" 도브레크가 비명처럼 외쳤다. "아니야, 멈춰."

"말해!"

"그래, 이렇게… 나는 그 종이를 숨겼어…"

하지만 고통이 너무 컸다. 도브레크는 마지막 힘을 모아 고개를 들고, 일관성 없는 소리를 내뱉으며 두 번이나 "마리… 마리…"라고 말한 뒤, 힘없이 뒤로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놓아라!" 알부페크가 세바스티아니에게 명령했다. "젠장, 너무 강한 약을 먹인 건가?"

하지만 빠른 검사로 그는 도브레크가 단지 실신했을 뿐임을 확인했다. 지친 그는 침대 발치에 털썩 주저앉아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참으로 더러운 짓이로군…"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수비수가 말했다. 그의 거친 얼굴에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내일이나 그다음에 다시 시도할 수도 있겠지요."

후작은 침묵을 지켰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코냑이 든 물병을 건넸다. 후작은 반쯤 채운 잔을 들이켰다.

"내일?" 그가 말했다. "아니, 지금 당장.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지금 이 상태라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경비병을 따로 불러냈다.

"들었나? '마리'라는 말로 뭘 의미하려던 거지? 두 번이나 반복했어."

"네, 두 번요." 경비병이 말했다. "마르키스 님이 요구하신 그 문서를 마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셨을지도 모릅니다."

"절대로!" 달부페가 반박했다. "그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아…… 다른 의미일 거야."

"무슨 뜻이죠, 마르키스 님?"

"무슨 뜻이냐고? 곧 알게 될 거야. 내게 맡겨."

그때 도브뢰크가 길게 숨을 들이마시며 침상 위에서 몸을 움직였다.

이제야 완전히 평정심을 되찾은 달부페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다가가 말했다.

"보시오, 도브렉. 저항하는 건 미친 짓이오. 진 놈이 승자의 법을 따르는 게 상책이지, 바보처럼 고문당할 필요는 없소. 제발 이성적으로 행동하시오."

그리고 세바스티아니에게 말을 돌렸다.

"줄을 당기시오. 조금만 느껴보게. 깨어날 거요. 죽은 체하고 있잖소."

세바스티아니가 막대기를 다시 쥐고 줄을 감았다. 부어오른 살에 줄이 닿자 도브렉이 몸을 움찔했다.

"멈춰, 세바스티아니." 마르퀴가 명령했다. "우리 친구는 아주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 타협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한 모양이오. 그렇지, 도브렉? 이만 끝내는 게 좋겠소. 네가 옳아."

두 남자가 환자 위로 몸을 굽혔다. 세바스티아니는 막대기를 쥐고 있었고, 알부페는 환한 불빛으로 도브렉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입술이 떨리고 있어. 말을 하려나? 세바스티안, 조금만 풀어줘. 우리 친구가 고통받게 하고 싶진 않아."

"아니, 더 조여. 우리 친구가 망설이는 것 같아. 한 바퀴 더 돌리자. 멈춰! 됐어. 성공했군."

"아, 다브렉 형님. 만약 당신이 그 정도로도 말을 못 하겠다면, 이건 시간 낭비일 뿐이오. 뭐라고? 뭘 하신다고?"

아르센 뤼팽은 욕설을 삼키며 이를 갈았다. 다브렉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뤼팽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귀를 기울이고, 심장이 뛰는 소리와 맥박이 울리는 소리를 억누르며 온 신경을 집중했지만, 아무런 소리도 그의 귀에 닿지 않았다.

'젠장, 이거 생각도 못 했네. 어쩐다?'

그는 곧장 권총을 겨누어, 다브레크에게 한 방을 날겨 모든 설명을 끊어버릴 뻔했다. 하지만 그는 다브레크도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니 사건이 전개되는 대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아래층에서는 자백이 계속되었다. 목소리는 또렷하지 않았고, 침묵이 끼어들며 탄식 섞인 말투가 섞여 있었다. 달뷔페는 사냥감을 놓치지 않았다.

"더 말해봐. 다브레크, 끝까지 해."

그는 다브레크의 말마다 동의하는 외침으로 구두점을 찍었다.

"좋아! 완벽해! 정말이야? 다시 한번 말해봐, 다브레크. 이거 재미있네. 누가 이런 생각을 했어? 프라스빌도 없었어? 진짜 바보야! 세바스티아니, 좀 풀어줘. 우리 친구가 숨이 차서 죽게 됐잖아. 다브레크, 차분히 해. 무리하지 마. 그리고, 친애하는 친구, 네가 말하던 건……"

끝이었다. 알부페크스는 끝까지 귀를 기울였지만, 아르센 뤼팽은 단 한 음절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이어 마르퀴가 자리에서 일어나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됐어! 고맙네, 도브뢰크. 네가 방금 해준 일은 절대 잊지 않겠네. 네가 궁지에 몰리면 내 문만 두드리면 돼. 주방에는 항상 너를 위한 빵 한 조각과, 여과된 물 한 잔이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그가 다시 말했다.

"세바스띠앵, 이 의원을 내 아들과 똑같이 대우해라. 먼저 묶여 있는 줄을 풀어주게."

"남의 몸을 구두쇠처럼 묶어두다니, 심장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경비가 제안했다.

"마시는 것도 주시죠?"

"그게 좋겠군. 물이나 한 잔 주게."

세바스티아니는 아들들과 함께 가죽 끈을 풀었다. 시큰둥해진 손목을 문지른 뒤, 연고를 바른 천으로 감아 주었다. 그러자 도브레크는 브랜디를 몇 모금 마셨다.

"조금 나아졌나?" 마르퀴가 물었다. "괜찮을 거다. 몇 시간만 지나면 아무렇지 않게 될 테니, 네가 고문을 견뎌냈다고 자랑해도 좋겠군. 인quisition 시절처럼 말이야. 운이 좋은 놈!"

그는 시계를 꺼내 보았다.

"이제 수다도 그만두자, 세바스티아니. 아들들에게 교대로 지켜보게 해라. 너는 나를 역까지 모셔다다녀라. 마지막 열차를 타야 하니까."

"그럼 마르퀴님, 우리를 이렇게 풀어놓으시겠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요?"

"왜 안 되겠나? 우리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그를 감시할 줄 아나? 그렇지 않아. 도브렉, 안심하고 자라. 내일 오후에 네 집에 갈 테니…… 만약 그 문서가 네가 말한 곳에 정말 있다면, 즉시 전보를 보내라. 그럼 너에게 자유를 주마.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 그렇지?"

그는 도브렉 쪽으로 돌아와 다시 그 위에 몸을 굽혔다.

"장난하지는 말자, 그렇지? 네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일 거야. 그러면 나는 하루를 잃을 뿐이지만, 너는 남은 생을 모두 잃게 될 거야. 하지만 아니야, 아니야. 그 숨겨진 곳은 너무도

완벽해. 그냥 장난으로 그런 곳을 만들진 않지. 가자, 세바스티아니. 내일 너는 전보를 받을 거야."

"만약 저희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마르키?"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나?"

"라미르틴 광장의 저 집은 프라즈빌의 자들이 차지하고 있소."

"걱정하지 마라, 세바스티아니. 내가 들어가면 되니까. 문이 열리지 않아도 창문은 있고, 창문도 안 열리면 프라즈빌의 자들 중 한 명과 잘 해결할 테니. 이건 돈 문제일 뿐이오. 그리고 다행히 이제 돈은 부족할 일이 없소. 잘 자라, 도브뢰크."

그가 나가자 세바스티아니가 뒤를 따랐다. 무거운 문이 다시 닫혔다.

그리고 즉시, 이 장면 동안 구상해 둔 계획대로 뤼팽은 철수했다.

이 계획은 간단했다. 밧줄을 타고 절벽 아래로 내려가, 친구들을 데려온 뒤 자동차에 올라타는 것. 그리고 오말 역으로 이어지는 외딴 도로에서 달라부페와 세바스티안을 습격하는 것이었다.

승부는 뻔했다. 두 사람이 포로가 되면, 그중 한 명은 반드시 입을 열게 만들 수 있었다. 달라부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보여준 바

있었다. 그리고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클라리스 메르기는 단호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 둔 밧줄을 잡아당겼다. 그리고 암반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손으로 더듬어 찾았다. 밧줄을 그 부분에 감아, 양끝이 똑같이 길게 매달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양손으로 단단히 쥐고 매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찾았음에도,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급박한 일이었지만,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 순간, 그의 계획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미친 짓이군. 내가 하려는 건 비논리적이고 터무니없어. 알부페와 세바스티안이 내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보장은 뭐가 있나? 설령 내 것이 된다 해도 그들이 입을 열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느냐? 아니, 나는 그대로 있을 거야. 더 좋은 방법이 있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이 두 녀석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도브렉에게 가야 해. 그는 이미 지쳐 있고, 버틸 힘이 다 떨어졌어. 만약 그가 이 정보를 남작에게 말했다면, 클라리스와 내가 같은 수를 쓸 때 그에게도 같은 말을 할 거라는 이유야. 결정했어! 도브렉을 없애자."

그리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게다가 내가 감당할 위험은 뭐가 있겠나? 만약 이 작전이 실패하면, 클라리스 메르기와 나는 파리로 도망친다. 그리고 프라스빌과 함께 라 마르틴 광장에 있는 저택에서 철저한 감시를 벌여, 알부플렉스가 도브

르크가 알려준 비밀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다. 중요한 건 프라스빌에게 위험을 미리 알리는 거야. 그는 반드시 알게 될 거야."

그때 근처 마을 교회에서 자정이 울렸다. 뤼팽에게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 여섯, 일곱 시간이 주어졌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창문이 열린 구멍에서 물러나던 그는 절벽의 오목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관목 덩어리에 부딪혔다. 칼을 꺼내 그중 열두 가지를 베어냈고, 모두 같은 길이로 다듬었다.

그리고 밧줄에서 두 가닥을 똑같이 잘라냈다. 이것이 사다리의 양쪽 기둥이 되었다. 그 기둥 사이에 열두 개의 막대를 단단히 고정하자, 길이 약 6미터 되는 밧줄 사다리가 완성되었다.

그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고문방에 있던 세 아들 중 한 명만 남아 있었다. 그는 다브렉의 침대 옆에서 등불을 켜고 파이프를 피우고 있었다. 다브렉은 이미 잠들었다.

'젠장, 이 녀석이 밤새도록 깨어 있을 셈인가? 만약 그렇다면, 도망치는 수밖에 없겠군.'

알부페 후작이 그 비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그를 심란하게 몰아갔다. 그가 지켜본 면담 자리에서 그는 뚜렷한 인상을 받았다. 후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단순히 목록을 훔쳐 다브레크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 아니었다. 다브레크의 권력을 손에 넣으려 했고, 다브레크가 썼던 그 같은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재산을 다시 쌓아 올리려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뤼팽에게 이는 새로운 적과 맞서야 할 또 다른 싸움이 되었다. 하지만 사건은 빠르게 흘러가서 그런 가능성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무조건 알부페 후작의 발길을 막아야 했다. 프라즈빌에게 미리 알려야 했다.

하지만 뤼팽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에게 행동할 기회를 줄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끈질긴 기대가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밤중의 반시 종이 울렸다. 이어 한 시가 되었다.

기다림은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다. 계곡에서 차가운 안개가 피어올랐고, 뤼팽은 그 추위가 자신의 몸속까지 파고드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세바스티안이 역에서 돌아오는구나.'

그때, 고문실에서 밤을 새우던 막내가 담배통을 비우고 나서 문을 열고 나섰다. 그는 형들에게 마지막 파이프에 넣을 담배가 있냐고 물었다. 형들의 대답을 듣고 그는 파빌리온까지 가기로 했다.

그리고 뤼팽은 깜짝 놀랐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도브르크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귀를 기울인 뒤, 한 발을 내딛고 이어 다른 발을 내디뎠

다. 그리고는 비틀거리기는 했지만, 겉보기보다 훨씬 단단한 체격으로 일어서서 자신의 힘을 시험해 보았다.

"좋아." 뤼팽이 혼자 중얼거렸다. "이 녀석은 기개가 있군. 자기가 직접 탈출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한 가지 걸려드는 게 있어. 그가 내 말을 믿을까? 나를 따라올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기적 같은 구원이 마르퀴의 함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때 갑자기 뤼팽은 생각났다. 도브렉의 옛 친척들에게 보낸 편지를 말이다. 루셀로 자매 중 맏언니인 유프라지가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일종의 추천장이었다.

그 편지는 지금 그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다. 그는 편지를 꺼내 귀를 기울였다. 도브렉이 대리석 바닥을 밟는 가벼운 발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뤼팽은 적절한 순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재빨리 철창 사이로 팔을 뻗어 편지를 던졌다.

도브렉은 깜짝 놀라 얼어붙었다.

봉투가 방 안을 날아다녔다. 그리고는 그의 발 앞, 세 걸음 떨어진 곳 바닥에 떨어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그는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올려다보았다. 어둠이 방 위쪽을 뒤덮고 있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아직 만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함정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 쪽을 한 번 훑어본 뒤, 그는 재빨리 몸을 낮췄다. 그리고 봉투를 낚아채어 뜯어 열었다.

"아!"

서명 부분을 본 그가 기쁨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편지를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이 편지를 가져온 이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가 바로 우리가 건넨 돈으로 후작의 비밀을 밝혀내고, 탈출 계획을 세운 인물입니다. 모든 것이 도주 준비를 마쳤습니다. — 유프라지 루셀로"

다시 한 번 그 편지를 읽은 뒤, 그는 중얼거렸다.

"유프라지…… 유프라지……"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뤼팽이 속삭였다.

"난 철창 막대기 하나를 자르는 데 두세 시간이 걸려. 세바스티아니와 그 아들들이 다시 올까?"

"아마 올 거야." 도브레크가 같은 속도로 대답했다. "하지만 나를 놔두겠지."

"근데 그들이 옆방에서 자는데?"

"소리를 못 들을까?"

"아니, 문이 너무 두꺼워서."

"좋아. 그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나는 밧줄 사다리를 가지고 왔어. 너 혼자 올라갈 수 있겠니? 내 도움 없이 말이야."

"난…… 시도해 볼게요. 그들이 제 손목에 금이 갔거든요…… 아, 야수 같은 놈들!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데…… 힘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도 시도해 봐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는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속삭였다.

"쉿!"

세바스티아니와 그의 아들들이 들어왔을 때, 다브렉은 편지를 숨긴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깜짝 놀란 척하며 잠에서 깬 체했다.

간수는 와인 병과 잔, 그리고 간식을 가져왔다.

"잘 지내시나요, 의원閣下?" 간수가 외쳤다. "아마도 좀 세게 돌렸나 봅니다. 저 나무 회전판은 정말 잔인하죠. 대혁명과 나폴레옹 시대에는 많이 쓰였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쇼프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참으로 훌륭한 발명이었습니다. 피도 안 나고… 아주 깨끗하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스무 분만 지나면 비밀을 말하게 되죠."

세바스티아니는 크게 웃었다.

"그런데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숨겨 두신 곳이 정말 훌륭하군요. 누가 거기라고 의심이나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그러니까 후작님과 저를 속인 것은 처음에 의원님이 흘리신 마리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셨죠. 다만, 그 단어가 중간에서 멈춰 버린 겁니다. 끝까지 말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니, 그래도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의원님 서재 책상 위였다니요? 정말이지 웃음이 나올 노릇입니다."

경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비비며 방 안을 거닐었다.

"후작 대감께서 무척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기뻐하셔서, 내일 밤 직접 오셔서 당신을 풀어 주실 거랍니다. 네, 대감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 봅니다. 몇 가지 절차가 있을 거예요. 아마 수표 몇 장에 서명하고, 게워내야겠지요, 뭐! 후작 대감께 그분의 돈과 수고를 갚아 드려야 하고요. 하지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당신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죠! 게다가 이제부터는 사슬도, 손목에 감긴 가죽 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왕 같은 대접이지요! 더군다나 이것 보세요, 제가 지시를 받아 좋은 노포 한 병과 코냑 한 병을 드리게 되었답니다."

세바스티아니는 몇 마디 농담을 더 던진 뒤, 램프를 들고 방 안을 마지막으로 한 바퀴 둘러보더니 아들들에게 말했다.

"자, 그자는 자게 내버려 두자. 너희 세 사람도 쉬어라. 하지만 한쪽 눈은 뜨고 있어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은 물러났다.

뤼팽은 잠시 기다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시작해도 되겠나?"

"그래. 하지만 조심해! 한두 시간 뒤면 그들이 순찰을 돌지도 모를 일이다."

뤼팽은 작업을 시작했다. 그가 가진 줄은 매우 성능이 좋았고, 철창의 철봉은 녹슬고 세월에 삭아 일부는 거의 부스러질 정도로 약해져 있었다.

두 차례에 걸쳐 뤼팽은 작업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위층 잔해 사이에서 쥐가 종종거리는 소리이거나 야행성 새가 날아가는 소리뿐이었다. 그는 다시 작업을 계속했고, 문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알려 줄 도브렉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호,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줄질을 한 번 더 하며 그는 중얼거렸다.

"아쉬울 것 없지. 정말이지 이 저주받은 터널 안은 좀 비좁아서 답답할 지경이니까. 게다가 추위까지…"

그는 아래쪽을 톱질해 둔 철봉에 온 힘을 실어 밀었다. 그리하여 남은 두 철봉 사이로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벌리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는 사다리를 놔둔, 더 넓은 부분인 복도 끝까지 물러나야 했다. 그곳에서 사다리를 철봉에 단단히 고정하고는 외쳤다.

"이봐… 됐어… 준비됐나?"

"네… 여기 있습니다. 잠시만요, 소리를 들어 봐야겠네요. 자, 자고 있군요. 사다리를 주세요."

뤼팽이 사다리를 풀며 물었다.

"제가 내려갈까요?"

"아니요… 몸이 좀 약해서요. 그래도 괜찮을 겁니다."

드디어 그는 꽤 빨리 복도 입구에 다다라, 구원자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바깥의 찬 공기가 그를 어지럽게 한 듯했다. 더구나 힘을 내려고 와인을 반 병이나 마신 탓에, 그는 잠시 의식을 잃고 반 시간 동안이나 복도의 돌바닥에 뻗어 있었다.

인내심이 바닥난 뤼팽은 이미 로프의 한쪽 끝을 도브렉의 몸에 묶고 있었다. 다른 쪽 끝은 철창에 단단히 매여 있었다. 그는 도브렉을 화물

처럼 미끄러뜨려 내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도브렉이 한결 생기를 되찾은 채 눈을 떴다.

"끝났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꽤 걸립니다. 우리는 오십 미터 높이에 있으니까요."

"알부페크는 어떻게 이쪽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절벽이 깎아지른 듯하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해냈군요?…"

"세상에, 사촌들이 꼭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살려면 밥을 먹어야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관대했어요."

"참 착한 아이들! 어디 있나?"

"아래 배에 있어요."

"강이 있나?"

"네, 그런데 수다 떨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위험하니까요."

"한 마디만 더. 편지를 던졌을 때, 그전에 얼마나 오래 있었나?"

"아니, 아니요… 고작 15분이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서둘러야 해요."

뤼팽이 먼저 내려가며, 다브렉에게 밧줄을 단단히 잡고 거꾸로 내려가라고 당부했다. 더 어려운 곳에서는 그가 직접 받쳐 주겠다고 했다.

그들이 절벽이 만들어낸 평평한 땅에 도착하는 데는 사십 분 이상 걸렸다. 뤼팽은 여러 차례 동료의 손을 잡아 주어야 했다. 고문으로 아직 멍이 든 그의 손목은 기운도 유연함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동료는 여러 차례 신음했다.

"아, 놈들… 나를 망가뜨렸어… 놈들! 아, 알부페크, 이 일은 비싸게 갚게 해 주마."

"조용히." 뤼팽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위에서… 소리가 들려."

그들은 평평한 땅에서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뤼팽은 탕카르빌 영주와, 그를 화승총 한 발로 쏘아 죽인 보초병을 떠올렸다. 그는 침묵과 어둠이 주는 공포에 떨었다.

"아니, 내가 잘못 들었군." 그가 말했다. "게다가 바보 같은 생각이야. 여기서는 우리를 쏠 수 없어."

"누가 우리를 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멍청한 생각일 뿐…"

그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사다리의 받침대를 잡았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자, 보세요. 강바닥에 세워둔 사다리 말입니다. 제 친구가 그 사다리와 함께 당신의 사촌들을 지키고 있답니다."

그가 휘파람을 불었다.

"저기요." 그가 낮게 말했다. "사다리를 단단히 잡아주세요."

그리고 도브렉에게 말했다.

"제가 건너겠습니다."

도브렉이 반대했다.

"제가 먼저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왜요?"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당신께서 제 허리에 밧줄을 매어 주시면, 제가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당신이 옳습니다." 뤼팽이 말했다. "다가오시오."

도브렉이 다가와 바위 위에 무릎을 꿇었다. 뤼팽이 그를 묶어주자, 그는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사다리 받침대를 꽉 잡았다.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가보시오." 그가 말했다.

그때였다.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치밀어 올랐다.

"제기랄!"

그는 그렇게 내뱉으며 주저앉았다.

도브렉이 목덜미 아래, 약간 오른쪽을 칼로 찌른 것이었다.

"아, 비열한 놈… 비열한 놈…"

어둠 속에서 그는 도브렉이 밧줄을 풀어 벗어 던지는 모습을 알아챘다. 그리고 도브렉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게다가 넌 너무 멍청해! 내 사촌 루셀로 자매가 보낸 편지를 가져왔는데, 거기서 난 곧바로 맏이 아델라이드의 필체를 알아봤지. 그런데 그 닳고 닳은 늙은 아델라이드가, 의심도 들고 또 필요하면 날 경계하게 하려고, 일부러 동생 유프라지 루셀로의 이름으로 서명해 두는 신중함을 보였더군. 그러니 내가 미심쩍어한 것도 당연하지!…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니까… 넌 틀림없이 아르센 뤼팽 씨로군, 안 그래? 클라리스의 보호자, 질베르의 구원자 말이야…… 가엾은 뤼팽, 네 신세가

아주 딱하게 됐군…… 난 좀처럼 찌르지 않지만, 한번 찔렀다 하면 끝장이지.”

그는 부상자에게 몸을 숙여 그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총 좀 줘 봐. 네 친구들이 곧 이자가 자기네 두목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고 나를 붙잡으려 들 테니까. 게다가 난 이제 힘이 별로 없으니, 총알 한두 발쯤은… 잘 가, 뤼팽. 저세상에서 다시 만나자고, 응? 현대식 편의시설을 다 갖춘 방 하나 잡아 둬… 잘 가, 뤼팽. 그리고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으니 말이야. 제기랄! 알부페크 그자, 인정사정없이 굴더군. 그 녀석…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재미있어!”

도브렉은 준비를 마쳤다. 그는 다시 휘파람을 불었다. 배에서 대답이 돌아왔다.

“여기 있습니다.”

뤼팽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붙잡으려 팔을 뻗었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것은 허공뿐이었다. 그는 소리를 질러 동료들에게 알리려 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저려 오는 끔찍한 감각이 그를 덮쳤다. 관자놀이가 윙윙 울렸다.

그때 아래쪽에서 함성이 터졌다. 이어 총성 한 발, 또 한 발, 그리고 의기양양한 비웃음 소리가 뒤따랐다. 여자의 비명과 신음도 들려왔다. 잠시 후, 또다시 총성이 두 번 울렸다.

뤼팽은 상처를 입은,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를 클라리스를 떠올렸다. 승리를 거머쥔 채 달아나는 도브렉을, 알부페크를, 그리고 두 적수 가운데 누구도 막지 못한 채 어느 한쪽이 기어이 되찾고 말 수정마개를 떠올렸다.

그때 문득 한 장면이 선명히 떠올랐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추락하던 탕카르빌 영주의 모습이었다.

그는 여러 번 중얼거렸다.

"클라리스… 클라리스… 질베르…"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고요함이 찾아왔고, 끝없는 평화가 온몸을 감쌌다.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이미 지친 몸이 더 이상 그를 붙잡지 못해 바위 끝까지, 심연 쪽으로 굴러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제9장

아미앵의 한 호텔 방. 아르센 뤼팽이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다. 클라리스와 르 발루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수군거렸다. 뤼팽은 눈을 감은 채 그들의 말을 들었다. 처음엔 그의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이제 모든 위험은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화의 흐름 속에서, 그는 지난 밤 '죽음의 언덕'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씩 짚어낼 수 있었다. 도브렉이 내려온 것, 그리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동료들의 당황함.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 클라리스가 도브렉에게 달려들었고, 그 과정에서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도브렉은 강가로 뛰쳐나갔고, 그로나르는 권총을 두 발 쏘며 그를 쫓았다.

마지막으로 르 발루가 사다리를 기어 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절해 있는 주인을 발견했다.

"정말 기적이지!" 레발루가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굴러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아직도 의아할 정도야. 그 자리에는 경사가 있는 구덩이가 있었거든. 하지만 죽어가는 몸으로 열 손가락을 꽉 쥐고 매달리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야. 세상에, 정말 간신히 살아났어."

뤼팽은 귀를 기울였다. 절박한 마음으로. 모든 힘을 짜내어 그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 애썼다.

그때, 끔찍한 문장이 튀어나왔다. 클라리스가 울음을 터뜨리며, 길베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또다시 열여덟 날이나 흘렀다고 말했다.

열여덟 날!

이 숫자에 뤼팽은 경악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싸움을 계속할 수 없으며, 결국 길베르와 오슈르네가 죽을 거라고 믿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다시 열이 올랐고, 환각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더 흘렀다. 아마도 뤼팽이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회상하는 시절이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 그는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고, 어느 정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할 수도, 논리적인 추론을 따라갈 수도 없었다. 친구들에게 어떤 행동 지침을 제시하거나,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혼수 상태 같은 나른함에서 깨어나면, 그는 종종 자신의 손을 클라리스가 꼭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열병이 그를 반쯤 잠들게 만든 그 상태에서, 그는 이상한 말들을 던졌다. 다정하고 열정적인 말들이었다. 그는 그녀를 간청하고 감사했으며, 어둠 속에서 그녀가 가져다준 빛과 기쁨에 대해 축복했다.

그리고 조금 진정된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농담을 섞어 보려 애썼다.

"열병이 들었나 봐. 정말 미친 소리를 많이 했지?"

하지만 클라리스의 침묵에서 뤼팽은 느꼈다. 열병이 불러일으킨 모든 헛소리를 해도 그녀는 듣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환자 곁에서 기울이는 간호와 헌신, 그리고 조금만 증상이 악화되어도 불안해하는 모습은 모두 그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블르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향한 것이었다.

그녀는 기블르의 회복 과정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다. 언제쯤 다시 전선에 나설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희망을 조금씩 앗아가는데, 여기서 발을 묶고 있을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뤼팽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이 말이 기블르의 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믿으며.

"나는 낫겠어. 나는 반드시 낫겠어."

그는 며칠 내내 움직이지 않았다. 반창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신경을 조금이라도 더 예민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다브렉에 대한 생각을 끊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거대한 적수의 모습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탈출의 과정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절벽을 내려가는 장면들……

어느 날, 끔찍한 기억이 그를 덮쳤다.

"목록! 스물일곱 명의 목록이요! 다브렉이 그것을 다시 가져갔겠죠…… 아니면 알부페크스가?"

그가 외쳤다.

"테이블 위에 있었잖아요!"

클라리스가 그를 안심시켰다.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바로 그로냐르가 파리로 갔어요. 제 편지를 들고 프라스빌에게 전달하러요. 람르틴 광장 저택 주변 경비를 한층 더 강화하라고, 특히 알부페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브렉은요?"

"그가 다쳤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아, 그렇군요." 그가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당신도 다쳤다고요?"

"어깨에 살짝 긁힌 자국일 뿐이에요."

이런 진술을 듣고 뤼팽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도, 떨쳐낼 수도 없는 그 생각들에 시달렸다.

특히 그는 '마리'라는 이름에서 놓칠 수 없었다. 다름의 고통 속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도서관 책들 중 한 권의 제목일까, 아니면 그 제목의 일부일까? 만약 책이라면, 그 책이 이 수수께끼의 열쇠가 되어줄까?

아니면 금고 비밀번호일까? 아니면 벽이나 종이, 나무 판자, 그림의 액자, 혹은 송장 같은 곳에 적힌 글자의 조합일까?

그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에 시달렸다. 그 질문들은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아르센 뤼팽은 전보다 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다. 상처는 아물었고 열도 거의 내려갔다. 매일 파리를 오가며 그를 돌봐 주던 친구 의사가, 이틀 뒤면 일어나도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바로 그날, 동조자들과 M. 메르기가 전전날 정보 수집을 위해 떠난 사이, 뤼팽은 열린 창가 쪽으로 몸을 옮겨 앉았다.

그는 햇빛과 따스한 봄바람을 들이마시며 생기가 다시 도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고, 사건들이 논리적 순서와 숨겨진 연관성에 따라 정리되어 갔다.

저녁 무렵, 클라리스로부터 전보가 도착했다. 상황은 나빠졌고, 자신과 그로나르, 르 발루는 여전히 파리에 머물러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전보에 마음이 찌푸려진 그는 밤새 제대로 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클라리스의 전보를 보내게 만든 소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그녀가 그의 방에 들어왔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눈가는 눈물로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그녀는 힘尽 다한 채 쓰러졌다.

"상고심이 기각됐어요."

그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모르게 되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각된 게 어제인가요?"

"사흘 전이에요. 르 발루가 숨겨놨고, 저도 신문을 볼 용기가 없었어요."

뤼팽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직 사면이 남아 있잖아요."

"사면? 아르센 뤼팽의 공범들까지 사면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격분한 어조로, 그리고 깊은 쓴맛을 머금고 그 말을 내뱉었다. 그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보샤르레는 아니겠지. 하지만 길베르의 젊은 나이를 생각하면 자비로워질 수도 있어."

"그런 자비는 없을 거야."

"어떻게 알아요?"

"그의 변호사를 만났어요."

"변호사를 만났다니!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했죠?"

"저는 길베르의 어머니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적어도 적어도라도 지연시킬 수 있는지 물었어요."

"당신은 그런 일을?" 그가 속삭였다. "자백을 한다는 거야…"

"길베르의 생명이 최우선이에요. 제 이름 따위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남편의 이름이 무엇이든요!"

"자네의 작은 자크는 어떡하나?" 뤼팽이 따졌다. "자크를 잃고, 그를 사형수의 동생으로 만들 권리가 있나?"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뤼팽이 다시 물었다.

"변호사는 뭐라고 했나?"

"그런 행위가 길베르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가 아무리 반대해도, 저는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고, 자선 위원회가 처형을 권고할 것임을 알 수 있었죠."

"위원회는 그렇다 치자. 하지만 대통령呢?"

"대통령은 항상 위원회의 의견에 따릅니다."

"이번만큼은 따르지 않을 거야."

"왜요?"

"우리가 그에게 영향을 미칠 테니까."

"어떻게요?"

"27개의 종이에 대한 조건부 반환을 통해."

"자네는 그걸 가지고 있나?"

"그렇다면?"

"내가 갖게 될 거야."

그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무한한 의지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은 채, 차분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그녀는 어깨를 살짝 으쓱였다. 그에게 대한 그녀의 신뢰는 다소 약해져 있었다.

"다부렉이 그 명단을 훔치지 않았다면,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야. 바로 다부렉이지."

그녀는 낮고 산만한 목소리로 그 말을 내뱉었다. 그 목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그녀는 여전히 다부렉을 만나, 길베르의 생명을 구해 준 대가로 그에게 돈을 지불하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 그는 종종 그런 기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당신은 저에게 맹세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부렉과의 싸움은 제가 지휘하기로 했죠. 당신과 그가 절대로 합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반박했다.

"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만약 알았다면, 당신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답은 모호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적절한 순간을 봐서 그녀를 감시하기로 마음먹은 채, 그는 물었다. 아직 들려주지 않은 세부 사항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브렉의 행방은 아직 모르는 거야?"

"네. 모릅니다. 분명 그로냐르의 총알에 맞았을 겁니다. 그가 탈출한 다음 날, 우리는 덤불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수건을 수거했거든요. 또 다른 증언으로는, 오말 역에서 매우 지친 듯한 남자가 고통스럽게 걷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파리로 가는 표를 끊고, 지나가는 첫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중상일 거야. 뤼팽이 말했다. 안전한 은신처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테지. 아니면 몇 주 동안은 경찰과 달부페, 그리고 너와 나, 그리고 그 모든 적들의 함정에서 피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모르테피에르에서는 도주 이후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을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나?"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새벽이 되자 밧줄이 치워졌어. 그건 세바스티아니와 그의 아들들이 당장 밤중에 다브레쿠의 도주를 눈치챘다는 뜻이야. 그날 종일 세바스티아니는 자리에 없었지."

"그래, 아마 후작에게 알렸겠지. 그런데 후작은 어디 있나?"

"자택에 있어. 그로냐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곳 역시 수상한 점은 하나도 없대."

"라마르틴 광장 호텔 안으로 들어간 건 확실하지 않나?"

"물론이죠."

"도브레크도 아니란 말입니까?"

"도브레크도 아닙니다."

"프라스빌을 만나셨습니까?"

"프라스빌은 휴가 중입니다. 여행을 떠났죠.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블랑송 경감과 호텔을 감시하는 형사들은 프라스빌의 지시에 따라 한 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밤에도 번갈아 가며 한 명이 사무실에서 파수를 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도 침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수정마개는 여전히 도브레크의 사무실에 남아 있다는 결론이군요?" 아르센 뤼팽이 말했다.

"도브레크가 사라지기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업용 책상 위에는……"

"작업용 책상 위라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뤼팽이 말했다. 세바스티아니의 그 말을 그는 잊지 않았다.

"하지만 마개가 숨겨진 물체는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작업대라면 공간이 좁습니다. 스무 분이면 충분히 탐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십 분 만에 부숴 버릴 수도 있죠."

대화 때문에 아르센 뤼팽은 다소 지쳐 있었다. 그는 아무런 무모한 행동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클라리스에게 말했다.

"들어 주세요. 저에게 이틀, 많게는 사흘만 더 주십시오. 오늘은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모레 수요일, 늦어도 목요일에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동안은요?"

"그때까지 파리로 돌아가시오. 그로냐르와 르발루와 함께 트로카데로 근처 프랭클린 호텔에 묵으면서, 도브레크의 집을 감시하오. 당신은 그곳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죠. 요원들의 열의를 북돋아 주시오."

"도브레크가 돌아온다면요?"

"돌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소. 우리가 그를 잡을 테니까."

"그저 지나가는 것이라면요?"

"그때는 그로냐르와 르발루가 그를 뒤쫓아야 하오."

"그리고 그의 자취를 놓친다면요?"

뤼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호텔 방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또 전장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쓸모 있었을지를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이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의 통증이 평소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속삭였다.

"제발 가시오."

그들 사이에는 끔찍한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커지는 어색함이 감돌았다. 메르기 부인은 부당하게도, 아들을 앙갱 사건에 끌어들인 것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은 잊은 채—혹은 잊으려 한 채—사법 당국이 길베르를 그토록 가혹하게 추궁하는 것이 단순한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뤼팽의 공범으로서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

게다가 그 모든 노력과 놀라운 기력에도 불구하고, 뤼팽은 결국 어떤 결과에 이르렀단 말인가? 그의 개입이 길베르에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었단 말인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일어나 그를 혼자 남겨 두었다.

다음 날, 그는 기력이 상당히 쇠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다음 날, 즉 수요일이 되어 의사가 주말까지는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열이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은 아닌가요?"

"아니요. 상처가 충분히 아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든 상관없소. 당신 차에 타겠소. 정오가 되면 우리는 파리에 도착할 거요."

뤼팽이 즉시 출발하기로 마음을 굳힌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클라리스가 보낸 편지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도브레크의 흔적을 다시 찾아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운하 사건'에 연루된 알부페즈 후작이 체포되었다는 전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도브레크가 복수하고 있었다.

도브레크가 복수할 수 있었던 것은, 후작이 사무실 책상 바로 그 위에 놓여 있던 문서를 손에 넣어 그 복수를 미리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프라스빌이 라마르틴 광장의 저택에 배치한 요원들과 블랑송 경감이 철저히 경계를 서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수정마개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는 도브레크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했거나, 건강 상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숨겨

둔 장소를 굳게 믿은 나머지 굳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취해야 할 행동은 분명했다. 당장, 그것도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했다. 도브레크보다 앞서 수정마개를 손에 넣어야 했다.

불로뉴 숲을 벗어나 라마르틴 광장 근처에 다다르자, 뤼팽은 의사와 작별을 고하고 차를 세웠다. 그가 미리 만나기로 약속해 둔 그로냐르와 르발루가 곧장 달려와 합류했다.

"메르기 부인은?"

그가 물었다.

"어제부터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속달 우편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도브레크가 사촌 누이들 집에서 나와 차에 오르는 것을 목격하셨다는 거였죠. 부인은 그 차 번호도 알아내셨고, 조사 상황을 계속 알려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다른 연락은 없었나?"

"파리-미디 신문에 따르면, 알부페즈가 어젯밤 상테 형무소 독방에서 유리 조각으로 정맥을 그어 자살했습니다. 그가 남긴 긴 편지는 자백이자 동시에 고발장이었다는군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자

신의 죽음을 도브레크 탓으로 돌렸고, 운하 사건에서 도브레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이 폭로했죠."

"그게 다요?"

"아닙니다. 같은 신문은 또, 사면위원회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끝에 보슈레와 길베르의 사면을 기각한 것이 거의 확실하며, 아마도 금요일에 공화국 대통령이 그들의 변호인단을 접견하리라고 전했습니다."

뤼팽이 전율을 느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군." 그가 말했다. "보아하니 도브레크가 첫날부터 낡은 사법 기계를 힘껏 돌리기 시작한 모양이야. 일주일만 더 지나면 작두날이 떨어질 거야. 아, 불쌍한 길베르. 모레, 네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가져갈 서류에 '27인 명단'을 무조건 넘기겠다는 제안이 담겨 있지 않으면, 불쌍한 길베르, 넌 정말 끝장이야."

"에이, 그만두십시오, 사장님. 혹시 기운이 빠지신 겁니까?"

"나? 무슨 소리야. 한 시간 뒤면 수정마개를 손에 넣을 거야. 두 시간 뒤에는 길베르의 변호사를 만날 거고. 그러면 악몽도 끝이 나지."

"좋습니다, 사장님! 역시 사장님이십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 호텔로 돌아가. 내가 곧 갈게."

그들은 헤어졌다. 뤼팽은 곧장 호텔 정문으로 걸어가 종을 눌렀다.

한 경관이 그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 주었다.

"니콜 씨, 맞으시죠?"

"네, 접니다." 그가 말했다. "블랑송 경감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분과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무실로 안내되었고, 블랑송 경감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니콜 씨, 저는 전적으로 귀하의 뜻에 따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무척 다행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경감님?"

"새로운 일이 생겼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심각한 일인가요?"

"매우 심각합니다."

"빨리 말씀하십시오."

"도브레크가 돌아왔습니다."

"뭐? 뭐라고요!" 뤼팽이 흠칫 놀라며 외쳤다. "도브레크가 돌아왔다고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떠났습니다."

"그럼 이 사무실로 들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언제요?"

"오늘 아침에."

"그때 막지 못했습니까?"

"어떤 권한으로요?"

"그를 혼자 두었단 말이오?"

"그가 강력히 명령했기에, 네, 저희는 그를 혼자 두었습니다."

뤼팽은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도브레크가 수정마개를 찾으러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다시 찾으러 돌아왔군… 누군가 그것을 찾아낼까 봐 두려워한 거야. 그래서 도로 가져간 거지… 당연한 일이야… 알부페즈가 체포되고, 알부페즈가 고발당하면서 또 도브레크를 고발하는 마당이니, 도브레크로서는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었지. 그에게는 힘겨운 싸움이야. 몇 달이고 이어진 비밀 끝에, 스물일곱 명을 둘러싼 그 모든 비극을 꾸미고 사람을 욕보이고 또 죽이기까지 한 그 악마 같은 존재가 바로 도브레크 자신임을 마침내 대중이 알게 된 거니까. 만에 하나 그 부적이

더는 그를 지켜 주지 못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그것을 도로 가져간 거야."

그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오래 있었소?"

"이십 초쯤 됐을까요."

"뭐, 이십 초? 그 이상은 아니란 말이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때 시각이 몇 시였소?"

"열 시였습니다."

"그럼 그때 이미 알부페즈 후작의 자살 소식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군?"

"네. 그의 주머니에서, 파리-미디지가 그 사건을 다루며 낸 특별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군… 그래, 맞아." 뤼팽이 말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프라스빌 씨가 도브레크의 귀환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었소?"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스빌 씨도 안 계시니, 저는 경시청에 전화를 걸어 두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도브레크 의원의 실종이 큰 화제가 된 것은 아시죠. 그 실종이 이어지는 한, 우리가 여기 있어도 대중의 눈에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브레크가 돌아왔고, 감금당하거나 죽은 게 아니라는 증거까지 나온 마당에, 이제 이 집에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오!" 뤼팽이 건성으로 대답했다. "집이 감시당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소! 도브레크가 왔다는 건, 수정마개가 더 이상 여기 없다는 뜻이오."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수정마개가 더 이상 그곳에 없다면,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남아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 마개는 다른 물건 속에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물건을 가져감으로써 자국이나 빈자리가 남았을까?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간단했다. 테이블을 살펴보기만 하면 되었다. 뤼팽은 세바스티아니의 농담을 통해 그 물건이 테이블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숨겨진 장소는 복잡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브레크가 자신의 서재에 머물렀던 시간은 스무 초도 채 되지 않았으니까. 말하자면 들어와서 바로 나간 시간뿐이었다.

뤼팽이 둘러보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테이블과 그 위에 놓인 모든 물건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중 단 한 개의 물건이 빠져 있는 것조차 즉각적으로 눈치챌 수 있었다. 마치 그 물건, 오직 그 물건만이 이 테이블을 다른 모든 테이블과 구별해주는 유일한 특징인 것처럼 느껴졌다.

'오!' 기쁨에 몸이 떨리면서 그는 생각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 다 맞는다.'

모르트피에르 탑에서 고문을 당하던 도브레크가 뱉어내던 단어의 시작 부분까지도.

'수수께 풀렸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마침내 목표에 다다랐다.'

가니마르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숨겨진 장소의 단순함에 대해 생각했다. 에드거 앨런 포의 놀라운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 이야기에서 훔친 편지는 간절히 찾아졌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났다. 숨기지 않는 것은 의심받지 않는다.

"자, 이제 가자."

뤼팽이 밖으로 나가며 생각했다.

"이 끔찍한 모험에서 나는 끝까지 최악의 실망만 마주하게 될 거야."

그가 세운 모든 것이 곧 무너졌다.

모든 정복은 재앙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다. 먼저, 그는 다브렉 공화국 의원이 수정 마개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알고 있었다. 또한, 클라리스 메르지를 통해 다브렉의 은신처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그 정도만 해내면, 나머지 일은 그에게 장난감 놀이처럼 쉬울 터였다.

그로니야르와 르 발루는 트로카데로 근처에 자리 잡은 소박한 가족 호텔, 프랭클린 호텔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메르지 부인은 아직까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녀를 믿는다. 그녀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전까지 다브렉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오후가 깊어갈 무렵, 그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지금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바랐다. 이 전투에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기에.

도브렉이 메르기를 찾아냈다면, 어떻게 따라잡아야 할까?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더 이상 몇 주나 며칠이 아니었다. 오직 몇 시간뿐이었다. 끔찍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다.

그는 호텔 주인을 발견하고 그를 불렀다.

"제 두 친구 이름으로 도착한 우편물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각하."

"제 이름으로요? 니콜 씨 이름으로?"

"그것도 없습니다."

"이상하군요." 뤼팽이 말했다. "우리는 오드랑 씨(클라리스가 사용했던 이름)에게서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 부인이 왔다고요!" 주인장이 외쳤다.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방에 편지 한 통을 남기셨답니다. 하인이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뤼팽과 친구들은 재빨리 계단을 올랐다.

정확히 맞았다. 탁자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어이쿠," 뤼팽이 말했다. "봉인이 이미 떼어졌군. 어떻게 된 일일까? … 그리고 이 가위 자국은 뭐지?"

편지 내용이었다.

도브레크가 중앙 호텔에서 일주일 묵었다. 오늘 아침 짐을 역으로 보내라고 했다. 그리고 슬리핑카 좌석 하나를 예약해 달라고 전화했다.

기차 시간대는 모르겠다. 하지만 오후 내내 역에 있을 테니, 가능한 한 빨리 세 분 모두 오라. 인출 작업을 준비해 두겠다.

"그래서 어때? 어느 역에서? 그리고 잠자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녀는 단어 자리만 딱 잘라냈어."

"맞아, 그럽다." 그르냐르가 말했다. "각 단어 자리에 가위질을 두 번씩 했고, 필요한 단어만 남겼지. 이 여자는 영악하군. 메르기 여사가 정신이 나간 걸까?"

뤼팽은 움직이지 않았다. 맥박이 뛰는 소리가 귀를 울릴 만큼 피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먹을 뺨에 대고 꽉 쥐었다. 열기가 몸속을 타고 오르며 타올랐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조된 의지로, 그는 즉각 누그러뜨려야 할 그 교활한 적과 맞서 싸웠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패배할 테니까.

그는 매우 차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브르크가 여기 왔어."

"도브르크!"

"메르기 부인이 직접 그 두 단어를 잘라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도브렉이 이 호텔에 왔습니다. 메르기 부인은 그를 감시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감시당했던 건 그녀였죠."

"어떻게요?"

"당연히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고 그 하인을 통해서였겠죠. 그 하인은 메르기 부인의 호텔로 도브렉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도브렉에게는 알렸을 테니까요. 도브렉이 왔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핵심 단어만 잘라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질문해 보면 되고—"

"왜요? 그가 어떻게 왔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왔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니까요."

그는 편지를 오랫동안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여러 번 뒤집어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갑시다."

"어디로요?"

"리옹 역으로."

"확신하십니까?"

"다브레크를 믿을 수는 없지. 하지만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는 동쪽의 에스트 역과 남쪽의 리옹 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내 생각엔 다브레크의 사업, 사생활, 건강 상태가 그를 프랑스 동쪽보다는 마르세유와 코트다쥐르로 이끌 가능성이 커."

저녁 일곱 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뤼팽과 동행자들은 프랭클린 호텔을 나섰다. 차는 서울 시내를 빠르게 가로질렀다. 그러나 몇 분 뒤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다. 클라리스 메르기가 역 밖에는 없었고, 대기실에도 없었으며, 승강장에도 없었다.

"하지만…… 하지만……"

뤼팽은 장애물이 늘어날수록 초조해지며 중얼거렸다.

"도브레크가 침실 좌석을 예약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야행 열차일 거야. 그런데 아직 일곱 시 반밖에 안 됐어!"

그때 야행 급행 열차가 출발하려고 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달릴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메르기 부인도, 도브레크도 아무도 없었다.

세 사람이 물러서려 할 때, 한 일꾼, 즉 짐꾼이 식료품점 앞에서 그들을 막아섰다.

"이 분 중 '르 발루' 씨라 불리는 분이 있나요?"

"네, 네, 나입니다." 뤼팽이 재촉했다. "빨리요. 무슨 일이십니까?"

"아! 바로 그분이시군요, 선생님. 여자가 저에게 말하길, 당신께서 아마 세 분이나 오실 수도 있고, 두 분일 수도 있다고 했더군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제발 말하십시오! 어떤 여자 말이죠?"

"어젯밤 내내 발코니에 서서 짐 옆에서 기다리던 여자가 있었소."

"그리고? 어서 말하라. 기차를 탔나?"

"네, 육시 삼십 분에 가는 특급 열차였소. 마지막 순간에 결심을 내렸다고 했지. 자네에게 전하라고 했어."

"그리고 또 뭐라 했나?"

"그 남자가 바로 그 열차에 탔다고. 목적지는 몬테카를로라고."

"아, 미친!" 뤼팽이 중얼거렸다. "지금이라도 급행 열차를 타야 했는데!"

"지금은 저녁 열차밖에 남지 않았소. 그것도 더디게만 가니, 벌써 세 시간 이상을 잃은 셈이오."

시간은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그들은 기차표를 다시 확인했다. 프랭클린 호텔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우편물을 몬테카를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저녁을 먹고 신문을 읽었다. 드디어 밤 9시 반,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비극적인 우연이 겹친 순간, 가장 치열한 전투의 한복판에서 뤼팽은 전장을 등지고 있었다. 그는 알 수 없는 곳으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이 맞서 싸워 본 적 중 가장 무서우며 가장 잡히지 않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방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사흘, 많아야 나흘 후면 길베르와 오셰레의 불가피한 처형이 이루어질 참이었다.

그 밤은 뤼팽에게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수록 그 위기는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다. 사방팔방이 불확실성과 어둠, 혼란, 그리고 무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수정마개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브르크가 전술을 바꾸지 않았거나, 이미 바꿨을 가능성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스물일곱 명의 명단이 여전히 수정마개 속에 들어 있는지, 그리고 수정마개가 다브르크가 처음 숨겼던 그 물건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클라리스 메르기는 다브르크를 쫓고 감시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반대였다. 오히려 다브르크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를 따라잡게 만들며, 도와줄 사람도, 희망도 없는 곳으로 몰아갔다.

아, 도브렉의 수법이 명백했다. 뤼팽은 이 불쌍한 여자의 망설임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었다. 그로냐르와 르발

루가 가장 단호하게 입증해 주었듯, 클라리스는 도브렉이 꾀어낸 음흉한 거래를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

그렇다면 뤼팽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단 말인가? 도브렉이 강력하게 조종해 온 사건의 논리는 필연적인 결말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해야 했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양심과 혐오감, 심지어 명예조차 바쳐야 했다.

"아, 악당아!" 뤼팽은 분노에 떨며 이를 갈았다. "내가 네 목을 잡아채면, 보통이 아닌 재주를 부르게 해줄 테다. 정말, 그날 네 자리에 서고 싶진 않군."

오후 세 시, 그들은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몬테카를로 역 광장에 클라리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뤼팽은 곧장 실망했다.

그는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짐꾼들과 검표원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은 군중 속에서 도브레쿠와 클라리스의 생김새와 일치하는 여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따라서 수사를 시작해 공국의 호텔과 Pension(여관)들을 뒤져야 했다.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는 일인가!

다음 날 밤, 뤼팽은 단호히 확신했다. 도브레쿠와 클라리스는 몬테카를로에도, 모나코에도, 카프다일에도, 라투르비에에도, 카프마르틴에도 없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는 분노에 몸이 떨리며 외쳤다.

드디어 토요일, 우체국 사서함에서 그들은 프랑클린 호텔 주인이 재전송해 온 전보를 찾아냈다. 내용은 이랬다.

« 칸에 내려갔다가 산레모로 떠났다. 앰배서더스 팔라스 호텔. — 클라리스. »

전보 날짜는 어제였다.

"크레블뢰!" 뤼팽이 외쳤다. "그들이 몬테카를로를 경유했구나. 우리 중 한 명이 역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는데! 생각은 났지만, 그 혼란 속에서……"

뤼팽과 친구들은 이탈리아로 향하는 첫 기차에 몸을 실었다.

정오, 그들은 국경을 건넜다.

정오 사십 분, 그들은 산레모 역에 들어섰다.

그들은 곧바로 한 porter를 발견했다. 그의 모자에는 '앰배서더스 팔라스'라고 적혀 있었다. 그 porter는 도착객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뤼팽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르 발루 씨를 찾고 계신가요?"

"네… 르 발루 씨와 두 분의 신사가…"

"한 여자의 부탁으로요?"

"네, 메르기 부인입니다."

"그분이 이 호텔에 계신가요?"

"아닙니다. 기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라고 손짓하더니, 세 분의 생김새를 알려주며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들에게 제네바까지 가는 길이고, 컨티넨탈 호텔에 묵고 있다고 알려주시오.'"

"혼자였나요?"

뤼팽은 그에게 용돈을 쥐여주고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만약 처형이 월요일에 진행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될 리는 없죠… 그러니 오늘 밤 중으로 도브레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문서와 함께 파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로냐르는 창구로 가서 제네바행 티켓 세 장을 샀다.

기차가 휘파람을 불었다.

뤼팽은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다.

"아니, 정말 이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파리가잖아. 자, 잠깐만. 생각해보자."

그는 문짝을 열고 선로 위로 뛰어내릴 뻔했다. 하지만 동료들이 그를 붙잡았다. 기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미친 듯이 추적을 계속했고, 방향도 모른 채 미지의 세계로 향했다.

그리고 그 일은 기베르와 보셰레의 불가피한 처형 이틀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제10장

니스를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둘러싼 언덕 중 하나에는, 망테가 계곡과 생실베스트르 계곡 사이에 거대한 호텔이 우뚝 서 있다. 이 호텔에서는 도시와 천사만의 환상적인 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여기에는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넘쳐난다. 모든 계층과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 어지럽게 몰려드는 곳이다.

뤼팽, 그로그나르, 르 발루가 이탈리아로 깊숙이 들어간 그 토요일 저녁, 클라리스 메르기가 이 호텔에 들어섰다. 남향을 바라보는 방을 요청했고, 2층의 130호실을 선택했다. 그 방은 아침부터 비어 있었다.

130호실은 129호실과 이중 문으로 나뉘어 있었다. 클라리스는 혼자 있게 되자마자, 첫 번째 문을 가리던 커튼을 치웠다. 소리 없이 빗장을 풀고, 두 번째 문에 귀를 바싹 대었다.

그가 지금 안에 있을 거야. 그는 어제처럼 클럽으로 나가기 위해 차려입고 있는 거겠지.

이웃이 방을 나간 뒤, 그녀는 복도로 나섰다. 잠시 동안 복도가 비어 있는 틈을 타, 그녀는 129호 문가에 다가가 숨을 죽였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종내내 이웃의 귀환을 기다렸고, 새벽 두 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잠자리에 들었다. 일요일 아침, 그녀는 다시 경청하기 시작했다.

열한 시, 이웃이 집을 나섰다. 이번에는 복도 쪽 문에 열쇠를 걸어두었다.

클라리스는 재빨리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는, 결연한 발걸음으로 연락용 문 쪽으로 향했다. 커튼을 걷어내고 빗장을 풀자,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방으로 들어섰다.

몇 분 뒤, 그녀는 이웃의 방을 청소하는 하녀 두 명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떠날 때까지 그녀는 기다렸다. 더 이상 방해받지 않을 것을 확신한 그녀는, 다시 한 번 다른 방으로 몸을 숨겼다.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다. 의자에 기대어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며칠 밤낮을 쫓고 쫓기며,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던 끝에, 드디어 다브뢰크가 있는 방에 잠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마음껏 검색할 수 있었다. 수정마개를 찾지 못하더라도, 두 문 사이의 틈과 커튼 뒤에 숨어 다브뢰크의 행동을 엿보고 그의 비밀을 캐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색을 시작했다. 먼저 여행용 가방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간신히 가방을 열었지만, 안을 뒤져도 쓸 만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여행용 캐리어의 칸막이를 뒤지고 여행 가방 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다. 옷장, 서랍장, 욕실, 옷장, 테이블과 가구를 모두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발코니에 던져진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다브르크의 꾀일까? 이 종이 조각에 무언가 적혀 있을까?』

클라리스는 그렇게 생각하며 손이 에스파뇰레(창문 손잡이)에 닿으려던 순간이었다.

"아니요."

그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돌아서자 다브르크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주 보는 것에 놀라지도, 무서워하지도, 심지어 어색해하지도 않았다. 몇 달 동안 너무도 고통받았기에, 다브르크가 그녀를 이렇게 현행범으로 잡았을 때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할지 걱정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녀는 절망감에 몸을 주저앉혔다.

그가 비웃듯 웃었다.

"아니요. 오해하신 거예요, 친애하는 친구여.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당신은 전혀 '불태우지' 않았어요. 아니, 정말로 전혀요. 그리고 그건 너무도 간단한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당신 옆에 있는 작은 원탁 위에…… 천만에, 그 탁자 위에는 별것도 없잖아요. 읽을 것, 쓸 것, 피울 것, 먹을 것, 그게 다예요. 설탕에 절인 과일 하나 드릴까요? 아마도 제가 시킨 든든한 식사를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클라리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는 듯했다. 마치 그가 반드시 말할 더 무거운 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는 탁자 위의 모든 물건을 치워 벽난로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종을 불렀다.

주인이 들어왔다.

그가 물었다.

"점심 준비됐나?"

"네, 각하."

"식탁에 두 사람 분을 차려뒀지?"

"네, 각하."

"샴페인도?"

"네, 각하."

"엑스트라 드라이?"

"네, 각하."

다른 하인이 쟁반을 들고 들어와, 정말로 작은 원탁 위에 두 사람 분의 식기, 찬 음식, 과일, 그리고 얼음통에 담긴 샴페인 한 병을 차려놓았다.

그리고 두 하인은 물러갔다.

"식사하시죠, 친애하는 부인. 보시다시피, 저는 당신을 위해 미리 준비했어요. 당신의 식탁도 이미 차려져 있답니다."

그는 클라리스가 자신의 초대에 전혀 응할 기색이 없다는 것을 모른 척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면서 계속 말했다.

"말이 좋아, 맞아요. 당신께서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실 줄 알았으니까요. 거의 사흘 동안이나 끈질기게 저를 감시해 왔으니까요. 저는 자꾸만 생각했죠. '자, 이제 뭘 좋아하시지? 달콤한 샴페인? 마른 샴페인? 엑스트라 드라이?' 정말로 고민이 많았어요. 특히 파리를 떠난 이후로는 더 그랬죠.

저는 당신의 발자취를 잃어버렸어요. 즉, 당신이 제 발자취를 잃고, 저에게 이렇게 즐거운 추격을 포기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요. 회색빛 머리카락 아래에서 증오로 빛나던 당신의 검은 눈동자가, 산책할 때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깨달았죠. 이 방과 이어진 방이 비어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친구 클라리스가 드디어 들어올 수 있었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제 옆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여기 돌아와서, 평소처럼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서 제 사소한 물건들을 마음대로 정리하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당신의 취향에 맞춰서요. 그래서 식탁을 두 개로 준비한 거죠. 하나는 당신의 종을 위해, 다른 하나는 그 아름다운 친구를 위해."

이제야 그녀는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가! 다브르크가 자신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사흘 동안, 그는 자신의 모든 술수를 그녀와 함께 장난감처럼 놀려왔던 것이다!

낮은 목소리로, 불안한 눈빛을 띠며 그녀가 물었다.

"고의였죠, 맞죠? 당신 떠난 건 저를 유인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맞아요." 그가 짧게 답했다.

"하지만 어째서요? 왜 그랬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친애하는 친구?" 다브르크가 기쁨에 찬 작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의자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다. 몸을 기울여 그에게 다가가며, 그녀가 매번 생각하듯 이번에도 또 한 번 살인 생각을 했다. 권총 한 방, 총알 하나면 그 끔찍한 짐승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가슴에 숨겨둔 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다브르크가 입을 열었다.

"잠시만요, 친애하는 친구여. 곧 총을 쏘시겠지만, 그전에 제가 방금 받은 전보를 먼저 읽어주십시오."

그녀는 그가 어떤 함정을 파놓았는지 알 수 없어 주저했다. 하지만 그는 파란색 종이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내며 분명히 말했다.

"이건 당신 아들과 관련된 일입니다."

"길베르요?" 그녀가 놀라 외쳤다.

"네, 길베르입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전보를 읽었다.

'화요일 아침에 처형한다.'

그리고 곧장 도브렉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당신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아, 당신을 잘 알아요. 당신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인하세요! 화요일이 아니잖아요? 이틀 뒤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요. 제가 말하는데, 우리가 그를 구하기 위해 최소 사흘, 길면 닷새는 더 있어요. 하지만 시인하세요!"

그녀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격분한 반발로 몸이 다 빠져나간 탓에,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새어 나왔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샴페인을 잔에 따라 한 모금씩 마시지 않고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방 안을 몇 걸음 왔다 갔다 하더니 다시 그녀 곁으로 돌아와 말했다.

"들어라, 클라리스."

이렇게 반말을 하는 모욕이 그녀에게 뜻밖의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분노에 차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당신은……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 정말 비열한 놈!"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말을 이었다.

"자, 보니 아직 완전히 속이 다 풀린 건 아니로군. 아마도 구원받을 희망이 남아 있어서 그렇지. 프라스빌을 기대하는 건가? 당신의 오른팔이요, 그 훌륭한 프라스빌을요… 나의 사랑, 당신은 불운한 시기에 찾아왔구려. 상상해 보시오, 프라스빌이 '운하 사건'에 연루되었다니

요. 직접적인 연루는 아닙니다… 즉, 그의 이름이 27명의 명단에는 없지만, 그의 친구이자 아마도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인 전 의회 의원 스타니슬라 보렝글라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가련한 녀석은 제가 그냥 내버려 뒀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편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프라스빌 씨의 공범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더미가 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 준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보렝글라드 자신입니다! 가난에 지친 보렝글라드는 프라스빌을 협박하려 합니다. 자신도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그는 저와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러자 프라스빌은 깜짝 놀라 버렸네요. 하하, 재미있군요! 그 악당, 정말 날뛰고 있습니다. 크레블류! 그가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아, 프라스빌, 내 친구, 네가 당할 만하군…"

그는 두 손을 비비며 손바닥을 맞대었다. 새로운 복수가 눈앞에 다가온 것을 보고 그는 기뻤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자네도 보잖아, 클라리스. 이쪽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대체 뭘 믿어야 해? 뤼팽, 그로나르, 르 발루……."

그가 혀를 찼다.

"이 자들, 정말 형편없지. 이들을 막아섰어도 나는 내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어. 자네도 인정할 거야."

"저희는 자기가 천하무적인 줄 알아요. 그러다 저처럼 당황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면, 오히려 실수를 연발하죠. 자기가 아주 잘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정말 유치한 행동이에요."

"그래도 자네는 아직 뤼팽에게 기대를 걸고 있군. 가엾은 그 남자가 기적을 일으켜 무고한 길베르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잖아. 그럼 그 환상을 깨뜨려주자. 오, 신이여! 그녀는 뤼팽을 믿고 있다니. 그의 마지막 희망을 그에게 맡기다니!"

"뤼팽, 기다려라. 내가 자네의 허세를 벗겨주마, 유명한 마네킹아!"

그는 호텔 본부실과 연결된 전화기를 들어 이렇게 말했다.

"129호실입니다. 책상 맞은편에 앉아 계신 분을 불러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회색 부드러운 모자를 쓴 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화기를 거치기에 앞서 그는 클라리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그분은 침묵의 대가입니다. 그의 직업 정신도 '신속함과 비밀 유지'죠. 전 보안국 요원이었던 그는 이미 여러 번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제가 당신을 따라다니는 동안,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을 감시했던 일입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남부로 온 뒤로 그가 당신을 덜 따라다닌 것은, 다른 일에 더 바빴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세요, 자코브."

그가 직접 문을 열었다. 곧잘 말랐고 키도 작으며, 붉은 수염을 기른 한 신사가 들어섰다.

"자크, 수고다. 수요일 저녁 이후로 내가 맡긴 임무와 관련해서, 부인에게 간략히 보고해 주게. 그날 내가 남쪽으로 향하는 특급 열차에 올랐을 때, 부인을 역으로 보내고 당신은 그대로 플랫폼에 남아 있었지."

물론, 나는 당신의 시간을 묻는 게 아니다. 부인과 내가 맡긴 임무에 관한 부분만 말하면 된다.

자크는 조끼 안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펼쳤다. 그는 보고서를 읽듯 단정한 어조로 이어서 읽었다.

수요일 밤, 일곱 시 십오 분. 리옹 역.

그로냐르 씨와 르발루 씨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과 함께 낯선 세 번째 인물이 온다.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건 니콜 씨일 것이다.

일십 프랑을 주고 역무원의 작업복과 모자를 빌렸다. 이들에게 어떤 부인이 보내신 말이라며, 몬테카를로로 간다고 전했다.

프랭클린 호텔 하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그 하인이 주인에게 보내고 되돌아오는 모든 전보를 읽거나, 필요하면 가로챌 수 있게 된 것이다.

목요일. 몬테카를로.

이 세 분은 호텔들을 뒤지고 있다.

금요일. — 투르비, 카프다일, 카프마르틴으로 짧은 소풍을 다녀왔다. 도브레크 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분들은 이탈리아로 보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프랭클린 호텔 하인을 시켜 산레모에서 만나자는 전보를 그들에게 보냈다.

토요일. — 산레모, 역 앞 광장. 10프랑을 주고 앰배서더스 파리스 호텔 문지기의 모자를 빌렸다. 세 분이 도착했다. 우리는 서로 마주쳤다. 메르기 여사라는 여행자가 보낸 말이라고 설명했다. 제네바의 컨티넨탈 호텔로 함께 간다는 것이었다. 그분들은 망설였다. 니콜 씨는 내려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그를 말렸다. 기차가 출발했다. 잘 가십시오, 여러분. 한 시간 후, 나는 다시 프랑스행 기차를 타고 니스로 내려가 새로운 지시를 기다렸다.

야코프 씨는 노트를 닫으며 결론을 내렸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날짜에 적는 건 이제 밤이 돼서야 가능하죠."

"지금 바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코브 씨."

"정오. 도브르크 씨가 저를 와곤-리트 회사로 보냈습니다. 파리로 가는 오후 2시 48분 열차에 침대칸 두 개를 예약했고, 그 예약증을 특급 열차를 통해 도브르크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다음 저는 정오 58분 열차를 타고 빈티미유로 향합니다. 그곳은 국경 역으로, 저는 하루 종일 역에 머물며 프랑스에 들어오는 모든 승객들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만약 니콜, 그르나르, 르 발류 씨들이 이탈리아를 떠나 니스를 경유해 파리로 돌아가려 한다면, 저는 즉시 경찰청에 전보를 보내 '아르센 뤼팽과 그의 공범 두 명이 X번 열차에 탔다'고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브렉은 말을 하다가 자크를 문까지 데려갔다. 그는 문을 닫고, 열쇠를 돌렸으며, 빗장을 걸었다. 그러고는 클라리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내 말 들어봐, 클라리스…"

이번엔 그녀가 반대하지 않았다. 어떤 수를 써도 소용없었다. 상대는 너무 강력했고, 너무 영리했다.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미리 꿰뚫고, 상대를 손바닥처럼 가볍게 놀려먹었다.

만약 아직 뤼팽의 개입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희망이 있었을까? 하지만 그는 지금 이탈리아를 떠돌며 허상 같은 추적을 하고 있었다.

드디어 그녀는 프랭클린 호텔로 보낸 세 통의 전보가 왜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는지 이해했다. 도브렉이 어둠 속에 숨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 주변을 텅 비게 만들었고, 그녀를 동료들로부터 격리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포로이자 패배자로서 이 방의 네 벽 안에 가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 괴물의 손아귀에 완전히 놓인 셈이었다.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악의에 찬 웃음으로 다시 말했다.

"들으세요, 클라리스. 제가 이제 말할 결단적인 말,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정각 열두 시입니다. 그런데 오후 두 시 사십팔 분에 마지막 열차가 갑니다. 그 열차만 타면 내일 월요일 아침, 파리에 제시간에 도착해 당신의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급 열차는 이미 만석이 됐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후 두 시 사십팔 분 열차를 타야 합니다. 제가 떠나야 할까요?"

"스리핑카 예약은 끝났습니다. 당신도 함께 가시겠어요?"

"제가 나서야 할 조건을 잘 아시죠?"

"승낙하시겠어요?"

"당신은 제 아내가 되어주실 거죠?"

"아, 끔찍한 대답이로구나."

불쌍한 여자는 끔찍한 혼돈 속에 그 대답을 해냈다. 심지어 자신이 무슨 일에 발을 들이는지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그가 떠나길 바랐다. 밤낮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그 피투성이 기계의 공포를 Gilbert에게서 멀리 치워주길 원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리라 생각했다.

그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 너 같은 꾀쟁이, 말은 쉽군. 네가 모든 것을 약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핵심은 Gilbert를 구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순진한 도브르크가 약혼 반지를 건넬 때, 우리는 그를 속이고 말겠지. 자, 자, 모호한 말은 이제 그만해.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필요 없어. 바로 실행할 사실들이 필요해."

그리고는 명확하게, 그녀 바로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제안할 건 이렇다. 반드시 그래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길베르의 사면을 바로 요구하지는 않겠다. 대신 집행 유예,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3주에서 4주 정도 미뤄달라고 요구하겠다. 그 이유는 어떻게든 만들어내면 된다. 내 일은 아니다. 그리고 마르기 부인이 다브레크 부인이 된 뒤, 그때서야 비로소 사면을 요청하겠다. 즉, 형량 감면을 요구하는 것이다. 안심해라. 그들은 반드시 받아들일 거야."

"수락해요… 수락할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가 다시 한번 웃었다.

"그래, 너는 수락하겠지. 한 달 뒤의 일이니까. 그 사이에 너는 분명 어떤 꼼수를 부리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구할 생각일 테지. 아르센 뤼팽 씨 같은 사람을 찾아서."

"제 아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아들의 목숨이라니! 하지만, 내 사랑하는 여자야. 네 아들의 머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네가 지옥에라도 떨어질 판이잖아."

"아, 네!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기꺼이 제 영혼까지도 팔아치우겠습니다!'"

그는 그녀 곁으로 몸을 슬쩍 기어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클라리스, 내가 원하는 건 네 영혼이 아니야. 다른 거지. 스무 해가 넘도록 내 인생은 이 한 가지 갈망으로만 돌아왔어. 넌 내가 사랑한 유일한 여자야. 나를 미워해도 돼. 나를 저주해도 좋아. 내겐 상관없어. 하지만 나를 쫓아내지는 마. 기다리자고? 한 달 더 기다리자고? 안 돼, 클라리스. 나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는 감히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클라리스는 혐오스러운 듯 손을 떼어냈다. 그 모습에 그는 분노가 치밀올라 외쳤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오. 네 아들을 잡으러 올 형제는 너만큼은 예의를 갖추지 않을 거요. 그런데도 너는 어찌 그리 구는 것이오? 생각해보시오. 사십 시간 후면 일이 끝난다는 말이오. 딱 사십 시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그런데도 너는

망설이고 있소. 네 아들의 일이라는 말인데도 말이오. 자, 자, 눈물짓지 마시오. 쓸데없는 감정에 젖지 마시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시오. 네 맹세대로, 너는 이제 내 아내요, 내 약혼자요. 클라리스, 클라리스, 내게 입술을 다오."

그녀는 팔을 뻗어 그를 밀어냈지만, 그 힘은 거의 없었고 몸은 이미 풀려가고 있었다. 악랄한 본성이 드러나는 냉소적인 태도로, 도브렉은 잔인한 말과 열정적인 말 섞어가며 계속했다.

"아들을 구해 주세요… 마지막 아침을 기억하세요. 관을 준비하던 그날, 목이 깊게 파인 셔츠, 잘려 나가는 머리카락까지… 클라리스, 클라리스, 나는 그를 구할 거야… 확신해. 내 평생은 당신의 것이 될 거야… 클라리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끝이 난 것이었다. 추악한 남자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으려 했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아무것도 그걸 막을 수 없었다. 운명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그녀의 의무였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눈은 감은 채, 자기 쪽으로 기울어 오는 추악한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아들… 내 불쌍한 아들…"

몇 초가 흘렀다. 열 초, 어쩌면 스무 초쯤.

도브르끄는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거대한 정적과 갑작스러운 고요함에 놀랐다. 마지막 순간, 그 괴물이 어느 정도 양심에 찔렸던 걸까?

그녀는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기괴한 표정 대신, 그녀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다. 움직이지도, 알아볼 수도 없는 얼굴이었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듯 일그러진 표정이었다.

안경이라는 두 겹의 장벽 때문에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은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보다 더 높은 곳을, 그녀가 주저앉아 있는 안락의자보다 훨씬 높은 곳을 응시하고 있는 듯했다.

클라리스가 고개를 돌렸다.

다소 높은 소파 오른쪽 끝에서 권총 두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다브레크를 향해 겨누고 있는 두 자루의 거대하고도 무서운 권총. 그것을 쥐고 있는 두 주먹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오직 그 두 자루의 권총만 보았다. 그리고 점차 창백해져 결국 피가拔인 듯한 얼굴이 되어가는 다브레크의 모습도 보았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의 뒤에서 누군가 슬그머니 기어 들어와 갑자기 나타나더니, 놀랄 만큼 거친 힘으로 다브레크의 목에 팔을 둘렀

다. 그는 다브레크를 거꾸로 쓰러뜨린 뒤, 그의 얼굴에 솜과 천으로 만든 가면을 씌웠다.

순간, 클로로포름 냄새가 진동했다.

클라리스는 니콜 씨를 알아봤다.

"나한테, 그로그나르! 나한테, 르 발루! 권총 내려놔. 내가 잡았어! 이제 그는 그냥 천 조각일 뿐이야. 묶어!"

다브렉은 결국 자신의 몸속으로 웅크려들더니, 관절이 풀린 인형처럼 무릎을 꿇고 말았다. 클로로포름의 작용으로 거구의 사나이는 쓰러졌다. 무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로냐르와 르발루는 그를 침대의 이불 중 하나로 감싸고 단단히 묶었다.

"됐어! 됐다고!"

뤼팽이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리고는 갑자기 찾아온 기쁨에 사로잡혀, 방 한가운데서 엉망진창인 지그를 추기 시작했다. 그 춤에는 캉캉의 격렬함도, 마라탕의 기이한 굴절도, 도르비쉬의 빙글빙글 도는 회전도, 광대들의 곡예도, 취객의 지그재그 걸음도 모두 섞여 있었다. 그는 마치 무디극장의 공연 번호를 발표하듯 소리쳤다.

"감옥의 춤이라니… 죄수의 난동이라니! 인민의 대표자 시체를 두고 연주하는 환상곡이라니! 클로로포름의 폴카라니! 굴복한 안경의 더블 보스턴이라니! 올레! 올레!… 협박꾼의 판당고라니! 그리고 곰의 춤이라니! 그리고 티롤의 노래라니! 라이투, 라이투, 라, 라!… 자, 애국심 어린 자들이여!… 짐붐바움, 짐붐바움…"

오랜 세월 불안과 연이은 패배로 꾹 눌러앉아 있던 그의 가브로슈적인 본성, 그리고 기쁨에 찬 본능들이 모두 터져 나왔다. 폭소와 함께, 재치 넘치는 떨림과 함께, 그리고 아이처럼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욕구와 함께 폭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발을 가볍게 튕기며 몸을 돌렸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서서 양손을 허리에 올렸다. 한 발은 다브레크의 쓰러진 몸 위에 올려졌다.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그가 외쳤다. "덕의 대천사가 악의 뱀을 짓밟는 모습이죠!"

이 광경은 특히나 웃겨 보였다. 뤼팽은 니콜 씨 분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교사의 좁고 딱딱한 옷차림에 가면을 쓰고 있었다. 몸이 답답해 보일 정도였다.

메르기 부인의 얼굴에 슬픈 미소가 번졌다. 수개월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 하지만 곧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간곡하게 애원했다.

"제발요…… 길베르에 대해 생각해요."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양팔로 그녀를 꼭 안았다. 그리고 순진무구한 태도로 그녀의 뺨에 쾅, 쾅, 두 번의 큰 키스를 안겼다. 그녀는 그 모습에 어찌 할 바 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

"자, 부인. 이것은 정직한 남자의 키스요. 도브르크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키스하는 거죠. 더 말하면 또 할 테고, 그러다 친근하게 당신을 부르겠어요. 원하시면 화내셔도 좋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마담. 이제 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계속했다. 클라리스는 그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아마도 부인께서는 아들의 사면을 원하시는군요? 낙찰입니다! 부인, 아들의 사면을, 무기 징역으로 감형된 형벌을, 그리고 결말로는 곧 있을 탈옥을 허락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알겠죠, 그로그나르? 레발루? 아이보다 먼저 누메아행 배를 타고, 모든 준비를 해두죠. 아, 존경스러운 도브레크 씨, 당신께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군요.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인정해야죠. 당신이 너무 마음껏 편을 들었으니까요. 어째서요? 이 착한 뤼팽 씨를 '초등학생', '가엾은 빈둥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문 밖에 서서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영광스러운 꼭두각시'라고 부르다니요! 어이, 영광스러운 꼭두각시가 꽤나 잘 움직였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은 의원으로서 그리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아니,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 있소? 뭐라고요? 뭘 원하시오? 비시 약환 하나라도? 아니요? 마지막 담배 한 모금이라도? 자, 자!"

그는 벽난로 위에 놓인 파이프 중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포로에게 몸을 숙여 가면을 벗겨냈다. 이어 그 파이프의 암버 입구를 자신의 이 사이에 넣고는, 포로의 입속에 밀어 넣었다.

"들어가, 친구. 들어."

그가 농담조로 말했다.

"참, 너 얼굴이 좀 이상하군. 코에는 마개를 끼고, 입에는 파이프를 물고 있으니까. 자, 들어. 크르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깜빡했네. 파이프에 담배를 채워야 하는데."

그가 다시 물었다.

"담배는 어디 있지? 네가 가장 좋아하는 메릴랜드 담배는?"

"아, 여기 있군."

그는 벽난로 위에 놓인 미개봉된 노란색 담배 포대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그 테이프를 찢어냈다.

"선생님의 담배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순간은 경건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다니, 정말 기쁜 일이군요. 제 손길을

잘 지켜보십시오.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소포를 열었다. 그리고는 검지와 엄지로, 천천이, 섬세하게, 관객을 경악하게 만드는 마술사가 연기를 마칠 때처럼, 입가에 미소를 띠고 팔꿈치를 구부리며,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마지막 마법을 완성하듯, 담배 잎사귀 사이에서 빛나는 물건을 꺼내 관객들에게 내밀었다.

클라리스가 비명을 질렀다.

수정 마개였다.

그녀는 뤼팽에게 달려가 그 물건을 빼앗았다.

“맞아요, 맞아요!” 그녀는 전율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줄기에 흠집이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선이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죠. 금각이 끝나는 곳, 바로 그곳에서… 맞아요, 돌려서 빼낼 수 있어요… 아, 주님, 제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녀는 너무도 떨리는 탓에, 뤼팽은 마개를 다시 빼앗아 직접 돌려냈다.

머리 부분은 속이 비어 있었다. 그 빈 공간 안에는 뭉쳐진 종이 한 조각이 들어 있었다.

“양지 종이입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그 역시 감동한 듯 손이 떨렸다.

순간, 깊은 침묵이 흘렀다. 네 사람 모두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했다.

"제발… 제발…" 클라리스가 더듬거렸다.

뤼팽은 종이를 펼쳤다.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스물일곱 개였다. 바로 그 유명한 목록의 스물일곱 이름이었다. 랑그루, 드쇼몽, 보랑글라드, 드알뷔펙, 라야크, 빅토리에 머르기 등.

그 아래에는 '두 개의 바다를 잇는 프랑스 운하' 이사회 의장의 서명이 있었다. 피처럼 붉은 색으로 찍힌 도장이었다.

뤼팽이 시계를 꺼내 들었다.

"한 시 사십오 분. 우리에겐 충분히 여유가 있어."

"하지만, 클라리스가 이미 당황하며 말했다. '기억하세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배가 고파 죽겠어."

그는 작은 원탁 앞에 앉아 파테를 큼직하게 잘라 먹으며 동조자들에게 말했다.

"그로냐르? 발루? 우리도 좀 먹을까?"

"물론이지, 상사."

"그러면 얼른 해, 아이들. 그리고 샴페인 한 잔씩."

그가 웃으며 말했다.

"마취된 자를 위한 연회야. 다브렉, 건배! 달콤한 샴페인? 마른 샴페인? 엑스트라 드라이?"

제11장

식사가 끝나는 순간, 뤼팽은 말 그대로 전환 없이 모든 통제력을 되찾았다. 이제 농담을 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극적인 반전이나 마법 같은 장난으로 사람들을 놀라게하려는 욕구를 억누르고야 말았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확실한 숨겨진 장소에서 수정마개를 찾아냈고, 스물일곱 개의 목록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주저 없이, 그야말로 재빨리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였다.

물론 쉬운 일이었다. 이제 남은 작업도 별다른 난관이 없었다. 다만 이 마지막 순간에는 신속함과 결단력, 그리고 실수 없는 통찰력이 필요했다. 사소한 실수 하나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뤼팽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리는 놀라울 정도로 맑게 빛나며 모든 가능성을 이미 검토해 두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미리 준비해 둔 동작과 말 한마디를 실행하고 내뱉는 것뿐이었다.

"그로냐르, 감베타 대로에서 우리 산 짐상자가 기다리고 있네. 마차와 함께."

"짐상자를 여기로 데려오고, 짐상자는 계단으로 올리게."

"호텔에서 뭐라고 묻거든, 130호실에 사는 여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그는 다른 동료에게 말을 돌렸다.

"레발루, 차고로 가서 리무진 인수해. 가격은 1만 프랑으로 정했어. 기사 모자와 긴 코트도 사서 차를 여기 문앞으로 데려다 줘."

"돈부터 주셔야죠, 보스."

뤼팽은 도브렉의 재킷에서 빼냈던 지갑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폐 더미가 들어 있었다. 그는 그중 열 장을 떼어냈다.

"1만 프랑이야. 우리 친구가 서클에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군. 가봐, 레발루."

두 남자는 클라리스의 방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클라리스 메르기가 시선을 돌리는 틈을 타, 뤼팽은 지갑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속으로는 깊은 만족감이 일었다.

'일거리가 꽤 괜찮은데.'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모든 경비를 빼고도 충분히 이익이 날 거야. 게다가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

그는 클라리스 메르기를 향해 물었다.

"가방 하나 있소?"

"네, 있습니다. 니스에 도착해서 산 가방이요. 그리고 세면도구와 옷가지도 조금 챙겼죠. 파리를 급하게 떠났으니까요."

"그것들을 모두 준비해. 그리고 사무실로 내려가시오. 짐꾼이 보관소에서 짐을 가져온다고, 방에서 짐을 풀었다가 다시 싸야 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출국을 알리세요."

혼자 남게 된 뤼팽은 다브렉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주머니를 뒤져, 눈에 띄는 것은 모두 챙겼다.

그로냐르가 먼저 돌아왔다. 커다란 등짐상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 모스킨 천으로 감싼 오동나무 상자가었다.

뤼팽은 그로냐르와 클라리스의 도움을 받아 도브렉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상자 안에 앉혔다. 도브렉은 단단히 고정되었지만, 뚜껑을 닫을 수 있도록 고개를 숙인 채였다.

"기차 침대만큼 편하진 않겠지만, 친애하는 의원님."

뤼팽이 말했다.

"하지만 관보다는 낫지 않나요. 적어도 숨을 쉴 공간은 있으니까요. 각 면에 작은 구멍 세 개씩 뚫어 놨습니다. 불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약병 마개를 뽑았다.

"클로로포름을 한 방울 더 드릴까요? 당신, 이 냄새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군요…"

뤼팽은 다시 가면 위에 물을 적셨다. 그의 지시에 따라 클라리스와 그로나르는 의원에게 천과 여행용 담요, 그리고 여행가방 속에 미리 쌓아둔 베개를 겹겹이 덮어주었다.

"완벽해." 뤼팽이 말했다. "이 짐 하나면 전 세계를 돌 수도 있겠어. 닫고 잠가."

르발루가 기사로 나타났다.

"차 준비됐습니다, 사장님."

"좋아." 그가 말했다. "너희 둘이서 가방을 내려. 호텔 직원에게 맡기면 위험하니까."

"만약 누군가 우리를 만나면 어쩌죠?"

"그게 뭐가 문제야, 르발루? 너는 기사가 아니야? 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인, 130호실 숙녀의 가방을 내려주는 거야. 이 부인도 같이 내려가서 차를 탈 거고, 내가 200미터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로나르, 너는 가방 실는 걸 도와주게. 아, 그 전에 안쪽 문은 잠가."

뤼팽은 다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이렇게 알렸다.

"도브렉 씨가 급히 몬테카를로로 부르셨소. 모레나 돼야 돌아오실 테니, 그전까지 방을 비워두지 말라고 하시오. 게다가 그의 모든 물품도 그곳에 남아 있소. 열쇠는 여기 있소."

그는 태연히 자리를 떠 차를 향해 걸었다. 차 안에서는 클라리스가 한숨만 쉬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 파리 도착은 절대 불가능해요! 미친 짓이잖아요. 차가 조금만 고장 나면……"

"그래서," 그가 말했다. "우리 둘은 기차를 타는 게 좋겠소. 더 안전하니까."

그는 클라리스를 마차에 태운 뒤, 두 남자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시속 평균 50킬로미터로 달리는 거야. 서로 번갈아 운전하고 쉬면서 말이야. 그럼 내일 월요일 저녁 6시에서 7시쯤 파리에 도착할 수 있어.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내가 도브렉을 붙잡아 둔 건 내 계획에 그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야. 인질로 삼아 두는 거지. 그리고 혹시 모를 방편이기도 하고. 며칠 동안은 내 눈앞에 두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 그 좋은 사람을 잘 돌봐주게. 세 시간에서 네 시간마다 클로로포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주면 돼. 그건 그 사람의 취미니까. 자, 레발루 출발! 그리고 도브렉, 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 지붕은 튼튼하니까. 속이 메스꺼우면 거리낄 것 없이 토해 버려. 자, 레발루, 출발!"

그는 멀어지는 자동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우편국으로 가서 다음과 같은 전보를 쳤다.

'인물 발견. 내일 오전 11시까지 문서 가져갈 예정. 긴급 연락 필요. — 클라리스'

오후 두 시 반, 클라리스와 뤼팽이 역에 도착했다.

"좌석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클라리스는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하며 말했다.

"좌석? 우리 침대칸은 이미 예약해 뒀어."

"누구한테?"

"자코브에게… 다브렉에게."

"뭐라고요?"

"세상에요! 호텔 사무실에서 특사가 방금 전달해 준 편지를 받았어요. 야코프가 보내준 침대칸 두 개에 대한 것이었죠. 거기다 데브뢰크 의원의 명함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브뢰크 부부라는 이름으로 여행하게 됐고, 우리 계급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죠. 보시잖아요, 사랑하는 마담, 모든 게 미리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이번 여행은 뤼팽에게 유난히 짧게 느껴졌다. 그가 물으니 클라리스는 최근 며칠간 자신이 한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뤼팽 또한 상대가 자신을 이탈리아에 있다고 믿고 있을 때, 어떻게 데브뢰크의 방으로 갑자기 나타났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사연을 설명해 주었다.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산레모를 떠나 제노바로 향하던 길, 내 안에서 특별한 종류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비로운 직감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죠. 처음엔 기차에서 뛰어내리게 했고—르 발루가 말렸지만요—이어서는 다시 문 쪽으로 달려가 창문을 내리고, 앰배서더스 팰리스 호텔의 문지기를 눈으로 좇게 했습니다. 그 문지기가 바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문지기가 어찌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비비던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속았다, 당신이 속았듯 도브레크에게 속았다는 것을요. 수많은 자잘한 사실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적의 계획이 온전히 내 앞에 드러난 것이죠. 일 분만 더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었을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잠시 진정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실수를 만회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것은 오로지 기차 시간표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산레모 역에서 도브레크의 특사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침내 운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역에 내리자마자 프랑스행 기차가 한 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산레모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 짐작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는 더 이상 문지기 모자도, 문지기 코트도 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모자와 재킷 차림이었죠. 그는 2등석 칸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승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클라리스가 물었다. 그녀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들에 시달리면서도, 뤼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어떻게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요? 음, 간단합니다. 자코 씨를 놓지 않으면서도, 그가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 거죠. 그가 다브레크에게 자신의 임무를 보고할 것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사실 오늘 아침, 니스의 작은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자코는 앵글레 거리에서 다브레크를 만났다. 두 사람은 꽤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다. 저는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다브레크는 호텔로 돌아갔고, 자코를 1층 복도 중 한 곳, 전화실 맞은편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십 분 뒤, 저는 그의 방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그 옆방, 130호에 한 여인이 묵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다다른 것 같소."

저는 그로냐르와 르 발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문에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요?" 클라리스가 물었다.

"그래요. 우리가 열었죠. 세상에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신의 방에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런데 통로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래서 그 틈으로 슬쩍 들어갔어요. 그러자 얇은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당신과 도브렉, 그리고 벽난로 대리석 위에 놓인 담배 패킷이 보였어요."

"그 숨겨진 곳을 이미 알고 있었나요?"

"파리에 있는 도브렉의 서재를 수색했을 때, 그 담배 패킷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거든요. 게다가……"

"게다가?"

"투르 데 도즈 아망에서 다브렉에게서 빼낸 자백들을 통해, '마리'라는 단어가 이 수수께끼의 열쇠라는 걸 알았지.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단어의 시작일 뿐이었어. 담배 한 봉지가 사라진 순간, 나는 그 단어를 거의 직감했어."

"무슨 단어?"

"메릴랜드 말이야. 다브렉이 피우는 메릴랜드 담배 말이지. 그걸 피우는 건 다브렉뿐이니까."

그리고 뤼팽이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지? 하지만 도브레크의 계략은 참으로 영리해. 우리는 온갖 곳을 뒤졌고,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어. 전구의 황동 소켓까지 풀어서 수정마개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했을 정도야. 그런데 누가 그걸 생각해냈을까? 설령 가장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라도, 메릴랜드 담배 한 갑의 띠를 찢어보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 그 띠는 국가가 직접 붙이고, 밀봉하고, 우표를 찍고, 날짜까지 적어둔 것이잖아. 간접세청의 감시 아래 말이야. 상상해 봐! 국가가 그런 추악한 짓의 공범이라니! 간접세청이 그런 수작에 가담하다니. 아니, 천만의 말씀! 세무 당국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 불이 잘 안 붙는 성냥을 만들거나, 크리스마스 장작이 든 담배를 팔 수도 있지. 하지만 그들이 도브레크와 결탁해 스물일곱 명의 명단을 정부의 정당한 호기심이나 아르센 뤼팽의 손길에서 빼돌렸다고 생각하다니, 그건 까마득한 비약이야.

도브레크가 그랬듯 띠를 살짝 눌러 느슨하게 만든 뒤 떼어내고, 노란 종이를 펼치고, 담배를 헤집어 치운 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수정마개를 숨기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알겠지? 또한 파리에서 우리가 그 담배 갑을 손에 쥐고 살펴보기만 했다면 그 숨긴 곳을 발견했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 담배 갑을 열지 않았어. 그 자체로, 메릴랜드 담배로 만들어지고 국가와 간접세청이 인증한 그 덩어리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였으니까. 의심할 여지조차 없었지."

뤼팽이 결론을 내렸다.

"바로 그래서 도브레크라는 악마는 몇 달째 자기 책상 위에, 파이프들과 뜯지 않은 다른 담배 봉지들 사이에, 이 멀쩡한 담배 한 봉지를 아무렇지 않게 굴려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 무해해 보이는 작은 정육면체를 캐물어 봐야겠다는 어렴풋한 생각조차 누구의 머릿속에 떠올리게 할 수 없었죠. 게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뤼팽은 메릴랜드 담배와 수정마개에 대한 이야기를 꽤 오랫동안 이어갔다. 상대의 기지와 통찰력이 그를 더욱 매료시킨 것은, 결국 그가 상대를 이겨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클라리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해야 할 행동에 대한 걱정보다 훨씬 덜 중요했다. 그녀는 뤼팽의 말을 거의 듣지 못한 채, 오롯이 자기 생각에만 잠겨 있었다.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녀는 끝없이 되물었다.

"물론입니다. 확실하죠."

"하지만 프라스빌은 파리에 없어요."

"파리에 없다면 르아브르에 있을 겁니다. 어제 신문에서 그 사실을 봤어요. 어쨌든 우리 전보를 받으면 그는 즉시 파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가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슈레와 질베르의 사면을 직접 받아낼 정도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진작 그를 움직였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져다주는 것의 가치를 알아볼 만큼은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단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 가치를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요?"

"도브레크는 착각한 걸까요? 도브레크야말로 누구보다도 그 종이의 막강한 힘을 잘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서로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를 스무 가지나 손에 쥐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명단의 소유자로 알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저 그가 가졌다는 걸 알았을 뿐입니다. 그는 그 명단을 쓰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졌기에 당신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는 스물일곱 명의 몰락과 불명예 위에 자신의 부를 쌓았습니다. 바로 어제도, 가장 대담한 자들 중 하나였던 달뷔펙스가 감옥에서 스스로 목을 그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 명단을 넘겨주는 대가로 우리는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의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도 못한 것을…… 스무 살 청년의 사면 하나를 말입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로 여기겠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는 말을 멈췄다. 클라리스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지쳐 그의 맞은편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침 여덟 시, 그들은 파리에 도착했다.

클리시 광장의 뤼팽 자택에는 전보 두 통이 도착해 있었다.

하나는 전날 아비뇽에서 보내온 르 발루의 것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저녁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한 통은 르아브르에서 온 프라스빌의 것으로, 클라리스에게 보내졌다.

« 내일 월요일 아침에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후 다섯 시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반드시 필요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

« 오후 다섯 시라니, 너무 늦은데요. » 클라리스가 말했다.

«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 뤼팽이 단호하게 말했다.

« 그런데 만약…… »

« 만약 처형이 내일 아침에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 말씀이시죠?…… 단어 하나쯤 두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처형은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요. »

« 신문 기사들이…… »

"신문은 안 봐도 됩니다. 읽지도 마십시오. 신문에 실린 소문은 다 헛소리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프라스빌과의 만남뿐입니다. 게다가…"

그가 찬장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다. 그리고 클라리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소파에 누우세요. 이 약을 조금 마셔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몇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모든 것을 잊게 해 주는 약입니다. 잊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아니요, 싫어요." 클라리스가 거절했다. "길베르도 잠들지 않았잖아요. 그는 잊지 않아요."

"마셔요." 뤼팽이 부드럽게 재촉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약해졌다. 비겁함 때문이기도 했고, 너무 큰 고통에 지친 탓이기도 했다. 순종적으로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몇 분 후, 그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뤼팽은 하인을 불렀다.

"신문 좀 가져와. 빨리. 사 왔지?"

"여기 있습니다, 두목."

뤼팽은 그중 한 신문을 펼쳤다. 눈앞에 들어온 문장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르센 뤼팽의 공범 기베르와 보셰레가 내일 화요일 아침에 처형된다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다. 데이블레 씨가 처형 기구를 점검했으며, 모든 준비는 끝났다.'

뤼팽은 도발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르센 뤼팽의 공범들! 그들의 처형이라니! 정말 볼 만한 광경이겠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커튼은 오르지 않습니다. 상부의 명령으로 연기된 거죠. 그리고 그 상부란 바로 저를 의미합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가슴을 툭 치며 말했다.

"상부라니, 다름 아닌 나 자신이지."

정오가 되자, 뤼팽은 리옹에서 보내온 전보를 받았다. 발신인은 르발루였다.

"잘되고 있어. 소포는 무사히 도착할 거야."

세 시, 클라리스가 깨어났다.

그녀가 한 마디로 내뱉은 말은 이랬다.

"내일 일이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너무 평온했고, 너무 미소 짓고 있어서, 그녀는 거대한 평화에 휩싸인 기분이 들었고, 모든 것이 끝났고, 풀렸고, 그녀의 동반자의 뜻대로 잘 정리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네 시 십 분, 그들은 떠났다.

프라스빌의 비서는 상사의 전화 한 통으로 미리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사무실로 안내하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네 시 사십오 분이었다.

정확히 다섯 시, 프라스빌이 뛰어 들어오며 즉시 외쳤다.

"리스트가 있나?"

"주시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일어서 있던 클라리스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프라스빌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 앉았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다브뢰크를 쫓는 과정에서 클라리스 메르기는 단순히 증오와 복수심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움직이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다. 그 종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건네질 예정이었다.

"앉으시오, 제발."

그가 그렇게 말하며 자리로 손짓하자, 이는 곧 논쟁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프라스빌은 마른 체격에 얼굴이 뼈만 남은 사내였다. 끊임없이 눈이 떨리고 입꼬리가 일그러진 표정 때문에, 그는 거짓되고 불안정한 인상을 풍겼다. 경찰청에서는 그를 잘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실수나 미숙함을 수시로 수습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식으로 쓰임새가 끝난 뒤 안도감 속에 내쳐지는, 그리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클라리스는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가 침묵을 지키자, 프라스빌이 입을 열었다.

"말하세요, 친애하는 친구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종이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숨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단지 소망일 뿐이라면," 클라리스가 말했다. 뤼팽은 그녀의 대사를 세세하게까지 연습시켜 두었다. "저희는 그 소망을 들어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프라스빌이 미소 지었다.

"그 소망은 분명 어떤 대가 치르기를 의미하죠."

"모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메르지가 바로잡았다.

"물론, 수용 가능한 선을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그 선을 넘어선다면요?" 클라리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프라스빌이 성이 나서 말했다.

"자, 봅시다. 대체 무슨 뜻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오, 친애하는 친구. 무엇보다도 이 종이에 당신이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소. 그리고 지금 막 성사시키려 하는 거래를 위해, 내가 내미는 것의 가치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었거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 내가 가진 것의 가치는 무한하오. 그러니 그에 상응하는 무한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알겠소." 프라스빌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설명하거나, 이 종이를 손에 쥐었다면 당신이 피했을 재앙과, 이제부터 얻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혜택을 열거할 필요는 없겠소?"

프라스빌은 참으려는 듯 몸을 굳혔다. 그러곤 간신히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다.

"그건 다 인정하겠소. 이제 끝났소?"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명확하게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명확히 해두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처리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이 일을 당장 해결할 권한이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을 알고 있고 해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제 앞에서 대변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라스빌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조건을 말씀드린 후 한 시간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답변은 정부의 것이겠습니까?"

클라리스가 몸을 숙이며 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답변은 엘리제 궁의 것이겠습니까?"

프라스빌은 놀란 기색을 보였다.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러자 클라리스가 결론을 내렸다.

"제게는 단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제 조건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힘들더라도, 그 이유를 묻거나 밝히려는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조건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답은 예든, 아니오든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프라스빌이 단호하게 외쳤다.

클라리스는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 이미 창백했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프라스빌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스물일곱 명의 명단은 길베르와 보쉐레의 사면을 조건으로 건네겠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프라스빌이 벌떡 일어나, 완전히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길베르와 보쉐레의 사면이요! 아르센 뤼팽의 공범들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마리테레즈 빌라 살인범들이라고! 내일 처형당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네, 바로 그들 말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그들의 사면을 요구합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미친 소리야! 도대체 왜?"

"프라스빌 씨, 당신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시죠."

"응… 응… 맞아. 하지만 이 일은 너무 예상치 못했어."

"왜요?"

"어떤 이유에서든 말이야…"

"어떤 이유라고요?"

"음… 음… 좀 생각해 봐! 길베르와 보셰레가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

"그들은 징역형으로 감형될 거예요. 그게 전부죠."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이미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아르센 뤼팽의 공범이니까요. 판결 결과는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법정의 판결에 반기를 들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사면을 요청하는 겁니다. 사면은 합법적인 절차죠."

"사면 위원회가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알겠소. 하지만 아직 대통령도 남았잖소."

"대통령도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을 번복하게 하세요."

"불가능해요!"

"왜요?"

"적절한 명분이 없으니까요."

"명분이 필요 없소. 사면권은 절대적인 권력이오. 통제도, 이유도, 명분도, 설명도 필요 없소. 왕의 특권이나 다름없지. 대통령은 국가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량껏 행사하면 되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단 몇 시간 안에 처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답변을 듣는 데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친 소리야, 세상에! 당신의 요구는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딪혀 있어. 내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불가능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럼, 거절하시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천 번도 아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러갈 수밖에 없겠군요."

그녀가 문쪽으로 몸을 돌렸다. 니콜 씨도 그녀를 따라갔다.

프라스빌이 재빠르게 두 사람 앞을 막아섰다.

"어디 가시려는 거요?"

"세상에, 친애하는 친구여. 우리 대화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고, 공화국 대통령이 이 유명한 스물일곱 명 목록을……"

"남아 계시오."

그는 열쇠를 돌려 출구 문을 잠그고, 손을 등 뒤로 맞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방 안을 오갔다.

그동안 이 장면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던 뤼팽은, 신중하게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참으로 복잡한 수다. 필연적인 결말을 향해 가는 방법이 이토록 많군. 프라스빌 씨가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얼간이도 아닌데, 어떻게 철천지원수에게 복수하기를 포기하겠는가? 아, 내가 뭘 말했지! 다브렉을 심연으로 떨어뜨리려는 생각에 그가 미소 짓는구나. 자, 승부는 났다.'

그때 프라스빌이 자신의 비서실로 이어지는 작은 안문을 열었다.

그는 큰 소리로 명령했다.

"라르티그 씨, 엘리제 궁에 전화하십시오. 제가 가장 중대한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다고 전하세요."

문을 닫고 돌아온 그는 클라리스에게 다가갔다.

"어쨌든 제 역할은 당신의 제안을 전달하는 데 그칩니다."

"제안은 이미 받아들여졌소."

긴 침묵이 흘렀다. 클라리스의 얼굴에는 깊고 깊은 기쁨이 서려 있었다. 프라스빌은 그 모습에 놀라, 주의를 기울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떤 신비로운 이유에서 클라리스는 기베르와 보셰레의 생명을 구하려는 것일까? 그녀와 이 두 남자를 잇는 알 수 없는 인연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비극이 세 사람의 삶을 얽어매었고, 아마도 다브렉의 삶까지도 함께 뒤섞였을 것이다.

"가라, 친구. 머리를 싸매고 궁리해 봐라. 하지만 네겐 소용없을 거야."

뤼팽은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클라리스가 원했던 대로 길베르의 사면만 요구했더라면, 아마 네가 진실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셰레, 그 짐승 같은 바셰레라니. 정말이지 메르기 부인과 그자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도 있을 수 없지…….'

'아, 아! 이런, 이제 내 차례군…….'

'저자가 나를 살피고 있어. 저 속생각이 이제 나에게로 향하는군…….'

'그리고 이 니콜이라는 자, 저 초라한 시골 교사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왜 그는 클라리스 메르기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했을까? 이 낯선 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내가 알아보지 않은 게 잘못이었어. 꼭 확인해 봐야겠어. 이 가면을 벗겨내야 해.'

'어쨌든,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저렇게까지 애를 쓰는 건 자연스럽지 않아.'

'왜 그도 길베르와 바세레를 구하려 할까? 대체 왜?'

뤼팽이 고개를 살짝 돌렸다.

"이런!… 이런!… 이 공무원의 머릿속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다. 분명히 표현되지는 않는 막연한 생각 말이다. 저자가 니콜 씨 뒤에 숨은 뤼팽을 알아채면 안 될 텐데. 복잡한 일은 이미 충분하니까."

하지만 뜻밖의 방해가 일어났다. 프라스빌의 비서가 들어와, 접견은 한 시간 후에 있을 거라고 알렸다.

"좋소. 고맙소. 나가 보시오."

프라스빌이 말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둘러대지 않고,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려는 사람처럼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우리는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소. 하지만 먼저, 내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더 정확한 정보와 더 완벽한 자료가 필요하오. 그 종이는 어디에 있었소?"

"수정마개 안에는 우리가 추측했던 대로, 메르기 여사가 답했다.

"그 수정마개는요?"

"다브레크가 며칠 전, 라마르틴 광장 그의 집에서 책상 위에 놓인 물건을 찾으러 왔었죠. 그 물건을 저는 어제, 일요일에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그 물건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그 책상 위에 널려 있던, 메릴랜드 담배 한 다발이었습니다."

프라즈빌은 얼어붙은 듯했다. 그는 순진하게 중얼거렸다.

"아! 내가 알았더라면! 그 메릴랜드 담배 다발을 나는 열 번이나 만졌어. 정말 바보 같군!"

"상관없어요." 클라리스가 말했다. "중요한 건 그걸 찾아냈다는 사실이에요."

프라즈빌은 그 발견이 자신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면 훨씬 기뻤을 것이라는 듯 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물었다.

"그렇다면, 그 목록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가?"

"그걸 좀 보여주세요."

클라리스가 망설이자, 그가 말했다.

"오! 제발, 아무것도 두려워 마세요. 이 목록은 당신 것이고, 제가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는 채로는 문제의 그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클라리스는 니콜 씨에게 눈짓으로 의향을 물었고, 프라스빌은 그 눈짓을 놓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어딘지 동요하는 기색으로 종이를 받아 들고 살펴보더니, 거의 곧바로 말했다.

"네… 네… 출납계원의 필체로군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의 서명도… 붉은 서명이죠… 게다가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이의 왼쪽 위 모서리를 채워 주던 찢어진 조각 같은 것 말입니다."

그는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특별히 마련해 둔 작은 상자에서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왼쪽 위 모서리에 대어 보았다.

"바로 이겁니다. 찢어진 두 모서리가 정확히 맞물립니다. 증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얇은 종이 자체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뿐이죠."

클라리스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몇 주, 또 몇 주를 두고 가장 끔찍한 고통이 그녀를 갈가리 찢어 놓았고, 그녀가 아직도 온통 피 흘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프라스빌이 종이를 창유리에 비춰 보는 동안, 그녀는 뤼팽에게 말했다.

"길베르에게 오늘 밤 안으로 알려 달라고 하세요. 그가 얼마나 끔찍하게 괴로워하고 있겠어요!"

"네." 뤼팽이 말했다. "게다가 당신이 직접 그의 변호사에게 가서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내일 당장 길베르를 만나야겠어요. 프라스빌이야 뭐라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가 엘리제 궁에서 뜻을 이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은 없겠죠, 그렇죠?"

"없습니다. 보다시피 그가 곧바로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프라스빌은 돋보기를 들고 조사를 계속했다. 그러고는 종이를 찢어진 작은 조각과 비교해 보았다. 이어 종이를 다시 창문에 대어 보았다. 그다음 상자에서 다른 편지지들을 꺼내, 그중 한 장을 빛에 비춰 살펴보았다.

"이제 다 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확신이 섰습니다. 친애하는 부인, 용서하십시오. 매우 섬세한 작업이었으니까요…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사실 저는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 않았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클라리스가 속삭였다.

"잠깐만요… 무엇보다 먼저 지시를 하나 내려야 합니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지금 즉시 대통령 관저에 전화해 주시오. 미안하지만, 나중에 사정을 보고하겠으니 오늘 접견은 불필요해졌다고 전해 주시오."

그는 문을 닫고 책상으로 돌아왔다.

클라리스와 뤼팽은 선 채로 숨이 막혀, 영문을 모르고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미친 걸까? 아니면 그의 술수일까? 약속을 어기는 걸까? 이제 목록을 손에 넣었으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걸까?

그가 목록을 클라리스에게 내밀었다.

"이걸 도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도로 가져가라니요?"

"그리고 다브레크에게 돌려보내세요."

"다브레크에게요?"

"불태워 버리는 편이 낫겠다면 모르지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라면 그걸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오히려 아주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왜요? 도대체 왜요?"

"왜냐고요? 설명해 드리죠. 그 스물일곱 명의 명단은 — 이 점은 우리에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만 — 운하 회사 사장이 쓰던 편지지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지의 견본 몇 장이 바로 이 상자 안에 들어 있죠.

그런데 이 견본들에는 모두 제조사 표시로,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종이를 빛에 비춰 보면 그 두께 속에서 드러나는 작은 로렌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져온 그 종이에는 이 로렌 십자가가 없습니다."

뤼팽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신경질적인 떨림이 온몸을 뒤흔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클라리스 쪽으로 눈을 돌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끔찍한 절망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더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면… 다브레크가 속았다고 봐야 한다는 건가요?"

"천만에요." 프라스빌이 외쳤다. "속은 건 당신이에요, 가엾은 부인. 다브레크는 진짜 목록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 가던 노인의 금고에서 훔쳐낸 진짜 목록 말입니다."

"그럼 이건요?"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라고요?"

"틀림없는 가짜죠. 다브레크의 감탄스러운 계략이에요. 그가 당신 눈앞에서 어른거리게 한 수정마개에 홀려, 당신은 그 수정마개만 찾았던 겁니다. 그자가 그 안에 아무거나, 이 종잇조각 따위나 넣어 두었는데도 말이죠. 반면 그는 아주 태평하게 진짜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고요…"

프라스빌이 말을 멈췄다.

클라리스가 작은 걸음으로 다가왔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마치 자동인형 같았다.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말입니까, 친애하는 부인?"

"거절하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

"그 일을 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 일이 가당키나 합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문서 하나를 믿고서…"

"안 하시겠다는 거죠?…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아침… 몇 시간만 지나면 길베르가…"

그녀의 얼굴은 무서울 만큼 창백했고, 볼이 움푹 패어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의 얼굴 같았다. 두 눈은 한없이 크게 벌어졌고, 턱은 딱딱 부딪쳤다.

뤼팽은 그녀가 내뱉으려는 쓸데없고 위험한 말을 막으려고,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데리고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억누를 수 없는 힘으로 그를 밀쳐 내고, 두세 걸음 더 나아가다, 곧 쓰러질 듯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기운과 절망에 휩싸여 프라스빌을 움켜쥐고 부르짖었다.

"거기 가셔야 해요!… 당장 가셔야 해요!… 그래야만 해요!… 길베르를 구해야 해요!…"

"제발요, 친애하는 부인, 진정하세요…"

그녀는 날카롭게 웃었다.

"진정이라니요!… 내일 아침이면 길베르가… 아, 아니야, 아니야, 무서워요… 끔찍해요… 어서 거기로 달려가세요, 이 비열한 사람아! 그 애의 사면을 받아 오라고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길베르… 길베르는… 바로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내 아들이라고요!"

프라스빌이 비명을 질렀다. 클라리스의 손에는 칼날이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자해하려는 듯 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동작은 완성되지 못했다.

니콜 씨가 그 팔을 재빨리 잡아챘다. 그는 칼을 빼앗아 클라리스를 꼼짝 못 하게 묶어둔 채, 열정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제가 구해 주겠다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길베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맹세했는데, 어찌 죽을 수 있겠습니까."

"길베르…… 내 아들……" 클라리스가 신음했다.

니콜 씨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아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했다. 그러고는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됐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제발 입을 다물어 주십시오. 길베르는 죽지 않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권위로 그녀를 끌어냈다. 길들여진 아이처럼, 갑자기 순종하는 Clarisse를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문을 열려던 순간, 그는 Prasville를 향해 돌아섰다.

"저를 기다리십시오, 선생."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스물일곱 명의 명단, 진짜 명단에 집착하신다면 말입니다. 한 시간, 길어도 두 시간 안에 제가 이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는 갑자기 Clarisse에게로 방향을 돌렸다.

"당신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십시오, 부인. Gilbert의 이름을 걸고 명령합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Clarisse를 팔에 끼고 있었다. 마치 인형을 든 것처럼, 들어 올리고 거의 들어 나르듯 했다. 그는 불규칙한 걸음걸이로 사라져 갔다. 한 개의 안마당을 지나, 또 다른 안마당을 지나, 그리고 거리로…

그사이 프라스빌은 처음엔 깜짝 놀랐고, 일어난 일들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차츰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에 잠겼다.

그가 생각한 것은 니콜 씨의 태도였다. 처음엔 단순한 조연에 불과했던 그가, 클라리스 앞에서는 인생의 위기에 매달리는 조언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나태함에서 깨어나, 선명한 빛 속에 드러났다. 그는 단호하고 권위적이었으며, 열정이 넘치고 대담함이 가득했다. 운명이 막아서는 모든 장애물을 뒤엎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프라스빌이 몸을 떨었다.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전에, 이미 답이 확고부동하게 들어차 있었다. 모든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나같이 더 정확했고, 더 거스를 수 없는 것들이었다.

프라스빌을 당황하게 만든 단 한 가지가 있었다. 니콜 씨의 얼굴과 모습은, 프라스빌이 알고 있는 뤼팽의 사진들과 아무리 희미한 것이라 해도 조금의 닮은 점조차 없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남자였다. 키도 체격도 달랐다. 얼굴 생김새와 입매, 눈빛의 표정, 피부 빛깔, 머리카락까지 모두 모험가 뤼팽의 신체 특징 설명과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프라스빌은 알고 있지 않았던가. 뤼팽의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놀라운 변신 능력에 있다는 것을.

그렇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프라스빌은 재촉하듯 사무실을 나섰다. 치안국 반장과 마주친 그는 초조하게 물었다.

"지금 오셨습니까?"

"네, 총무국장님."

"남자와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몇 분 전에 안뜰에서요."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있겠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소, 반장. 형사 여섯 명을 데리고 가시오. 클리시 광장에서 합류하시오. 니콜이라는 자를 조사하고 그 집을 감시하시오. 니콜은 반드시 그 집에 들어올 것이오."

"그런데 만약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총무국장님?"

"체포하시오. 여기 영장이 있소."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더니, 특별한 양식에 한 이름을 적었다.

"자, 받으시오, 반장. 나는 치안국장에게 알려두겠소."

반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총무국장님, 니콜 씨에 대해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이 영장에는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르센 뤼팽과 니콜 씨는 같은 사람이오.”

제12장

"살려내겠어. 반드시 살려내겠어."

그와 클라리스를 태우고 달리는 차 안에서 뤼팽은 그 말을 끝없이 되뇌었다.

"맹세코, 반드시 그를 살려내겠습니다."

클라리스는 듣지 않았다. 마치 마비된 듯, 죽음의 거대한 악몽에 사로잡힌 듯했다. 그 악몽은 그녀를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했고, 그녀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이상 그녀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다.

뤼팽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아마도 클라리스를 설득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직 희망은 있어. 우리 수중에 확실한 카드 한 장이 남았거든. 아주 강력한 카드야. 바로 전 의원이었던 보렝글라드가 도브렉에게 건넨 편지들과 문서들이지. 어제 아침 니스에서 도브렉이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했잖아. 그 편지와 문서들을 내가 스타니슬라 보렝글라드에게서 사오겠어. 그가 원하는 가격이면 얼마든 주지."

"그다음엔 총국으로 돌아가서 프라스빌에게 이렇게 말하지. '대통령실로 달려가. 그 명단을 진짜인 것처럼 사용해서 길베르를 죽음에서 구해. 내일이 되어 길베르가 구제된 뒤에는 그 명단이 가짜였음을 시인하면 되는 거야. 얼른 가! 서두르라고!'"

"만약 안 그러면…… 음, 만약 안 그러면 내일 화요일에 보렝글라드의 편지와 문서들이 주요 신문에 실릴 거야. 보렝글라드는 즉시 체포되고, 같은 밤에 프라스빌도 감옥에 갇히게 될 테니까."

뤼팽은 손을 비볐다.

"그는 움직일 거야!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그 남자를 마주 보고 있는 순간부터 나는 직감했어. 이 사건은 이미 명확해졌고, 실패할 리가 없어. 그리고 다브렉의 지갑에서 보렝글라드의 주소를 찾아냈으니… 이제 갈 때야, 기사님, 라스파이 대로로!"

그들은 지시된 주소에 도착했다. 뤼팽은 차에서 뛰어내려 단숨에 세 층을 뛰어 올라갔다.

하녀가 뤼팽에게, 보렝글라드 씨는 지금 부재중이며 내일 저녁에나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럼 그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시겠어요?"

"주인어른은 런던에 계십니다."

차로 돌아온 뤼팽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클라리스도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이미 무의미해졌고, 아들의 죽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확정된 사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클리시 광장까지 차를 타고 갔다.

뤼팽이 집에 들어설 때쯤, 그는 관리인실에서 나오는 두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깊이 생각에 잠겨 있어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바로 프라스빌의 형사들 두 명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이다.

"전보 같은 건 없었나?"

그가 하인에게 물었다.

"아니요, 사장님."

아실이 대답했다.

"르발루와 그로냐르의 소식은?"

"아니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사장님."

"당연한 일이지."

그는 클라리스를 향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 일곱 시밖에 안 됐잖아. 그들이 올 수 있으려면 여덟 시나 아홉 시쯤 돼야 해. 프라스빌은 기다리면 돼. 내가 전화해서 기다리라고 할게."

전화 통화가 끝나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순간, 뤼팽은 뒤에서 신음 소리를 들었다.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클라리스가 저녁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녀가 가슴에 손을 얹고는 몸을 비틀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아실! 아실!"

뤼팽이 하인을 부르며 소리쳤다.

"이리 와서 그녀를 침대에 눕히게 도와줘! 그리고 찬장에 가서 약병 하나 가져와. 네 번째 병이야. 마취제 말이야."

그는 칼끝으로 클라리스의 이를 비집어 벌리고 강제로 약을 절반쯤 먹였다.

"좋아."

그가 말했다.

"이렇게 하면 이 불쌍한 여자는 내일,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깨어날 거야."

뤼팽은 클라리스가 손에 꼭 쥐고 있던 신문을 펼쳐 들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가장 엄격한 치안 조치가 마련되었다. 길베르와 보쉐레의 처형을 앞두고, 그리고 아르센 뤼팽이 공범들을 극형에서 구해 내려고 다시금 시도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자정이 되면 상테 형무소를 둘러싼 모든 거리가 군대의 경계 아래 놓인다. 처형이 형무소 벽 앞, 바로 아라고 대로의 빈터에서 진행되리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 사형수의 심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보쉐레는 여전히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큰 용기로 치명적인 결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젠장," 그가 말했다. "기쁜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거쳐야 할 길이라면 똑바로 서서 맞서야지."

그는 덧붙여 말했다.

"죽음 따위 신경 안 써. 내가 걱정하는 건 내 목이 잘린다는 생각이야. 아, 사장님이 나를 단숨에, 숨 돌릴 새도 없이 곧장 저세상으로 보내 줄 묘안을 찾아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장님, 스트리크닌 한 방울만 주십시오."

길베르의 침착함은 더할 나위 없이 인상적이다. 특히 그가 법정에서 무너졌던 일을 떠올려보면 더욱 그렇다. 그는 여전히 아르센 뤼팽의 전능함을 믿으며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사장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겁내지 말라고 소리치셨어요. 자신이 있으니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처형대 앞에서도 그를 믿습니다. 사장님을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지켜내실 테니까요. 제 목이 날아가도, 다시 목에 단단히 붙여주실 겁니다. 아르센 뤼팽이 자기 아끼는 길베르를 죽게 둘 리가요. 하하, 웃기지 마세요!"

"그 열정에는 고상함마저 느껴지는, 순진하고도 감동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다. 아르센 뤼팽이 그 맹목적인 신뢰에 합당한 인물인지,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뤼팽은 그 기사를 간신히 끝까지 읽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기 때문이다. 감동의 눈물, 동정의 눈물, 절박함의 눈물이었다.

그는 작은 길베르의 믿음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물론 그는 불가능을 무릅썼다. 하지만 때로는 불가능을 넘어서야 할 때도 있다. 운명보다 강해져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운명이 그보다 강했다.

이 비참한 모험이 시작된 첫날부터 끝까지, 모든 일은 그의 예상을 뒤엎었다. 논리조차 거스르는 방향이었다. 클라리스와 그는 같은 목표를 향해 있었지만, 수주 동안 서로를 방해하며 시간을 낭비했다.

그들이 드디어 힘을 합치려던 순간, 연이어 끔찍한 비극이 터졌다. 작은 자크의 납치, 도브레크의 실종, 연인들의 탑에 갇힌 그의 포로 생활, 뤼팽의 부상과 그의 무력함. 그리고 클라리스를,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뤼팽까지 남쪽, 이탈리아 쪽으로 끌어당긴 잘못된 행동들.

그리고 마침내, 끝없는 의지와 집요함으로 기적을 일으킨 듯 보일 때, 정작 금양모피가 손에 들어올 것 같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스물일곱 개의 목록은 가장 보잘것없는 종이 조각만도 못한 가치가 있었다.

"무기 내려놓아!" 뤼팽이 말했다. "패배는 이미 정해졌어. 도브레크를 복수하고, 그를 파멸시켜도 소용없지. 진정한 패자는 나야. 기베르가 죽어가니까."

그는 다시 울었다. 분하거나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절망해서였다. 기베르가 죽어간다는 사실에, 그는 울었다. 자신이 '내 아들'이라 부르며 가장 믿었던 동료, 기베르가 몇 시간 안에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에.

그는 이제 그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마지막 꼼수를 찾아보려 하지도 않았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는 알고 있었다. 사회가 복수를 되찾고, 속죄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어떤 죄인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사건에 더할 나위 없는 공포가 더해졌다. 희생자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가엾은 질베트였기 때문이다. 그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범죄와는 무죄였다.

그것은 아르센 뤼팽의 무력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비극적인 요소가 아니었을까?

그 무력감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깊고도 결정적이었다. 뤼팽은 르 발루가 보내온 전보를 받고도, 조금도 반발하지 않았다.

『엔진 고장. 부품 하나 파손. 수리에 시간이 꽤 걸릴 듯. 내일 아침 도착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없던 일이었다. 운명이 이미 판결을 내렸다는 마지막 증거가 그에게로 날아든 것이다. 그는 운명의 그 결정에 더 이상 저항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클라리스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온한 잠결에 빠져 있었다. 모든 것을 잊고 무심한 상태로 잠드는 모습은 그에게 너무도 부러워 보였다.

순간, 그는 또다시 비겁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반쯤 남은 마약이 든 병을 집어 들어 마셨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운 뒤, 하인을 불렀다.

"가서 자라, 아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깨우지 마라."

"그럼, 파트론, 길베르와 오베르와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들은 죽게 될 거야."

"네, 죽게 됩니다."

스물 분 후, 뤼팽은 잠들었다.

그때는 저녁 열 시였다.

그날 밤, 감옥 주변은 술렁거렸다.

자정이 지나 한 시쯤, 상테 감옥 앞 거리인 상테 거리와 아라고 대로, 그리고 감옥으로 이어지는 모든 골목에는 경찰들이 배치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행인조차도 철저한 심문 끝에야 지나가게 했다.

게다가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이런 광경을 구경하려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러울 정도였다. 특별 명령에 따라 모든 주점과 술집은 문을 닫았다.

세 시쯤, 보병 부대 두 개가 보도에 진을 쳤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라고 대로에는 한 개의 대대가 점령하고 있었다. 군인들 사이를 지방경찰관들이 오가고, 평화경찰관들과 경찰청 직원들이 바쁘게 드나들었다. 평소라면 볼 수 없던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그날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처형대가 조용히 설치되었다. 거리와 대로가 만나는 모퉁이 한복판이었다. 망치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오후 네 시 무렵, 비가 오자마자 군중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다. 등불을 달라고 요구했고, 커튼이 올라가기를 재촉했다.

그런데 장외에서 처형대를 보려면 방패벽 너머로 멀리서 봐야 했다. 그 거리에서는 처형대의 기둥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사실에 점점 더 격분해 갔다.

여러 대의 자동차가 줄지어 도착했다. 검은 정장을 입한 공식 인사들이 내렸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가, 곧 항의의 외침이 뒤따랐다. 그러자 기마 시위대 한 부대가 몰려와 군중을 흩뜨렸고, 땅 위의 공터에서 300미터 밖까지 사람들을 쫓아냈다.

새로 도착한 두 개 중대의 병사들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하얀 빛이 피어올랐다.

갑자기 비가 그쳤다.

건물 안, 사형수들이 수용된 복도 끝자락에서 검은 정장을 입한 사람들이 낮게 목소리를 섞고 있었다.

프라즈빌은 공화국 검찰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검찰총은 자신의 우려를 드러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프라즈빌이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보고서에 이상한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사무총장님?"

"없소. 뤼팽을 붙잡았으니, 보고될 것도 없지."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물론이지.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알고 있네. 클리슈 광장에 있는 그의 집은 어제 저녁 7시 그가 돌아온 이후로 완전히 포위됐어. 게다가 그가 두 동료를 구하기 위해 꾸민 계획도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그 계획은 마지막 순간에 무산되었지.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없어. 법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야."

"아마 언젠가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길베트의 변호사가 말을 건넸다. 그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의뢰인이 무죄라고 믿습니까, 친애하는 동업자님?"

"단호합니다, 검사님. 그는 죽어 가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검사는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그는 마치 자신의 독백에 답하듯 토로했다.

"이 사건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소."

변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뇔 뿐이었다.

"죽어가는 이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찾아와 있었다.

먼저 오자크레가 호출되었다. 감옥장은 감옥 문을 열게 했다.

오자크레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공포로 눈이 휘둥그레진 채 들어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오자크레씨, 저희가 오신 것은…"

"잠잠하세요. 잠잠히 하라고요. 말은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요. 갑시다."

그는 마치 가능한 한 빨리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하는 듯했다. 평소처럼 준비 과정에도 성실히 임했다. 하지만 그는 어떤 말도 듣지 않았다.

"말은 하지 마라." 그가 반복했다.

"뭐? 내가 자백을 하라는 건가? 쓸데없는 소리다. 내가 죽였어. 이제 내가 죽는 거지. 그게 규칙이야. 우리는 서로 원수가 됐으니, 이제 서로 상쇄된 거야."

그런데 잠시 후,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잠깐만요. 그 동생도 같이 가는 건가요?"

그가 기베르가 자신과 함께 처형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그는 몇 초 동안 망설였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더니, 무언가 말하려는 기색을 보이다가 결국 어깨를 으쓱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래, 그게 낫군… 우리는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함께 '건배'하자."

기베르의 감방에도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는 잠들지 않았다.

침대 위에 앉아 그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이 떨리기 시작해 마치 흔들리는 해골처럼 떨다가 결국 흐느끼며 주저앉고 말았다.

"아! 내 불쌍한 엄마… 내 불쌍한 엄마…"

그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어머니에 대해 심문하려 했지만, 그는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격분했다.

"나 살인자가 아냐! 죽고 싶지 않아! 나 살인자가 아냐!"

"길베르, 용기를 내야 해."

"응… 응… 하지만 내가 살인자가 아닌데, 왜 나를 죽이려는 거야?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신께 맹세할게… 살인자가 아니라고! 죽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빨이 너무 격렬하게 부딪혀 그의 말은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자백했고, 미사를 들었으며, 그제야 조금 진정되어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어린아이가 운명을 받아들이듯, 작고 연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엄마에게 전해 줘."

"당신의 어머니?"

"네… 내 말을 신문에 실어라. 그녀가 이해할 거야. 그녀가 내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입힌 상처, 내가 저지를 수도 있던 죄악에 대해선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그리고, 기베르?"

"음, '보스'가 내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하고 싶어."

그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마치 '보스'가 그들 중 한 명, 변장해 알아볼 수 없게 된 채, 자신을 품에 안고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미친 듯한 희망을 품은 듯했다.

"네," 그가 부드럽고, 마치 종교적인 경건함 어린 어조로 말했다. "네, 나는 아직 믿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야. 그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해 줘, 그렇지? 나는 그가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정말로."

그의 고정된 시선을 보면, 그가 '보'고 있는 것이 뤼팽임을 알 수 있었다. 뤼팽의 그림자가 주변을 배회하며, 자신에게로 들어올 구멍을 찾고 있는 것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병사가 호위하고, 사형수가 이미 사형집행자의 손아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팔다리가 묶인 채 힘줄옷을 입은 이 아이의 모습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슴을 찢어놓았다.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조여왔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가엾은 아이."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클라리스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격에 찬 프라스빌도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가엾은 아이…"

길베르의 변호사는 울음을 터뜨렸고,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끝없이 말했다.

"그는 죽어가는 무고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다가왔고, 모든 준비는 끝난 뒤였다. 그들은 행진을 시작했다.

두 무리는 복도에서 합류했다.

보아셰는 기베르를 보고 비웃듯 웃었다.

"봐, 친구. 상사가 우리를 버렸어."

그리고 그는 prasville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덧붙였다.

"아마도 그는 수정 마개의 이득을 독차지하는 게 더 좋은 모양이야."

그들은 계단을 내려갔다. 관할 사무실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았고, 안뜰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리고 갑자기, 활짝 열린 큰 문틀 너머로 창백한 햇빛, 비, 거리, 집들의 실루엣, 그리고 무서운 고요 속에서 떨리는 먼 소음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교도소 현관 앞에는 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곧 두 개의 목을 싣고 갈, 죽음의 마차였다.

보조원들의 도움으로 보샤레와 기베르는 마차의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그들은 벽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끝없이 길고 끔찍한 여정이었지만, 사실은 너무 짧았다. 거리의 모퉁이에 이르러서야 마차는 멈췄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다. 지옥의 문턱에선 것이다. 두 사람은 간신히 내려졌다.

그들은 걸었다.

여전히 몇 걸음 더. 보샤레는 뒤로 물러났다. 그가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기베르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어가고 있었다. 한 보조원과 사제가 그를 받쳐주며 십자가에 입맞추게 했다.

처형대가 우뚝 서 있었다.

"아니, 아니! 나는 원치 않아! 나는 죽이지 않았어! 정말로 죽이지 않았어! 도와줘! 도와줘!"

그 절규는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다.

집행관이 손짓했다. 보샤레가 잡혔다. 들어 올렸다. 거의 달리는 걸음으로 끌려갔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총성이 들린 것이다. 맞은편 건물에서 쏜 총성이었다.

보조원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이 끌고 가던 무거운 몸이 덜컹 흔들렸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죠?"

"다쳤습니다……"

보슈레의 이마에서 피가 솟구쳐 얼굴을 적셨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맞았습니다…… 명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목이 잘리지는 않겠군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 참으로 멋진 분이에요!"

"처치하라! 저쪽으로 모셔가라!"

혼란 가운데 한 목소리가 외쳤다.

"이미 죽었습니다……"

"가서 처리해라! 처치하라!"

법관과 관료, 경찰들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 사이에서는 소동이 최고조에 달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사형집행을 하라! … 정의의 절차를 따르게 하라!"

"물러설 수 없다! … 그것은 cowardice(비겁)다!"

"사형집행을 하라!"

"하지만 그는 죽었다!"

"상관없다! … 사법부의 판결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 사형집행을 하라!"

사목관이 항의하는 사이, 두 명의 경비병과 형사들이 질베르를 감시하고 있었다. 한편, 집행 보조원들은 시신을 다시 들어 올렸고, 단두대 쪽으로 옮기고 있었다.

"가라!" 집행관이 놀란 목소리로, 쉰 목소리로 외쳤다. "가라… 그리고 다음 차례로… 서둘러라…"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또 한 번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는 제자리에서 빙글 돌아서 쓰러지며 신음했다.

"괜찮아… 어깨에 상처 하나일 뿐이야… 계속해… 다음 차례는 저쪽이야!…"

하지만 보좌관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단두대 주변이 텅 비었다.

경찰청장은 유일하게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 다시 감옥 쪽으로 밀어 넣었다.

방금 전까지 그 문을 드나들던 판사들, 관료들, 사형수, 신부, 그리고 그 외 모든 이들이 무질서한 떼처럼 다시 감옥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사이, 위험 따위 모른다는 듯이 경찰관·형사·병사들로 구성된 한 무리가 그 집으로 돌진했다. 3층짜리 작은 집이었다. 이미 낡은 건물로, 1층에는 그 시각에는 문을 닫은 두 개의 가게가 있었다.

총성이 첫 번째로 터지자마자, 2층 창문 하나에서 흐릿하게 남자가 보였다. 그는 총을 손에 쥐고 있었고, 연기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맞추지 못한 채 권총으로 쏘아댔다. 그는 차분하게 테이블 위에 올라서 다시 총을 어깨에 메었다. 조준했다. 그리고 총성이 쩌렁쩌렁 울렸다.

그리고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래층에서는 누구도 벨 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이 부셔졌다. 몇 분도 안 되어 문은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계단을 향해 내달렸다. 하지만 곧장 발길이 막혔다. 1층에 의자, 침대, 가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진정한 교전 진지나 다름없었고, 물건들이 서로 엉키어 얽혀 있어 공격자들은 길을 뚫기까지 4분에서 5분이 걸렸다.

이 4분에서 5분의 시간 손실은 모든 추적을 무용지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2층에 도달했을 때,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요, 친구들! 계단 18칸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만큼의 수고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 열여덟 계단을 얼마나 재빠르게 올랐는지 모른다. 하지만 3층 위, 즉 다락방으로 가는 길은 사다리와 트랩으로만 연결되어 있었다. 도망자는 사다리를 들고 올라가 트랩을 닫아걸었다.

이 전례 없는 행동이 얼마나 큰 소동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잊지 못한다. 신문은 연이어 호외를 찍어냈고, 거리에서는 신문부들이 달음질치며 소리쳤으며, 파리의 모든 국민이 분노와 함께 초조한 호기심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그 소동은 경찰청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사방에서 소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보와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드디어 오전 11시, 경찰청장 관사에서 비공식 회동이 열렸다. 프라스빌도 자리했다. 보안국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 결과는 이랬다.

전날 밤 자정 직전, 아라고 대로에 있는 집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가게 뒤 지하실에 붙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하녀가 초인종 줄을 당겼다.

한 남자가 그녀의 문 두드렸다. 그는 내일 실행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급한 용무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문이 열리자 그는 하녀를 덮쳐 입에 헝겊을 물리고 묶어 버렸다.

열 분 뒤, 1층에 사는 부부가 집에 들어오던 중 같은 남자에게 당했다. 두 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비어 있던 두 가게 중 하나씩에 갇혔다. 3층 거주자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지만, 그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던 탓에 남자가 소문 없이 침입할 수 있었다.

2층은 비어 있었기에, 남자는 그곳에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집의 주인이 되었다.

"자, 이렇단 말이지." 경찰청장이 비웃음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별 것 아니야. 다만 내가 의아한 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도망쳤는지야."

"경관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남자는 새벽 한시부터 오시까지 집안 일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죠. 그 네 시간 동안 도주를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도주했나요?"

"지붕 위를 통해서였죠. 근처의 글라시에르 거리 건물들과 이 집 지붕 사이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지붕 사이에는 약 삼 미터 너비의 틈만 하나 있을 뿐이죠. 높낮이 차이는 일 미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 그 남자는 다락방 사다리를 가져갔지. 사다리는 다리 역할까지 해줬어. 다른 건물 군에 도착한 그는 달팽이집 창문들을 살펴보고, 비

어 있는 다락방 하나를 찾아냈어. 그래야 글라시에르 거리 쪽 집 안으로 들어가고,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은 채 평온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지. 이렇게 그의 도주는 철저히 준비된 덕분에, 그야말로 아무런 방해 없이 가장 손쉽게 이루어졌어."

"하지만 당신도 필요한 조치들은 취해 두었던 거군요?"

"경무관님께서 지시하신 대로입니다. 제 부하들이 어제 밤 세 시간 동안 각 가옥을 일일이 수색했습니다. 외부인이 숨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마지막 가옥에서 물러나자마자 저는 검문로를 설치했습니다. 그 몇 분 사이, 그 남자가 틈을 타 도망쳤을 겁니다."

"좋아, 좋아.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군. 아르센 뤼팽이겠지?"

"물론입니다. 우선 그의 동행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리고 혼자서는 아르센 뤼팽만이 이런 수를 짤 수 있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담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경무관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프라스빌을 향해 돌아서며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프라즈빌 씨, 제가 말씀드린 그 인물, 즉 보안국장님과 합의해 어제 저녁부터 클리시 광장의 그의 아파트에서 감시하고 있는 그 사람은 아르센 뤼팽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총감님. 뤼팽이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그가 간밤에 밖으로 나왔을 때 체포하지 못한 건가?"

"그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 오! 상황이 복잡해지는군."

"아주 간단합니다, 총감님. 아르센 뤼팽의 발자취가 남은 모든 집처럼, 클리시 광장의 그 집에도 출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막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아무도 없었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아킬이라는 하인이 한 여인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 여인은 뤼팽의 집에서 지냈고요."

"그 여인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프라스빌이 아주 미세하게 망설인 뒤 대답했다.

"하지만 아르센 뤼팽이 행세하던 이름은 알고 있겠죠."

"네. 니콜 씨, 자유 교사이자 문학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여기 명함이 있습니다."

프라스빌이 말을 마치는 순간, 한 집행관이 경찰청장에게 엘리제궁에서 급히 찾는다고 알렸다. 그곳엔 이미 국무총리가 와 있었다.

"가야겠군."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덧붙였다.

"길베르의 운명이 결정되겠군."

프라스빌이 조심스레 물었다.

"총감님, 그를 사면할 거라고 보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간밤의 사건을 겪은 마당에, 사면은 개탄스러운 결과를 낳을 겁니다. 내일 아침 당장 길베르는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때, 집행관이 프라스빌에게 명함을 건넸다. 프라스빌은 명함을 받아 든 채 몸을 움찔 떨더니 중얼거렸다.

"젠장, 이 자식!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무슨 일입니까?" 총감이 물었다.

"아니에요, 총감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프라스빌은 혼자서 이 사건을 끝까지 처리할 영광을 누리고 싶었다. "아무것도요… 조금 뜻밖의 방문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입술을 우물거리며 자리를 떴다.

"그래, 정말… 이 자식, 배짱 한번 대단하군.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배짱이야!"

그가 손에 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13장

프라스빌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다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니콜 씨를 알아보았다. 굽은 등, 병약해 보이는 얼굴, 무명천 우산, 찌그러진 모자, 그리고 한 짝뿐인 장갑.

'맞아, 바로 그자다.'

프라스빌은 잠시 뤼팽이 다른 니콜 씨를 대신 보냈을까 봐 걱정했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찾아온 것을 보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세 번째로 중얼거렸다.

'그나저나 참 대담하군.'

그는 집무실 문을 닫고 비서를 불렀다.

"라르티그 씨, 이제 여기서 아주 위험한 인물을 맞이할 참인데, 십중팔구 그자는 손에 수갑을 찬 채로만 제 집무실을 나가게 될 겁니다. 그

가 들어오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형사 열두 명을 불러 대기실과 당신 사무실에 배치하세요. 지시는 분명합니다. 첫 벨 소리가 울리는 즉시, 모두 권총을 손에 쥐고 들어와 그자를 에워싸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총무국장님."

"무엇보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일제히 들이닥쳐, 브라우닝을 손에 쥐는 겁니다. '거칠게', 아시겠죠? 니콜 씨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프라스빌은 혼자 남기자마자, 종이 몇 장으로 책상 위에 놓인 전기 벨의 버튼을 가렸다. 그리고 책 더미 뒤에 두 자루의 큰 권총을 숨겨 뒀다.

'이제부터는 꼼수를 부려야지.'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만약 그가 목록을 가지고 있다면, 목록을 빼앗자. 없다면 그를 잡자. 그리고 가능하면 둘 다 잡자. 뤼팽과 스물일곱 명의 목록을, 그리고 특히 오늘 아침의 스캔들 이후에 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이름이 한창 빛날 거야.'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오세요!"

그가 외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오십시오, 니콜 씨.”

니콜 씨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와, 그가 가리킨 의자 가장자리에만 반쯤 앉았다가 입을 열었다.

"어제 나누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러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프라스빌이 말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대기실로 향하다가 비서를 발견했다.

"아, 깜빡했군요, 라르티그 씨. 복도와 계단을 점검해 주게.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돌아온 그는, 무척 흥미로운 긴 대화를 앞둔 사람처럼 편안하게 자리를 잡고 말을 꺼냈다.

"그러니까 니콜 씨, 무슨 말씀을 하시던 참이었죠?"

"총무국장님, 어젯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선 메르지 부인이 그랬고……"

"네, 당신이 바래다줘야 했던 그 메르지 부인 말이죠."

“맞아요. 저도 치료를 해야 했죠. 그 불쌍한 여인의 절망을 이해하시죠. 아들 기베르가 죽음의 문턱에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그 시간엔 기적밖에 기대할 길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기

적이요. 저도 이미 비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운명이 당신을 쫓아올 때, 결국은 체념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프라스빌이 지적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저를 떠나실 때의 당신의 의도는 다브레크의 비밀을 어떤 수를 써서든 빼내는 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다브레크는 파리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를 자동차로 이동시키고 있었죠."

"그렇다면 니콜 씨, 당신도 자동차를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형편없는 낡은 차, 평범한 구형 자동차였으니까요. 그는 자동차를 타고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자동차 지붕 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감금해 둔 트렁크 뒤쪽이요. 그리고 그 자동차는 아쉽게도 처형이 끝난 뒤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스빌은 니콜 씨를 경악한 듯이 바라보았다. 만약 그가 이 인물의 정체를 두고 아직 의심을 품고 있었다면, 도브레크에게 내린 이런 처치가 그 의심을 완전히 걷어냈을 것이다. 천만에, 누군가를 상자 속에 가두고 자동차 지붕에 태우다니! 뤼팽만이 할 수 있는 방종이고, 뤼팽만이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럼," 프라스빌이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았죠."

“어떤 방법 말입니다?”

"하지만 총무국장님, 그건 당신도 저만큼 잘 알고 계신 일 아닙니까."

"뭐라고요?"

"이런, 당신도 처형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보슈레와 사형집행인 두 사람이 모두 총에 맞는 걸 보셨겠군요. 한 사람은 치명상을, 다른 한 사람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죠. 그러니 당신도 충분히 짐작하실 텐데……"

"아!" 프라스빌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당신이 자백하는군… 오늘 아침에 총을 쏜 게 바로 당신이라고?"

"자, 총무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검토한 스물일곱 명의 명단은 가짜였습니다. 진짜 명단을 가진 다브레크는 처형이 끝나고 몇 시간 뒤에야 도착할 참이었죠. 그러니 길베르를 구하고 그의 사면을 얻어낼 방법은 단 하나, 처형을 몇 시간 늦추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야만적이고 악랄한 죄인, 바로 보처레라는 자를 처단하고, 그 집행자를 부상시켜 혼란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베르의 처형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불가능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저에게 꼭 필요했던 몇 시간의 시간을 벌어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프라스빌이 되뇌었다.

그리고 뤼팽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은 저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가 원수, 그리고 저 모두에게 이 문제를 조금 더 명확히 파악하고 생각해 볼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무고한 사람의 처형! 무고한 사람의 머리가 떨어지는 것을! 제가 그런 악행을 허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안 됐죠.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저는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

프라스빌은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니콜 씨가 말 그대로 '천하의 뻔뻔함'을 보여준다는 점이었다. 그 정도면 도대체 니콜을 뤼팽과 동일시해야 할지, 아니면 뤼팽을 니콜과 동일시해야 할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니콜 씨, 저는 생각합니다. 백오십 보 떨어진 곳에서 죽이려던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만 하려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려면, 굉장한 솜씨가 필요하다고요."

"저도 어느 정도 연마는 했죠." 니콜 씨는 겸손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이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긴 준비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도 봅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잘못 짚으셨어요. 그건 완전히 즉흥적이었습니다!"

"만약 제 하인이, 아니 클리시 광장의 아파트를 빌려준 친구의 하인이 저를 억지로 깨워, 그자가 예전에 아라고 대로의 그 작은 집에서 점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세입자가 몇 안 된다고, 어쩌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말해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가엾은 길베르는 목이 잘려 나갔을 테고… 메르지 부인도 십중팔구 죽었을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충실한 하인의 생각에 곧바로 매달린 거죠. 아! 다만, 총무국장님, 당신 때문에 정말 곤란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신은 제 집 문 앞에 열두 명이나 배치해 두는 괴상한 조심성을 부리셨더군요? 덕분에 저는 하인용 계단 다섯 층을 다시 올라가, 하인용 복도를 지나 옆집으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헛수고였죠!

“죄송합니다, 니콜 씨. 다음번엔……”

“오늘 아침 여덟 시에도 그랬습니다. 다브레크를 트렁크에 실어 나를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차가 제 집 문 앞에 멈추지 않도록, 또 당신 부하들이 제 일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클리시 광장에서 한

참을 서성여야 했죠. 안 그랬다면 길베르와 클라리스 메르기는 또다시 끝장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은……" 프라스빌이 말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긴 하지만, 제 생각엔 그저 하루, 이틀, 많아야 사흘 정도 미뤄진 것뿐입니다. 완전히 막으려면……"

"진짜 목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손에 넣지 못하셨을지도 모르죠……"

"가지고 있습니다."

"진본 목록 말입니까?"

"진본 목록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한 진짜죠."

"로렌 십자가가 새겨진 것이요?"

"로렌 십자가가 새겨진 것입니다."

프라스빌은 말을 멈췄다. 격렬한 감정이 그를 옥죄었다. 이제 그 무서운 실력을 익히 아는 상대와 결투가 막 벌어지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아르센 뤼팽, 그 가공할 뤼팽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그는 몸서리쳤다. 뤼팽은 차분하고 평온했으며, 마치 자신이 모든 무기를 손에 쥔 채 무장 해제된 적 앞에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냉정하게 목표를 좇고 있었다.

아직 정면으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 거의 주눅이 든 프라스빌이 말했다.

"그래서, 다브레크가 당신에게 그걸 건넸단 말이오?"

"다브레크는 아무것도 건네지 않소. 내가 빼앗았지."

"그렇다면 강제로?"

"천만에요." 니콜 씨가 웃으며 말했다. "물론 저는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로로포름 몇 방울을 양식 삼아 '초고속으로' 여행하던 그 트렁크에서 제가 직접 가엾은 다브레크를 끄집어냈을 때, 저는 당장 춤판이 시작되도록 모든 준비를 해두었죠. 아, 쓸데없는 고문 따위는 없습니다… 헛된 고통도 없고요… 아니요… 그저 죽음뿐이죠… 가슴, 심장 자리에 긴 바늘 끝을 대고 조금씩, 부드럽게, 다정하게 밀어 넣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그 바늘을 움직일 사람은 바로 메르기 부인이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어머니란 무자비한 법이니까요… 아들이 죽어가는 어머니라면요!… '말해, 다브레크, 안 그러면 찔러 넣겠다… 말하기 싫어? 그럼 1밀리미터 들어간다… 그리고 또 1밀리미터…' 그러면 환자의 심장은, 바늘이 다가오는 걸 느끼는 그 심장은 박동을 멈추죠… 그리고 또 1밀리미터… 또 1밀리미터… 아! 맹세코 그 악당은 입을 열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위로 몸을 숙인 채, 어찌나 마음이 급한지 떨면서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죠… 여기서 그려지십니까, 사무총장님? 악당이 소파에 누워 단단히 결박당한 채 가슴을 드러내고, 자신을 멍하게 만드는 클로로포름 기운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씁니다. 숨이 빨라지고… 헐떡이고… 의식을

되찾습니다… 입술이 달싹이고… 벌써 클라리스 메르기가 속삭입니다.”

“나야… 나야, 클라리스라고… 대답할 테냐, 비열한 놈?”

그녀는 다브레크의 가슴에, 피부 밑에 숨은 작은 짐승처럼 심장이 꿈틀거리는 자리에 손가락을 댔다. 그러나 그녀는 내게 말했다.

“저 눈… 저 눈… 안경에 가려 보이질 않아… 저 눈을 보고 싶어…”

나 역시 그 눈을, 내가 알지 못하던 그 눈을 보고 싶다… 그 눈에 어린 고뇌를 보고 싶고, 한마디 말을 듣기도 전에 그 안에서, 겁에 질린 존재의 밑바닥에서 솟구쳐 나올 비밀을 읽어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다. 이제 내가 하려는 행동만으로도 흥분이 솟구친다. 보고 나면 베일이 찢겨 나갈 것만 같다. 나는 알게 되리라. 예감이다. 진실에 대한 깊은 직감이 나를 뒤흔든다. 코안경은 이미 사라졌지만 두껍고 불투명한 안경은 아직 그대로다. 나는 그것을 거칠게 잡아챈다. 그러자 별안간 어리둥절한 광경에 흠칫하고, 갑자기 들이닥친 환한 빛에 눈이 부신 채, 나는 웃는다, 턱이 빠질 듯이 웃으며 엄지손가락으로 툭, 자! 그의 왼쪽 눈을 튀어나오게 한다!

니콜 씨는 정말로, 아니, 본인이 말했듯이 턱이 빠지도록 크게 웃고 있었다. 이제 그는 끈적거리고 교활해 보이던 소심한 지방 교사 따위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거친 사내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 장면을 열정적으로 낭독하고 몸으로 연기했다. 지금 그의 날카롭고도 거친 웃음소리는 프라스빌을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어이쿠! 뛰어라, 후작님! 굴에서 나와라, 아조르! 눈이 두 개라니, 무슨 용도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어이쿠! 아니, 클라리스, 저 녀석을 보게. 카펫 위에서 굴러다니는 걸. 조심해, 도브레크의 눈! 살라망더를 조심하게!"

니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쫓는 시늉을 하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한 물건을 꺼내 손바닥의 오목한 곳에 굴렸고, 마치 공처럼 공중으로 튕겨 올렸다. 그리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차갑게 말했다.

"도브레크의 왼쪽 눈."

프라스빌은 깜짝 놀라 할 말을 잃었다. 이 이상한 방문객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이 모든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매우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생각엔 다 설명된 셈입니다. 게다가 이건 사실과 너무도 잘 들어맞아요! 얼마 전부터 저도 모르게 세우고 있던 온갖 가설과도 딱 맞아떨어지죠. 그 빌어먹을 다브레크가 그토록 교묘하게 저를 그 가설들에서 떼어놓지만 않았다면, 저는 틀림없이 목표에 도달했을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 추리의 자취를 따라와 보십시오. '다브레크 말고는 어디에서도 그 목록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그 목록이 다브레크 바깥에는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가 입은 옷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면, 더

깊숙한 곳, 바로 그 자신 안에, 더 분명히 말하면 그의 살에… 살갗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아마 그의 눈 속에라도?" 프라스빌이 농담조로 말했다.

"바로 그의 눈 속입니다, 사무총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군요."

"뭐라고?"

"그건 바로 그의 눈 속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연히 알게 될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진작 제 머리에 떠올랐어야 할 진실이었죠.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브레크는, 자신이 어느 영국 제조업자에게 '수정 안쪽을 파내어 도저히 의심조차 할 수 없는 빈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편지를 클라리스 메르기가 몰래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브레크는 신중을 기해 수사의 방향을 딴 데로 돌려야 했죠. 그렇게 해서 그는 건네받은 본을 바탕으로 '속이 빈' 수정마개를 만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과 제가 몇 달째 쫓아다닌 게 바로 그 수정마개고, 제가 담배 봉지 바닥에서 찾아낸 것도 바로 그 수정마개죠… 정작 노려야 했던 건……"

"정작 노려야 했던 건……?" 프라스빌이 궁금한 듯 물었다.

니콜 씨는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정작 문제의 핵심은 도브르크의 눈, 그러니까 '안쪽이 비어 있어 보이지도 닿지도 않는 숨겨진 공간'을 이룬 그 눈, 바로 이 눈이었단 말입니다."

니콜 씨는 다시 주머니에서 그 물건을 꺼내, 여러 차례 책상 바닥에 내리쳤다. 딱딱한 물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프라스빌은 당황한 나머지 속삭이듯 말했다.

"유리 눈이요!"

"세상에, 맞습니다!" 니콜 씨가 더욱 신나게 웃으며 외쳤다. "유리 눈알이죠! 그 악당이 죽은 눈 대신 눈구멍에 끼워 넣은, 흔해 빠진 유리병 마개 말입니다. 유리병 마개라고 했지만, 원하신다면 수정마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번엔 진짜배기죠. 그가 직접 손을 봐서 코안경과 안경이라는 이중의 방벽 뒤에 감춰 두었던, 그리고 다브레크가 마음 놓고 일을 꾸밀 수 있게 해준 그 부적이 들어 있던, 지금도 들어 있는 바로 그 마개입니다."

프라스빌은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감추려고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그는 스물일곱 명의 명단을 거의 손에 넣은 거나 다름없었다. 그 명단이 바로 그의 앞,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는 동요를 억누르며 짐짓 태연한 투로 말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 들어 있다는 거요?"

"적어도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니콜 씨가 잘라 말했다.

"뭐라고요!… 짐작만 하신단 말이오……"

"숨긴 곳을 제가 직접 열어 보진 않았습니다. 그 영광은 사무총장님께 남겨 두려고요."

프라스빌은 팔을 뻗어 그 물건을 집어 들고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감쪽같이 진짜로 착각할 만큼 자연을 본뜬 수정 덩어리로, 안구며 눈동자며 동공이며 각막까지 온갖 세부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뒤쪽에서 미끄러지는 가동부를 발견했다. 힘을 주자 눈알은 속이 비어 있었다.

그 안에는 종이를 뭉친 작은 공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펼쳤다. 그러고는 이름이나 필체, 서명을 미리 살펴보지도 않고 재빨리 두 팔을 들어 종이를 창문의 빛 쪽으로 비춰 보았다.

"로렌 십자가가 정말 거기 있습니까?" 니콜 씨가 물었다.

"그곳에 있습니다." 프라스빌이 대답했다. "이 목록이 바로 진짜 목록이죠."

그는 몇 초 동안 망설였다. 팔을 들어 올린 채로 서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고는 종이를 접어 수정 작은 상자 안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주머니 속으로 쑤셔 넣었다.

그를 지켜보던 니콜 씨가 물었다.

"확신이 서십니까?"

"물론이죠."

"그렇다면 우리 의견이 일치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두 남자는 서로를 노골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니콜 씨는 대화가 이어지길 기다리는 듯했다.

책 더미 뒤에 숨어 오른손에는 권총을, 왼손에는 전기 벨 버튼을 잡은 프라스빌은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고단한지 맛보며 희열을 느꼈다.

그는 목록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뤼팽을 손아귀에 넣은 셈이었다.

'만약 뤼팽이 움직인다면? 권총을 겨누고 비명을 지르겠지. 만약 나를 공격하면, 쏴버리면 돼.'

마침내 니콜 씨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의견이 맞았으니, 총무국장님. 이제 서두르실 차례입니다. 집행은 내일?"

"내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까?"

"엘리제 궁의 답변을."

"아, 누군가 그 답장을 가져다주려나?"

"누구라고?"

"당신이지, 총무국장님."

프라스빌이 고개를 저었다.

"저희를 믿지 마십시오, 니콜 선생님."

"정말이오?" 니콜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이유라도 여쭤봐도 되겠소?"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뿐이오?"

"그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늘 밤의 스캔들 이후로 길베르를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에리제 궁전으로 가는 그간의 절차는 진정한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기로 했소."

"당신의 자유입니다, 각하.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어젯밤에는 없었던 그런 양심 같은 게 있으시다니 존경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각하. 우리가 맺은 계약은 이미 파기되었으니, 그 스물일곱 명의 명단을 돌려주십시오."

"왜요?"

"다른 중개자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길베르는 이미 끝장났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밤의 사건으로 동료가 죽었으니, 이번만큼은 누구나 공정하고 인간적이라고 인정할 용서를 내려주기 쉽습니다. 그 명단을 돌려주십시오."

"세상에, 각하. 기억력이 짧으시다니, 양심도 그리 섬세하지 않으시군요. 어젯밤의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어젯밤, 저는 니콜라는 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니콜 씨가 아닙니다."

"정말이요. 그럼 저는 누구란 말입니까?"

"제가 알려드릴까요?"

니콜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가볍게, 하지만 만족스러운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대화의 흐름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며 만족했다는 표정이었다. 이를 본 프라스빌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무기의 손잡이를 꽉 쥐며, 도움을 부르려야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니콜 씨는 의자를 책상 가까이로 당겨 앉았다. 두 팔꿈치를 서류 위에 올리고는, 상대방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비웃듯 말했다.

"그러니까, 프라스빌 씨.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나랑 이런 장난을 치는 용기가 있는 겁니까?"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프라스빌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흔들림 없이 그 충격장을 막아냈다.

"당신이 저를 믿고 있다는 뜻이군요. 아르센 뤼팽…… 이름부터 제대로 합시다. 아르센 뤼팽. 당신이 저를 충분히 바보라고, 충분히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손발이 묶인 채 이렇게 제게 넘겨주는 건가요?"

"음, 그건 좀 과한 말씀이시네요." 프라스빌이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를 두드렸다. 그곳에는 수정 구슬이 숨겨져 있었다. "다부르크의 눈이 이미 저기에 있고, 그 눈속에는 스물일곱 가지 목록이 들어 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니콜 씨?"

"제가 뭘 할 수 있냐고요?" 니콜 씨가 비웃는 어조로 되물었다.

"맞아요. 부적의 보호도 이제 소용없잖아요.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찰 본부 한가운데로 들어선,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더 이상은 못 되죠. 이 문마다 서 있는 수십 명의 형사들, 그리고 첫 신호만 들리면 달려올 수백 명의 동료들 앞에서는."

니콜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Prasvile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비서국장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당신도 어지럽게 만들고 있군요. 그 명단을 손에 쥔 순간, 당신은 갑자기 도브렉이나 알뷔펙과 같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머리 속에는 그 명단을 상부에 보고해서 수치와 분열의 씨앗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유혹이 당신을 취하게 만듭니다. 현기증이 나는 순간,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주머니 속에 있어. 이걸로 나는 무적이지. 이걸로 부와 절대적 권력을 얻는 거야. 한계 따위 없어.'

'이 기회를 살려볼까? 길베르와 클라리스 메르지를 죽여버릴까? 이 바보 뤼팽을 감옥에 넣을까? 이 드문 재앙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는 프라스빌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신뢰를 담은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친애하는 선생님. 정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러죠?"

"당신의 이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진심입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꼭 그 일을 저지르겠다固執한다면, 방금 내 창고를 털어가신 그 목록에 있는 스물일곱 개의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세 번째 인물의 이름을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세 번째 인물의 이름이 뭐죠?"

"그건 당신의 친구 중 한 명의 이름입니다."

"누구 말입니까?"

"전 의회 의원 Stanislas Vorenglade 씨입니다."

"그리고서요?" 프라스빌이 물었다. 그는 조금씩 자신감을 잃어가는 기색이었다.

"그렇다면요? Stanislas Vorenglade 뒤에 숨어 그와 작은 이익을 나누던 자가 누군지, 간단한 수사만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Louis Prasville."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Prasville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만약 당신이 저를 들켰다 해도, 당신의 가면은 이미 오래전에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드러난 것은 결코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Prasville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Nicole 씨는 책상 위에 주먹으로 세게 내려치며 외쳤다.

"이쯤에서 장난은 멈추시오, 선생님!" "이제 스무 분이나 꼬리물기식 대화를 나눴소. 더 이상은 안 되오. 결론부터 내입시다. 그리고 먼저 권총을 내려놓으시오. 그런 기계가 저를 무서워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저는 시간이 촉박하오."

그는 프라스빌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한 시간 안에, 사면 영수가 서명됐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들고 대통령 관저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십 분 더 지난, 즉 한 시간 십 분 안에 내가 아르센 뤼팽으로서 이 곳을 무사히, 완전히 자유로운 몸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오늘 밤 파리의 네 신문에 네 통의 편지가 도착할 거야.

그 편지들은 Stanislas Vorenglade와 네 사이에 오간 서신 중 내가 오늘 아침에 사온 것들이지.

자, 모자, 지팡이, 코트를 가져가. 얼른 사라져.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놀랍지만, 설명은 간단한 일이었다. 프라스빌은 단 한 마리의 불평도 하지 않았고, 조금의 저항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깊고도 완전히 깨달았다. 아르센 뤼팽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전능한 존재인지.

그는 이제 변명 따위 생각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그 편이리라 믿었던, 즉 보렝글라드 의원이 편지를 불태웠거나, 적어도 그에게 건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도 이제 먹히지 않았다. 그런 행위는 곧 자멸을 의미하니까.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쇠꼬집기에 갇혔음을 느꼈다. 그 어떤 힘으로도 열 수 없는, 단단히 조여오는 족쇄였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항복뿐이었다. 그는 항복했다.

"한 시간 후, 여기서." 니콜씨가 다시 말했다.

"한 시간 안에요." 프라스빌이 순종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는 덧붙여 물었다.

"이 편지들을 돌려받으면 길베르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물론이죠. 그럼 이제 쓸 데 없는 일이군요."

"편지는 제가 친구들과 함께 길베르를 탈출시킨 날로부터 두 달 뒤에 온전히 돌려받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형무소 측의 지시에 따라 감시가 느슨하게 이루어질 테니까요."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사만 프랑짜 수표를 즉시 건네야 합니다."

"사만 프랑!"

"보렝글라드가 그 편지들을 팔 때 받은 가격입니다. 공정한 거래죠."

"다음은?"

"둘째, 여섯 달 이내에 지금 계시직에서 사임해야 합니다."

"사임이라니요! 도대체 왜요?"

니콜 씨는 매우 위엄 있는 제스처를 취했다.

"경찰청에서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가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성공을 거두어 의원이든, 장관이든, 아니면 문지기든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세요. 하지만 경찰청 차관이라는 자리는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저를 역겹게 하죠."

프라즈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상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면 그건 그를 깊이 기쁘게 할 일이었을 것이다. 그는 온갖 지혜를 동원해 그 결과를 이끌어낼 방법을 궁리했다. 하지만 그는 뭘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 외쳤다.

"라르티그 씨?"

그리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니콜 씨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라르티그 씨, 직원들을 해산시키시오. 실수가 있었소.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사무실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오. 내가 기다리겠소."

그는 니콜 씨가 건네는 모자와 지팡이, 외투를 받아 들고는 문을 나섰다.

"모든 축하를 드립니다, 선생님." 문이 닫힌 뒤, 뤼팽이 속삭였다. "당신은 완벽할 정도로 단정하셨군요. 저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조금은 과한 경멸과, 다소 거친 태도가 섞였을 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습

니다. 이런 일은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상대를 혼란에 빠뜨려야 하니까요. 그리고 자, 우리가 하얀 제비꼬리를 가졌다면, 이런 식의 인간들에게는 너무 높게 날아오르는 것도 나쁘지 않죠. 고개를 들고 있세요, 뤼팽. 당신은 모욕당한 도덕의 챔피언이었습니다. 당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제 의자를 가져다 앉으시고, 몸을 편하게 쭉 펴고 주무십시오.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프라스빌이 돌아왔을 때, 뤼팽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깨우기 위해 뤼팽의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사면령은 오늘 오후에 서명됩니다. 여기 그 약속이 적힌 문서입니다."

"사십만 프랑은요?"

"수표가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당신께 감사드리는 것뿐이군요, 각하."

"그럼 편지들은요?"

"스타니슬라스 보렝글라드의 편지는 지정한 조건에 따라 인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바로, 감사의 표시로, 제가 신문사에 보내야 할 편지들을 당신께 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아! Prasville이 말했다. 당신에게 그것을 지니고 있었단 말인가?"

"저는 각하와 우리가 결국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모자에서 무거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에는 빨간 밀랍 도장이 다섯 개나 찍혀 있었고, 모자 안쪽 끈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프라스빌에게 건넸고, 프라스빌은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비서실장님,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저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르날> 신문 구인란에 간단한 한 줄만 보내시면 됩니다. 주소는 '니콜 씨'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자리를 떠났다.

프라스빌은 혼자 남았다. 그는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양심이나 의지 따위 전혀 통제하지 못한 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는 즉시 종을 누르고 복도에 소동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두드려졌다. 그리고 한 법원 집행관이 재빨리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인가?" 프라스빌이 물었다.

"총무閣下, 다브렉 의원이 뵙고 싶어 합니다. 아주 급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브렉?!" 프라스빌이 놀라 외쳤다. "다브렉이 여기라니! 들이시오."

다브렉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옷매무새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한 채, 왼쪽 눈에 붕대를 감고 넥타이도, 가디널 칼라도 없이 달려들었다. 도망친 정신병자 같은 모습이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그는 거대한 두 손으로 프라스빌을 꽉 붙잡았다.

"그 목록이 있나?"

"그걸 샀나?"

"길베르의 사면을 대가로?"

"서명이 되어 있나?"

다브렉이 분노에 찬 몸짓을 했다.

"바보야! 바보 같으니라니! 네가 당하게 생겼구나. 나를 미워해서 그래? 이제 네가 복수를 하려는 거야?"

"다브렉, 기꺼이 그러겠소. 니스의 내 작은 친구, 오페라극장 무용수를 기억하느냐? 이제 네 차례다. 춤을 춰야 할 때다."

"그럼 감옥으로 가는 건가?"

"필요 없소, 프라스빌이 말했다. 넌 이미 끝장이야. 명단이 사라진 상태, 방어할 수단도 없이 넌 스스로 무너질 거야. 그리고 나는 그 몰락을 지켜볼 뿐이지. 바로 이것이 나의 복수라네."

"정말 그렇게 믿는 거야!" 다브렉이 격분하여 외쳤다. "내가 닭처럼 목이 졸려도 막지 못하겠고, 발톱도 이빨도 다 잃은 줄로 아느냐? 잘 들어라, 친구.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반드시 함께 떨어질 자가 있다. 바로 프라스빌, 스타니슬라스 보렝글라드의 동업자 말이다. 보렝글라드는 그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를 나에게 건네줄 터이니, 너는 당장 감옥에 갇힐 것이다. 이제야 너를 잡았구나, 친구. 이 편지들이 있으니 너는 꼼짝없이 발이 묶일 거야. 크레블뢰! 그러면 데브렉 의원도 여전히 호강할 날이 남았지. 뭐, 너 웃고 있나? 그 편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프라스빌이 어깨를 으쓱였다.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보렝글라더는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오전부터요. 보렝글라드 씨가 두 시간 전에 팔았어요. 사십만 프랑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가격에 다시 사왔고요."

도브뢰크는 터질 듯이 웃었다.

"세상에, 재미있군! 사십만 프랑이라니! 네가 사십만 프랑을 냈다고? 니콜 씨에게서, 스물일곱 명 명단을 팔아먹은 그 사람에게서 말이야. 그래, 그 니콜 씨의 진짜 이름이 뭔지 내가 말해줄까? 아르센 뤼팽이지."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바보야. 나는 바로 방금 Stanislas Vorenglade 씨 댁에서 왔단 말이야. 그리고 Stanislas Vorenglade 씨는 사흘 전에 파리를 떠났어! 하하하, 이 얼마나 웃겨! 너한테는 낡은 종이만 팔린 거야. 사십만 프랑이라니, 정말 바보 같아."

그는 크게 웃으며 자리를 떴고, 프라스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르센 뤼팽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그가 위협하고, 명령하고, 프라스빌을 그렇게 거만하게 대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장난이었고 블러핑에 불과했다.

"아니,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총무가 중얼거렸다. "봉인된 봉투가 있는데. 여기 있어요. 그냥 열면 되죠."

하지만 그는 열지 못했다. 봉투를 손에 쥐고, 들어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의심은 그의 머릿속으로 빠르게 스며들었고, 결국 봉투를

열어 본 그는 안쪽에 하얀 종이 네 장이 들어 있다는 사실에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 녀석들과는 당해낼 도리가 없다.'

그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사실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뤼팽이 이렇게 대담하게 움직인 이유는, 그 편지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스타니스лас 보렝글라드에게서 그 편지들을 사들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보렝글라드가 파리에 없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프라스빌의 임무는 뤼팽이 보렝글라드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천만한 편지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문제였다.

프라스빌은 모자와 코트, 지팡이를 챙겨 내려갔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보렝글라드의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보렝글라드가 런던에서 돌아와 오후 여섯 시에 도착할 것이라고 들었다.

지금 오후 두 시였다.

프라스빌은 충분히 계획을 세울 시간이 있었다.

다섯 시, 그는 노르 가도에 도착해 데리고 온 형사들 세 사십 명 남짓을 대기실과 직원 사무실 양쪽에 배치했다.

그렇게 하고서야 그는 안심할 수 있었다.

니콜 씨가 보렝글라드에게 접근하려 들면, 뤼팽을 체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뤼팽이거나 뤼팽의 부하라고 의심될 만한 사람은 모두 잡았다.

또한 프라스빌은 역 전체를 철저히 순찰했다. 수상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여섯 시 십 분 전, 그를 안내하던 블랑송 경감에게서 이런 말이 나왔다.

"자, 다브렉이 있군."

사실 그人是 도브레크였다. 그 적대를 마주한 총무는 격분하여 그를 즉시 연행하려 할 정도였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 어떤 권한으로? 어떤 영장 하나 없이?

게다가 도브레크가 나타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보렝글라드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한층 더 분명히 증명했다. 보렝글라드가 편지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편지를 최종적으로 손에 넣는 이는 누구일까? 도브레크일까, 뤼팽일까, 아니면 프라스빌일까?

뤼팽은 그 자리에 없었고, 있을 수도 없었다. 도브레크는 맞설 형편이 아니었다. 따라서 결말은 불문율이었다. 프라스빌이 자신의 편지들

을 되찾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도브레크와 뤼팽의 협박에서 벗어나 그들 모두에게 다시 모든 영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었다.

기차가 도착했다.

프라스빌의 명령에 따라 역의 경찰서장은 플랫폼에 아무도 내려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프라스빌은 혼자 앞으로 나섰다. 그 뒤로는 블랑송 경감이 이끄는 여러 명의 형사들이 따랐다.

기차가 멈췄다.

곧이어 프라스빌은 1등 객차의 문턱에서 보렝글라드를 발견했다. 객차는 열차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다.

전직 의원이 내리더니, 함께 여행하던 노신사의 손을 잡아 도와주었다.

프라스빌이 재촉하듯 다가가며 급하게 말했다.

"보렝글라드, 너와 이야기할 게 있어."

그때 이미 통과해 있던 도브렉이 나타나 외쳤다.

"보렝글라드 씨, 당신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렝글라드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프라스빌과 도브레크를 알아본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 아! 내 귀환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워하시네. 무슨 일인가? 특정 서신에 관한 것이지?"

"그렇지, 그렇지!" 두 남자가 재촉하듯 대답했다.

"이미 늦었소."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 뭐라고?"

"그 서신은 이미 팔렸소."

"팔렸다니? 누구한테?"

"이 분께요." 보렝글라드가 곁에 선 동행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이 일이 작은 번거로움쯤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셨고, 아미앵까지 나를 마중나오셨소."

두꺼운 모피로 몸을 감싸고 지팡이에 의지해 구부정한 노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프라스빌은 속으로 생각했다. '뤼팽이군. 의심의 여지가 없네.'

그는 검사들 쪽으로 눈길을 던졌다. 곧 그들을 부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노신사가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이 편지들은 철도 여행을 몇 시간 하고, 왕복권 두 장을 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복권 두 장?"

"한 장은 제 것이고, 다른 한 장은 제 친구 것입니다."

"친구?"

"네. 그 친구는 몇 분 전에 우리와 헤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열차 앞쪽으로 달려갔죠. 매우 급해 보였습니다."

프라즈빌은 상황을 파악했다. 뤼팽이 동료를 데려간 것이다. 그리고 그 동료가 편지를 가지고 달아났다.

결국 패배는 확정적이었다. 뤼팽은 먹이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승자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곧 보자, 도브르렉. 내 이름을 듣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보렝글라드를 재촉하며 덧붙였다.

"너, 보렝글라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위험천만한 짓이야."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느님!" 전 의원이 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자리를 떠났다. 도브르렉은 단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채, 땅에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노인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속삭였다.

"이봐, 도브르렉. 정신 좀 차려야지, 친구… 혹시 클로로포름 탓인가?"

도브르렉은 주먹을 불끈 쥐며 둔탁한 신음을 냈다.

"아! 나를 알아보는군. 그럼 몇 달 전 그 만남도 기억하겠지. 람르틴 광장 네 집으로 찾아가 길베르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말이야. 그날 내가 이렇게 말했지. '무기를 내려놓아라. 길베르를 구해주면 너를 가만히 내버려두겠다. 그러지 않으면 스물일곱 명의 명단을 빼앗을 테고, 너는 끝장이다.' 자, 보아하니 넌 끝장난 것 같군. 이 선량한 뤼팽 씨와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젠가는 속옷 한 장까지 다 잃게 되거든. 어쨌든, 이걸 교훈으로 삼아라! 아, 돌려주는 걸 깜빡한 네 지갑이다. 좀 가벼워졌더라도 양해해 다오. 그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지폐 말고도, 네가 내게서 도로 빼앗아 간 엔기엔의 가구를 맡겨 둔 보관소의 보관증이 들어 있었어. 네가 직접 그걸 찾으러 가는 수고를 덜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지. 지금쯤이면 다 처리되었을 거야. 아니, 고맙다고 할 것 없다. 별것 아니야. 잘 가라, 도브르렉. 그리고 또 다른 유리병 마개를 사는 데 루이 한두 닢이 필요하거든, 내가 여기 있으니 말해라. 잘 가라, 도브르렉." 노인이 말했다.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쉰 걸음도 채 가지 않았을 때, 총성이 울려 퍼졌다.

그가 돌아섰다.

도브르렉이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쏜 것이었다.

"영원한 안식을."

뤼팽이 모자를 벗으며 중얼거렸다.

한 달 뒤, 사형이 종신 강제노역으로 감형되었던 길베르는, 프랑스령 기아나로 이송되기로 한 바로 그 전날 레 섬에서 탈출했다.

이상한 탈출이었다. 그 사소한 정황 하나하나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았고, 그것은 아라고 대로에서의 충격 사건과 함께 아르센 뤼팽의 명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했다.

"결국 내 말이지." 뤼팽이 말했다. 그는 내게 사건의 여러 단계를 하나하나 들려준 뒤, 이렇게 덧붙였다.

"이런 귀찮은 일을 내가 이렇게 고생한 적이 없었다. 정말이지. 우리 이 일을 '수정마개, 혹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 것'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군."

"아침 여섯 시부터 저녁 여섯 시까지, 단 열두 시간 동안. 나는 여섯 달간의 불운과 실수, 우왕좌왕했던 시간, 그리고 패배들을 모두 만회했어. 그 열두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로 꼽힐 거야."

"그리고 길베르, 그는 어떻게 되었지?"

"알제리 깊은 곳, 본명인 앙투안 메르기라는 이름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네. 영국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까지 뒀지. 그 아들을 아르센이라

고 지어주길 원했어. 나는 그에게서 자주, 그리고 유쾌하고 정겨운 편지를 받아. 자, 오늘도 한 통 왔네. 읽어봐라.

'보스님, 착한 사람이란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 종일 일할 생각에 설레고, 저녁에는 피곤에 절어 잠들 수 있다는 게요. 하지만 보스님은 아시겠죠? 아르센 뤼팽도 착한 사람일 수는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이 좀 특별하고, 교회에서 딱 좋아하시지는 않겠지만요. 하지만 괜찮아요. 심판 날, 그의 선행장이 너무 가득 차서 나머지 건 그냥 넘어갈 테니까요. 보스님, 잘 지내세요.'

이 착한 아이야." 뤼팽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메르기 부인은?"

"아들과 어린 자크와 함께 산다고 합니다."

"다시 만나셨나요?"

"아니요, 다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뤼팽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띠며 나에게 말했다.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에게 부끄러운 비밀을 하나 털어놓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늘 학생처럼 다정하고, 거위처럼 순진하다는 걸 아시죠.

그날 밤, 클라리스 메르기에게 돌아와서 그날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소식 중 일부는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첫째, 제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정반대로 그녀가 저에게 느끼는 감정은 경멸이나 원한, 심지어는 어떤 혐오까지 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 대체 왜 그런 거죠?"

"왜요? 클라리스 메르기는 매우 정직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아르센 뤼팽일 뿐이죠."

"세상에, 그렇죠. 매력적인 도적, 낭만적이고 기사도적인 절도범, 본래 나쁜 놈은 아니라고요… 뭐든 원하시는 대로 불러주세요. 하지만 성품이 정직하고 균형 잡힌 진정한 여성 앞에서는, 저는 그저… 뭐라 할까… 한낱 불한당일 뿐입니다."

그의 상처가 그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물었다.

"그럼, 당신도 그녀를 사랑했군요?"

"저는 오히려 그녀에게 청혼까지 했다고 봅니다." 그가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녀의 아들을 구해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물세례였는지… 우리 사이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녀를 잊었습니까?"

"오, 물론이죠. 하지만 저는 이탈리아 여인 한 명, 미국 여자 두 명, 러시아 여인 세 명, 독일 대공비 한 명, 그리고 중국 여인 한 명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

"그리고 그걸로, 그녀와 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나는 결혼했습니다."

"세상에! 당신, 결혼했다고요, 뤼팽?"

"당연히 결혼했습니다. 가장 합법적으로요.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죠. 외동딸이요.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았고요. 뭐, 이런 일을 모르셨나요?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인데."

그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았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기운이 솟구쳤는지, 뤼팽은 곧장 내게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앙젤리크 드 사르조-방돔 공주, 보르본-콩데 공작가의 공주, 지금의 마리아-오귀스트 수녀님, 도미니코회 수녀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그분과의 결혼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는 말을 시작하자마자 멈췄다. 마치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느껴진 듯했다. 그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만 숙였다.

"어떻게 된 거야, 뤼팽?"

"나? 별일 없어."

"아니, 분명히 그래. 자, 봐, 너 지금 웃고 있잖아. 도브르렉의 숨겨진 장소나 그의 유리 눈이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럼 대체 뭐야?"

"말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을 뿐이야."

"기쁜 기억?"

"그래! 맞아… 정말로 달콤한 기억이지. 그날 밤은 레 섬 앞바다였어. 클라리스와 내가 길베르를 데리고 타던 어선 위였지. 우리 둘만 배 뒤쪽에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말을 건넸고, 또 다른 말을 이어갔어. 마음속에 쌓여 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지. 그러자… 그러자 침묵이 찾아왔어. 그 침묵은 나를 흔들고, 결국 무너뜨렸지."

"그럼 어쨌다는 거야?"

"그래, 나는 진심으로 맹세하오. 그날 밤 내 품에 안겼던 여자, 내 입술을 맞았던 여자를요. 오, 오래가지는 않았소. 몇 초뿐이었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오. 그 여자는 감사한 어머니도, 감

정에 호소하는 친구도 아니었소. 떨리고 혼란스러운, 한 명의 여자였다는 것을요."

그가 비웃듯 웃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도망친 여자 말이지."

그는 다시 말을 멈췄다. 그러곤 나직이 중얼거렸다.

"클라리스… 클라리스… 내가 지치고 환멸을 느낄 날이 오면, 나는 너를 찾으러 가리. 아라비아의 작은 집으로, 하얀 작은 집으로.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클라리스. 나는 확신하오. 너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